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박사학위 논문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의 생애사에 나타난  
타자성 경험과 실천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A Narrative Study on the Experience and Practice  
of Otherness in the Life History of Visiting Educators  
for Multicultural Families



2023년 4월 2일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박 옥 현



교육학박사학위 논문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의 생애사에 나타난  
타자성 경험과 실천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A Narrative Study on the Experience and Practice  
of Otherness in the Life History of Visiting Educators  
for Multicultural Families



2023년 4월 2일

지도교수 장성민 · 김영순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박 옥 현



이 논문을 박옥현의 박사학위논문으로 인정함.

2022년 12월

주심 \_\_\_\_\_

부심 \_\_\_\_\_

위원 \_\_\_\_\_

위원 \_\_\_\_\_

위원 \_\_\_\_\_





##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의 생애사적 내러티브 탐색을 통하여 이들의 타자성 경험과 실천에 관한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다.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는 다문화가족의 한국어 교육 등을 위해서 2000년대 말부터 한국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직업이다. 그 동안 방문교육지도사는 한국어 교육을 매개로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을 만나고 대화하며 타자성을 실천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들의 다문화가정 돌봄은 한국 다문화 사회화가 안정기를 맞이하는데 이바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낮선 타자에 대한 인정을 타자성이라고 할 때, 이주민이 증가하는 한국의 현 상황에서 타자에 대한 논의는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그 동안 한국의 이주민 정책은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등을 정주민과 분리하여 우리와 타자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의 이주민 정책에서 정주민-이주민 간의 통합 관점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다문화 사회화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방문교육지도사의 생애사적 내러티브를 탐색하여 이들의 타자성 경험과 실천의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1960년대생 중년여성 중 10년 이상 현장 경험이 있는 방문교육지도사 4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고, 면대면 심층면담(회기당 100분~120분) 2회와 자료 점검 2회(회기당 40분~60분) 등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에 따라 방문교육지도사의 내러티브를 탐색하였다. 이러한 자료 분석을 통해 방문교육지도사의 타자성 경험과 실천의 의미를 도출하였다.

방문교육지도사의 생애 내러티브는 방문교육지도사 이전 시기와 방문교육지도사 시기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 선정된 방문교육지도사의 생애 이야기는 가정 환경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달랐다. 그럼에도 1960년대 출생한 방문교육지도사는 남아선호사상에 따른 인습적 사고를 경험하는 등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즉 열악한 가정 경제 환경에서 이들은 아들이 아닌 딸이었기 때문에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들은 이루고 싶었던 꿈과 배움의 열정을 놓치지 않았고, 중년에 이르러 고등교육의 기회를 마련



하였다. 이처럼 이들은 부단히 자신을 개발해 온 결과로 2000년대 시작된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에 합류할 수 있었다. 이들의 삶의 경험은 낯선 타자인 결혼이주여성을 울곧이 인정하며, 포용하는 타자성 실천을 위한 기초 토대가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인 다문화가족이 외면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식사를 돌보거나 친정엄마처럼 이들의 외로움을 달래주었고, 이들의 가정 경제는 물론 진로를 안내하는 등 이주민의 삶을 돌보는 돌봄 실천가로서의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탐색함에 있어 내러티브 탐구의 3차원적 탐구 공간(시간성 차원, 공간성 차원, 관계성 차원)을 탐색하였다. 이에 시간성 차원의 타자성 경험과 실천의 순환에서는 ‘가족애를 통한 타자성 인식’, ‘사랑의 빛 갇음’, ‘타자성 경험과 실천의 흐름’이라는 의미가 도출되었다. 공간성 차원의 타자성 경험과 실천의 영역 확장에서는 ‘방문교육지도사의 등지’, ‘한국인가정에서 다문화가정으로’, ‘다문화가정에서 지역사회 공간으로’의 의미가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관계성 차원의 타자성 경험 및 실천 관계의 심화에서는 ‘방문교육지도사-결혼이주여성의 타자 관계 심화’,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으로 타자성 관계 확대’, ‘자기 안의 타자 관계 재정립’이 도출되었다. 특히 방문교육지도사는 자신의 직업에서 지도사-학습자의 관계를 뛰어넘어, 10여 년의 세월 동안 서로의 안부를 묻고 평안한 삶을 기원해 주는 정신적 동반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을 돌보는 삶을 통해 방문교육지도사는 청소년기에 그려왔던 꿈(선생님, 외교관, 상담가 등)을 실현하였고, 일이 주는 즐거움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문교육지도사들의 생애사적 내러티브 탐색을 통해 이들의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와 방문교육 현장의 생생한 체험을 탐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구체적인 경험의 탐색 과정은 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장애물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방문교육사업의 발전을 모색하였다.

둘째, 1960년대생 중년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생애사 연구를 통해 이들이 살아온 196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한국의 사회·경제·정치 등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파악하였다.

셋째, 중년여성의 삶의 경험이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이주민 학습자가 마주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내는지 살펴봄으로써

이주민 정책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다.

넷째, 방문교육지도사들은 본인의 삶에 대한 내러티브 탐색을 통해 본인이 살아낸 삶을 이야기하고, 본 연구를 통해 이를 다시 이야기하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다시 살아가야 하는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

다섯째, 방문교육지도사와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어 교육을 매개로 만남과 대화를 이어가며,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는 정신적 동반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처럼 한국의 정주민-이주민 간의 관계 맺기는 사회통합을 위한 가능성 있는 해결 방안을 발견하게 되었다.

여섯째, 본 연구는 1960년대생 방문교육지도사의 생애사적 내러티브 탐색을 통해 연구자가 살아낸 삶 이야기와 함께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추구하는 우리들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었다.

핵심어 :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 중년여성, 직업 생애사, 내러티브 탐구





# 목 차

국문초록 .....	i
목 차 .....	v
표 목차 .....	viii
부록목차 .....	viii
<b>I. 서론 .....</b>	<b>1</b>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연구 문제 및 연구 내용 .....	5
3. 선행 연구 .....	7
<b>II. 이론적 논의 .....</b>	<b>15</b>
1. 이주민 정책과 방문교육사업 .....	15
1.1. 한국의 이주민 정책 .....	15
1.2.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	19
2. 직업 생애와 윤리 .....	25
2.1.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 .....	25
2.2. 돌봄 실천과 윤리 .....	30
3. 타자 철학과 관계 윤리 .....	35
3.1. 타자에 대한 윤리적 태도 .....	35
3.2. Buber와 Levinas의 관계 윤리 .....	41
4. 소결 .....	47

<b>Ⅲ. 연구방법</b>	<b>50</b>
1. 연구개요 및 연구절차	50
1.1. 생애사적 내러티브 탐구	50
1.2. 연구절차	52
2.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54
2.1. 연구자의 자전적 내러티브	54
2.2. 연구참여자의 특성	57
3.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	59
3.1. 자료 수집	59
3.2. 자료 분석	62
4. 연구 신뢰성 및 연구 윤리	65
<b>Ⅳ. 중년여성 방문교육지도사의 직업 생애 내러티브</b>	<b>69</b>
1. 연구참여자 A의 내러티브 : 배움은 쓸모가 있더라	70
1.1. 방문교육지도사 이전 시기	70
1.2. 방문교육지도사 시기	73
2. 연구참여자 B의 내러티브 : 나 정말 잘한 거 같아	77
2.1. 방문교육지도사 이전 시기	77
2.2. 방문교육지도사 시기	81
3. 연구참여자 C의 내러티브 : 저는 K-장녀입니다	86
3.1. 방문교육지도사 이전 시기	86
3.2. 방문교육지도사 시기	91
4. 연구참여자 D의 내러티브 : 방문교육은 활력이다	96
4.1. 방문교육지도사 이전 시기	96
4.2. 방문교육지도사 시기	101
5. 소결	105

<b>V. 방문교육지도사의 타자성 경험과 실천의 의미</b>	<b>111</b>
1. 시간성 차원 : 타자성 경험 및 실천의 순환	112
1.1. 가족애를 통한 타자성 인식	113
1.2. 사랑의 빛 갇음	116
1.3. 타자성 경험과 실천의 흐름	120
2. 공간성 차원 : 타자성 경험 및 실천의 영역 확장	123
2.1. 방문교육지도사의 등지	124
2.2. 한국인가정에서 다문화가정으로	127
2.3. 다문화가정에서 지역사회 공간으로	131
3. 관계성 차원 : 타자성 경험 및 실천의 관계 심화	134
3.1. 방문교육지도사-결혼이주여성의 타자 관계 심화	135
3.2.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으로 타자성 관계 확대	141
3.3. 자기 안의 타자 관계 재정립	144
4. 소결	160
<b>VI. 결론</b>	<b>165</b>
1. 요약	165
2. 논의 및 제언	170
<b>참고문헌</b>	<b>176</b>
<b>ABSTRACT</b>	<b>189</b>
<b>부록</b>	<b>193</b>

## 표 목차

<표 1> 한국의 이주민 정책 유형 .....	17
<표 2> Sadler(2006)와 Levinson(2012)의 진로발달 단계 .....	26
<표 3> 연구참여자의 특성 .....	58
<표 4> 1차 심층면담을 위한 반구조화 질문 개요 .....	60
<표 5> 연구참여자별 면담 일정 .....	61
<표 6> 타자성 경험과 실천의 의미 영역과 주제 분류 .....	112

## 부록 목차

<부록 1> 심의결과 통지서 .....	193
<부록 2> 연구설명문 및 참여 동의서 .....	194
<부록 3> 반구조화 질문지 .....	197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한 사회의 인구 구성은 국내·외의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화한다. 예컨대 1990년대 외국인 노동자, 2000년대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유입 등의 외부 요인은 다양한 이주 배경을 지닌 사회구성원의 증가로 이어졌다. 또한, 저출산, 노령화 등의 내부 요인은 연령 계층별 인구구성비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은 2021년 11월 1일 기준 2,134,569명으로 총인구의 4.1%이고(행정안전부, 2022), 초·중등 다문화 학생 수는 2022년 4월 1일 기준 168,645명으로 전체 학생의 3.2%에 달한다(교육부, 2022). 또한,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할 경우, 내국인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비중은 2020년 71.5%에서 2040년 55.7%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40년 총인구 대비 외국인의 구성비는 4.3%로 높아질 전망이다(통계청, 2022a).

한국 사회에는 인종, 종교, 국적, 문화 등의 이주 배경을 지닌 ‘다문화가족’이 탄생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구성원의 변화는 한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한국의 이주민 정책에서 ‘외국인’은 한민족, 한 핏줄을 강조해 온 한국 사회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 이주민 정책에 있어 Castles & Miller(2003)는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유형을 차별적 배제 모델(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과 동화주의 모델(assimilationist model) 그리고 다문화주의 모델(multicultural model)로 구분하였다. 또한, Berry(1997)는 이주민이 이주국의 문화에 어떻게 적응하는지에 따라 동화(assimilation), 분리(separation), 통합(integr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로 구분하였다. 원숙연(2008)은 이를 차용하여 한국의 이주민 정책을 동화(assimilation), 분리(separation), 변화(marginalization), 해체(dissolution)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한국의 이주민 정책에서는 ‘우리’와 ‘타자’로 구분되는 혈연중심의 이분법적 차별과 배제가 나타난다(원숙연, 2008: 25). 즉 한국의 이주민 정책에서 정주민-이주민 간의 통합 관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인간의 관계는 상호적이다(Buber, 1995: 28). 내가 너에게 영향을 주듯이 너



는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인간의 관계는 단순히 필요와 목적에 의해 맺어지는 ‘나-그것’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예컨대 ‘나-그것’의 관계에서 ‘그것’은 비인격적 존재로 대상화되며 ‘나’의 수단과 도구로 이용될 뿐이다. 그러나 ‘나-너’의 관계에서 ‘나’는 아무것도 대상으로 삼지 않으며 인격이 있는 주체로 ‘너’를 의식하고 있는 ‘너’ 그대로와 관계를 맺는다(Buber, 1995: 211).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이주민 정책을 살펴보면, 동화의 대상인 결혼이주여성을 찾을 수 있다.

한국 이주민 정책의 중심에는 결혼이주여성이 있다. 이들은 한국인의 피를 전달하는 ‘준 한국인’의 지위에 있으나(이종범, 2008: 4) 한국 사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컨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숙려기간도 없이 이루어진 초창기 국제결혼은 시작부터 극복하기 어려운 많은 갈등을 내포하고 있었다(박재규, 2011: 109). 즉 다수의 결혼이주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데,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적응도 못한 채 유아기와 아동기의 자녀들을 양육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언어발달이 지체되어 학업 등에서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는 자녀의 학교와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으로 이어진다(이선정, 2019: 1-2). 이처럼 한국의 다문화가족은 가족 간의 갈등과 가족해체 등의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형태의 문화 충격, 배우자와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출산과 양육 문제 등은 사회문제로 인식되었다(구차순, 2007: 2-3).

이에 한국정부는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고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는 ‘다문화가족’을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국적법에 따라 귀화, 인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꾸려나가고 사회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가족부는 해당 법령에 따라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다각적인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들 중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은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다. 본 사업은 2006년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관리기관으로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아동

양육 도우미<sup>1)</sup>를 양성하며 시작되었다. 본 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다문화가정의 부적응이 사회문제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정착과 적응을 위해 2008년 후반부터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은 시작되었다. 이때 아동 양육 도우미 경력자들 다수가 방문교육지도사로 재고용되어<sup>2)</sup>, 당시 막 시작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지탱하는 실질적인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정신희, 2020: 41). 이후 공식 명칭은 2015년 ‘방문지도사’에서 ‘방문교육지도사’로 변경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본 사업에서 방문교육지도사는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결혼이주여성과 자녀에게 한국어 교육, 가족생활지도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방문교육지도사는 다문화가정을 방문하며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주민을 만나게 된다. 이들이 만나는 주요 대상은 결혼이주여성,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다문화 배경을 지닌 다문화가족 자녀, 국외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온 중도입국 자녀 등이다(여성가족부, 2021a: 149). 이들이 하는 일로는 의무와 책임감을 지닌 교사의 역할과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에게 다양한 생활 전반에서 멘토의 역할 등을 한다. 또한, 이들은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에게 1:1 맞춤형 방문교육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 기술, 경험 등의 역량을 제공한다(주영옥·김미원, 2013: 119).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방문교육지도사는 다문화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와 다양한 역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깊이 있게 관찰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방문교육지도사의 ‘경험’은 다문화가정을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자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방문교육지도사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다. 한국의 안정적인 다문화 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를 이해하고, 다문화가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방문교육지도사들의 삶과 교육활동 경험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방문교육지도사들에 관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에 대하여 ‘살아있는 교과서’와 같은 이들의 ‘직업 경험과 타자성 실천’에 집중하였다.

2000년대 방문교육지도사는 다문화가족을 돌보는 소수의 돌봄 실천가였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은 초기 다문화 사회화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작은 씨앗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 동안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로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임무를 수행한 방문교육지도사의 경험은 귀한 가치를

1) 출처: 보건복지부, 2006-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생활 안내: 행복한 한국 생활 도우미.

2) 출처: 여성가족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007-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3년 사업백서(05-07).

지닌다. 특히 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에 대한 인정을 ‘타자성’이라 하는데(노상우·권희숙, 2009: 3), 방문교육지도사의 타자성은 나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온 차이를 가진 존재로서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 등을 타자로 인정하는 것에서 발견된다. 즉 타자 덕분에 나의 존재가 성립하는 것이고, 타자에 대한 무한책임이 ‘윤리’가 되므로, 이는 타자의 존재 자체를 ‘윤리’라고 말하는 Levinas의 철학으로 통한다(김영순·최승은 외, 2019: 467). 따라서 본 연구는 ‘방문교육지도사의 생애사적 내러티브를 통해 그들의 타자성 경험과 구체적인 실천’의 내용을 살펴보고, Buber(1995)와 Levinas(2018)의 ‘관계 윤리’ 관점에서 ‘방문교육지도사의 경험과 실천에 담긴 타자성 의미를 찾아 제시’하였다. 이렇게 본 연구는 정주민-이주민 간의 통합 관점을 제시하므로, 다양한 이주 배경의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이주민 정책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자아 중심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현대인의 자아 중심성이 아닌 타자를 중심으로 현대인의 삶을 되돌아보는 반성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 문제 및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방문교육지도사의 생애사적 내러티브를 통해 타자성을 탐색하고, 분석하여 이들의 타자성 경험과 실천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다. 한국은 다문화 사회화하며 정주민-이주민 간의 화합과 통합의 관점이 요구되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묵묵히 낮은 곳에서 이주민을 위한 돌봄을 실천한 방문교육지도사의 생애사적 내러티브에서 타자성 경험과 실천의 의미를 찾아 제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의 이주민 정책에 큰 의미가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방문교육지도사의 직업 생애에 나타난 삶의 내러티브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방문교육지도사의 직업 생애에 나타난 타자성 경험과 실천의 의미는 무엇인가?**

연구 문제에 따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문교육지도사 이전 시기, 방문교육지도사 시기로 구분하여 생애를 탐색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문제 2를 위해서 방문교육지도사가 본연의 임무를 담당하며 나타나는 내러티브에서, ‘타자성’ 경험과 실천의 의미를 탐색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연구 내용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 장은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문제 및 내용, 선행 연구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II 장은 이주민 정책과 방문교육사업에서 한국의 이주민 정책과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을 적고, 직업 생애와 윤리에서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와 돌봄 실천과 윤리를 적었다. 마지막으로 타자 철학과 관계 윤리를 중심으로 타자에 대한 윤리적 태도, Buber와 Levinas의 관계 윤리를 살펴보았다. 특히 방문교육지도사의 타자성 경험과 실천을 탐색하고 이의 의미를 찾기 위하여 Buber와 Levinas의 대화와 관계 윤리를 살펴보았다.

III 장은 연구방법으로 연구의 전체 흐름을 정리하였다. 우선 생애사적 내러티브에 대하여 기술하고,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 연

구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Ⅳ장은 연구 문제 1과 관련된 결과로서 면담자료, 연구참여자의 현장 사진과 진술, 연구자의 성찰일지 등을 기반으로 연구참여자별 생애 경험을 기술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참여자의 생애사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방문교육지도사 이전 시기, 방문교육지도사 시기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Ⅴ장은 연구 문제 2와 관련된 결과로서 타자성 경험과 실천의 의미 영역과 주제를 선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생애사적 내러티브 탐색이므로 내러티브 탐색의 3차원적 탐구 공간(시간성, 공간성, 관계성)을 기반으로 하여 의미의 차원과 주제를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시간성 차원에서는 ‘타자성 경험과 타자성 실천의 순환’으로의 의미들이 도출되었고, 공간성(장소) 차원에서는 ‘타자성 경험과 실천의 영역 확장’에 관한 의미들이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관계성 차원에서는 ‘타자성 경험과 실천의 관계’에 관한 의미들이 도출되었다. 특히 관계성 차원에서는 ‘방문교육지도사-결혼이주여성의 타자 관계 심화’와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으로 타자성 관계 확대’, ‘자기 안의 타자 관계 재정립’이 도출되었다.

Ⅵ장은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생애사 연구에 대한 제언과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된 한국 이주민 정책을 위한 시사점과 함께 향후 연구과제를 제언하였다.

### 3. 선행 연구

본 연구와 관련된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선행 연구들을 세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다문화 사회화와 이주민 정책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고, 다문화 이주민에 관한 생애사 연구와 이주민 활동가의 생애사 연구를 살펴보았다.

먼저 다문화 사회화와 이주민 정책에 관한 연구(김용신, 2011; 장임숙, 2011; 원숙연, 2008; 윤인진, 2016)를 살펴보았다. 김용신(2011)은 글로벌 시대의 상징으로 이주와 다문화를 들었다. 한국 다문화의 주요 동인은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하는 잠재적 이주민과 결혼이민자, 북한 이탈주민이 포함되는 지금의 이주민이다. 이들은 2006년 이후 한국 다문화 정책에 따라 등장한 경계 혼종자(border crosser)들인데, 한국 다문화 사회의 소수자들로서 가장 큰 문제는 이방인의 지위와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간의 부정합에 있다. 특히 한국 다문화 정책은 한국인과 혈연관계에 있는 결혼이민자와 그 가정의 자녀를 위한 적극적인 사회통합정책과는 다르게 이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차별과 무관심 등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 글로벌 정의는 경계의 개방과 소통이 중요하므로 형평성 있는 민주주의 관점의 연장을 제안하였다.

장임숙(2011)은 한국의 이주민 집단인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정책 현황과 정책성을 검토하고, 이주민 정책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국 이주민 정책의 정책성과 정체성을 파악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정부의 가장 중요한 이주민 정책 대상은 결혼이주여성이고, 중요한 정책 목표는 사회통합이며, 이주민 정책에 있어 동화주의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반면 이주노동자는 사회적 소수자가 아닌 ‘외국인’으로 간주하고 있고, 인력수급에 중요한 목표를 두고 이주노동자 정책은 단순 노무인력, 미등록노동자로서 규제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문가 집단은 결혼이주여성 정책에서 사회통합을 목표로 이들의 조기 적응과 정착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서비스 지원에 초점을 둔 분배정책을 펼치고 있다.

원숙연(2008)은 이주민 정책에서 나타나는 차별적 포섭과 배제를 중심으로 이론화를 시도하였다. 다문화 정책의 프레임을 동화, 분리, 주변화, 해체로 나누고 각 범주에 관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예컨대 한국의 이주민 정책에서 ‘외국인’에 대한 주목은 한민족, 한 문화, 한 핏줄이라는 대전제에 대한 도

전이 된다. 이에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로 축약되는 외국인 정책을 위해 정책의 속성(명확/고정적, 불명확/유동적), 정책의 방향성(포섭, 배제)을 제시하고 다문화 정책 프레임을 살펴보았다. 특히 포섭과 배제를 기준으로 첫째,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둘째, 사회 복지에 대한 기여 정도, 셋째, 사회적 권력의 유무를 제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Berry의 관점에 맞추어 동화(여성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자녀), 분리(합법 이주노동자, 화교), 주변화(새터민), 해체(불법 이주노동자, 남성 결혼이민자)를 살펴보았다. 한국 사회의 외국인 대상 정책에서 차별적 편입과 배제의 중심에는 혈통, 부계혈통 중심의 가부장적 인식, 대상 집단의 도구적 효용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윤인진(2016)은 한국인의 국민 정체성, 다문화 수용성, 외국인과 북한 이탈주민을 포함한 다문화 소수자들에 대한 인식과 선주민-이주민 간 관계 맺음에 관한 국내·외 사회조사 자료들<sup>3)</sup>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첫째, 한국인의 국민 정체성과 이민자에 대한 태도, 다문화 수용성, 둘째 한국이 다문화 사회가 되는 것에 대한 국민 인식, 한국인의 국가정체성에 나타난 다문화 사회로 변화함에 대한 태도,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태도, 셋째, 한국인의 다문화 소수자-이주노동자, 결혼 이민자,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국동포(조선족), 화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에서 주요한 특징은 공리주의적(utilitarian) 태도인데, 다문화가 국가경쟁력에서 도움이 될 때는 수용하나 단순한 문화 다양성 증대에서는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은 외국인 이주민을 대함에 있어 국민, 동포, 합법 신분, 선진국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었다. 2000년대 초, 다문화 소수자에 대한 온정주의적 태도는 2010년 냉담주의로 변화하였고, 더 이상 다문화 소수자를 피해자, 사회적 약자, 보호대상자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다문화 정책을 유지하기 어렵다. 윤인진(2016)은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는 한국 사회의 추세와 이에 어긋나는 국민의식에 따라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과 그 과정에서의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상징인 이주와 다문화 사회화에서 민주주의 관점의 형평성 있는 개방과 소통의 중요성을 논하였다. 반면 한국

3) 윤인진(2016)에 사용된 국내의 자료로는 첫째, 동아시아연구원과 고려대 아시아 문제연구소가 2005년 2010년, 2015년에 걸쳐서 실시한 한국인의 국가 정체성에 관한 수집자료, 둘째, 윤인진·김춘석 외(2014)가 실시한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국민 의식 및 차별 실태조사 설문자료, 셋째, 2003년, 2013년 실행된 ‘국제사회조사(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가 사용되었다(윤인진, 2016: 128-129).

의 이주민 정책은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동화주의 패러다임에 따라 결혼 이주여성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합을 목표로 두고 있었다. 즉 한국 이주민 정책은 포섭과 배제의 정책 방향성에 따라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는 동화 정책을, 합법 이주노동자와 화교는 분리 정책을, 북한이탈주민은 주변화 정책을, 불법 이주노동자, 남성 결혼이민자는 해체 정책을 펴고 있었다. 한편 2000년대 초반 다문화 이주민에 대한 온정주의적 태도는 2010년 냉담주의로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다문화정책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즉 가속화하는 다문화 사회화에 어긋나는 국민 의식에서 한국의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험난한 여정이 예고된다. 따라서 다양한 이주민의 배경을 이해하고 한국적 특성을 반영하는 이주민 정책을 통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이주민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로 다문화 이주민에 관한 생애사 연구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 주제는 최근 들어 점점 많고 다양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주민의 한국 삶의 경험에 관한 연구(허숙·김영순, 2021; 이은정, 2018; 황해영·김영순, 2017b; 정용미·박병섭, 2021; 강영미, 2015)에 집중하였다. 허숙·김영순(2021)는 재한 이주민 사업가의 생애사를 통해 사회통합 경험을 전해주었다. 허숙·김영순(2021)는 한국 거주 7년 이상, 사업 경험 3년 이상인 이주민 사업가 6명의 이주 전, 이주 초기, 현재, 미래 삶을 생애사 주기별로 분석하고 사회통합과정과 의미를 적었다. 이주민 사업가들은 유학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이주하였으나, 한국 사회에 장기 체류하게 됨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다민족국가에서 가족의 초국적 이주 경험으로 인해 2~6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주로 식당이나 중고 자동차 수출, 국제물류 분야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이들은 고국을 포함한 초국적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인이 되려는 목적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 이처럼 한국 사회와 고국에 동시적 정체성, 소속감을 느끼고 있는 이들은 다중 통합의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허숙·김영순(2021)는 한국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과의 공존과 상생을 위한 사회통합정책 과제와 실천을 위한 자료와 함께 지속적 소통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은정(2018)은 최초의 정착형 이주민인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에서의 노동 경험과 의미를 적었다. 연구결과, 결혼이주여성들은 배우자의 건강 문제, 책임 회피 등에 따라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를 위해



즉각적 경제 보상이 주어지는 단순 노무 임금노동자의 지위를 거치는 경향이 있고, 노후 불안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4대 보험이 가능한 직장에 대한 선호가 발견되었다. 또한, 이들은 한국 사회 노동시장에서 평일과 주말, 낮과 밤의 구분 없이 경제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 가족 내 지위는 상승하였고, 이는 가족의 범주를 벗어나 지역사회로 확장되고 있었다.

황해영·김영순(2017b)는 국내 이주민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중국 동포들 중에서 여성 단체장을 통해 이주민의 인정투쟁 경험을 적었다. 조선족 여성 연구참여자는 중국 내 우수 민족으로 인정받았던 경험이 있었기에 한국 사회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시각들에 대하여 인정투쟁을 벌이게 되었다. 먼저 이주해온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동포 손님에서 시작된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꾸준히 중국동포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었다. 이와 같은 그녀의 믿음과 욕심은 가족의 인정을 넘어 중국 출신 동포들의 공감과 연대감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중국동포 이미지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과 동포사회 경제력 향상을 위한 경제 교육 등을 이어가며 한국 주류사회와의 상호인정과 협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용미·박병섭(2021)는 1인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사회 적응 경험을 Rosenthal 내러티브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연구방법에 있어 Rosenthal(2014)에 의해 정교하게 구조화된 내러티브 생애사 분석 방법을 선택하였는데, 이는 생애사 연구의 세 가지 특징인 시간성, 주관성, 이야기기성 중에서 이야기기성에 초점을 맞춘 내러티브 생애사 연구 분석 방법이다. 예컨대 현재 관점에서 이야기된 생애사와 과거 관점에서 체험된 생애사가 어떻게 구조되어 주제 영역들로 생성되었으며, 그 발생 기원은 어떠한지를 전 생애사적 관련 속에서 해석하고 설명하는 분석 방법으로 이를 위해 생애사를 이야기된 생애사와 체험된 생애사로 구분하여 재구성 절차와 연속 절차에 따라 귀추적으로 접근하는 분석방법이다(Rosenthal, 1995: 양영자, 2013 재인용). 이에 정용미·박병섭(2021)는 연구참여자가 선택한 과거 경험의 의미와 해석을 통해 삶의 재구성을 내러티브 생애사 분석을 통해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연구참여자는 베트남에서의 보잘 것 없는 삶에서 벗어나고자 선택한 결혼이었으나,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려 최선을 다하고, 아들에게 훌륭한 어머니로 거듭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며 수용적 삶을 살았기에 연구참여자의 삶은 ‘스스로 서서 삶을 구성하다’로 요약되었다.

강영미(2015)는 1인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자기복원생애를 Rosenthal의 내러티브 분석 방법으로 접근했다. 연구결과, 연구참여자는 빈곤 탈출을 위한 생존 전략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했지만, 한국에서 탈빈곤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경험을 하였다. 연구참여자에게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풍요만을 추구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외연을 확장하고, 같은 처지의 고국 동포를 돕는 것으로서 삶의 가치를 바꾸게 한 곳이었다. 특히 연구참여자의 삶의 행로 변경에서 강점 지지체계의 역할을 하는 ‘모국 종교공동체’는 연구참여자에게 중요한 지지역할을 함으로서 스스로 정체성을 복원하도록 하였다. 강영미(2015)는 한국 사회에서 한 결혼이주여성의 디아스포라적 삶 속에 나타나는 ‘사랑의 빛 갚음’에 대한 생애사적 서사를 통해 전 지구적인 이주의 시대에 ‘공동 선(善)’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보편적 윤리의 사랑 이야기로서 ‘상생’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다문화 이주민들이 경제적 목적으로 선택한 한국 사회에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였으나 사회통합 프로그램, 동료의 도움, 종교공동체 등에서 힘을 얻고, 먼저 이주해온 이로서의 사명감, 사랑의 빛 갚음 등을 통해 공동 선을 추구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하였다. 특히 Rosenthal 생애사적 연구방법은 역사적인 시대상황과 사건 등을 통해 연구참여자가 스스로의 삶을 재구성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들의 현실적 모습과 실천적 배경을 더욱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초국적 이주민을 돕는 활동가들에 관한 생애사 연구(석영미·이병준, 2017; 이병준·석영미, 2015; 전보람, 2017; 배경임·김영순, 2019)를 살펴보았다. 석영미·이병준(2017)는 이주민 활동가의 학습 생애사를 통해 변모하는 이주민의 역할과 정체성을 전해주었다. 초기 이주민들과 다르게 현재의 이주민들은 한국 사회의 곳곳에서 역량을 키우고 있었다. 특히 지원과 수혜의 대상이었던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등은 자기 삶에 있어 주체성을 확보하고 자신의 이주 경험을 바탕으로 이주민을 돕는 활동가로 변모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이주민으로서 동료 이주민을 돕는 2인 활동가인데, 이들의 생애사를 통해 활동가가 되기까지의 삶의 맥락과 학습 과정을 생애사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들의 이주 배경은 달랐으나 이주라는 공통 경험을 통해 모국과는 전혀 다른 문화적 상황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주 초기 낮은 상황 속에서의 갈등과 혼란을 뒤로하고 현재는 이주노동자 공동체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당당히 실무자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는 이주

초기 ‘소극적 타자’에서 ‘능동적 주체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의 변화와 성장을 경험한 것으로서 이들이 학습 생애사를 통해 무형식 학습에 의한 다문화교육의 중요성과 스스로 학습과정을 구성하고 활동성을 발현하는 이주민을 확인하며, 새로운 다문화 사회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병준·석영미(2015)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문화적 학습을 통해 전문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직업 생애사로 적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실무자들은 이주민과 정주민 간의 교류 역할을 수행하는 다문화실천현장의 새로운 전문인이라 할 수 있다. 전문성은 단순히 관련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한 체화과정이 중요하다. 특히 다문화 전문인력들은 업무의 특성상 업무 자체에 대한 사전지식보다 현장에서 업무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형성되므로, 이와 같은 무형식 학습을 설명할 수 있는 문화적 학습이론을 통해 전문성 형성과정을 알아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연구참여자 5인을 선정하고, 직업 전문성 형성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개인의 경험을 살펴보는 생애사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연구결과, 전문성 형성과정은 입문기, 적응기, 성장기, 주도기를 거쳤다. 이들은 전문성 형성과정에서 이주민 중심의 능동성을 발휘하게 되었고, 단순 문화차이를 기반으로 하는 이해가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이주민의 삶을 계획하고 배려하는 기다림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긍정적 변화와 성장은 물론 열정, 기대감, 사명감을 경험하게 되었다.

전보람(2017)은 다문화 복지에 관한 기존의 이론들을 비판하며 다문화 복지 실천가를 통해 Levinas의 타자 윤리학이 현장에 존재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다문화 복지 실천가로 활동하는 실무자 5명을 심층 면접하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Levinas의 책임 윤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실천은 존재하고 있었다. 이들은 ‘주체성을 지닌 클라이언트와 대면’ 하면서 다름을 발견하고 존중하며 책임감을 느꼈다. 이에 서로를 지지하였고 ‘동반자로서의 관계 맺음’을 경험함에 따른 동등한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다. 이들은 클라이언트의 입장을 고려하며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예컨대 클라이언트의 특성과 욕구에 맞추어 접근하고, 클라이언트가 가정과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 자립을 도왔다. 연구참여자들은 갈등 상황의 중재자, 한국을 연결하는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반면 한정된 자원과 결과 중심의 실적평가에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다문화 복지 실천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실무자들은 ‘자기성찰’을 통해 이주민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한국

내 이주민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기를 바라며 ‘자신을 넘어선 실천가로서의 성장’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전보람(2017)은 다문화 복지 실천가의 경험을 포착하여 이론적 접근을 제시하였는데, 다문화 복지의 성격에 어울리는 사상가로서 타자 윤리학으로 대표되는 Levinas의 책임 윤리학을 제시하였다. 즉 한국 다문화 복지가 나아가야 할 윤리적 방향을 풍성하게 하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배경임·김영순(2019)는 이주민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재직 성직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생애에서 타자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타자성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것이 아니기에 삶 속에서 그 형성과정을 알아봄이 필요하다. 이에 연구참여자들의 어린 시기, 청년 시기, 이주민지원센터 활동 초기 등 생애사적 주요 사건들을 통해 타자성 형성에 있어 시간적, 사건적 배경을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연구참여자들의 1차 사회화 경험에서 타자성 형성의 영향을 발견하였다. 주로 대학생 시기에 연구참여자들은 자아를 발견하고 타자성을 견고히 하였다. 낯선 이주민의 얼굴을 통해 점차 자기 삶을 반성하며 동일시를 경험하게 된다. 타 문화에서 타인을 수용하고 이들을 대신하는 삶을 경험하며 타자성을 형성하게 된다. 반면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사에는 시대성이 반영되었는데, 역사적 사건 속에서 자신과 타자를 상호 이해하게 되었다. 배경임·김영순(2019)는 본 연구의 시사점을 통해 이주민 활동가들의 타자성 형성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의 확대를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의 다문화 사회에서 이주민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은 다양한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양적연구방법과 질적연구방법에서 매우 풍성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반면 이주민의 생애사 연구는 쉽게 찾을 수 있으나 다문화 활동가들에 대한 연구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한정할 경우, 센터 실무자를 중심으로 하는 직업 생애사 연구(이병준·석영미, 2015)는 찾을 수 있으나 이주민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이들의 내밀한 삶을 담고 있는 방문교육지도사의 생애사 연구를 찾기는 더욱 쉽지 않다. 또한 타자성이 요구되는 다문화 사회에서 타자성의 형성과정에 대한 생애사 연구(배경임·김영순, 2019)는 찾을 수 있으나 타자성 경험과 실천에 관한 생애사 연구를 찾기는 쉽지 않다.

타자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타자성이라고 하는데, 거스를 수 없는 한국의 다문화 사회화에서 타자성 경험과 실천의 주체들에 대한 생애사 연구는 다문

화 활동가들에게 시사하는 바와 도전하는 바가 클 것이다. 또한, 그 대상을 일반 사회구성원으로 할 경우, 종교인, 실무자 등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높을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재고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대상으로 진행하는 방문교육지도사가 어떻게 타자성을 경험하는지 생애사 방법으로 접근하는 연구는 매우 의미있는 시도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들의 타자성이 어떻게 시작되고 실천되는지를 밝히려는 시도는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의의가 있다. 기존 선행연구가 타자성 형성에 집중했다면 본 연구는 타자성의 실천 관점에서 특히 중년여성들이 어떻게 공적 역할을 맡게 되고 그 동안의 삶 속 배움과 경험을 타자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실천하는지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과 독창성을 찾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방문교육지도사의 삶을 살피는 생애사 연구방법을 적용하는 것 또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 II. 이론적 논의

### 1. 이주민 정책과 방문교육사업

#### 1.1. 한국의 이주민 정책

이주민 정책에 관하여 Castles & Miller(2003: 76)는 다문화 사회에서 이질 문화로 대변되는 외국인노동자를 받아들이는 유형을 세 가지 모델로 구분하였다. 첫째, 차별적 배제 모델(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은 노동력이 필요한 유입국 사회가 외국인노동자, 이주자를 3D업종 등 특정 경제영역에서만 받아들이고, 복지혜택은 물론 국적, 시민권, 선거권/피선거권 등의 부여를 절대 부여하지 않는 것을 일컫는다. 차별적 배제 모델을 채택하는 나라는 주로 국민을 혈연공동체로 정의하는 나라들인데, 1950년~1960년대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일 때, 그들을 국민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것이 이에 속한다. 결국, 차별배제 모델을 견지했던 독일에서의 외국인 노동자는 영원히 소수자로 남게 되었다.

둘째, 동화주의 모델(assimilationist model)은 외국인노동자나 이주민이 유입국의 언어, 문화, 사회적 특성을 수용하는 것을 일컫는다. 동화주의 모델은 이주민이 유입국 사회의 성원이 되기를 위하여 동화할 때만 국민으로의 합류를 허용하는 정책이다(설동훈·이혜경 외, 2006). 이에 따라 다양한 출신의 이주자는 고유한 자국의 문화와 전통을 버리고 새로운 주류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결국 다수를 차지하는 주류 사회에 용해되어 단일한 성격의 국민으로 용해된다. 동화주의 모델을 채택하는 나라로는 1960년대 까지 미국의 이민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 여러 유럽 국가에서도 본 모델을 찾을 수 있다. 이들 중 프랑스가 ‘동화주의 모델’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화주의 모델은 차별적 배제 모델보다 소수자들에게 우호적인 것으로 비칠 수 있으나 소수자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두 모델은 다르지 않다.

셋째, 다문화주의 모델(multicultural model)은 이주민이 그들의 문화를 지켜

가는 것을 인정하고 장려한다. 이를 위한 정책 목표는 주류 사회로의 소수민족의 동화주의가 아닌 공존(coexistence)에 있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스웨덴 등은 정부의 이민정책으로 다문화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주류 사회가 문화적 가치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점과 국가가 소수민족 집단의 동등한 권리 확보를 위해 조치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다양성에 기반을 둔 국민통합정책이라 할 수 있다. 위의 세 가지 다문화 정책 모델은 세계 각국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이주자 통합정책 또는 다문화정책을 연구하는 분석 틀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소수자의 위상을 중심으로 보면, 소수자들의 설 자리를 찾을 수 있는 모델은 다문화주의 모델에 있다(김대균, 2008: 189-191). 서구사회는 이주민 정책에 있어 차별적 배제에서 출발하여 동화주의를 지나 점진적으로 통합을 이해하고, 최종적으로는 다문화주의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 이주민 정책의 분석을 위해 원숙연(2008)은 포섭과 배제라는 정책의 방향성과 견고성, 명확성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의 정체성을 두 축으로 삼았다. 정책 방향성의 포섭과 배제 기준은 첫째, 그럴만한 가치(worthy)나 자격(deserving)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이다. 이는 소수자 집단의 사회적 평판이나 이미지와 관련된 것으로 평판은 특정 사회의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소수 집단이 기존의 사회 질서와 기득권에 위협이 된다고 인지된다면 배제의 대상이 된다. 둘째, 도구적 효용성을 기준으로 소수 집단이 정책 대상 집단으로서 사회 전체의 복지에 대한 기여 여부이다. 예컨대 미국의 제대 군인은 국가의 안위에 있어 충분히 “자격 있는” 집단으로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적극적으로 정책에서 포섭되었다. 또한, 한국의 결혼이주민은 농촌 총각과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 등에 있어 일정 부분 사회 문제에 이바지하였다. 이에 따라 그들에 대한 수용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그 예가 된다. 셋째, 특정 집단이 사회적 권력을 가지는지 여부이다. 정책과정의 편입과 배제에 있어 특정 집단의 권력의 크기는 해당 집단의 위치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다문화정책 프레임은 견고성과 명확성을 기준으로 하는 집단 정체성이다. 정체성의 근거는 성별, 인종처럼 생물학적, 고정적, 가시적이며, 이해관계, 경험, 정향성처럼 비가시적, 유동적 요소가 포함된다. 정체성의 형성은 그 방향성에 있어 소수자 내부의 결집력이나 제도화 정도를 나타내는 내부적 정체성과 ‘우리’와 ‘타자’의 이분법적 구조 아래 부여되거나 투영되는 외부적 정체성으로 구분된다(원숙연, 2008: 35). 특히 외부적 정체성은 타자와의

상호주관적 관계에 기초한 ‘인정(recognition)’을 핵심으로 하는데, 이는 공동체 일부를 타자화, 외부화하여 소수자로 만든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은 강력하다(유명기, 2004: 11). 이렇게 외부적으로 부여되는 정체성은 내부적 정체성보다 강할 수 있다. 또한, 외부적 정체성은 타율적이기는 하나 나름의 분명하고 고정적인 정체성을 갖출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체성의 형성, 유지 방식은 소수 집단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정체성은 정적인(static) 상태만이 아니라 동적인(dynamic) 과정을 포함한다(원숙연, 2008: 35).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원숙연(2008)은 정책의 방향성과 정체성의 속성을 두 축으로 하는 다문화 정책 프레임을 설정하고, Berry(1997)의 이주민 적응유형<sup>4)</sup>을 차용하여 한국의 이주민 정책을 동화(assimilation), 분리(segreg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 해체(dissolution)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한국의 이주민 정책 유형<sup>5)</sup>

구분		정책의 방향성	
		포섭/ 편입(inclusion)	배제(exclusion)
정체성의 속성	명확/고정적	동화(assimilation): 여성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자녀	분리(segregation): 합법 이주노동자 화교
	불명확/유동적	주변화(marginalization): 북한이탈주민	해체(dissolution): 불법 이주노동자 남성 결혼이민자

한국의 이주민 대상 정책을 보면, 첫째, 여성 결혼이민자와 그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동화 유형 집단이 있다. ‘여성’ 결혼이민자는 저출산 문제, 한국 사회의 농촌 총각 결혼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한국인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아 미래의 한국인을 생산하는 ‘준-한국인’으로서의 정

4) Berry(1997: 296)는 새로운 환경에서 이주민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적응한다고 하였다. 그는 이주민의 심리적 문화적응을 원 문화의 정체성과 특성들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지, 주류 사회와의 관계 유지가 중요하다고 보는지에 따라 동화(assimilation), 분리(separation), 통합(integr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 유형으로 나누어 소개하였다(채정민, 2003: 18).

5) 원숙연(2008: 36) 재구성



체성을 부여받는다. 즉 이들은 외부적 정체성을 부여받는 정책 대상 집단으로, ‘완전히 다른 피’를 가진 외국인 집단과는 구분된다.

둘째, 합법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화교를 대상으로 하는 분리 유형 집단이 있다. 외국인 노동자는 정체성 측면에서 볼 때 결혼이주여성처럼 이들은 다양한 국적을 가지고 있기에 집단 내 동질적 정체성의 공유는 찾기 어려우나 외부적으로 부여되는 정체성은 비교적 명확하다. 예컨대 종교 단체를 시작으로 이주노동자 인권연대,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등의 노동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고 그들의 시민권과 노동권을 주장함으로써 정체성을 확인받고 있다(설동훈, 2004: 468-486; 원숙연, 2008: 39; 이선옥, 2007: 81-106).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계 민족의 통칭인 화교는 1880년대부터 한국에 거주해온 외국인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화교인 한화(韓華)의 내적 정체성은 상당히 명확하고 강한 편이다. 이는 오랫동안 견지해온 한국정부의 배제와 차별정책 기조가 이들의 내적 정체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해 왔다. 특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는 차이나타운이 없다 할 정도로 화교에 대한 한국 사회 및 한국정부의 태도는 비동화적 분리주의로 나타난다(원숙연, 2008: 40).

셋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변화 유형이다. 북한이탈주민은 1990년대 중반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2020년 3월 기준, 33,501명에 달한다(통일부, 2020).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왔다는 공통점은 있으나 탈출동기, 출신배경 등이 다름에 따른 불이익으로 인해 상호융합하지 못하므로 내부적 집단 정체성은 부족하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민족 및 인권적 차원의 동정심은 가지고 있으나 북한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인해 외부적 정체성도 다소 유동적이다(원숙연, 2008: 41).

넷째, ‘남성’ 결혼이민자, ‘불법’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해체집단 유형이다. 우선 남성 결혼이민자 집단을 여성 결혼이민자 집단과 다르게 한국정부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 이는 여성 결혼이민자에 미치지 못하는 수적 열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남성 결혼이민자 집단은 공식적 정책 대상 집단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언어 및 다양한 프로그램은 물론 체류자격 등에 있어 여성 결혼이민자와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정혜실, 2007: 167-193).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이주민 정책에서는 한국인의 피를 중심으로 하는 차별과 배제를 찾을 수 있다. 예컨대 ‘여성’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자녀는 한국인의 피를 전달하므로 동화(assimilation)의 대상이나 ‘남성’ 결혼이민자는 해체(dissolution)의 대상임을 발견할 수 있다. 2000년대를 전후하여 시작된 한국의 다문화 사회화는 2017년 국내 체류 외국인 200만 명의 시대를 맞이하였고, 이러한 다문화 사회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이주민 유입 정책의 기조에 맞추어 정주민-이주민 간의 통합 관점을 찾아보려 한다.

## 1.2.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한국 이주민 정책의 중심에는 ‘가족’이 있었다(도미향·주정 외, 2019: 97). 그 동안 한국은 단일 민족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한국인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아 한국인의 자녀를 생산하는 여성 결혼이민자는 준-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 받았다(원숙연, 2008: 37).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2006년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대통령 자문기구)와 여성가족부 등 12개 부처는 공동으로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특히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며, 다문화가족정책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다문화가족’은 법률용어가 되었다(정신희, 2018: 208-20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80개의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손제령·김경화, 2009: 29) 전국적으로 확장되어 2021년 1월 기준<sup>6)</sup>, 서울(25), 부산(14), 대구(8), 인천(9), 광주(5), 대전(5), 울산(5), 세종(1), 경기(31), 강원(18), 충북(12), 충남(15), 전북(14), 전남(22), 경북(23), 경남(19), 제주(2) 등 전국 시·도·군에 총 228개소에 달한다(여성가족부, 2021b).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과 자녀 교육·상담, 통·번역 및 정보제공, 역량 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조기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

6) 출처: 가족 >주제별 정책자료 >정책 자료실 >정책정보 >여성가족부 - 2021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입니다. (mogef.go.kr)/검색일:2022.2.17.

립 지원을 도모한다(여성가족부, 2022: 151).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센터를 운영하는 직영센터(법 제12조제1항)가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는 위탁센터(법 제12조제2항)가 있다(여성가족부, 2022: 162).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기본 프로그램과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2: 169). 이들 중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대표사업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조(목적)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생활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와 제7조(평등한 가족 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에 따라 추진된다(방현희·이미정, 2014: 220). 특히 제6조(생활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 제3항<sup>7)</sup>과 제4항<sup>8)</sup>에 따라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에게 무상 또는 차등하여 지원된다. 특히 제7조<sup>9)</sup>에 따라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첫째, 도서벽지에 거주하거나 교통비 부담 등 형편이 되지 않는 다문화가족에게 직접 찾아가는다. 둘째, 임신이나 출산 직후 또는 어린아이나 어르신을 돌보느라 가정을 비울 수 없는 다문화가족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장애가 있거나 부상, 질병 등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바깥출입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지원한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서비스는 가정 형편으로 인하여 교육 장소에 참석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방문교육지도사가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2).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3항은 다음과 같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등과 배우자 및 그 가족 구성원이 없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교재와 강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4., 2017. 12. 12.>”

8)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4항은 다음과 같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방문교육의 비용을 결혼이민자 등의 가구 소득 수준, 교육의 종류 등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 2017. 12. 12.>”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7조는 다음과 같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가족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 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 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살펴보면, 첫째, 한국어 교육서비스가 있다. 한국어 교육은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의 언어 장벽과 문화 충돌 등의 해소를 위해 1:1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이는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이거나 만 19세 미만 중도입국 자녀<sup>10)</sup>가 이용할 수 있는데, 본 서비스에서는 4단계의 한국어 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둘째, 부모교육 서비스는 현재 임신 중이거나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이민자에게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자녀를 올바르게 지도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본 서비스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생애주기(임신 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에 맞추어 이용할 수 있다. 본 서비스는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족 관련 상담 서비스와 가족 간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정서적인 지원, 그 외에도 한국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된다. 셋째, 자녀생활서비스는 학업 성취도가 낮거나 사회성이 부족한 자녀의 정체성 및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사회, 문화, 인지, 교육, 생활 등의 영역을 지도한다. 본 서비스는 만 3세에서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 자녀가 이용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비용은 소득 기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2022년도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 가구 소득 기준을 보면, 2022년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는 ‘가형’으로 분류되어 13,860원(원/시간)의 정부지원금이 제공되고, 2022년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인 경우는 ‘나형’으로 분류되어 정부지원금 9,710원과 본인부담금 4,150원이 적용된다(여성가족부, 2021). 본 서비스에서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인지, 자아·정서·사회, 문화 역량 강화, 시민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2).

2007년 농림부에서 ‘한국어 교육 지원사업’이 진행되었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아동 양육 지원사업’이 진행되었다(조영아, 2013: 120).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며, 두 사업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으로 통합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그 명칭 또한 변경되었다. 예컨대 초기의 ‘방문지도사’는 2015을 기준으로 ‘방문교육지도사’로 변경되었다(이선정, 2019: 14). 방문교육지도사는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지도, 가족 상담 등의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노영

10) 본 방문교육사업에서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이나 취업 등의 사유로 부모를 따라 입국한 자녀, 국제결혼, 재혼가정, 이주노동자 자녀 등을 말한다.

혜·김원중, 2019: 178). 이를 위하여 방문교육지도사는 한국어 교육 지도사와 가족생활지도사로 나뉘는데, 이들의 응시 자격<sup>11)</sup>을 보면, 첫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둘째, 공고일 현재 해당 시 또는 인근 시·군 거주자, 셋째,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넷째, 운전 가능한 자를 우대하고 있다.

응시 자격으로는 보육교사·교원(유치원교사자격 포함)·건강가정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이다. 이들은 채용되어 방문교육지도사로 활동하기 전 온라인 교육 및 집합 양성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특히 방문교육지도사로 3년 이상 활동하고, 퇴직한 지 3년 미만인 지도사의 경우 집합 양성 교육 없이 재채용이 가능한데, 단, 온라인 양성 교육과정의 8시간을 이수한 후 채용된다. 매해 계약이 갱신되는 방문교육지도사의 근로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하는데, 방문교육(생활)지도사는 매주 4가구를 주 2회씩(1회 2시간, 주 16시간 이하) 서비스 대상의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서 결혼이민자 부모교육 서비스 및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 및 자녀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대한 급여 수준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침에 준하나 4대 보험에 가입된다.

방문교육지도사의 급여 수준에 있어 원칙상, 일주일에 4가정을 맡아 주 2회 2시간씩 5개월을 한 회기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매월 활동비로 80여만 원을 받는다. 특히 방문교육지도사는 매해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비정규 노동자로서 직무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방문교육지도사는 다문화가족의 복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직업으로서의 업무조건과 대우 등에 있어 복지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이오복, 2014: 6093).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방문교육지도사의 어려움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예컨대 한국어지도사는 결혼이주여성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하므로 그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반면 가족생활지도사(구, 아동양육지도사)는 결혼이주여성이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과 가족 상담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방문교육지도사가 전달하는 자녀 양육과 교육방법은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의 주관적인 가치관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가족생활지도사는 한국어지도사보

---

11) 참고: <충남 계룡> 계룡시 가족센터 방문교육지도사 및..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검색일:2022.2.18.

다 역할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손제령·김경화, 2009: 39). 또한 방문교육지도사의 역할에서 한국어 교육은 방문교육 활동 매뉴얼에 따라 활동하기 용이하지만, 가족생활지도는 활동 매뉴얼의 활용이 용의하지 않기 때문에 역할 갈등 및 역할 모호성에 있어 많은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주로 한국에 온지 5년 미만<sup>12)</sup>의 결혼이주여성을 교육하기 때문에 한국어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가족생활지도에서는 한국어 교육보다 더 많은 역할갈등이 발생하고, 대상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족 문제에 개입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더욱 많은 역할갈등을 경험하게 된다(손제령·김경화, 2009: 41-42).

이처럼 방문교육지도사가 느끼는 어려움을 정리하면, 첫째, 시간, 재정, 역할 경계의 모호성이다. 예컨대 실제 방문교육은 하루 2시간씩 4가정에서 활동한다. 가정마다 교육 내용이 다르고, 교육 자료를 찾고 준비하기 위한 시간과 이동하는 시간 등에서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은 교육시간 이외에도 수시로 방문교육지도사에게 전화하므로 활동 시간에 대한 경계가 모호하다. 다문화가정의 경조사나 갑작스러운 병원 진료 등을 외면할 수 없고, 이유식 만들기, 김치 담그기, 빨래나 청소, 아기 목욕 등 살림 전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므로 이들의 역할은 매뉴얼의 범위를 넘고 있다(권경숙·봉진영, 2013: 70-71). 둘째, 매뉴얼의 지식이 부족하고, 미흡하다. 예컨대 가족생활지도는 결혼이주여성에게 부모의 역할을 지도해야 하는데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나 주어진 매뉴얼이 미흡하여 지도사는 개인 역량을 발휘하고 있었다. 따라서 방문교육지도사들은 본인들의 이전 생애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하고 있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이 다양하고, 바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여 매뉴얼이 있어도 각양각색의 요구를 맞추기에는 부족함이 많음을 호소하였다(권경숙·봉진영, 2013: 73). 셋째, 방문교육 프로그램의 한시성이다. 대부분 어린 나이의 결혼이주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출산하여 6세 이하의 자녀(62%)를 양육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학습 능력, 한국생활 적응, 자녀양육 학습 정도에 있어 개인차가 있다. 그러나 활동 기간의 제한으로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권경숙·

12) 2008년 아동양육지도사는 국내 입국 만 3년 이내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교육하였다면, 2022년 가족생활지도사는 국내 입국 만 5년 이내 이주민(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의 자녀)을 대상으로 교육(부모교육, 자녀생활지도)하고 있다.

봉진영, 2013: 74-78).

한편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은 자신이 나고 자란 사회문화와 현재 한국의 사회문화와의 차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거나, 자녀 양육에 관한 경험이나 교육이 거의 없는 상태에 있었다. 이에 방문교육지도사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제공자의 역할, 자녀와 상호작용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결혼이주여성에게 롤모델이 되어주는 역할,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개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조력자가 되어주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를 위하여 방문교육지도사들은 자신의 삶의 경험에 근거하여 각기 다른 결혼이주여성의 상황에 맞추며 돌봄을 실천하였다. 이로 인하여 방문교육지도사의 제한된 시각이 제공되거나, 시간 및 역할의 모호성이 노출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기꺼이 감수하며 다문화가정에 돌봄을 실천하고 있었다(권경숙·봉진영, 2013: 78-79).

돌봄은 상호의존성을 기반으로 한다(노대원·이소정 외, 2022: 29). 그러므로 한국인 방문교육지도사는 다문화가정을 돌보는 돌봄 노동자이고, 동시에 이들도 돌봄 대상자이다. 그러나 각 부처 정책 중에서 다문화가정을 돌보는 방문교육지도사에 대한 돌봄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또한,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이 진행되며 고용 유지를 위한 조건으로 가족생활지도사에게는 심리상담 관련 전문지식의 강화 압박이 있었고, 한국어 교육 지도사에게는 한국어 교사 자격 갱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정신희, 2018: 214). 이에 중년여성 방문교육지도사들은 해당 직업이 채우는 낮지만, 가족을 돌보며 병행할 수 있고, 정년이 없는 장기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 이를 감내하였다. 그러나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감소로 인한 한국어 교육 수요 감소에 따른 합법적 감원정책이었다(정신희, 2018: 215).

## 2. 직업 생애와 윤리

### 2.1.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

이 연구는 방문교육지도사라는 직업을 중년여성의 직업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 이유는 이 연구가 직업 생애라는 한 인간의 삶의 경험 및 과정에서의 타자성 경험 및 실천을 다루기 때문이다.

인생의 중간이라는 뜻의 중년은 젊음에서 늙음으로 넘어가는 도중에 있음을 의미한다(이상춘, 2003: 20). 특히 중년여성은 몸이 늙어 감에 따라 체력 저하와 각종 성인병을 경험하고, 자녀의 성장과 독립에 따라 정체감의 상실과 우울을 느끼게 된다. 즉 인간은 늙고 병드는 고통을 겪어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우리의 몸은 속수무책으로 시간의 지배를 받으며, 생로병사를 겪어야 하는 수동성을 지닌다. 박완서(2002: 203)는 이에 대하여 “나이가 들며 이제 점점 모든 일을 자신의 몸과 먼저 상의해야 한다.” 고 하였다.

한편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00년 76.0세(남자 72.3세, 여자 79.7세)에서 2020년 83.5세(남자 80.5세, 여자 86.5세)를 넘어서고 있다(e-나라지표, 2022). 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라 인간의 생애 발달 연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데, Sadler(2006)와 Lavinson(2012)은 증가하는 기대수명을 반영하여 기존의 인간 발달과 다르게 인간의 생애주기를 4단계로 구분하였다(조민술, 2021: 188).

Sadler(2006)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1900년 47.3세, 1993년 75.5세에서 21세기 이후 80세 이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21세기는 중년기와 장년기의 시대가 될 것을 전망하였다. 평균 수명의 증가를 근거로 하여 Sadler(2006)는 1차 성장이 일어나는 청년기(제1 연령기)에 덧붙여 2차 성장이 일어나는 중년기(제3 연령기, 40세~70세)를 제시하였다(김경숙, 2015: 19-23). 그는 기존의 발달이론처럼 학창시절까지는 배움의 단계이므로 학습을 통해 기본적인 1차 성장(0세-20세)이 이루어지고, 이는 일과 가정을 위한 제2 연령기에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는 등 자신만의 생산성을 발휘하는 시기로 규정하였다. 반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 건강상태의 향상, 평균 연령의 증가 등이 나타나므로 Sadler(2006)는 기존의 1차 성장과 다른 2차 성장이 나타나는 제3 연령기를 제시하였다. 2차 성장은 인습에 사로잡히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개척한 사람들



에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삶을 재편성하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2차 성장에서는 다른 잠재능력의 실현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Sadler(2006)는 ‘마흔이 후 30년’의 중년기를 자기 인생의 한복판에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시기로 보았다(김경숙, 2015: 14-24). 이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Sadler(2006)와 Levinson(2012)의 진로발달 단계<sup>13)</sup>

Sadler(2006) 단계	Levinson(2012) 단계		
Fourth Age 제4연령기 (70세~죽음)	성인후기(노년)전환기		성인후기(60~)
Third Age 제3연령기 (40세~70세)	중년의 절정기	50대 전환기	중년기(40세~65세)
	중년 입문기		
Second Age 제2연령기 (20세~40세)	성인초기 전환기	성인초기 절정기	성인초기(17세~45세)
		30대 전환기	
		성인초기 입문기	
First Age 제1연령기 (0세~20세)	아동기와 청소년기	성인 이전기(0세~22세)	

Levinson(2012: 239)은 성인기를 성인초기전환기(17세-22세), 성인초기(22세-45세), 중년기(40세-65세)로 구분하였는데 성인초기전환기와 성인초기에는 직업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30대에는 자신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요구가 많다고 설명하였다(고인아, 2003: 249). 또한, 40세부터를 중년의 전환기로 보고, 65세까지를 중년기(middle adulthood)로 보았다. 중년기에 속하는 중년여성은 씩씩함, 실망감, 후회 등을 느끼게 되는데, 이들은 중년의 위기에서 자신의 설 자리를 만들어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하려 노력하므로 인생의 새로운 선택과 큰 책임을 추구하려 한다고 하였다(조민술, 2021: 188). 특히 인간이 느끼는 행복은 인간의 생애주기에 따른 발달단계별 과업의 성취 여부와 관련이 있다. 이는 인간의 발달단계마다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를 전제로 하는데, 인간은 자기 생활에서 충분한 기쁨과 만족을 느낄 때 행복을

13) 출처: 김경숙(2015: 14)과 김애순(2004 : 45), 조민술(2021: 188) 재구성

말한다. 이러한 행복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이다(박정혜·강세원, 2022: 165-166).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10대 후기의 성인 초기전환기부터 인간 생애에서 직업은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직업(職業)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일정 기간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일을 의미한다(이오복, 2014: 6093). 또한, 진로(進路)는 주어진 상황에서 수동적으로 순응함을 넘어서는 것으로 주어진 생애를 개척하는 주체로서의 능동성을 함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길로 나아감’을 의미하는 진로와 직업은 구분된다. 반면 진로 탐색에 있어 직업 선택은 개인의 선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김소연·정희숙, 2015: 268). 이에 대하여 Super(1953)는 진로 발달을 개인의 희망과 직업 가능성 간의 타협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김중로, 2014: 314). 또한, Ginzberg(1951)는 인간이 일하는 일생 동안 직업 선택은 공존하는 것이므로 진로 선택 과정에서의 초기 선택의 중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하였다. 즉 직업 선택의 과정은 아동기에서 성인초기까지의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개인이 조금씩 직업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지각의 과정으로, 개인은 이러한 단계를 통하여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Zucker, 1981). 이러한 직업 선택은 대략 11세에 시작하여 짧게는 17세 또는, 성인초기까지 지속되는 발달과정으로 본 Ginzberg는 직업 선택의 과정을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라고 하는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하였다(강희경·이용진, 2010: 170).

생애주기에 따른 인력개발에서 한국의 남성과 여성은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예컨대 결혼한 남성은 자신의 노동행위를 결정할 때 자신의 역할을 가정 내에서의 경제적 부양자의 역할을 최우선에 두기 때문에 연령에 따른 노동행위 패턴의 변화보다는 퇴직, 이직 등 사회적 제약의 영향을 받는다. 반면 결혼한 여성은 자신의 노동행위를 결정할 때, 가정 내에서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직업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겸할 수 있는가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며, 노동행위를 결정한다(배나래, 2018: 269). 즉 여성의 생애에서 결혼, 출산, 임신과 같은 사건은 여성이 직업을 유지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에는 M자형 곡선이 나타난다. 이는 출산과 육아에 따른 20~30대 여성의 노동시장 경력단절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최은영, 2016: 32). 예컨대 20대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여성일지라도 30대의 출산, 40대의 육아는 여성을 노동시장에서 잠정적으로 이탈하도록 하여 여성은 출산 후 자녀 양육에 집중하게 된다. 이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비교적 자유로워졌을 때 여성은 노동현장으로 재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배나래, 2018: 270). 이는 연령별 경제활동 추이에서 40대 후반~50대 초반의 취업 기혼여성이 증가하였다는 최은영(2016: 40)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예컨대 취업 기혼여성은 40대 중반부터 증가를 하다가 50대를 정점으로 급격히 상승한다. 이는 45~50세의 기혼여성은 육아 및 보육에서 벗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시 경제활동의 참여가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최은영, 2016: 41).

특히 50대 초반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가파르게 상승한다. 주로 50대 임금근로자는 퇴직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감소한다. 그러나 기혼 비임금근로자인 여성은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최은영, 2016: 42). 이는 대학에 진학하는 자녀들의 교육비 또는 기타 경제적 문제 등에 따라 경제활동을 시작하는데 주로 자영업으로의 진입이 더 수월함을 의미한다. 또한, 중·고령의 순수비경제활동 여성 중 근로의사를 지니는 비중은 다른 연령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 중·고령 여성들의 취업 성공 여부와 별개로 취업 의지는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김가울, 2007: 16). 이와 같은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노동시장행위의 분석에서 취업여부, 취업형태, 근로시간 선택 등에 대한 여성의 출산력 등 여성 고유의 생애사건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김가울, 2007: 2).

또한, 개인은 삶의 영역에서 가정을 넘어 시대적 사회 상황의 영향을 받는다. 예컨대 36년간의 일제 침탈 이후, 6·25전쟁이 포함된 1945~1961년까지를 한국의 사회경제 발전에 있어서 해방·격동기라고 한다면, 1962~1991년까지는 한국 경제개발·성장기라고 할 수 있다(이종구·조은상 외, 2009: 90-95). 이에 따라 1960년대 출생한 중년여성의 성장기는 한국경제개발·성장기와 함께 하였으므로 한국의 경제 성장에 따른 직업 변천사는 그녀들의 직업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편 1960년대 한국 출산율(6명)은 2,501만 명이었던 한국의 인구를 1980년대 3,812만 명(52.4%)으로 증가시켰다. 특히 남아를 선호했던 당시의 인습적 사고, 가정 경제 환경 등에 따라 청소년기 중년여성은 가정 내 자원의 배분에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였다. 예컨대, 1980년대 대학진학률이 27.2%이었다면, 이들 중 여학생의 비율은 27.4%이었다. 덧붙여 한국의 전통적인 성 역할은 결혼과 취업 등에 영향을 미쳤는데, 1980년대 후반까지도 여성은 결혼하면 퇴직한다는 각서를 쓰는 것이 관례이었다. 이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면서 여성에 대한 명시적이거나 공개적인 차별은 점차 감소하였다(강

규희, 2016: 22).

이후 2000년대를 전후하여 한국은 전통적인 성 역할 장벽이 사라지며 여성들에게 취업의 기회가 열리기 시작하였다. 이에 국가노동력으로써 여성의 참여 기회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조복현·도현심 외, 2013: 313). 그러나 여전히 여성 취업에 있어 남성의 소득 및 직업 수준과의 격차는 크다. 이에 여성들은 교사, 간호사, 비서직 등 ‘특정 여성직업’을 선택하였는데, 이 직업들의 특징은 대개 낮은 지위, 낮은 임금이었다(조복현·도현심 외, 2013: 314). 이처럼 직업은 사회의 분화 과정을 통해 사라지거나 새로 생겨나기도 하는데(이병준·이유리, 2014: 3),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급증한 한국의 국제결혼에 따라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를 돕기 위하여 새롭게 탄생한 직업이다.

2008년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은 정부재정 일자리지원사업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정년 없이 55세 이상 고령자를 우대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는 중년여성에게 인기가 있었다. 이에 2019년 기준, 1800여명의 방문교육지도사 중에서 50대 이상이 71%, 60대 이상이 24%이었다(박옥현·김영순, 2022b: 151). 주로 1960년 전후에 출생한 중년여성 방문교육지도사는 후기청소년기에 고등 교육의 기회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나 결혼 및 출산, 양육 등의 가정 내 성적 역할을 마치고, 40대를 전후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 각종 사이버대학 등에 진학하여 학사 과정을 밟았다. 이를 기반으로 이들은 2008년 시작된 방문교육사업에서 공적 업무를 맡을 수 있었다. 이에 중년여성에게 직업으로서 방문교육지도사가 지니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중년여성에게 직업으로서 방문교육지도사는 마흔 이후의 중년기에 발휘되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2차 성장(Sadler, 2006)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덧붙여 중년여성이 속해 있는 1차(1955년~1963년), 2차(1968년~1974년) 베이비붐 세대는 전체인구의 34%를 차지하기 때문에(호운, 2022), 이들이 지나가는 전 생애 과정은 거센 사회적 파장을 미치는 인구 쓰나미와 같은 존재이다(황수경, 2012: 1). 특히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00년 76.0세에서 2020년 83.5세를 넘어서고 있고(e-나라 지표, 2022), 한국에서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할 경우 내국인 생산가능인구(만 15세~65세 미만)의 구성비는 71.5%에서 2040년 55.6%로 감소를 예상한다(통계청, 2022a). 부족한 생산가능인구를 대체하기 위한 이주민 유입 정책은 필수불가결하므로 2050년 한국 사회의 다문화가족

은 전체인구의 약 21.3%를 예측한다(이한샘, 2020: 1). 이에 따라 중년여성 방문교육지도사의 이주민 돌봄 실천가로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중년여성 방문교육지도사는 삶의 긴 역경을 이겨낸 경험을 기반으로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서 갓난아기와 같은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를 보듬어 줄 수 있는 포용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박옥현·김영순, 2022b: 164)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 2.2. 돌봄 실천과 윤리

한국 사회에서 ‘돌봄’은 2009년 보건복지부의 공식문서에 처음 등장하였다. ‘care’ 또는 ‘caring’으로 번역되는 돌봄은 대상자의 욕구와 연령에 따라 다양한 용어들로 개념화되었다(남정연·김영순, 2022: 184). 이곳에서 돌봄은 양육, 보육, 부양, 수발, 보살핌 등을 통칭하는 포괄어으로써 이에 유사 행위를 지칭하는 공식어로 등장하였다(이효성·고그린, 2014: 208).

2019년 시작된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은 영유아·아동,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을 발표하였다(교육부, 2020). 특히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만 15세 이상~65세 미만)의 감소는, 국가경쟁력 감소와 돌봄이 필요한 인구의 증가를 불러오고 있다. 예컨대, 한국의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 돌봄 문제는 개인 가정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이다. 이에 2007년 4월 27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8403호가 제정되었고, 2008년 7월 1일부터 본 제도가 시행되었다(김정희, 2017: 324). 이에 따라 2022년 8월 기준, 415,676명(월 160시간 근무 기준)의 요양보호사가 노인 돌봄에 종사하고 있다(통계청, 2022b). 특히 2010년 노동연구원 패널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여성 비율은 92.4%이고, 이들 중 50세 이상이 70.6%에 달한다(김정희, 2017: 337). 이로써 한국 정부는 노인 돌봄 사회화에 대한 토대를 구축하게 되었다.

또한, 부족한 생산가능인구를 충족하기 위한 이주민 유입 정책은 또 다른 돌봄의 필요성을 낳았다. 예컨대 2000년대부터 급속히 증가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을 위하여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며,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가 탄생하였다. 2008년 방문교육지도사 2,313명(공공

데이터 포털, 2022)에서 출발하여, 2019년 기준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는 1,800여 명이 되었다. 이들은 주로 중년여성으로 50대 이상이 95%에 달한다(박옥현·김영순, 2022b: 151). 따라서 노인 돌봄 요양보호사,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 등으로 대변되는 한국의 돌봄 노동은 성별화된 여성 중심 직종임을 알 수 있다.

양육, 간호 등으로 대표되는 ‘돌봄’은 주로 여성의 일이 되었다. 즉 이들 영역에는 주로 여성이 돌봄의 주체로서 활동하고 있으므로 돌봄은 여성의 일로 간주하여, 지속해서 평가절하되고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자율성과 독립심을 남성적인 것으로 여기며 숭배했던 것과 관계가 있다. 이에 따라 역사적으로 남자들은 다른 사람을 돌보고 자신의 의존성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격려받기보다 ‘덜 남성적인 것’으로 폄하됐다. 오늘날까지도 남성들은 분명하고 권위적인 남성성을 보여주어야 하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반면 돌봄과 의존으로 특징지어지는 가정의 영역에서 여성에 의해 행해지는 돌봄은 여성의 일로 간주하며 ‘부드러운 여성성’은 평가 절하되어 왔다(정소영, 2021: 50-51). 이는 가족의 공간과 가사를 생산이 아닌 재생산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돌봄 노동 시장에 의해 더욱 쉽게 착취당하는 요인이 되었다. 즉 무임금 여성의 가사노동이든, 저임금 돌봄 노동에 지속하여 의존하는 것은 착취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돌봄은 주로 여성적 또는 비생산적이라고 평가되고 있으므로 돌봄과 연관된 직업은 오랫동안 평가절하됐다. 이에 따라 돌봄 노동은 변함없이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지위에 묶여 있었다(정소영, 2021: 14).

한편 돌봄은 물과 공기처럼 한 사회 안에 존재하는 공공재라 할 수 있다. 돌봄은 인간이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정신희, 2020: 1). 인간은 보편적 또는 구체적 차원에서 모두 취약하므로 타인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특성이 있다. 즉 취약한 인간에게 의존성(dependency)은 필연적이고, 위태로운 시대의 취약성으로 인해 돌봄은 공존을 위한 기본 요소이다(노대원·이소영 외, 2022: 29).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Kittay(2016)는 ‘의존성’을 기반으로 취약성과 돌봄의 규범적 의미를 돌봄 이론으로 설명하였다. 예컨대, 그는 의존성을 통해 인간이 취약하다는 것과 취약한 인간을 돌봐야 하는 당위를 연결하였다. 그러나 인간의 취약성 자체로 인해 돌봐야 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취약함을 유발하는 인간 본래의 의존성이 취약한 타인을 돌봐야 할 의무를 요구한다.

즉 돌봄에 있어 인간은 ‘의존인’으로서 돌봄이 필요함과 동시에 ‘의존노동자’로서 돌봄을 제공하기도 한다. 즉 인간의 의존성은 보편적 의존노동이 아닌 상호 돌봄의 관계를 요구한다(노대원·이소영 외, 2022: 29).

즉 인간의 상호의존성에 기반을 둔 돌봄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개인적 능력이다. 이러한 돌봄의 실천은 많은 주요 종교의 윤리적 구조를 이루는 밑받침이다. 돌봄의 실천에 관한 내용은 Hippocrates 선서는 물론이고 국제법 등에서도 발견된다. 돌봄은 실질적(substantive)인 내용을 가진 서비스라기보다는 상호 침투적이고 관계적(relational)으로 재구성되는 활동이자 과정으로 정의된다(정신희, 2018: 203; Fisher and Tronto, 1990; Tronto, 2013). 돌봄은 번영과 복지를 위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보살피는 사회적 활동이므로 해당 사회의 역량이 된다. 한 사회에서 돌봄을 중심에 놓는다는 것은 인간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y)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정소영, 2021: 17).

이러한 ‘돌봄’에 대한 인식은 주체적 상호의존성 이론가들과 더불어 철학자 Levinas, Derrida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예컨대 Levinas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아가 형성되므로, 인간에게는 타인을 돌볼 윤리적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다(정소영, 2021: 76). 특히 Levinas는 『존재와 달리 또는 존재를 넘어』에서 취약성 개념을 체계적으로 논의하였다. 그는 인간의 주체를 언제나 신체화된 주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Levinas의 주체는 타자의 고통에 응답(response)을 요청받고 책임(responsibility)지는 윤리적 주체로 정의된다. 즉 그가 주장하는 타자에 대한 책임은 타인의 얼굴을 통해 전해오는 ‘상처받을 가능성’, 무저항에 근거하는 것이다(강영안, 1999: 157). Levinas는 모성에 빚대어 타인에 대한 책임과 상처 입을 가능성을 설명하였다. 타인에 대한 책임은 타자를 대신해 고통받음까지 나아가므로, 이는 타인의 고통에 의해 상처 입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Levinas는 타인을 책임지고 타인을 대신해서 고통받을 수 있는 것을 주체성의 ‘의미’라고 강조하였다. 결론적으로 Levinas가 말하는 상처받을 가능성은 ‘고통에 대한 고통’을 말하는데, 이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고통, 타인의 상처에 대한 상처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Levinas가 주장하는 주체성은 상처받기 쉬움이므로 상처 입을 수 있는 주체(vulnerable subject)는 타자를 위한 한 사람으로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자가 된다(노대원·이소영 외, 2022: 22-23). 이러한 타자 윤리학에 대한 인식은 현대 철학자 Derrida 등의

‘환대(hospitality)’로 이어진다. Derrida는 유럽 난민 위기에 대하여 ‘낮선 사람’에 대한 무한한 환대의 윤리를 주장하였다(정소영, 2021: 75-76). 즉 돌봄은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들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하여, 동시대를 살아가는 서로에게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돌봄은 우리 시대와 공명한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Levinas의 타자 중심 철학에 근거하는 Watson(2003)의 돌봄 이론은 윤리적 행위의 기준으로 간호(남미순, 2015), 방문교육(남정연·김영순, 2022) 등에서 본질적 개념이자 윤리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한국의 대표적인 돌봄 직종인 노인 돌봄 요양보호사,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 등에는 주로 중년여성이 종사하고 있다. 방문교육지도사의 돌봄 경험과 돌봄서비스 실천의 의미에 대하여 남정연·김영순(2022)는 이들의 돌봄 서비스에 대한 강한 실천 의지와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특히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는 봉사 정신과 돌봄의식이 없으면 해내기 힘든 일임에도 모두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를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방문교육지도사의 경험을 통해 본 다문화 정책의 돌봄관리체계에서 정신희(2018)는 돌봄은 여성과 가족의 모습을 한 사적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정신희(2018)는 공적 돌봄이 양적 팽창에만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면서 보육, 간병, 장애 등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돌봄과 방문교육지도사의 돌봄이 다름을 언급한다. 방문교육지도사는 공적으로 다문화가족을 돌볼 책임을, 사적으로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것처럼 돌볼 것을 암묵적으로 할당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위치는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프레임이나 다문화 담론으로 환원되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려운 한국 돌봄의 정치학을 압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방문교육지도사의 초기 업무는 주로 결혼이주여성의 언어 지원, 출산, 양육 등에 집중되었다면, 방문교육사업이 정착되면서 방문교육지도사는 한국식 어머니 노릇을 통해 점차 결혼이주여성을 한국가족이 되도록 ‘지도’하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진 돌봄이었다(남정연·김영순, 2022: 184; 정신희, 2018: 202). 즉 다문화 정책자들은 방문교육지도사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다양한 돌봄 실천들을 가족과 국가 관계 안에서 표준화된 돌봄 기능으로 만들어, 방문교육지도사를 건강한 가족, 발전된 국가를 위해 복무하도록 도구화하였다.

또한, 김정희(2017)는 요양보호사의 돌봄 실천에 대하여 ‘하찮은 일자리 종사자’, ‘파출부’, ‘시간제 저임금 돌봄 종사자’ 등의 낙인과 인권침해로



인한 사회적 인정 부재를 지적하였다. 이에 김정희(2017)는 Honneth의 인정 이론의 관점에서 요양보호사의 돌봄 노동의 처우 향상과 사회적 인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Honneth(2011)에 따르면, 개인은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 속에서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존재하고, 자신과 타인 간의 상호인정 과정에서는 ‘자아실현(Self-realization)’을 위한 투쟁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때 투쟁의 전제는 도덕적 인정투쟁이고, 인정투쟁 명제의 초점은 상호인정이라는 주관적 상태를 목표로 한다.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상황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노인 돌봄 사회화는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는 노인 돌봄 사회화의 성공적인 안착을 방해하는 위험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김정희, 2017: 326-327). 이와 같은 위험요인은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의 처우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열악한 돌봄 현장의 실천에 관한 연구들은 취약한 존재인 우리가 서로 의존하며 잘 살기 위해서는 공적 차원은 물론 사적 차원에서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즉 상호 유대의 관계는 ‘돌봄’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본적인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Gilligan, 1982; Noddings, 1984, 1992), 즉 ‘돌봄’은 함께 사는 것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며 고양하는 것을 의미(Noddings, 1992)하기 때문이다(염지숙, 2011: 39).

### 3. 타자 철학과 관계 윤리

#### 3.1. 타자에 대한 윤리적 태도

Socrates는 “너 자신을 알라”고 하였다. 이는 인간의 자신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촉구한 것이다. 이처럼 서양철학은 고대로부터 인간존재에 관한 끊임 없는 탐구와 질문을 해왔다(노상우·권희숙, 2009: 5). 즉 그 동안의 서양철학은 인간이 사유의 주체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집중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Husserl(1962)은 주체 밖의 타자를 사유의 중심으로 올려놓았다고 볼 수 있다(김영순·박병기 외, 2022: 64). 즉 그는 타자에 대한 논의에서 주체인 내가 어떻게 타자를 이해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다. 그는 오히려 타자도 나와 같은 인식의 주체로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Husserl은 주체인 나는 타자를 정체성을 지닌 존재로 인정하였고, 타자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타자의 경험을 함께 나누려는 의지, 공감, 짝지움이라는 개념을 등장시켰다. 짝지움이라는 개념은 자기와 타자를 서로에 대한 존재로 본다는 의미이다. 짝지움에서 의미의 전이는 일방향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체와 타자 간에 상호 전이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호 주체성, 상호 주관성 등의 개념이 등장한다. 결국 ‘나’라는 주체는 타자를 지향함으로써 성립되는 개념이고, 나아가 타자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음을 말한다(김영순·박병기 외, 2022: 65-66).

또한, Heidegger(1972)는 타자 관계의 문제를 주체와 타자 간의 관계로 소급하여 존재 또는 현존재라는 개념으로 정립하였다. 예컨대 현존재는 존재 밖에 머무르는 타자들인데, 타자는 모든 인간과 세상의 모든 존재를 부정하며 타자에 의해 타자로 표현되는 타존재와 현존재 사이에 각각 ‘공동 현존재’가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공동 현존재에 의해서 개인들이 서로를 이해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고, 주체에 대한 문제를 알아가는 것과 주체 간의 문제를 알아가는 것을 파악한다. 이때 알아가는 것의 핵심은 학문 행위라 할 수 있다(김영순·박병기 외, 2022: 52).

한편 Levinas(2018)는 1928부터 2년간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Husserl과 Heidegger에게 수학하였다. 이러한 학문적 경험으로 인해 그들의 사상을 프랑스에 소개하였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서 포로 경험은 Levinas

의 철학적 경향에 큰 영향을 주었다. 예컨대 그는 서양철학의 존재론과 인식론은 주체를 중심에 두는 철학으로, 타자를 동일자의 영역으로 환원하는 전체성을 정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과 폭력이 자행되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Levinas는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전체주의에서 찾았다(노상우·권희숙, 2009: 6).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Levinas는 타자의 존재를 본질적인 주체로 부각시키며 이를 탐구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Levinas는 ‘타자’를 현상학의 중심으로 끌어들었다. Levinas는 오랫동안 서양철학에서 논의 되어 온 존재론의 전통을 비판하며 자신의 타자철학을 시작하였다(양천수·최샘, 2020).

본 연구는 타자에 대한 윤리적 태도로서 관용, 책임, 환대 그리고 인정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보편적 윤리관을 비판하며 타자를 보호하려는 공통된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타자에 윤리적 태도로서 ‘관용’은 16세기 프랑스의 종교갈등과 관련이 있다. 종교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막기 위하여 ‘차이에 대한 관용’이 등장하였다. 정확한 관용의 의미와 외연의 규정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관용은 타자인 관용의 대상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의 확대와 깊은 관련이 있어야 한다. 관용은 강자의 윤리에 기반을 둔 시혜가 아니라 상호 평등한 관계에서 타자의 권리와 자유를 확대하려는 데 목적을 둔 실천적 가치이다. 이러한 이유로 관용의 대상에 부도덕한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 관용의 대상은 반대하거나 싫은 것이어야 한다. 관용의 문제는 갈등 관계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만 발생한다. 셋째, 관용은 힘의 행사를 자발적으로 중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강제적인 시인이나 묵인과는 다르다(김용환·조영제, 2000: 53).

Walzer(1997)는 관용에 대하여 동기가 어찌 되었든 나와 다르고 이질적인 낯선 타인들이 그들의 생활방식과 정체성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관용은 경쟁의 규칙을 여기거나 공동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그는 차이에 대해 관용할 뿐 차이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관용은 17세기 이후 서양의 자유 민주주의 사회를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현대 다원주의 사회의 기초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김용환·조영제, 2000: 52). 특히 관용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서로 다른 타자가 다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공존을 위하여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화하는 한국 사회구성원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덕목이라 할 수 있다.

Levinas(2018)는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며 철학의 과제를 윤리학에서 찾았다. 즉 Levinas는 기존 서양철학에서 자아 중심적인 자발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타자에 대한 윤리적 태도로서 ‘책임’을 주장하였다. 타자에 대한 책임은 타자, 타자의 얼굴, 타자와의 근접 관계에서 도출된다. 타자에 대한 책임이란 나와 상관없는 자, 또는 나를 보지 않는 자인 타자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그 책임은 내가 하는 일이나 나의 행위를 넘어선다. 타자는 약하고 가난한 과부와 고아를 말하는데, 이러한 타자에 대하여 나는 빛을 지고 있다. 이러한 타자에 대한 책임의 무게에 나는 고통받지만, 타자에게 무한 책임을 진다. 이와 같은 타자에 대한 책임을 Levinas는 시간의 통시성으로 설명하였다. 시간은 비가역적이고 회복할 수 없는 통시성을 가지는데, 나와 무관해 보이는 타자의 불행은 과거의 통시성에 묶여 있고, 나는 과거의 통시성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김연숙, 2001: 17-18). 또한, 나의 타자에 대한 책임은 무한한 책임인데 타자의 얼굴은 다른 타자의 존재를 계시한다. 즉 나는 타자와 조우함에 따라 책임져야 하는 또 다른 타자가 무한히 존재함을 발견하게 된다. 이에 따라 타자의 얼굴은 나에게 보편적인 인간성을 열어준다. 즉 타자의 얼굴에 응답하는 나는 보편적 결속과 평등의 차원으로 들어간다. 이는 타자의 얼굴을 마주함으로써 나는 시간, 지역, 세대의 제약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을 만나기 때문이다. Levinas의 타자는 주체의 존재가 성립하기 전에 먼저 있었고, 주체는 바로 이런 타자를 통해 탄생할 수 있었다. 즉 타자에 대한 책임은 주체가 탄생하기 이전에 이미 자리하고 있었고, 이러한 타자에 대한 책임에서 자아의 주체성이 탄생한다. 자신 안에서 나와 타자의 상호적 관계가 형성되고 이를 통해 나는 비로소 나에 대한 인식이 가능해 진다.

이에 Levinas는 고통받는 타인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을 형이상학적 의미에서 절대자로 향하는 자기 초월로 이해하였다. 이를 Levinas는 절대자로의 초월 욕망과 타인에 대한 책임을 연결지었다. Levinas에 따르면, 인간은 향유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 내면성을 형성하며, 타인과 분리되어 자기 자신에만 전념한다. 또한, 이를 초월하여 동시에 자기와는 동일화할 수 없는 자기 밖의 절대적 타자를 욕망한다. 여기에서 타자는 자아에 의해 지배되지도 않으며, 자아에 통합될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욕망은 결코 충족될 수 없다. 따라서 절대적 타자에 대한 욕망은 무한히 열린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요청을 받아들일수록 자기 초월은 더욱 강해지며 타인에 대한 책임감도 커진다. 따라서 타자에 대한 책임은 각자가 서로를 인

식하거나 향유의 대상으로 환원하지 않으며 서로의 고유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호적 인간관계를 함축한다고 할 수 있다. 즉 Levinas는 생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타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에서 사람답게 사는 삶을 발견하고 타자 중심의 책임 윤리학을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성희(2021)는 다문화공동체로의 변화가 불가피한 현대사회에서 타문화에 대한 배척이 아닌 다름의 인정과 존중을 위해서는 타자 윤리의 책임이 전제되어야 함을 피력하였다. 또한, 손재현(2021)은 이주민의 증가에 따라 소외당하는 이주민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적 협약만이 아닌 윤리적, 철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즉 Levinas의 타자에 대한 책임 윤리학을 통하여 소외당하는 이들의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기를 기원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타자에 대한 윤리적 태도로써 ‘환대’가 있다. 환대란 자신의 공간(집, 시민사회, 국가 등)에 찾아온 손님에게 문을 열어젖히고 받아들여 호의를 베푸는 의식과 행동이다. 타자성에 관한 논의에서 환대와 책임을 살펴보면, 책임은 타자를 자기동일성의 영역으로 환원시키지 않고, 타자와의 차이, 절대적 차이, 타율성을 보존하는 방식이다. 반면 환대는 주체와 완전히 분리되는 형태의 타자를 거부하고 자아와 타자가 관계를 형성하며, 마치 씨실과 날실에 의해 짜이는 직물처럼 서로를 대리 보충하는 연결고리 형태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환대는 자아와 타자가 서로 오염되고 오염시킬 수 있는 관계로 설명된다(노상우·안오순, 2008: 138-142).

이처럼 손님 또는 이방인을 맞이하는 동시에 자기의 경계를 허무는 열린 자세는 관용이 갖는 폐쇄성을 극복할 수 있는 열린 발상이 된다(최샘·정채연, 2020: 58). 이때 손님 또는 이방인은 외국인이나 소수자, 난민, 망명자 등으로 확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최샘·정채연(2020: 58)은 이방인의 개념을 단순히 혈연에 결부된 출생의 권리로서 갖게 되는 국적 또는 시민권이 없는 자에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으로 확장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문제는 인간 모두에 대한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고 하였다.

Derrida(2005)는 손님을 구분하여 환대한다. 즉 타자가 자신이 누구임을 밝힐 뿐만 아니라 나의 말을 알아듣고, 환대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때 환대는 이루어진다. 이처럼 환대는 권리와 의무 관계가 상호적 조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건적 환대로 규정한다. 조건적 환대에 대한 대립으로 무조

건의 환대가 있다. 무조건적 환대는 내 집을 개방하고 성(family name)이 다르거나 외국인 등의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이들뿐만 아니라 이름도 없는 미지의 절대적 타자에게 머무를 곳을 내어주고 머무는 장소를 소유하도록 내어두는 것이다. 또한, 계약체결을 통해 기대되는 상호성을 요구하거나 그들의 이름을 묻지도 않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초대받지 않았거나 절대적으로 낮은 이방인의 예측하지 못한 방문에 대하여 어떠한 물음이나 조건도 없이 문을 열고 집을 개방한다는 의미에서 이는 ‘방문의 환대’가 된다. 다양성이 존중받아야 하는 다문화 사회에서 이방인의 다름을 존중하며 환영하는 무조건적 환대는 이방인에 대한 타자성이고, 의무이다(최샘·정채연, 2020: 62). 즉 무조건적 환대는 상대방에 대하여 누구인지를 묻지 않는다. Derrida(2005)는 두 가지 환대의 대립을 전하며 상호 침투를 원하였다. 따라서 그가 주장하는 타자에 대한 환대는 나와 타자 간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생성된다. 즉 조건적 환대가 환대로서의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무조건적 환대에 의해 인도되고 고취될 때라고 하였다.

Derrida의 환대에는 환대받지 못한 사람들 또는 동일화 폭력에 시달리는 타자의 저항을 포착하는 개념 틀은 존재하지 않는다. Derrida의 환대는 Walzer의 관용처럼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더 이상 돌아가지 않고 나의 거주지에 살아가는 타자는 손님이 아니다. 이에 따라 타자와 자아의 공동생활을 위해서는 환대와는 별개의 윤리적 원칙이 필요하다. 즉 환대는 타자와 내가 공존하게는 하지만 공존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다. 따라서 환대는 관용과 같이 공존을 위한 전제일 뿐 공동생활을 규율하는 윤리적 규범은 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김영선(2019)은 한국 이주민에 대한 환대와 배려의 당위성을 한국의 역사 속 이방인(사할린 한인들, 중앙아시아 지역의 고려인들, 중국의 조선족들, 일본의 한인들, 미주 지역의 한인들, 멕시코 한인들)의 기억을 예로 들었다. 또한, 환대의 대상으로서 성서 속 이방인의 범위, 환대의 정도, 조건, 이유 등을 제시하였다.

타자에 대한 윤리적 태도에 대한 마지막 논의로서 ‘인정’이 있다. Honneth(2011)는 인정을 인간이 자기 삶을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라고 하였다. 즉 인정은 개인이 긍정적인 자기의식을 가지게 하는 심리적 조건으로 개인의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관계이다. Honneth가 주장하는 상호인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로 개념 지어진다. 첫째, ‘사랑’의 형태 속에 상호인정 관계가 있다. 당사자들의 정서적 욕구는 사랑을

통해 인정되며, 사랑을 통해 충족된다. 둘째, 당사자 간의 동등한 ‘권리’의 인정을 통해 상호인정은 형성된다. 이를 통하여 각 개인은 도덕적이고 자주적 판단 능력이 있는 존재로 인정된다. 셋째, 상호인정 관계는 사회적 ‘연대’에 있다. 각 개인의 인정은 자기 자신만의 특수한 속성을 지닌 존재일 때이다. 이러한 세 가지 인정을 통해서 비로소 개인은 한 공동체의 완전한 구성원이 된다. Honneth는 Mead(1938)의 사회심리학에서 개인의 ‘정체성’ 형성과정에 주목하였다. 그의 정체성 형성과정은 ‘주격 나(I)’는 타인이 나에게 갖는 어떤 기대나 상을 인지하면서 ‘목적격 나(Me)’에 대한 심상을 얻는다. 나에게 대한 타인의 관점이 나에게 내면화되면서 자기 관계는 가능하다. 그러나 이 관계는 자발성에서의 ‘주격 나’와 사회적으로 규정된 ‘목적격 나’의 긴장 관계를 전제한다. Honneth는 인정투쟁을 이러한 긴장 관계 속에 엮어 놓는다. 즉 사회적으로 규정된 ‘목적격 나’는 ‘주격 나’와는 다른 어떤 부분을 인정받으려는 투쟁에서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때의 인정을 위한 투쟁은 전 사회 영역으로 확산하며, 그 형태 또한 조직화하고 집단화된다(Honneth, 2011: 15).

Honneth(2011)는 윤리를 개인의 삶을 보호하는 일종의 ‘보호 장치’로 보았다. 이에 따라 Honneth는 개인의 자아실현이 긍정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를 통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긍정적 자기 관계는 타인의 긍정적 반응이나 평가에 의존한다. 이에 따라 개인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항상 긍정적인 평가나 반응을 기대한다. 이것이 좌절될 경우, 심리적 상처를 받게 되어 자신에 대한 긍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결국 적극적인 자아실현이 불가능하게 된다. 인간의 삶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훼손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Honneth의 인정이란 타인에 대한 긍정적 평가나 반응을 총칭하는데, 이는 해당 개인의 긍정적 자기의식을 형성시킬 뿐만 아니라 적극적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인정은 개인의 적극적 자아실현의 가능 조건이자, 개인의 삶을 보호하기 때문에 윤리적 정당성을 갖는다. 이를 타자에 적용해 보면, 타자에 대한 윤리적 태도는 그의 정체성을 평가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를 인정하는 것이다. 반면 인정은 타자에 대한 자아의 일방적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아 또한 적극적 자아실현을 위해서는 타자의 인정을 필요로 하고, 자아는 타자에게 또한 타자이기 때문에 인정 윤리는 타자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자아와 타자 간의 상호인정이 된다.

Honneth의 상호인정은 국내 결혼이주여성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의 일상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그들은 치열하게 언어적 차이를 극복하여 한국인과의 거리감을 좁혀 나가며 지역주민들과 관계를 넓혀 나가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10여 년 시부모님을 모시며 시아버지의 사업을 헌신적으로 돕는 등 시댁의 인정 획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황해영·김영순, 2017a: 474). 또 다른 한편으로 재한 중국동포 여성단체장의 생애사에서 이주민 소수자로서의 인정투쟁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조선족 중국동포와 연대하거나 중국동포로 인정받기 위하여 이미지 개선을 위한 인정 투쟁 등이 그것이다(황해영·김영순, 2017b: 514-516).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이주민을 비우호적인 타자로 취급한다면, 그 사회가 아무리 다문화주의를 주장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우리(내 집단)를 위한 잔치일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 사회화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집단 간의 차이로 인해 차별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집단 간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공존하여 보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낮은 타자에 대한 윤리적 태도로서 관용, 책임, 환대, 인정을 살펴보았다.

### 3.2. Buber와 Levinas의 관계 윤리

주로 인간은 언어를 매개로 외부를 이해한다. 그리고 인간이 이해한 내용은 언어를 통해 타인과 교환한다. 즉 인간은 자기 내부의 생각과 자기 외부 현상의 소통을 위해 언어가 사용된다. 또한, 언어는 인간의 현존재 방식과 밀접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다. Buber(1954)는 인간은 반드시 짝으로서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는 인간의 존재 방식에서 홀로 있을 때가 아니라 오직 너와 ‘함께’ 할 때만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함께하는 존재로서 인간에게 중요한 토대는 ‘대화’이다. 대화는 다른 두 존재자를 서로 엮어주는 데, 이때 대화는 상호 간의 고유성을 손상하지 않으며, 서로가 함께 관여하도록 한다. Buber는 모든 인간이 근원적으로 각자 떨어져 있으나 인간이 함께 실존할 때 비로소 인격체가 된다고 하였다. 근원적으로 떨어져 있는 두 존재자를 엮어주는 것이 바로 대화이고, 대화에 의해 내 현존재 방식이 결정된다(윤석빈, 2006: 271).



Buber가 사유의 중심에서 ‘나’를 해체하고, ‘나와 너’의 관계를 논하였다면, Levinas는 ‘타자와 나’의 관계를 일차 철학적 사유로 삼았다. 이들의 주장에서 우리는 주체 중심이거나 이성 중심의 근대 철학과는 다른 ‘관계’ 철학을 만나게 된다(노상우·권희숙, 2010: 48). ‘관계’는 Buber의 핵심 사상이다. Buber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방법론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나에게 타자는 사물이거나 사람일 수 있다. 이를 Buber는 인간 삶의 존재론적 원칙으로서 ‘나-그것’의 관계 그리고 ‘나-너’의 관계로 형상화하였다(김희근, 2018: 234). 이때 ‘나-그것’의 ‘나’와 ‘나-너’의 ‘나’는 다르다고 하였는데, 근원어 ‘나-그것’의 정신적 실재성은 자연적 분리에서 생기는 것이고, 근원어 ‘나-너’의 정신적 실재성은 자연적 결합에서 생긴다고 하였다(정정호·박선경, 2020: 17).

Buber에 의하면, 근원어 ‘나-너’는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 ‘나-그것’ 안에는 인과론적 법칙이 존재하지만, ‘나-너’의 관계 속에는 상대를 향하는 자유로운 주체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인격적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김희근, 2018: 234). 이러한 이유로 Buber가 말하는 ‘나-너’의 관계에는 인간이 맺는 타자와의 관계 중에서 가장 긴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된다. 왜냐하면 ‘나’와 ‘너’ 사이의 긴밀한 상호인격적인 관계에서 인간은 인격으로써의 자신을 깨달으며, 타자를 하나의 인격으로써 만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근원어인 ‘나-너’가 강할수록 더욱 인격적으로 되어 가며, 인격 공동체는 참다운 대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나-그것’의 관계에서의 ‘그것’은 타자를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는 보지 않기 때문에, ‘나-그것’의 관계의 대화는 단지 집단적 사회에서 독백(monologue)이 된다. Buber는 사회공동체에서 ‘나-너’ 관계가 구축됨으로써 타자의 차이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주체와 타자 간에 경계 없는 공존 관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보았다(정정호·박선경, 2020: 18).

그러나 두 주체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 ‘나-너’의 관계가 완전하게 형성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대화를 가장한 거짓 대화, 독백, 감정을 배제한 사무적 대화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진정한 대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들이 요구된다. 첫째, 나와 타자가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나와 너의 대화에서 주체가 상대의 다름을 긍정적으로 인정할 때에만 동등하고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소통이 가능하다. 둘째, 솔직한 대

화이다. 정직하게 대화의 주체들이 서로를 향할 때, 진정한 대화가 가능해진다. 진정한 대화에서는 주체들이 반응을 숨기거나 형식이나 대응과 같은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피하려 한다. 셋째, 진정한 대화를 위한 전제는 현재화이다. 진정한 대화에서 주체는 타자의 존재를 현재화해야만 한다. 그것은 타자의 감정과 생각을 체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타자의 내면 속에 자리 잡음으로써 타자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나와 너의 진정한 대화적 관계는 상호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긴장과 열정, 즉 사랑을 의미한다. 결국, 다름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상대방에게 자신을 유보 없이 드러내는 것은 타자를 위한 책임을 의미한다. ‘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며, 타자에 대한 나의 관계는 직접적이고, 믿음과 정직함으로써 나는 타자에게 대답하는 것, 바로 그것으로써 나는 타자에게 책임을 다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김희근, 2018: 235).’

Levinas 철학의 중심에는 ‘타자’가 있다. Levinas는 기존 서구철학에서의 존재론적 주체에서 중심축을 타자로 이동하고, 타자를 중심으로 하는 주체와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였다. Levinas의 타자성 철학은 주체인 ‘나’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시작하여,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주체로 변화함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Levinas가 말하는 타자와의 관계는 Buber가 말하는 존재론의 범주 안에서의 그것과 다르다. Buber가 말하는 타자와의 만남은 근원적이고 윤리적인데,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성립되는 관계는 경험적 사건들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Levinas가 말하는 윤리적 관계는 사회의 전통적인 관습이 요구하거나 어떤 현재적 상황에서 나에게 요청되는, 또는 사회가 암묵적으로 규정하는 그러한 윤리적 관계가 아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Levinas는 ‘타자를 향한 형이상학적 욕망(desire)’이라는 개념을 정립하였다. 이때 욕망은 주체가 결핍을 해소하고, 만족을 위해 추구하는 욕구와는 다른 의미이다. Levinas의 철학에서 말하는 욕망은 타자에게서 비롯되어 자신을 비우고 타자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노상우·권희숙, 2010: 53-54). 바깥을 향해 있는 자아의 욕망은 외재성, 타자의 다름, 그리고 낮춤을 향한 것이다. 그가 말하는 주체는 타자를 자기 동일성의 의식 안으로 끌어들이지도 않고, 타자를 욕망의 대상으로 삼지도 않는다. 그저 타자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타자에게로 향한다. 이에 Levinas는 타자와 주체의 관계는 본래적으로 윤리적이라고 하였다. 자기로 환원할 수 없는 타자는 자기의 개념적 인식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절대적 타자인데, 나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절대적 외재성을 지닌 타자를 훼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타자는 주체에게 동화되거나 흡수되는 구조를 가지지 않는다. 오직 절대적으로 다른 타자를 향해 주체는 무한히 지속되는 만남과 관계 안에 있을 뿐인데, 이것이 Levinas 철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Levinas의 윤리적 관계의 특성을 보면(노상우·권희숙, 2010: 54), 첫째 주체는 타자의 부름에 응답하는 수동적 존재이다. 타자는 나를 바라보고 시선으로 말을 걸어오는 존재이다. Levinas가 말하는 타자와의 진정한 관계는 타자의 얼굴에서 비롯되는 명령과 요구에 응답하는 주체의 수동성에서 비롯된다. 즉 주체는 능동적인 인식과 사유로 세계에 영향을 주는 존재가 아니다. 주체는 수동적으로 타자의 부름에 응답함으로써 자아가 된다.

둘째, 주체와 타자의 관계는 비대칭적이다. Buber의 ‘나-너’ 관계가 상호적 또는 대칭적 관계라면, 그 관계는 타자에게 어떤 반응을 기대한다. Levinas의 주체-타자와의 관계는 다른 형태로 설명되고 있다. 예컨대 내가 어떤 도덕적인 행위의 보답으로 너로부터 무엇인가 얻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이미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 아니다. 비대칭적 관계는 어떠한 대가 또는 보상을 바라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권력이나 부(富)도 나에게 도덕적 방식으로 행동할 것을 강요하지 못한다. 주체의 의무와 책임을 깨닫는 일은 더 이상 인식론의 문제가 아닌, 타인의 얼굴에 응답하는 것이다. 즉 타인을 환대하면서 말을 걸어 대화하는 가운데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이기적 자아에서 윤리적 자아로 전환하는 것으로, 자기의 이기성을 벗어나 공정성으로 향하는 것이다(김연숙, 1997: 97; 노상우·권희숙, 2010: 55).

셋째, 주체와 타자의 관계는 윤리적 책임의 성격을 지닌다. Levinas가 말하는 윤리적 책임은 타인의 시선에 수동적으로 응답하기 때문에, 주체의 결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타인의 얼굴에 응답함으로써 내가 나 자신임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무한의 책임은 나의 자유의 반대편에 있고 모든 기억 이전으로부터 모든 성취를 넘어서 전근원적이다. 또한, 비현실적이며 본질 너머이거나 혹은 그 이전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넷째, 주체와 타자는 대화적 관계 안에서 발견된다. Levinas는 타자의 얼굴에 대한 응답을 대화적 관계라고 하였다. 주체인 나는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며 타자와 대화를 나눈다. 타자의 얼굴은 시선과 말로 구체화한다(강영안, 2005: 180). 그러므로 타자의 얼굴을 마주 보며 그와 나누는 대화는 타자의 구현성이 된다. ‘타자에게 말한다는 것은 그의 표현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

미한다. 타자는 얼굴로 말을 걸어오며 나와와 대화를 성립시킨다. 타자는 나에게 말을 걸어오기 때문에 주체가 타자를 불러서 뒤돌아서 바라보는 것이 아닌, 타자가 타자로서 스스로 대변을 통해 소통 관계를 터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응답을 요구하는 타자의 부름에 내가 응답하는 것은 Levinas의 대화적 관계이다. 나를 응답할 수 있는 존재로 세울 때 나는 비로소 응답하는 자로서 타자에 대해 책임적 존재 또는 윤리적 주체로 탄생한다(Levinas, 19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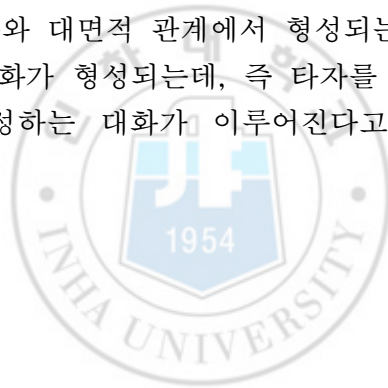
이처럼 Levinas의 타자성 발견은 주체 중심으로 배제됐던 수많은 타자를 받아들이고 환대할 수 있으므로, 타자 중심 기반의 새로운 교육적 담론을 형성할 수 있게 한다. 이는 타자의 타자성이 교육적 관계 안에서 온전히 유지되고 훼손되지 않으면서 주체의 윤리적 책임을 촉진하는 주체의 변화를 담아낼 것이다(노상우·권희숙, 2010: 56).

Buber와 Levinas 철학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Buber와 Levinas는 전쟁의 폭력성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새로운 인간관계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었다. 관계에 대한 Buber의 철학적 사유는 Levinas의 사상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강영안, 2005: 29). 예컨대 “1930년대 Marcel(프랑스 철학자)은 파리의 전위 철학자들의 정기 모임을 주선하였고, 그 자리에 Levinas도 참석하였다. 이때 주요 논제가 Buber의 ‘나와 너’의 관계였다.” 이를 통해 Levinas는 주체-타자의 관계에 대한 철학의 사유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Buber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노상우·권희숙, 2010: 57).

Buber와 Levinas는 서로 다른 사유의 시각과 방식상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이 있다. 첫째, 그들은 시대 문제의 원인에 대한 공통적 인식과 그 해결 방안을 인간관계 안에서 탐색하였다. 자율적 주체의 가능성과 한계점을 밝히는 데에 집중했던 근대의 철학적 전통을 부정하면서 Buber와 Levinas는 사람 사이의 진정한 만남을 강조하였다. Buber의 ‘나-너’ 관계는 너와의 만남을 통해 나아가게 되는 인격성이 전제된다. Levinas는 향유적 주체를 통해 각 인격에는 어떤 무엇으로도 소외시킬 수 없고 환원할 수 없는 존엄성과 고유성이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 두 철학자는 ‘나’인 주체가 중심이 되어 ‘너’인 타자를 주체의 영역으로 환원하는 전체주의 철학 또는 집단주의 사고를 배격하였다. 대신 타자의 존재를 주체의 영역으로 환원할 수 없는, 나와 분리된 너를 높이 드러내었다. Buber와 Levinas의 대화론은 주체와 타자의 관계에 초점을 두었으나 조화로운 사회의 가능성같은 공동체 문제에 대해서

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의 철학적 맥락을 통해 개인의 타자에 대한 책임이 조화로운 사회 그리고 상생을 위한 기초적인 단계가 된다는 것을 읽어낼 수 있다(김희근, 2018: 238).

둘째, ‘대화적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이다. Buber는 진정한 대화적 관계를 ‘나-너’의 관계 세계이며 ‘함께 있음’의 존재론적 본질로 보았다. 인간은 타자와의 직면을 통해 자신이 반응하고 대처해야 하는 존재론적 상황을 창조해 낸다. 즉 진정한 대화는 타자와의 동일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직면하고 타자를 타자로서 관계할 때 일어난다(강선보, 1999: 117). Buber는 대화의 유형을 실무적 대화, 위장된 독백, 진정한 대화로 나누었다. 진정한 대화란 타자에게 진실로 책임을 짐으로써 주체는 정체성을 지닌 채 대화에 참여하고, 책임 있는 신념으로 응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Buber, 1954; 표재명 역, 1991: 19). 또한, Levinas는 대화의 유형을 레토릭(retoric, 修辭學)적 대화와 대면적 관계에서 형성되는 대화로 나누었다. 대면적 관계에서 진정한 대화가 형성되는데, 즉 타자를 진정으로 마주하면서 그와 근원적 관계를 형성하는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노상우·권희숙, 2010; Levinas, 1961).



## 4. 소결

이번 장에서는 연구참여자인 방문교육지도사의 삶의 여정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1절에서는 이주민의 사회통합과 방문교육사업을 살펴보았다. 2000년대부터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한 이주민의 현황과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이주민 정책을 통한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 이를 위하여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고, 이를 근거로 2008년부터 여성가족부는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방문교육지도사’ 라는 직업은 탄생하였다.

방문교육지도사는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과 가족생활지도를 담당한다. 또한, 이들은 스스로 다문화가족이 직면하는 다양한 삶의 문제에서 상담사, 중재자, 멘토 등의 역할을 추가하였다. 예컨대, 이들은 생애 경험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족이 직면하는 개인 차원은 물론 사회·문화 차원에서 겪는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다. 이를 위하여 2절에서는 직업 생애와 윤리를 살펴보았다. 특히 인간의 생애와 직업은 떼어서 생각할 수 없으므로 인간의 생애 발달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직업은 당대의 사회·경제적 속성을 투영하고 있으므로 한국 사회의 발전과정과 사건 등 시대적인 특성을 반영한다. 즉 한국 경제개발·성장기(1962-1991)는 1960년대 출생한 연구참여자들의 성장기와 맞물리며 이들의 생애 발달과 직업 선택에 깊이 관여한다. 한국의 경제 발전과정이 중년여성들의 생애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삶에서 어떻게 표출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성장 과정과 직업 경험, 그리고 방문교육지도사가 중년여성의 직업으로써 이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생동감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년여성 방문교육지도사의 삶의 경험은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현장의 돌봄 실천가의 역량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노인 돌봄은 가정을 넘어 사회적 해결과제로 부상하였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이주민 유입 정책으로 이어지며 이주민에 대한 돌봄 또한 한국 사회의 해결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인간은 취약한 존재이므로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의존해야 하는 인간에게 상호 돌봄은 그 사회 안에 존재하는 공공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의 돌봄의 시작과 돌봄의 정의, 그리고 여성의 돌봄에 의존하고 있는 노인 돌봄 요양보호사, 다문화

가정 방문교육지도사 등의 직종을 살펴보면, 여성의 일로 간주하여 평가 절하되고 있는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중요성을 적었다.

전 세계적인 이주의 시대에 맞추어 한국 사회구성원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방문교육지도사는 국제결혼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진입하는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한국어 교육, 가족생활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돌봄실천가로서 이들의 활동에서 타자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낯선 타자에 대한 윤리적 태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3절에서는 타자 철학과 관계의 윤리에서 타자의 이해와 윤리적 태도를 살펴보았다. 타자는 동일 범주로 취급될 수 없는 다른 자아를 지닌 이를 의미하는데, 이들에 대한 윤리적 태도로써 여러 학자가 제안하는 관용, 책임, 환대, 인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이 초기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에서 이주민 학습자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오늘날 거스를 수 없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 한국 사회구성원으로 진입하고 있는 이주민에 대한 윤리적 태도의 관점도 변화를 보인다. 초기에는 관용, 책임, 환대, 인정이었다면 타자 철학자들의 윤리적 태도의 관점은 결을 달리한다.

Buber와 Levinas는 타자와의 만남을 통한 관계 맺기를 강조하였다. Buber는 인간의 만남과 관계 맺기를 참다운 삶의 두 인격체가 ‘나와 너’로 만나고 상호작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라고 하였다(정영기, 2018: 526). 또한, Levinas는 인간을 ‘타자성’이라는 근원에서 이해하였다. 험벗고 낯선 타자의 얼굴과 내가 마주할 때, 나와 타자 사이의 윤리적 관계는 시작된다고 하였다. 타자의 얼굴을 마주 봄은, 그 사람이 전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곧 그 사람의 깊은 내면과 배경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Levinas는 타자의 얼굴에서 무한책임의 윤리를 발견하였다(정영기, 2018: 534). 특히 사유의 중심에서 Buber는 나를 해체하고 ‘나와 너’의 관계를 논하였고, Levinas는 ‘타자와 나’의 관계를 철학적 사유로 삼았다. 이처럼 Buber와 Levinas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의 철학을 주장했다.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어 교육을 매개로 결혼이주여성을 만나고 대화하며 관계를 맺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타자 중심의 소통과 대화를 중시한 Buber와 Levinas를 살펴보면 방문교육지도사의 타자성 경험과 실천의 의미를 탐색하였다. 200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의 다문화 사회화는 오늘날 안정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한국 다문화 사회화 현장의 최전방에서 이주

민을 만나고 대화하며 관계를 맺고, 그들을 참된 삶으로 이끌어준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현장의 돌봄 실천가인 방문교육지도사들의 노고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개요 및 연구절차

##### 1.1. 생애사적 내러티브 탐구

본 연구는 질적연구의 한 유형인 생애사적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통해 방문교육지도사의 타자성 경험과 실천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에 있어 양적연구가 객관성과 일반적인 보편성을 강조하는 연구인 반면 질적연구는 주관적이며 결과보다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중점을 둔다. 질적연구는 일반화의 한계라는 점에서 지적을 받기는 하지만(박용순·배극수 외, 2012: 267) 다각적 자료를 수집한다는 점, 특정 시기의 특정한 현상과 사건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현상의 원인이나 내면에 있는 연구참여자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이준양·김영순, 2020: 25).

인간이 경험하는 삶은 일회적인 경험이 아닌 과정적 경험이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의 삶을 단순히 횡적이나 단면적으로 나누어 이해하기보다 생애 전 과정을 맥락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질적연구 중 생애사 연구는 개인 삶의 맥락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연결되는 관계성의 잠재력을 지니기 때문에 거시적 맥락과 미시적 맥락을 연결하게 된다(채은희, 2021: 69; Roberts, 2002: 4-5). 이와 같이 생애사는 개인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의 시간성을 통해 사회구조를 포착하는 것으로 개인 삶의 이야기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과는 구분된다(김영천, 2013: 206-207).

또한, 내러티브 탐구는 인간의 경험을 연구하는 데 있어 학문으로써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내러티브 탐구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 사이에 연구방법으로써 사용되기 시작하였다(Pinnergar & Daynes, 2007). Dewey(1938)의 경험이론에서 철학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과학 분야에서 인간의 '경험'을 연구하였다(Clandinin & Connelly, 2000). 연구참여자의 내러티브를 탐색함에 있어 Dewey의 경험에 관한 준거는 상황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과 지속성을 지닌 시간성과 사회성, 공간성(장소)의 세 가지 측면의 3차원적 탐구 공간을 획득한다(채은희, 2021: 63).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참여자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인간을 내부자적으로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내러티브 탐구에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관점을 살펴보면, 첫째, 인간을 이야기하는 존재로 보았다. 즉 인간은 이야기하는 대로 생각하고 이야기 된 삶을 살아간다(Clandinin & Connelly, 2000).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말하는 동물이고(MacIntyre, 1984), 인간 존재는 ‘자기 해석적(self-interpreting) 동물’ 이므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은 그들의 언어적 공동체에 기반하여 도출된다(장사형, 2013: 2014). 즉 내러티브 탐구에서 인간은 개인적, 사회적으로 이야기되는 삶을 살아가는 구현체라고 정의되고 있다(Clandinin & Connelly, 2000). 그러므로 내러티브는 인간의 현상을 이해하는 핵심적 통로가 된다. 둘째, 인간은 경험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았다. 인간의 내적 세계는 경험 안에서 존재하는데, 경험을 벗어난 것은 인식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Dewey는 경험을 유기체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이 완전히 수행됐을 때 참여와 의사소통 속에서 발생하고, 변화하는 상호작용의 결과이자 표식이며 보상이라고 하였다. Dewey는 경험을 설명할 때 세상에 선인지적(precognitive), 선문화적(precultural) 근거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인간 삶의 총체는 경험으로 구성된다고 보았고 인간에 대한 이해는 경험에 대한 이해와 탐구로부터 가능하다고 보았다. 셋째, 인간의 경험은 이야기적이라고 보았다. Clandinin & Murphy(2009)는 인간의 경험을 이야기적 현상(storied phenomenon)으로 이해하였으며, Dewey의 경험이론을 이야기적 현상으로 재개념화하였다(김병극, 2012: 5).

전통적으로 질적연구는 인간의 경험이 중요한 탐구 대상이므로 이들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참여 관찰과 심층면담을 활용한다. 이때 심층면담은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와 rapport를 형성하여 연구참여자의 내부자적 관점을 취득하기 위한 핵심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서 자료수집 방법으로써의 심층면담은 내러티브 탐구에서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 예컨대 내러티브 탐구는 인간의 경험이 이야기하기를 통해 구성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적인 성격을 가졌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하기’라는 행위를 강조하므로(김필성, 2019: 60), 내러티브 탐구를 차용하는 연구자는 인간의 경험을 이야기적으로 탐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김병극, 2012: 3). 이에 내러티브 탐구의 과정을 ‘삶을 살아내기(living) - 이야기

하기(telling) - 다시 이야기하기(retelling) - 다시 살아내기(reliving)' 라고 하였다(염지숙·강현석 외, 2015: 48-49). 즉, 내러티브 탐구는 인간은 내러티브를 통해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Clandinin & Connelly(2007)가 제안하는 내러티브 연구과정에서 1단계는 현장 물색하기, 연구참여자 선정 등이 있고, 2단계는 자료수집, 선행연구 검토, 질문지 구성이 있다. 3단계에는 현장 구성, 인터뷰를 텍스트화 하기가 있고, 4단계에는 현장 텍스트 검토, 의미를 만드는 과정(해석)이 있다. 마지막으로 5단계에는 연구텍스트 쓰기의 과정이 있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첫째, '현장으로 들어가기' 에서, 둘째,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 셋째, '연구텍스트 구성하기' 가 된다(성정숙, 2010: 65).

## 1.2. 연구절차

본 연구의 생애사적 내러티브 탐구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연구의 절차는 연구문제의 진술, 연구방법, 자료 분석, 결과 표현(글쓰기)의 과정이 있다. 본 연구의 단계별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계는 '연구문제의 진술'인데, 연구자가 발견한 문제는 '방문교육지도사의 가치 발견' 이었다. 예컨대 2000년대를 시작으로 한국 사회의 이주민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 증가에 따른 결혼이주여성과 그들의 자녀 세대의 증가에 따른 교육적·사회적 문제는 다문화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인식되었다. 방문교육지도사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중도입국 청소년 포함)가 원만히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즉 이들의 노력은 다문화 사회화하는 한국 사회가 안정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그 가치를 발견하고, 연구를 설계하였다. 덧붙여 방문교육지도사는 단순한 한국어 교육, 가족생활지도 등의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 수행을 넘어 다문화가정 가족 구성원이 삶을 통해 맞이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중재와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방문교육지도사의 삶 속 실천적 지식을 탐색하고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연구방법에 있어 생애사 연구는 개인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 역사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다(김영천·이현철, 2017: 257). 이에 방문교육지도사의 생애사에 관한 내러티브 탐색을 설계하였다. 반면 방문교육지도사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방문교육지도사의 직업 생애사에 관한 연구가 부족함을 발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업으로써 방문교육지도사의 역할을 이해하고 그들의 직업 생애사를 통해 타자성 경험과 실천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① 이론적 탐색과 연구문제를 정의하고 분석 틀을 선정하고 지도 교수의 수퍼비전을 받았다. ② 이후 자료수집을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심의 준비 및 승인 후 연구참여자 모집과 선정을 진행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2022년 2월 21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 심사를 의뢰하여 2022년 3월 16일 IRB 승인(승인 번호: 220221-6A)을 받았다. 연구참여자의 조건은 선행연구와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 확정하였다. ③ 연구참여자에게 개별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본 연구 주제에 맞추어 자유롭게 의견을 수집하였다. 이때 개별 심층면담에서 수집된 녹음파일을 전사하고 참여자의 회기별 결과물, 연구자의 참여일지 및 성찰일지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④ 수집된 자료와 전사자료 등을 기반으로 분석 및 범주화를 하였다. 단계마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해석하며 연구자가 바라보는 관점과 사고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반성의 과정을 거쳤다.

셋째, 생애사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연대기적 시간 순서, 인간관계 형식 중심, 물리적/문화적 공간 중심, 가치관과 비전 중심, 삶의 대응방식 중심, 사회적/역사적 맥락 중심 등 다양하다(김영천·이현철, 2017: 255).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생애 경험, 연대기적 시간 순서 등과 함께 연구참여자의 직업으로써 방문교육 현장의 시간성, 공간성, 관계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넷째, 분석 자료를 기술함에 있어 연대기적 글쓰기, 중요한 사건 중심, 호소적 언어 사용, 표 생성 활용 등(김영천·이현철, 2017: 255)을 적절히 활용하여 본 연구의 목적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연구절차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도교수가 진행하는 질적연구세미나에서 지도교수는 물론 참여 전문 연구자들과 동료 연구자들로부터의 학문적 간섭과 조언들이 있었다. 이 과정은 내러티브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하는데 기여하였다.

## 2.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 2.1. 연구자의 자전적 내러티브

연구자는 질적연구에서 주요한 연구 도구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Clandinin & Connelly(2007)는 내러티브 분석 방법으로 연구 주제와 관련된 연구자의 경험을 먼저 내러티브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연구자 자신에 대한 탐구는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입장을 형성하게 된 과거의 사건과 경험에 대하여 개인적-사회적 의미, 경험이 이루어졌던 다양한 환경 등에 대하여 되돌아보는 것을 뜻한다. 내러티브 연구는 인간은 인간이 경험한 내러티브 속에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참여자의 사건에 영향을 주는 연구자의 내러티브에 대한 탐구는 필수적이다. 또한, 내러티브는 자서전적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관심은 연구자 자신의 내러티브에서 나오고, 연구 내러티브 탐구의 줄거리를 형성한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연구자는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 연구 현장으로 들어간다.

연구자는 1960년대 시골 농촌 마을에서 2남 2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연구자의 부모는 주로 논농사, 밭농사 등의 농업에 종사하였다. 농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이에 연구자의 집안은 조상 대대로 마을 사람들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아버지는 집안 대소사를 돌보는 것은 물론 마을 지도자로서의 위치에 있었다. 한편 연구자가 대학에 입학할 무렵, 마을 사람들은 남아선호사상과 인습적 사고로 인하여 연구자의 대학 진학을 손가락질하였다. 그러나 “여자도 배워야 한다.” 라는 아버지의 굳은 신념과 어머니의 영민한 지혜 덕분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연구자가 대학에 입학한 같은 해에 한국은 큰 국제행사를 개최하였다. 연구자는 경찰청(당시 치안본부) 소속 통역 봉사 요원이 되었다. 그 당시 통역 봉사 요원에게는 개막식 리허설 입장 티켓이 제공되었다. 이 덕분에 연구자의 부모는 국제행사의 개막식 리허설을 직접 관람할 수 있었고, 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부러움이 되었다. 연이어 개최되는 국가 행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대학생활 내내 어학연수를 받았다.

대학 졸업 후, SKY 출신 입시학원장의 도움으로 지역 최상위 그룹 영재반의 영어 수업을 맡게 되었다. 연구자는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그들에게 도

움이 될 무엇인가를 찾아서 다양한 독서를 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지역 최다독자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독서를 통해 상담의 중요성을 알게 된 연구자는 2005년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에서 청소년 상담봉사자 양성 교육을 받고, 2017년 말까지 서울시 교육청 연계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또한, 2009년부터는 서강대 연계 지역 학습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2011년 청소년상담사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교육 심리학’ 과제를 위하여 연구자의 교사상이 형성되는 과정을 뒤돌아 보았는데, 고3 담임 선생님이 연구자의 롤모델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청소년기 불량청소년이었던 담임 선생님은 지역 어른의 도움으로 검정고시를 통해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참된 교사의 길을 걷고 있었다. 이는 시골 농촌 마을의 우물 안 개구리였던 연구자에게 큰 울림이 되었고, 연구자에게 선생님을 보내주신 그분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어른을 꿈꾸게 하였다.

연구자는 왕성한 지적 호기심을 따라 2006년 MBTI 성격유형검사, STRONG 직업흥미검사 등 각종 심리검사 전문가 과정, 2008년 한국 버츠프로젝트 전문가 과정, 2013년 경인 교대의 다문화 전문가 과정 등을 밟으며, 청소년 상담과 영어 수업을 병행하였다. 2015년 자녀의 군입대를 계기로 영어 수업을 정리하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에서 청소년 교육학을 전공하였다. 연구자는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 태도가 초기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과 관용에 미치는 영향(박옥현, 2017)’을 연구하였다.

2018년 K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학습상담사가 되었다. 인지·정서·행동 등에서 도움이 필요한 초·중·고 학생을 돕던 중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만나게 되었다. 연이어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자녀가 각자의 언어(어머니-베트남어, 자녀-한국어)로 소통하는 현장을 목격하였다. 그 장면을 목격하며 다음과 같은 질문이 올라왔다. “언어가 다르네.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엄마와 계속 대화할 수 있을까?” 연구자는 대학원 석사과정을 통해 부모와의 대화가 청소년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최초의 언어교육자인데, 결혼이주여성의 낮은 한국어 능력으로 인해 다문화가정 자녀는 한국어 등에서 학습 부진을 경험하게 된다. 이에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는 언어장벽은 연구자의 연구 문제가 되었다. 이의 해결 방안을 찾아 2020년부터 I대학교 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에서 정진하게 되었다.

연구자는 연구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다문화가정 부모-자녀가 서로의 모국어로 협동 학습하는 탄뎀 학습 모델을 제안하고, 소논문(박옥현·김영순,

2022a)으로 발전시켰다. 그러나 지도교수의 세미나에서 해당 모델은 소수의 낮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세상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질적연구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 무렵 다문화융합연구소의 B.K(Brain Korea) 연구원들은 가족센터에 집중하여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는 가족센터의 세부 정책들을 연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었다. 연구원들의 연구 결과 보고를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어 교사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침 2021년 12월 말, 방문교육지도사들의 은퇴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러한 계기로 연구자는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2022년 1월, 지도교수는 방문교육지도사에 관한 새로운 연구팀을 구성하였다. 방문교육지도사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임신, 출산을 경험하고, 부모가 되어 자녀를 양육하므로 이들의 한국어 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방문교육지도사는 자녀 양육은 물론 가정 내 한국인 가족 구성원과의 갈등 등 결혼이주여성이 마주하는 다양한 삶의 문제를 중재하며 지혜를 발휘하고 있었다. 주로 1960년대 출생한 방문교육지도사들은 결혼, 출산 및 자녀 양육 등에 따른 가정 내 본인의 역할을 마치고 한국방송통신대학, 각종 사이버대학 등에 진학한 자들이 많았다. 이들은 청소년기 배움에 대한 열정의 끈을 놓지 않고 2000년대 초, 중년의 나이에 대학에 진학하여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2008년부터 시작된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에 합류할 수 있었다. 즉 지난한 삶의 여정을 슬기롭게 극복한 중년여성 방문교육지도사들은 삶을 통해 익힌 배움과 지혜를 방문교육지도사로서의 역할 수행에서 발휘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연구자는 방문교육지도사에게서 맡은 역할에 대한 충실함과 동시대, 동직업군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하고, 방문교육지도사의 직업 생애에서의 경험을 탐색하게 되었다. 또한, 연구참여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동시대를 살아온 동지로서 공감과 연민을 갖게 되었다. 이에 이들의 생애사를 통해 고단했지만, 묵묵히 삶을 개척해온 1960년대생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들의 삶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전하게 되었다.

또한, 연구자는 다문화가정에 관한 관심을 따라 다문화 청소년의 교육복지와 적응에 관한 동향분석, 모국 언어문화를 병용한 문해력 지도,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간 협동학습 모델 등을 국내·외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하였고, 이는 소논문(박옥현, 2021; 박옥현, 2022a; 박옥현, 2022b; 박옥현·김영순,

2022a; 박옥현·오영섭, 2022)으로 발전시켰다. 덧붙여 중년여성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의 직업 생애사 연구(박옥현·김영순, 2022b)를 진행하였다.

## 2.2. 연구참여자의 특성

생애사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는 그들이 살아온 시대적 맥락과 사회적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 줄 수 있는 증인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선정에 있어 자발적 참여를 중시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00지역 가족센터에서 개최된 연구 설명회(2022년 1월 27일)에서 생애사 예시를 방문교육지도사들에게 전달하고, 본 연구에 참여를 원하는 방문교육지도사는 연구자에게 간단한 자기 생애사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2022년 2월 4일 연구참여자 A는 자신의 생애사를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해 연구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본 연구의 예비조사가 시작되었다.

한편 질적연구의 연구참여자 선정에는 적절성과 충분함이 중요하다(채은희, 2021: 76). 이에 연구자는 의도적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자발적 의사를 지닌 연구참여자를 선정하려 노력하였다. 예컨대 연구자는 I시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담당자에게 본 연구를 설명하고 연구참여자의 추천을 부탁하였다. 또한, 지도교수는 본 연구에 대하여 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설명하고 연구 참여를 권유하였다. 이에 연구참여자 B의 자발적인 연구 참여 의사가 전달되었다. 연이어 또 다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연구참여자 C의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적 의사 전달이 있었다. 이후 연구참여자 B는 입사 동기이나 타 지역에서 활동 중인 연구참여자 D를 소개해 주었다. 이에 연구참여자 선정에는 목적 표집과 눈덩이 표집이 병행되었다.

또한, 연구참여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의 기준으로 방문교육지도사 4명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방문교육지도사의 생애사적 내러티브 탐구이므로 경력에 있어 10년 내외, 연령에 있어 55세 내외(전·후 10년)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방문교육지도사의 모집에 있어 ①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② 선정된 방문교육지도사의 추천 ③ 자발적 참여의사 표명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연구참여자 4명의 특성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연구참여자의 특성

구분	연령	학력	가족	활동영역	활동기간	이전 직업
연구참여자 A	55세	학사	배우자 1남 1녀	가족생활지도	2011-2022 12년	수지침 봉사활동
연구참여자 B	61세	학사	배우자 1녀	한국어 교육, 가족생활지도	2009-2021 13년	중증장애인 봉사활동
연구참여자 C	62세	학사	배우자 1남 1녀	한국어 교육, 가족생활지도	2011-2021 11년	주민센터 한글교육
연구참여자 D	57세	학사	배우자 2녀	한국어 교육, 가족생활지도	2009-2022 14년	미술치료 집단상담



### 3.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

#### 3.1. 자료 수집

2022년 1월 6일 I 대학 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의 지도교수, 연구교수, 박사과정생 3명을 중심으로 방문교육지도사의 생애사팀이 구성되었다. 이 자리에서 지도교수는 팀원 각자에게 연구과제와 역할을 분담하였다. 1월 7일 연구자는 방문교육지도사에 관한 연구 동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학위논문 16편, 학술지 소논문 27편을 분석하고 발표하였다. 1월 13일 생애사팀원은 방문교육지도사에 관한 질적연구 중 학술 논문 7편(권경숙·봉진영, 2012; 권경숙·봉진영, 2013; 노영혜·김원중, 2019; 방현희·이미정, 2014; 봉진영·권경숙, 2013; 이오복, 2014; 정신희, 2018)을 분석하고 발표하였다. 1월 14일 연구자는 생애사에 관한 6편(강영미, 2015; 김지혜, 2020; 박병섭·정용미, 2021; 윤희진, 2012; 윤희진·김영순 외, 2016; 정용미·박병섭, 2021)의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방문교육지도사의 직업 생애사 연구를 위한 연구 설명문, 연구 참여 동의서 등을 준비할 수 있었다. 특히 심층면담을 위한 반구조화 질문지 구성을 위하여 방문교육지도사 활동의 의미 탐색에 관한 연구(이선정, 2019)와 직업 생애사에 관한 연구(이병준·이유리, 2014; 이병준·석영미, 2015), 타자성 실천에 관한 연구(배경임, 2018)를 참고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 대한 사전설명회가 2022년 1월 27일 00시의 D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있었다. 이를 통해 2022년 2월 연구참여자 A와 B의 자발적인 참여 의사가 전해지며 본 연구의 예비조사를 위한 심층면담은 2022년 2월 11일(연구참여자 A), 3월 3일(연구참여자 B)에 진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및 점검 기간은 2022년 2월 4일부터 2022년 9월 1일까지이다.

한편 심층면담 내용은 크게 생애사적 질문과 타자성에 관한 내용으로 구분되나 1차 심층면담에서는 주로 방문교육지도사와 관련한 질문으로 시작하여 자연스럽게 생애사 기술을 위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1차 심층면담을 위한 첫 질문은 “무용분야 예술강사라는 직업적 삶의 경험은 어떠하였는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병준·이유리, 2014: 6)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실무자로 일하시면서 부터 지금까지의 직업적 삶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이병준·석영미, 2015: 341) 를 참고하여 “방문교육지도사는 어떻

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였다. 이어 주요 연구문제와 관련된 개방형 질문을 실시하며, 이어지는 추가 질문을 통해 연구 관심과 직업 경험 등이 드러날 수 있게 질문하였다.

〈표 4〉 1차 심층면담을 위한 반구조화 질문 개요

방문교육지도사 이전의 삶
방문교육지도사의 지원동기
방문교육지도사로서 기억에 남는 경험(3개 정도)
방문교육지도사에게 필요한 역량
방문교육지도사를 지속하게 하는 것
방문교육지도사의 제도 및 생애사 관련 바라는 점
방문교육지도사의 노조 결성 이전과 이후
향후 방문교육사업의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

심층면담은 자료가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심층면담 전날 연구참여자와 소통하며 면담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였고, 심층면담에서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연구참여자가 방문교육지도사로서 현장에서 경험하고 성찰한 내용 중 연구자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준비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1차 심층면담을 마치고 지도교수와 동료 연구자들에게 심층면담에 관하여 브리핑을 하였다. 이때 지도교수와 동료 연구자들의 제안, 조언 등이 있었다. 2차 심층면담에서는 1차 면담 내용을 점검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타자성에 관한 질문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심층면담에서 연구참여자들은 기초적인 생애사적 경험, 방문교육 현장 경험 등에 관한 질문에는 쉽게 답을 하였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타자성에 관한 연구자의 질문에 답하기 어려워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타자성에 대하여 예를 들어 설명하고 질문하였다. 예컨대,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으나 여전히 길을 건너고 있는 할머니가 계실 때, 연구참여자가 운전 중이라면 어떻게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연구참여자는 주로 할머니께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였다. 이때 빨간 신호등은 법적으로 차량의 이동을 보장하는 것이지만, 연구참여자들은 할머니의 안전을 우려하여 기다린다고 하였다. 이처럼 타인을 배려하는 그것이 타자성

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뀐 상황에서 여전히 횡단보도를 건너는 할머니를 기다리는 이유를 질문하였다. 이에 연구참여자들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로 답하였다. 그러나 어떻게 그러한 마음이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머뭇거렸다. 한편 삶의 롤모델이거나 본인의 삶이 누구와 닮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연구참여자들 대부분(연구참여자 A, B, D)은 ‘아버지’ 를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C는 장녀로서의 책임감을 말하였다.

또한, 1, 2차 면대면 심층면담에서 누락된 부분이나 추가되는 질문 등은 전화, SNS 등을 통해 보완하였다. 특히 연구참여자 C의 경우는 1차 심층면담이후 줄곧 전화, 또는 SNS를 활용하여 소통하였다. 이는 연로하신 어머니(우울성 치매)와 함께 지방에 머물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본 연구에 앞서 방문교육지도사의 직업 생애사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에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와 해당 원고의 내용과 연구 참여 동의서 등을 검토하였다. 특히 연구참여자 C는 어머니와의 한달 살이를 마치고 5월 12일 연구자와 면대면 만남이 있었다. 이때 연구참여자 C는 연로하신 어머니에 대한 안쓰러움을 토로하였고, 남동생의 박사 학위 과정을 지켜보았기에 연구자의 연구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공감해 주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연구참여자별 면담일정

구분	1차	2차	3차	4차 <sup>14)</sup>	5차 <sup>15)</sup>
연구참여자 A	2/11 자택근처 14:20-16:00	3/12 연구실 13:50-16:10	SNS, 전화	5/9 자택근처 14:00-14:40	8/27 자택근처 10:30-13:55
연구참여자 B	3/3 강의실 13:40-15:40	3/18 강의실 14:00-15:40	SNS, 전화	5/9 강의실 15:00-16:00	8/26 강의실 14:00-15:45
연구참여자 C	3/22 가족센터 14:00-16:00	4/1 SNS 소통	SNS, 전화	5/12 자택근처 14:40-15:30	9/1 강의실 10:45-12:45
연구참여자 D	3/31 자택근처 14:30-15:50	4/6 자택근처 15:20-17:00	SNS, 전화	5/6 강의실 15:00-16:00	9/1 강의실 14:40-16:10

- 14) 4차 연구참여자와의 면담에서는 연구참여 동의서 및 방문교육지도사의 직업 생애사 연구에 관한 원고를 확인하는 작업 등이 있었다.
- 15) 5차 연구참여자의 면담에서는 전사록, 음성 파일 등에 대한 재점검, 생애사 참여 후 소감 나누기 등이 있었다. 위의 심층면담은 주로 연구자가 소속된 학교의 연구실 또는 빈강의실이거나 연구참여자의 자택근처 또는 가족센터에서 진행되었다.

개별 심층면담은 연구참여자별 5회정도로 이루어졌으며 1회 정도만 온라인으로 진행하였고 대부분은 대면 면담으로 진행하였다. 1회에 대략 1시간 50분~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심층 인터뷰를 위한 반구조화 질문지를 준비하였으나 인터뷰 상황에 맞추어 융통성 있게 다양한 질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자료 수집을 위해서 연구참여자들과 일정 등을 논의함은 물론이고 사전 질문지 구성과 심층면담을 위한 녹음 앱을 확인하였고, 면담 장소 등을 점검하였다. 1차 심층면담에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에게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을 다시 확인하였고, 동의서의 내용을 꼼꼼히 설명하여 연구참여자가 연구참여에 동의하는지 점검하였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참여 동의를 구한 후 자료 수집을 위한 녹음을 시작하였다. 매 회기 심층면담에서 수집된 자료는 당일 전사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심층면담 이후 지도교수와 동료 연구자들에게 심층면담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심층면담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덧붙여 연구 참여일지, 성찰일지 등을 작성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 참여일지는 매 회기 면담이 끝난 후 당일 제출을 원칙으로 하였다.

### 3.2.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 방법은 질적연구방법 중 생애사 이야기 분석이다. 생애사 이야기 분석방법은 개인의 경험을 역사와 사회적 맥락에서 특정 경험과 사건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는데 유용한 방법론으로써(김지혜, 2020: 75), 한 인간의 생애를 중심으로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인간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연구방법이다(Creswell, 1997, 2010). 한편 양영자(2013: 272)에 따르면 사회복지 분야의 생애사 연구 논문들은 분석 방법에 있어 Schütze, Rosenthal 및 Rosenthal과 Fischer-Rosenthal의 인터뷰 분석 방법을 따른 논문들이 다수라고 하였다. 이외의 분석 방법에서는 명칭은 다를지라도 범주 위주로 접근하는 내용분석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분석 방법은 생애사의 특성인 주관성, 시간성, 이야기성 중에서 이야기성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 접근 방법이다. 이에 따라 내러티브 분석 방법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Schütze의 생애사 텍스트 분석 방법은 ‘현실(Wirklichkeit)’ 과 ‘이야기(Narration)’ 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는 않고 있음에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반해 Rosenthal의 분석 방법은 ‘사실적 진실성(factual truth)’ 과 ‘이야기적 진실성(narrative truth)’ 과의 상호 관계성 속에서 ‘실재성(Realität)’을 해명하고자 하는 분석 방법이다. 따라서 이는 시간성, 주관성은 물론 이야기성까지도 분석하는 생애사 연구에 매우 적합한 분석 방법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양영자, 2013: 273-274). 따라서 본 연구는 Rosenthal(2008)의 내러티브 생애사 분석 방법을 차용하였다.

이 분석 방법은 생애사 연구의 세 가지 특징인 시간성(temporality), 이야기성(narrativity), 주관성(subjectivity) 중 이야기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방법으로서 서사적 생애사와 체험된 생애사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텍스트 분석 과정은 우선 Rosenthal의 내러티브 생애사 인터뷰 분석 절차 5단계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강영미, 2015: 120). 첫째, 연대기적 생애사를 요약한다. 둘째, 이야기된 생애사 분석을 위해서는 연구참여자의 생애사적 데이터와 이주사적 데이터를 시간순으로 분석한다. 셋째, 주제적 영역 분석과 텍스트 분석단계를 통하여 현재의 관점에서 서술된 생애적 이야기의 발생 기원을 분석한다. 넷째, 연속적 세밀 분석과 체험된 생애사의 재구성 단계에서는 특정 과거의 체험이 지니는 생애사적 의미와 체험된 생애사의 연속적 구조, 그리고 그 구조의 시간적 형태를 분석한다. 다섯째, 체험된 생애사와 이야기된 생애사의 비교 분석으로 이 단계에서는 두 생애사 간의 차이를 분석한다. 이처럼 Rosenthal(2008)이 제시하는 분석 절차에 맞추어 수집된 자료를 점검하였다.

이후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지도교수의 검토와 확인과정을 통해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Clandinin & Connelly(2011)의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을 적용하여 분석틀을 삼았다. 이 분석의 틀은 시간성, 공간성, 관계성의 세 가지 차원(dimensions)인데, 시간성 차원에서는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을 기준으로 연구참여자의 타자성 경험과 실천의 순환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공간성 차원에서는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을 기준으로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영역과 방문교육 활동 공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관계성 차원에서는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에서 연구참여자가 맺는 타자와의 관계와 주체로서 연구참여자에 집중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연구참여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전사 분량은 A4용지 기본포맷 368쪽이며, 글자 수는 모두 419,422였다. 본 연구를 위해 수

집된 자료 및 전사록 등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 15조(인간 대상 연구의 보관 및 기록 등)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연구가 종료 되는 시점에서 3년간 보관하며, 그 이후에는 폐기된다.



## 4. 연구 신뢰성 및 연구 윤리

질적연구는 연구참여자의 구술적 자료를 근거로 의미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의 개입 가능성이 높는데, 이는 연구의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질적연구방법은 연구의 절차를 준수함에 있어 엄격성이 강조된다(안형숙, 2016: 52). 이에 따라 질적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 계획 단계에서부터 신뢰도와 타당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 자료의 수집에서부터 분석까지 그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연구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Creswell, 2011: 223). 질적연구의 평가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나 주로 제시된 기준은 신뢰도와 타당도라 할 수 있다. 이에 Lincoln과 Guba(1985)는 양적연구에서 내적 타당도가 질적연구의 맥락에서 신빙성(credibility)과 상응하는 개념으로 타당도를 제안하였다(유기웅·정종원 외, 2018: 391). 본 연구는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참여자인 방문교육지도사, 연구참여 구성원들의 검토와 관찰, 인터뷰, 문서를 기반으로 하는 삼각측정법, 장기/반복적 관찰, 연구자의 선이해, 편견 명시 등에 대하여서는 조성남·이현주 외(2011)의 제안을 참고하였다.

한편 Lincoln과 Guba(1985)는 일관성(consistency) 또는 의존성, 신뢰성(dependability) 등에서 질적연구에서의 신뢰성(reliability)의 개념을 찾았다. Merriam(2009)은 질적연구에서 신뢰성의 개념은 같은 연구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냐의 문제보다는 수집된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일관성 있는 결과를 찾을 수 있는냐의 문제라고 지적하였다(유기웅·정종원 외, 2018: 400). 따라서 질적연구 중 생애사적 내러티브 탐구인 본 연구의 신뢰도, 즉 일관성(consistency) 혹은 의존성, 신뢰성(dependability) 확보를 위하여 자료수집 방법 및 범주의 도출 등의 결정이 내려지게 된 배경 등을 상세히 기술함을 물론이고 장기/반복 관찰, 연구참여자의 인터뷰, 문서 등에 기반한 삼각측정법을 적극 활용하였다. 또한, 단지 연구방법론상의 절차를 잘 수행하는 것을 좋은 질적연구라고 할 수 없다(이정빈, 2018: 99). 즉 좋은 질적연구란 읽는 이에게 울림과 깨달음을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맞는 연구참여자를 선정하고, 연구참여자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반추하며, 성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연구의 윤리는 연구참여자의 ‘자유로운 동의의 원리, 자료에 대한 비밀보



장의 원리, 참여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어떤 불이익으로부터의 참여자 보호의 원리’에 기초하기 때문에 특히 내러티브 탐구에서의 윤리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관계적 윤리’에 집중한다(Clandinin, 2012). 여기에서의 관계적 윤리는 “탐구를 협상하기 이전에 우리가 연구 계획서의 윤리적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건은 내러티브 탐구의 한 부분인 관계적 협상과 어긋나는 것” (Clandinin & Connelly, 2000: 170)임으로 윤리적 고려는 연구의 처음 시작에서 끝날 때까지 스며들어 있어야 한다(Clandinin & Connelly, 2006: 483).

이에 연구자는 본 연구를 위하여 소속기관으로부터 IRB승인을 받았다(IRB 승인 번호: 220221-6A). 또한, 심층면담이 시작되기 전,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진행 과정 등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이에 대한 연구참여 동의서를 준비하였다. 연구참여 동의서에는 연구의 목적, 연구의 내용, 연구방법 및 절차, 연구로 인한 불편감에 대해 연구자의 대처와 계획, 그리고 배려와 함께 연구 참여로 인한 위험이나 이익 가능성, 연구의 참여와 중지에 대한 자율성, 개인 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다. 연구참여자가 연구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해당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연구참여자로부터 수집된 녹취록이나 전사록 등의 자료는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연구 종료 후 3년간 보관후 폐기됨을 설명하였다.

연구동의서에 명시된 연구 윤리는 연구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서 성실히 준수하였으며 연구참여자가 연구과정에서 불편감이나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질적연구에서 연구참여자의 진실성과 능동적인 연구참여는 연구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연구참여자가 본 연구에서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의 기대효과 등을 피력하였다. 또한, 동시대를 살아낸 동지로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의 깊은 신뢰 관계 형성을 위하여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자의 자기 생애사를 전달하였다. 심층면담 초기 머뭇거리던 연구참여자들은 이에 대하여 ‘선생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지혜가 있다’는 평과 함께 능동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연구자는 지속적으로 전화, SNS 등을 통해 연구참여자와 소통하며 연구의 진행 과정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 연구참여자들의 안부를 물으며 지내왔다. 이러한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는 동시대를 살아내었기에 삶의 경험 속에서 공유되는 이야기가 많았다. 이에 서로에 대하여 쉽게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연구자와 연구참

여자는 모두 전문상담사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무조건적인 존중, 공감적 이해가 유지되었다. 이에 연구자는 전문 심리상담 과정에서의 윤리나 학문적 연구에서의 윤리는 지극히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였는데, 본 연구과정을 함께하며 연구참여자는 물론 연구자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심리적 치유를 경험하였다.

연구자는 모든 연구참여자와 심층면담을 마치고, 연구의 여정을 돌아보며 연구자로서 연구에 임하는 태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성찰을 통해 연구 활동에 대한 반성과 함께 ‘다시 삶을 살아내기’ 할 수 있는 동기를 얻게 되었다.

한편 연구자는 질적연구자의 역량 함양과 본 연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였다. 첫째, 2021년 1월, 7월, 2022년 1월, 2월, 7월, 8월 방학 기간에 질적연구방법 캠프에 6회(53시간) 참가하여 질적연구의 기본을 익히고, 연구자로서의 연구 윤리를 배웠다. 둘째, 연구자는 연구 설계와 연구 진행의 모든 과정에서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았으며 이는 논문연구 정규수업과 개별적인 지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셋째, 연구자는 연구공동체의 월례발표회, 정기적인 세미나, 정규수업, 학위논문 발표회에 참가하여 다른 질적연구자들의 코멘트와 자문을 받았다. 넷째, 연구자는 방문교육지도사의 생애사를 탐색함에 있어, I대학의 사회교육과 교수와 멘토 교수 그룹, 동료연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로부터 검토를 받았다. 다섯째, 연구자는 상담 및 심리치료사로서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 청소년상담사 3급(2011), 2급(2018), 청소년지도사 2급(2017), 사회복지사 2급(2020), 1급(2021) 등 심리상담 관련 자격을 갖추었고, 한국교원연수원의 한국어교사양성과정(2021)을 밟았다. 여섯째, 연구자는 2021년 지역 도서관의 시민작가 양성과정에서 자서전을 집필하고, 『내 인생 이야기』를 출간하였다. 일곱째,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주제로 문헌연구방법 및 현장경험을 반영하여 2022년 2월 11일 현직 방문교육지도사와 예비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이후, 4월까지 본 연구를 위하여 4개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와 추가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여덟째,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I시 3개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교육지도사와의 심층면담 자료를 기반으로 ‘중년여성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의 직업 생애사 연구(박옥현·김영순, 2022b)’를 발표하였다. 아홉째, 연구참여자로 선정된 4개 지역 방문교육지도사에게 본 소논문을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며 본 연구를 위해 노력하였다. 열째, 연구자는 연구참여자

들과의 인터뷰에서 동시대를 살아온 동지로서 공감과 연민을 갖게 되었다. 이에 이들의 생애사를 통해 고단했지만 묵묵히 삶을 개척해온 1960년대생 연구참여자들의 삶 이야기와 이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전하려 노력하였다.



## IV. 중년여성 방문교육지도사의 직업 생애 내러티브

본 연구는 질적연구방법 중 하나인 생애사적 내러티브 탐색을 통해 중년여성 방문교육지도사의 타자성 경험과 실천의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확인은 주로 1960년대 출생한 중년여성 방문교육지도사인 연구참여자들의 삶을 이해하고 가속화하고 있는 한국 다문화 사회화에 대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타자성 경험과 실천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거스를 수 없는 다문화 사회화에 직면해 있고, 이를 위해 사회구성원 간의 성숙한 논의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누구나 소수자가 될 수 있는 현 사회변화에서 주류사회가 아닌 소수자들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장에서는 연구문제 1에 해당하는 ‘방문교육지도사의 직업 생애에 나타난 삶의 내러티브는 어떠한가?’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참여자 4명의 내러티브를 생애사적 관점에서 구성해 보고자 하였다.

생애사 연구를 통해 개인의 직업 경험을 이해하게 된다면, 시간적인 직업 경험의 영역뿐만 아니라, 그 경험에 영향을 미친 경제·사회·역사·지리적 영향력을 탐구하는 데 유용하다. 의미란 삶에서 과거·현재·미래를 하나로 묶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의미는 그 사건이 발생하는 순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경험할 때 생겨난다. 이때의 경험은 행동과 그에 따른 감정뿐만 아니라 행동과 감정에 대한 개인적인 성찰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Bruner, 1986).

생애사는 연구참여자가 경험한 각 개인의 순차적 시간성 안에서 이들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상호작용을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V장에서 진행되는 연구문제 2에 해당하는 연구 과제로써 내러티브 탐구를 활용한 방문교육지도사의 타자성 경험과 실천의 의미에 대한 해석적 토대가 될 것이다. 이를 해석하자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타자성 경험과 실천의 의미를 연구참여자 개인의 삶 속 내러티브를 통해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연구참여자 각 개인의 생애사를 통해 이들의 삶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방문교육지도사 이전 시기, 방문교육지도사 시기로 구분하여 구체적 생애 경험 내용을 기술하였다.

# 1. 연구참여자 A의 내러티브 : 배움은 쓸모가 있더라

## 1.1. 방문교육지도사 이전 시기

연구참여자 A는 1967년 2남 4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 여리여리한 언니는 주로 어머니와 함께 집에 머물렀다. 그러나 아버지는 키도 크고 힘이 센 연구참여자 A를 데리고 저수지로 고기를 잡으러 가는 등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었다. 특히 연구참여자 A는 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에서 단거리 달리기 선수였다. 이 때문에 술 심부름을 많이 했었다며 아버지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연구참여자 A는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애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6.25 참전에 따른 후유증을 이겨내기 위해 알코올에 의지하였는데, 그 당시 연구참여자 A는 아버지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이 친구들에게 노출될 때면, 연구참여자 A는 친구들에게 부끄러웠다. 그래서 아버지가 안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하였다. 아버지의 병세는 시나브로 깊어졌고, 연구참여자 A가 고3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그렇게 떠나보내야 했던 아버지에 대한 죄송스러움과 그리움은 연구참여자 A의 마음에 남아 있었고, 이는 노인정 봉사 활동으로 이어졌다.

“저는 우리 아버지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요 죄의식 때문에. 정말 법 없어도 살 그런 분이었는데 저는 어려서 몰랐어요. 봉사는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거. 자기를 내려놓기 위한 거고 자기 합리화인거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6.25 때 (중략) 그러니까 엄마도 고생 엄청하고 땅밖에 없으니까. (중략) 나중에는 술을 안 드시면 잠을 못 자. 아파가지고 (중략) ‘아버지가 돌아가셔버렸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고3 때. 아버지가 돌아가서 버렸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따뜻한 분이셨냐 하면, 술 안 잡수시면 천사였어요. (중략) 소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해와 불신으로 아버지를 그때 당시에는 미워했던 거야 (연구참여자 A, 2022.02.11.).”

연구참여자 A의 아버지는 자녀를 위한 가정교육에 많은 정성을 쏟으셨다. 아버지는 주로 권선징악 등 삶의 지혜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A의 삶의 중심에는 아버지의 가르침이 있었다. 또한, 아버지가 병마와 싸우는 동안 연구참여자 A의 어머니는 묵묵히 가족경제를 책임졌다. 특히 2남 4

녀를 먹이고 가르쳐서 성인으로 키워내기까지 연구참여자 A의 어머니는 남자 일, 여자 일을 구분하지 않으며 고군분투하였다. 이러한 아버지의 가르침과 어머니의 삶의 모습은 연구참여자 A가 삶을 살아가는 내내 마음의 기둥이 되었다. 특히 연구참여자 A는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며, 인간의 인성 중 70%가 유아기에 형성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참여자 A는 부모님 덕분에 좋은 인성이 형성되었다고 하였다.

“우리 아버지와 의 성장 과정인 것 같아요. 아버지의 가정 교육. 그렇게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뼈에 묻히게 잘한 것 같아요. 참아야 된다는 거. 내가 목표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참아야 된다는 거. (중략) 그거는 우리 엄마였던 것 같아요. 그 힘든 과정에서도 우리 엄마가 남자 일 여자 일을 다 하면서 우리를 길러냈잖아요. (중략) 그리고 또 이 다문화 수업을 하면서 보면 애들은, 제가 유아교육과도 (공부)했잖아요. 거의 8세까지 머리가 70%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2세까지 나머지가 형성이 된다고 했거든요.(연구참여자 A, 2022.02.11.).”

연구참여자 A는 고교 졸업 후(1987년), 언니와 오빠가 있는 수도권으로 상경하여 최침단 반도체 업체에 취업하였다. 5년 후 입사한 대졸 신입사원과 사내 연애를 하게 되었고, 결혼으로 인해 퇴사(退社)하였다. 1980년대 여성은 회사에 입사하면 결혼 퇴직 각서를 쓰는 것이 관례이었다. 이는 1980년대 후반까지도 보편적이었으나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며 여성에 대한 공개적이거나 명시적인 차별은 점차 감소하였다(강규희, 2016: 72-73). 이는 연구참여자 A의 삶에서도 발견된다.

“건강이 좋지 않으셨던 아버님께서 고3 때 돌아가셨다. 대학 등록보다 취업을 선택했다. 첫 직장 1987년 첨단산업 반도체 회사에 입사했다. 회사에서 남편을 만나 사내 결혼을 하여 회사를 퇴사 했다(연구참여자 A의 자기 생애사, 2022.02.04.).”

연구참여자 A는 27세(1993년)에 결혼하여 첫 아이(딸)를 낳고, 5년 후 둘째 아이(아들)를 낳았다. 한편 대기업의 무리한 몸집 부풀리기와 문어발식 기업 확장은 1997년 외환위기를 불러왔다. 한 나라의 외환위기(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는 그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한국의 외환위기는 연구참여자 A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 예컨대 연구참여자 A는 결

혼 전에는 올림픽 공원 근처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나, 외환위기에 즈음하여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A는 이주한 지역의 교회에서 수지침을 배우고, 노인정 어르신들에게 수지침 봉사를 시작하였다. 어느 날, 급체한 남편을 수지침으로 회복시킨 경험은 연구참여자 A가 수지침을 통한 봉사활동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였다.

“그때 당시는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수지침. 교회 계신 집사님이 계셔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건강에 도움될 수 있는 뭔가를 프로그램을 하자. 수지침을 1년 배우고 그 이후 이제 봉사를 했어요. 봉사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차도가 있더라고요. (중략) 그리고 효과를 본 게 신랑이 회식을 했는데 저는 그 장면을 처음. 봤어요. 그때 마침 제가 수지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조금 나와요. 그래도 계속 마사지하고 하니깐 피가 좀 많이 나오면서 '허'하는 소리가 나면서 혈액이 돌아온거야. 그래서 봉사팀에 진짜 열심히 다녔어요(연구참여자 A, 2022.02.11.).”

이와 같은 노인정 등에서의 수지침 봉사는 연구참여자 A의 삶에서 전환점이 되었다. 예컨대 연구참여자 A는 첫 아이(딸)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한국방송통신대학(이하, 방송대) 보건환경학과에 입학하였다. 노인정 봉사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다면, 수지침 봉사활동 경험은 방송대 보건환경학과로 이어졌다. 이를 시작으로 연구참여자 A는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한국어교원 자격 등을 취득하였다.

특히 연구참여자 A는 의료행위에 속하는 수지침 봉사활동을 통해 깨달은 전문적 지식의 필요성에 따라 보건환경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방송대 입학부터 시작된 학과 대표로서의 역할은 점차 확장되어 연구참여자 A에게 지역 봉사단체 회장의 역할이 맡겨졌다. 이후 지역 활동가들은 연구참여자 A의 진정성과 리더십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연구참여자 A는 00시의 다양한 행사에서 봉사단체를 이끄는 리더가 되었다.

연구참여자 A는 행정안전부, 도로교통공단 강사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연구참여자 A는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에 지원하기 전에는 어르신 안전교육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인성교육을 강의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연구참여자 A는 강의를 연결해 주는 단체나 강의 내용은 다를지 모르지만 ‘가르친다’는 공통분모가 있으니 ‘하나예요’라고 하였다.

## 1.2. 방문교육지도사 시기

연구참여자 A는 2011년 방문교육지도사에 지원하여 2022년, 현재까지 현장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연구참여자 A는 1차 면담(2022.2.11.)에서 방문교육지도사 채용 공고에 맞는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2차 면담(2022.3.12.)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다. 연구참여자 A는 방문교육지도사에 지원한 2011년 이전부터 행정안전부, 도로교통공단 등에서 관련된 자격을 갖추고 안전교육, 인성교육 등 강사 활동을 하고 있었다. 방문교육지도사는 이와 병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방문교육지도사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이런 자격증 없으면 제가 다문화 센터에 등록을 했을까요. 안 했잖아요. 제가 자격증 없으면 공고문을 봤다. 하더라도 이력서를 내지 못했겠지요(연구참여자 A, 2022.02.11.).”

“제가 행정안전부, 강사 자격증이랑, 도로교통공단에 강사 자격증이 있어요. (중략) 그 두 개의 강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인성교육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이랑 그 일을 계속하다가 이게 들어간 거예요. (중략) 이거 하다가 (방문교육지도사 채용) 공고문을 보고 좀 더 어른도 하면서 좀 더 파생시킨 거죠. (중략) 하나예요.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게(연구참여자 A, 2022.03.12.).”

방문교육지도사의 역할은 지도하는 유형에 따라 역할 갈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손제령·김경화, 2009: 39). 결혼이주여성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한국어 교육은 그들에게 높은 호응을 받는 반면 가족생활지도는 자녀 양육 방법과 교육 방법 등에서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관이 작용하기 때문에, 지도내용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연구참여자 A는 가족생활 지도를 담당하며 불편했던 경험을 나누어 주었는데, 다문화가정 부모가 방문교육지도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녀가 힘들어하는 경우, ‘하기 싫어 그러면 끊을까’ 라고 말했을 때, 좌절하였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A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장애인 봉사 등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에서 그것 보다 힘든 일은 없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A는 이주민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가령, 한국 사회에서 자녀를 많이 낳아주고 그들로 인해 한국 사회가 부강해질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이 곧 나라를 돕는 것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

“어찌 됐든 우리 한국의 국민으로 와서 살겠다는데 국민이 국민으로 산다는 것을 열심히 일해서 노동의 대가로 세금도 내고 그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아이도 많이 낳아주고. 나중에 우리나라가 부강해지죠. 우리나라 아무것도 없는데 딱 있는 거 사람밖에 없는데(연구참여자 A, 2022.03.12.).”

환대는 이방인을 손님으로 받아들여 호의를 베푸는 행동이나 의식을 말하는데(최샘·정채연, 2020: 58), 이는 무조건적 환대와 조건적 환대로 나뉜다. 무조건 환대가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묻지 않는 무조건적인 것이라면, 의무와 권리가 상호적 조건으로 이루어질 때 조건적 환대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참여자 A의 이주민 학습자에 대한 윤리적 태도는 조건적 환대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조건적 환대는 만남과 대화가 지속되며 상호침투하여 무조건적 환대로 나아간다.

연구참여자 A는 한국인가정이든 다문화가정이든 어느 가정이나 가족 구성원 간에는 갈등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다문화가정을 방문하여 학습자인 결혼이주여성을 교육하게 될지라도 한국인 가족 등 모든 가족 구성원을 다독이며 방문교육 활동에 임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수지침은 물론 어르신 안전 교육 등을 통해 배우고 익힌 현장의 노하우라고 하였다.

“음 다 고마워하고 그랬어요. 그런 건 없어요. 어르신들 수지침 했잖아요. 어르신 교육을 하잖아요. (그분들이랑 소통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가족을 웬만해서는 다 (상담을 해줘요.) 노력을 해요. 그리고 할머니하고도 상담도 해요. 남편이 좀 그럼 남편하고 기회가 되면 다 만나요. 저는 다 만나요. (중략)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은 밖에서도 만나요. (중략) 상담 좀 하고 싶어요. 그렇게 연락이 와. 그러면 제가 시간이 늦어도 괜찮습니다. (중략) 그럼 거기서 상담을 하는 거죠 (연구참여자 A, 2022.03.12.).”

방문교육지도사 채용 조건에는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 많은 자격을 요구한다. 쓸모 없이 많기만 하게 느껴졌던 연구참여자 A의 자격증들은 방문교육

활동에서 쓸모 있게 사용되었다. 특히 연구참여자 A는 금융 관련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20대 초반 결혼이주여성이 가정 경제를 설계할 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다문화 부부는 나이 차이가 많은데, 한국인 남편과 이주민 아내, 자녀의 생애 설계를 도와줌으로써 다문화 부부가 좀 더 계획적으로 가정 경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다문화 이 일을 하면서 이게 한 번의 정상 사용하게 되더라. 내가 이런 자격증을 취득해서 뭐 해. 쓸모도 없고 너무 여러 가지 일을 한 사람은 쓸모가 없다. 그랬어요 (중략) 다문화 일을 하면서. 라이프 사이클을 그대로 해줘요. 20대부터 80대까지 라이프 사이클을 짚 그려주면 출생 애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저는 그 라이프 사이클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설명할 때 가장 간단하고 자기 자신도 느낌이 확 와. (중략) 그래서 엄마를 이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라이프 사이클을 한 거야. 이 라이프 사이클 해주면은 눈에 바로 들어와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가 안 돼. 근데 나이를 해서 얘기를 설명을 해주면은 이게 굉장히 빨라요 (연구참여자 A, 2022.02.11.)”

연구참여자 A는 특별히 금융 관련 자격이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센터에서 금융지식이 필요한 결혼이주여성 등에게 종종 도움을 요청받는다고 하였다. 예컨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인 남편이 불의를 사고를 당하여 산재보험 등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연구참여자 A는 본인의 지식과 지혜를 발휘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사건이 종결되고 목돈을 갖게된 결혼이주여성은 연구참여자 A와 거리를 두려 노력하였다. 이때 연구참여자 A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당했으면 저랬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 학생 신랑이 근재(근로자재해)로 세상을 떴어요. (중략) 장례를 치렀지만 산재(산업재해)에서, 애는 산재가 안 되고 근재가 됐지만 360만 원인가 나오고 장례를 했는데 그 돈까지 다 가져갔어. 작은 아버지가. 그리고 애는 가라하는 거야. 조카도 자기가 본다고. 너무너무 상처가 많이 있다. 보니까 마음의 문을 안 열어요. (중략) 그런데 제가 산재 공부랑 근재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보험 처리하는 것까지 해서 일을 봐줘요. (중략) 이제 처음에는 마음의 문을 안 열었는데 이제 완전히 오픈을 하면서 이제 일을 보게 됐어. 다 마무리 됐는데 (중략) 애도 돈이 들어가서 혹시 내가 소문 내고 이제 불안한 거야. 뭐 누구한테

도둑 맞을까 봐. (중략) 얼마나 외로웠으면 얼마나 많이 사람들한테 아픔을 당했으면 저랬을까(연구참여자 A, 2022.03.12.).”

연구참여자 A는 학습자들에게 종종 한국에서의 차별 경험을 전해 들었다. 그들이 호소하는 차별 경험은 소통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의 해결을 위해 연구참여자 A는 결혼이주여성들과 역할극을 하며, 그녀들이 그 상황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하였다. 예컨대 자신이 한국어가 서툰 결혼이주여성이기 때문에 미장원 등에서 차별받았다고 오해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연구참여자 A는 그녀가 호소하였던 상황을 역할극으로 재현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어 교육을 병행하며 결혼이주여성이 그 상황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연구참여자 A는 2011년부터 본 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방문교육지도사에게 필요한 역량을 알려주었다. 그녀에 따르면, 보육교사, 한국어교원 자격, 사회복지사 자격 등을 논하기 보다 인생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너그러운 포용력이 방문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이라고 하였다.

“이걸 하면서 제가 모든 자격증이 다 필요하다. (예를 들면) 그 아빠가 다 만났던 사람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나만 찾아 밤 12시에서 나가서 술 먹으면서 하소연 하니까 들어줬다니까. (중략) 젊은 사람은 그 사람한테 돈을 쫓아버리면 그것도 어렵고 다방면으로 상담을 못 해줘요. 나이가 있으면 있는 대로 부모교육은 그래. 자녀 교육한테는 그거는 좀 젊은 사람이 해도 (중략) 부모교육이랑 그런데 엄마를 통해서 하는 건 나이가 진짜 연륜이 있어야 해. 따뜻하고 포근하게 시엄마겸 친정 엄마겸 언니겸 그리고. 이런 경제적인 지식이나 삶의 경험이 있어야 상담이 되고 이끌어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 (중략) 경제성이라든가 활동을 한 사람이어야 돼. 봉사를 했든가 다양한 경험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어려워(연구참여자 A, 2022.02.11.).”

연구참여자 A는 방문교육사업 중 가족생활지도(부모교육, 자녀생활지도) 부문으로 채용되었으나 현장 활동을 하며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는 전문지식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이에 2014년 00사이버 대학에서 한국어문화학을 전공하고 한국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하였다. 이처럼 방문교육지도사는 현장의 필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교육 영역 등을 넓혀 가고 있었다.

## 2. 연구참여자 B의 내러티브 : 나 정말 잘한 거 같아

### 2.1. 방문교육지도사 이전 시기

연구참여자 B는 1961년 00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아버지와 살림을 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1남 8녀 중 여섯째 아이로 태어났다. 1980년대 남아선호사상을 대변하듯 연구참여자 B의 부모는 아들을 낳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이에 대하여 연구참여자 B는 형제 많은 가정에서 부대끼며 살았기 때문에 둥글둥글 더불어 사는 삶이 익숙하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B의 아버지는 넉넉하지 않은 가정 경제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녀들의 교육에 정성을 쏟았다. 특히 남아선호사상이 남아있는 1980년대이었으나 아들보다는 딸을 더 위에 두는 그런 분이였다. 연구참여자 B는 부모님에 대하여 아버지는 자상하시고, 어머니는 엄하셨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참여자 B는 아버지와 더욱 가깝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딸이 없던 어머니에게는 부모에 대한 도리 때문에 효도를 하게 되었다면, 아버지에게는 애뜻한 마음이 많이 있다고 하였다.

“저희 아버지는 많이 배우시지는 못하셨는데 항상 그 뭐지 저희 집에 딸이 많잖아요. (중략) 근데도 항상 뭐라 그럴까 딸을 더 위에 두셨다고 생각해야 되나 그리고 동네에서도 맨날 웃음이 끊이지 않는 집이 저희 집이었어요. (중략) 저희 엄마는 되게 딸이 없으시죠. 저는 실은 엄마보다도 아빠하고 더 친했어요. 그리고 되게 아빠를 더 좋아했어요. 우리 엄마는 좀 독하다 생각이 좀 있었고 생전 눈물도 안 보이시고 되게 강인하셨던 본인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B, 2022.03.03.).”

청소년기 연구참여자 B의 가정 경제 환경은 넉넉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첫째, 둘째 언니들이 외출할 때면 매번 연구참여자 B를 데리고 나가곤 하였다. 이를 위해서 언니들은 연구참여자 B에게 예쁜 옷과 구두를 사주고 머리도 예쁘게 장식해 주었다. 따라서 연구참여자 B는 청소년기를 행복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언니가 결혼하고 형부의 사업 자금을 대주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 B의 가정 경제 환경은 급격한 어려움을 겪

게 되었다. 그런데 연구참여자 B는 서울로 상경하여 바로 위 언니의 도움을 받으며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 이로 인하여 연구참여자 B는 현재까지도 언니에게 마음의 빔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꿈 많고 호기심 많은 사춘기에 언니와 자취하며 고등학교를 다녔던 시기를 연구참여자는 “저도 고생 많이 했어요.” 라며 이야기 해 주었다. 그 시기는 경제적으로 힘들었다기 보다는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야 했기 때문에 매번 완행 열차를 타고 고향에 다녀올 때면, 떠나기 전날부터 울었다고 이야기 하였다.

“선생님, ‘저도 고생 많이 했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엄마 아빠랑 살고 그래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언니가 혼자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로 왔어. 이제 학교를 다녀. 많이 제가 밥도 해먹어야 되고. (중략) 학교 다닐 때 되게 고생 많이 했죠. 제가 밥 해 먹고, 언니랑. 언니는 그런 거 잘 안 해요. 저 언니 돈으로 가르쳤거든요. 고등학교를 저희 언니가 가르쳐가지고 지금도 마음의 빔이 있어 가지고. (중략) 언니한테 신세를 졌다. 이게 그 강박이 있어요(연구참여자 B, 2022.03.03.).”

연구참여자 B는 청소년기에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그러나 넉넉하지 못한 가정 경제 환경으로 인해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그러다 결혼 및 출산, 자녀 양육기를 마치고 대학 진학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중년여성이 되어 맡게 된 방문교육지도사로서의 공적 업무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는 저력이 되었다. 이처럼 연구참여자 B는 남을 돕는 것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한다고 하였다.

“저는 진짜 선생님 되고 싶었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때 초창기에는 방송대에 다녀도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어요. (중략) (선생님이) 되면 난 정말 애들을 많이 사랑하고 나 진짜 잘해줘야지 (중략) 저는 이렇게 좀 남 도와주고 이런 것을 되게 좋게 생각했던 것(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막 누가 얼마를 기부를 했다. 막 이런 거 보잖아요. (중략) 누구 도와줬다 누구 해줬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사람을 구해줬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되게 마음이 제일 많이 가는 게 저한테 그런 DNA가 조금 (연구참여자 B, 2022.03.18.).”

1980년대 여학생은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보

다는 주로 상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주산, 부기 등의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 은행이나 일반 사무실의 경리로 취업하곤 하였다. 이를 반영하듯 연구참여자 B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친척이 운영하는 자동차 부품가게, 주택공사, 관리 사무소 등에서 경리로 일하였다. 고등학교 졸업 후 함께 지내던 언니가 결혼하여 혼자 생활하며 외로웠던 연구참여자 B는 사무실 근처에서 만난 남성과 가까워졌고, 이는 결혼으로 이어졌다. 연구참여자 B의 결혼은 부모, 형제들과의 결혼 조건 등에 대한 견해 차이로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에 대하여 연구참여자 B는 혼자 지내다 보니 외롭기도 했고, 셋째 언니네 형부로 인해 힘들었던 가정사로 인해 마음이 착해 보이는 사람을 선택하게 된 것으로 유추했다.

부모 형제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결혼이었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B와 그녀의 남편은 더욱 노력하였다. 이는 연구참여자 B의 진술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결혼 3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부부싸움을 한 경우는 두세 번 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연구참여자 B의 딸은 ‘엄마아빠가 안 싸워서 어른들은 안 싸우는 줄 알았다’고 생각했다. 1989년 결혼하여 막내 며느리로서 착한 시댁식구들과 알콩달콩 지내고 있는 연구참여자 B는 다시 태어나도 현재의 남편과 결혼하고 싶다고 남편을 자랑하였다. 또한, 결혼을 심하게 반대했던 친정 언니들도 괜스레 결혼을 반대했었다며 연구참여자 B의 남편을 칭찬한다고 하였다.

“한 거의 30년 지났는데. 30년 동안 싸운 거 한 두세 번 정말 안 싸우고 살았거든요. 저희 딸애가 어느 날 중학교 때 그랬어요. ‘엄마, 누구 엄마 아빠랑 싸웠다.’ 그래서 어른들도 마음에 안 맞아서 싸우기도 해, ‘나는 엄마 아빠가 안 싸워서 어른들은 안 싸우는지 알았어.’ 그 정도로 그렇게 (중략) 근데 이제 결혼을 해서 보니까 남자가 더 착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착해요. 그 시댁 식구들이 다(착해요). 친구들한테 맨날 그래 우리 시댁 식구는 진짜 너무 착해. 시댁 조카들도 너무 착해. 지금 맨날 착하다는 거 달고 살아. (중략) 다음 생에 태어나면 정말 또 이 남자랑 살고 싶은. 너무 괜찮은 남자. 최고예요. (중략) 그리고 이제 그때는 막 그렇게 반대했어도 지금은. 언니들도 그때 괜히 반대했어. (살아)보니까 너무 괜찮지. 그니까(연구참여자 B, 2022.03.18.).”

연구참여자 B는 결혼도 늦었지만 자녀를 얻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특별히 1남 8녀 중 여섯째인 연구참여자 B의 남편은 7남매 중 막내이었다. 이

러한 사정으로 연구참여자 B는 많은 가족보다는 조촐하게 작은 가족을 꿈꾸었다. 혼자만의 방도 갖고 싶고 어릴 때 형제가 많아서 북적이며 살았기 때문에 가져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나 자녀를 키워 놓고 보니 자녀에게 형제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후회가 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B는 자녀를 양육하며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는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었다. 특히 연구참여자 B는 지역 신문에 게재된 기사에서 ‘동화읽는 어른’을 만나게 되었다. 동화읽는어른은 1993년 사단법인 어린이도서연구회의 지역 모임이 생기면서 ‘책 읽는 엄마’가 구성되어 공부 모임을 시작하였고, 1998년 소모둠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연합 체제로 개편하였다(동화읽는어른, 2022). 여성은 같은 산부인과에서 자녀를 낳거나 같은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며 새롭게 친구를 사귀게 된다. 연구참여자 B도 자녀를 위해 참여한 동화읽는어른 동아리 모임에서 만난 회원들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들은 연구참여자 B에게 새로운 배움의 세계를 안내하였다. 예컨대 연구참여자 B는 동아리 회원이 알려준 방송대 교육학과에 입학하였다. 이렇게 자신을 방송대로 이끌어준 동아리 회원과의 경험은 이후 방문교육지도사로서 결혼이주여성들과의 관계에서 재현하게 된다.

“제가 이제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어린이도서연구회, 동화읽는어른 모임이. (중략) 저도 막 애들한테 늦게 막 있고 그냥 편하니까 막 이렇게도 키워보고 싶고 (중략) 그거 하고 있을 때 거기에 회원 중에, 제가 어디 들어가면 항상 언니 뺄이돼요 (중략) 방송대 공부를 같이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싫어 안 할 거야. 이랬더니 해, 막 이러면서 자기는 국문과 공부하러 갈 거래. 그래서 언니도 해 그러면서 서류를 갖다 주고 (중략) 제가 거기에 이제 들어갔어. 그게 제가 마흔대, 네 2002년 인거 같아 2년 정도에. 3 4 5 6년이니까 아무튼 (중략) 어떤 이게 계기라든가 뒤에 누구 만났냐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연구참여자 B, 2022.03.03.).”

동화읽는어른 동아리 회원의 소개로 시작된 방송대 교육학과에서의 교육경험은 봉사활동으로 이어졌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봉사활동 점수(1점)를 받은 후 그만 두었지만 2003년 봉사활동을 시작한 연구참여자 B는 2019년 코로나로 인하여 봉사활동을 멈추게 될 때까지 계속하였다. 이와 같은 자신의 선택을 연구참여자 B는 ‘사회봉사자’라는 타고난 성격유형으로 설명하였다.

‘늦게 배운 도둑질에 날 새는 줄 모른다.’ 라는 속담은 그곳에 남들이 모르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함으로써 얻는 재미로 인하여 때로는 끼니를 거르거나 잠도 잊고 열심히 한다는 의미가 있다. 즉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집중하는 데서 오는 재미나 결과를 통해 얻게 되는 내적 보상의 기쁨은 어렸을 때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속담처럼 연구참여자 B는 늦은 나이에 시작한 학사 과정에서 재미를 발견하고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등 각종 자격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은 자격 취득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은 방문교육에 참여하는 이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하였다.

## 2.2. 방문교육지도사 시기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쳤고 방문교육사업은 그 중 대표적인 사업이 되었다. 그 당시에 연구참여자 B는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행복 상담원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해당 일자리에서 취업할 기회는 쉽게 찾아오지 않았다. 이때 함께 공부하던 동료 학습자는 연구참여자 B에게 방문교육지도사를 소개하였다. 당시 연구참여자 B는 한국에 온 이주민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방문교육지도사의 역할에서 큰 의미를 찾았고, 주부로서 가사를 돌보며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적은 수입에도 개의치 않았다.

“저는 맨 처음에는 00시에 행복 상담원이라는, 직원은 아닌데 일자리 상황 약간 이런 것처럼 그거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소정의 급여도 좀 있었고. 저도 그냥 파트타임으로 그거 조금 해볼까 하고, 주부들이 집에 있다가 가서 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중략) 되게 의미 있는 게 이일인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 한국 사람보다는 오셔가지고 이제 한국어도 배우고 한다니깐 괜찮다 내가 좀 도움을 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으로써 또 그냥 시간 조절도 좀 되고, 급여는 별로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직장 다녀서 돈을 벌려고 생각했으면 아마 더 좋은 걸 찾았겠죠. 근데 그렇죠 시간도 적정하고(연구참여자 B, 2022.03.03.).”



2008년 방문교육사업 초기의 방문교육지도사 채용기준을 보면, 학사학위는 물론 (유치원, 보육교사 포함) 전직교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한국어교원, 기타 사회활동 경험 등을 요구하였다. 연구참여자 B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덕분에 방문교육지도사에 채용되었다. 그러나 방문교육 현장은 활동하며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였다. 연구참여자 B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안하는 전환 교육을 통해 한국어 교육 부문에서 가족생활지도 부문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등 다분히 노력하였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를 돕는 방문교육사업에서 연구참여자 B는 한국인 가족의 폄하, 타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른 처우, 학습자의 학습능력 저조 등으로 인해 불편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마음도 있고 되게 저는 좀 측은지심이 더 많았어요. 저 안 됐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니까. ‘한국인으로서 같이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여기에서 와가지고 남편 혼자 보고 왔잖아요. 예 그래 왔는데 누군가는 진짜 도움을 줘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하고 제일 먼저 마주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최대한 정말 잘해주고 싶고 뭐 딸 같고 아무튼 동생 같고 막 그런 느낌이. 그런 느낌이 되게 더 많았어요(연구참여자 B, 2022.03.03.).“

Levinas는 약하고 가난한 타인에 대한 무한 책임을 주장하였다. 그는 고통받는 타인의 얼굴에 응답하는 책임감을 형이상학적 의미에서 절대자로 향하는 자기 초월이라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B는 결혼이주여성을 돌보는 것에 대하여 한국인으로서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은 남편만 보고 한국으로 이주하였기 때문에 한국에는 이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고, 방문교육지도사는 이들이 한국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B는 이들을 동생처럼, 딸처럼 정말 잘해주고 싶었다고 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 B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서 자기 개발보다는 자기희생을 발견하였다. 이에 연구참여자 B는 가족과 나라를 버리고 혼자 한국으로 결혼이주한 여성들의 상황을 이해하며 측은함을 느꼈다. 특히 어느 부부에게나 갈등은 존재하는데, 부부간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게 된다면 이를 통해 부부의 관계는 더욱 깊고 성숙해질 수 있다. 그러나 갈등이 증폭된다면 다문화 부부는 이혼에 이르게 된다. 다문화 부부의 갈등을 성역할 인식의 관

점에서 보면, 한국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가부장적 가족질서를 습득한 한국인 남편과 일정부분 양변제(bilaterism)의 가족질서를 내면화한 동남아 출신 아내로 구성된 다문화 부부의 가정 내 역할에서 갈등은 예견되고 있었다(박진옥·이광동, 2014: 206-207). 한국에 이들을 지원해 줄 인적 자원이 거의 부재한 결혼이주여성은 부부 갈등에 직면하는 경우, 종종 방문교육지도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이에 연구참여자 B는 다문화 부부의 갈등에서 돌봄을 실천하였다.

“한 번은 다른 선생님이 하다가 제가 그 선생님 그만두는 바람에 잠깐 한 경우 있었어요. 캄보디아 친구, 남편은 아마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은데 여자는 거의 우리나라 나이로 한 열아홉 (중략) 근데 저한테 한번 그래. 나한테 전에 남편은 저녁마다 그것만 본다. (중략) 자기가 너무 안 맞는다는 거야 결국 헤어졌어요. 근데 그 헤어질 때 (중략) 선생님, ‘이제 부를 사람 저밖에 없잖아요.’ 제가 불려서 갔는데 (중략) 제가 영어를 또 못하잖아요. 지금 그분은 영어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제 학습자 중에 영어를 잘하신 분이 있었어요. (중략)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되는데 통역을 좀 해줄 수 있느냐. 함께 해줘 가지고 (중략) 그래서 보내고 내가 다니면서 저녁 밥 사주고(연구참여자 B, 2022.03.03.)”

연구참여자 B는 2002년 자신을 방송대로 인도해 준 동화읽는어른 동아리 회원에 대한 고마운 경험을 결혼이주여성에게 돌려주며 사랑의 빛 갚음을 하고 있었다. 이처럼 방문교육지도사들은 삶의 경험 속에서 누군가에게 받은 돌봄 경험을 방문교육에서 만나는 결혼이주여성에게 돌려주며, 사랑의 빛 갚음을 하고 있었다. 예컨대 연구참여자 B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운전면허증 등을 취득 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도 하고, 검정고시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큰 기대 없이 검정고시를 소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쳤다는 결혼이주여성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 일을 계기로 점점 더 다양한 진로를 소개하게 되더라고 하였다.

“저는 계속 막 그분들한테 이것도 배워봐 막 저것도 운전면허증도 빨리 따 이렇게 친구 지금 운전면허증. 그 친구도 지금 다른 사람 2명 정도 있고. 저도 맨날 나중에 그때서 하려고 하면 안 돼.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돼. (중략) 그 친구가 성격도 좋고 굉장히 좋아요. 맞아 근데 거기도 중국에서 거의 초등학교 이렇게

근데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 한국어 공부예요. (중략) 제가 지나가는 소리로 학력도 그렇게 없으니까 한 번 검정고시 봐보는 거 어떠냐. (중략) 그렇게 해서 알려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랑 이제 이렇게 수업이 끝나니까 헤어지게 됐잖아요. 전화가 선생님 검정고시 해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다는 거예요. 저 그때 완전 소름 있잖아요. 아니 중학교도 힘들고 그럴 텐데 어떻게 고등학교까지. 아니 그 친구한테는 계속 이것도 한번 해봐, 저것도 해 보라가 이제 되는 거예요(연구참여자 B, 2022.03.03.).”

Levinas는 선함과 윤리는 정직한 얼굴에서 나온다고 하였다(양천수·최샘, 2020: 186). 연구참여자들은 결혼이주여성들과 마주하며 이들이 직면하는 삶의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이 내민 손을 기꺼이 잡아주며 그녀들의 삶을 응원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참여자들의 타자성 실천은 심리·정서적 지원을 넘어 물질적 지원으로 이어졌다. 가정 주부인 연구참여자 B는 결혼이주여성들과 종종 이것저것을 나누게 된다고 하였다. 10여 년 방문교육사업에 참여하며 다양한 결혼이주여성들을 만나게 되었지만 잘 지내는 이들은 기억에 남지 않지만 특별히 마음에 남아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있다고 하였다. 특히 한국인 남편과 정말 부러울 정도로 잘 지내는 다문화가정보다는 오랜 연륜을 기반으로 해당 가정의 경제 형편을 짐작하여 연구참여자 B는 개인적으로 감자나 케이크 등을 나누게 된다고 하였다.

“눈에 딱 봐가지고, (중략) 음. 우리 남편이 능력이 좀 있다. 이러면 그냥 제 선에서 끝나죠. 그런데 이제 내가 봐도 정말 이 사람은 너무 형편이 어려운. 이런 분들은 저희 집에 이제 감자를 한 박스 샀다 그러면 조금 또 싸갖고 가고. 아니지만 케이크 언제 들어왔는데 우리 다 못 먹어 그러면 이렇게 조금 싸갖고 가고 이런 거. 이런 식으로도 하지만 제가 봐서는 남편한테 사랑받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좀 되고 이런 사람한테는 아무래도(연구참여자 B, 2022.03.18.).”

2000년대 초반, 국내로 입국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국제결혼이주를 선택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에 방문교육 지도를 하며 결혼이주여성 친정의 딱한 처지를 전해들은 연구참여자 B는 결혼이주여성의 친정 동생의 학비를 마련해 주었다. 덧붙여 10여 년 방문교육 현장을 지켜 온 연구참여자 B는 직업으로써 방문교육지도사의 역량을 알려주었다.

“저는 그냥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충분하고 그 사람을 저는 불쌍하게 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문화가 다르다고 그 사람 다름을 인정해 주면 이런 일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저는 실력보다 그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어, 어차피 오랫동안 살면 그 사람 당연히 배우겠죠. (중략) 그런데 다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기 오면 아무도 없으니까 친정엄마 같이 (중략) 좀 감싸주고 ‘그래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런 식으로 포용력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 그게 제일 저는 실력보다도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중략) 40대보다는 한 50대 넘는, 왜 그냥 사실 우리도 그런 거, 같은 나이끼리는 아무래도 (중략) 65세 정도 은퇴가 있어도, 정년이 있어도 한 65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B, 2022.03.18.).”

직업은 “생계유지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종사하는 일의 종류(유사한 직무의 집합)”로 정의된다(좋은 날, 2022). 연구참여자 B는 방문교육지도사의 역량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입장이 되어 친정엄마처럼 따뜻한 포용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과의 문화 차이를 인정하고,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포용력이 어떤 실력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를 하기에 적절한 연령대로 50대에서 65세 전후가 괜찮을 것 같다고 하였다.

### 3. 연구참여자 C의 내러티브 : 저는 K-장녀입니다

#### 3.1. 방문교육지도사 이전 시기

연구참여자 C는 00시에서 1남 3여 중 첫째 딸로 태어났다. 6.25전쟁으로 인해 많은 형제를 잃으신 아버지는 자손을 귀하게 여기셨다. 특히 높은 남아 선호사상으로 인해 남동생은 물론 남동생을 본 셋째 여동생을 유난히 예뻐하셨다. 한편 그 당시에는 ‘첫 딸은 살림 밑천’이라는 속설이 있었다. 이에 연구참여자 C는 동생을 돌보는 등 장녀의 역할이 주어졌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참여자 C는 본인을 K-장녀라고 소개하였다. 연구참여자 C는 당시 동사무소에서 미군들이 제공하는 밀크를 타기 위해 줄을 설 때면, 정말 싫었지만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기억으로 인해 연구참여자 C는 의지할 수 있는 언니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귀하게만 자라서 공주 같은 어머니에게 살뜰한 돌봄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연구참여자 C는 본인이 낳은 딸은 해방시켜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자랐다.

연구참여자 C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중매 결혼을 하였다. 외할아버지는 3남 1녀 중 외동딸인 어머니를 공주처럼 귀하게 여기셨단다. 이에 따라 외할아버지는 그 당시로는 늦은 나이인 23살에 어머니를 아버지와 결혼시켰다. 어머니는 막내 남동생을 귀하게 여기셨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C는 자식이라기 보다 자식을 함께 키우는 동반자로 의지하였다고 하였다. 어느 날, 어머니는 연구참여자 C에게 ‘니가 알아서 너무 잘 하더라’ 라고 하였단다. 이에 대하여 연구참여자 C는 ‘알아서 잘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라고 말하며 연구자에게 하소연하였다.

“60년생이에요. 제가 장녀고요. 제 동생이 둘 저기 셋인데 그 딸 딸 딸 아들 전형적인 경상도 가정인데 (중략) 그런데 나는 그 시대의 장녀였어요. 케이 장녀예요. 어머님은 아버님하고 아마 중매로 만나셨다고, 우리 엄마가 조금 공주세요. (중략) 이제 아버지가 어쨌든 혼자시고 남동생이 혼자라 정말 정말 귀하게.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엄마 대부분이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엄마를 생각하면 조금 그러면 안 되는데 조금 서운한 게 많아요. (중략) 아니 그렇다고 엄마가 저를 아주 차별한 건 아닌데 그치 그냥 그거 물어보니까

‘너는 나다.’ 엄마 말이 ‘너는 나야.’ 그러니까는 그냥 저를 뭐라고 해야 되나  
요. 딸이 아니고 그냥 같이 자식을 기르는 동반자 같은 느낌이셔서 그러니까  
너무 믿었고.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너는 내가 이렇게 너한테 안  
해도, 니가 알아서 너무 잘하더라.’ 근데 너무 알아서 잘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도 어차피 자식인데 어머니가 우리 엄마가 나를 너무 크게 본  
건지(연구참여자 C, 2022.03.22.).”

연구참여자 C는 장녀이니 믿거라 하시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부  
단히 노력했다. 고교 졸업 후 서울로 상경하여 직장을 다녔고, 00대 전산과에  
입학해 2년 간 전자계산학을 전공하였다. 이를 통해 강북 00 병원 전산실에  
서 전산 업무를 맡게 되었다. 이후 00대 화공과를 졸업한 초등학교 동창과  
결혼하였다. 연구참여자 C는 결혼과 동시에 퇴사하고, 자녀 양육과 살림에  
집중하였다. 이처럼 1980년대 여성은 결혼을 하면 퇴직을 해야 했었다.

“저는 일단은 살림을 했어요. 살림 좀 잘해요. 아이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  
요. (중략) 아들은 지금 결혼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34세. 딸은 지금 서  
른, 미혼이고요. (중략) 맞벌이를 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중략) 그렇죠 1~2년  
있다가 낳으려고 한다고(연구참여자 C, 2022.03.22.).”

1960년대 한국의 높은 출산율(6명)은 2,501만 명이었던 한국 인구를 1980년  
3,812만 명으로 52.4% 증가시켰다. 이와 같은 베이비붐 현상은 1970년대 중반  
까지 지속되었다. 특히 1차 베이비 붐 세대(1955-1964년)가 출산하는 1980년  
경에는 제2차 베이비 붐 현상까지 나타났다(행정안전부, 2022b). 베이비붐 세  
대를 지나 1980년대부터 국내의 출산율이 크게 줄어들었는데 2022년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합계출생률을 보면 1983년 2.06명에서  
2000년 1.48명, 2017년 1.24명, 2020년 0.84명으로 2022년 현재에도 계속 하락  
중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연구참여자 C의 삶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연구참  
여자 C가 1남 3녀 중 첫째로 태어났다면, 자녀는 1남 1녀를 낳았고, 최근 결  
혼한 연구참여자 C의 아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자녀 출산을 미루고 있다.

한편 연구참여자 C는 결혼 및 자녀 양육시기를 마치고는 지역 봉사단체  
등에서 자원봉사하였다. 인류 역사에서 자원봉사를 살펴보면, 헌신과 봉사,  
자기희생, 자선, 상부상조, 인도주의, 박애주의, 민주주의 등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배경에서 출발하였다. 한국의 자원봉사는 삼한시대부터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는 ‘계 조직’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현대적 의미의 자원봉사 활동은 1903년 YMCA 창립을 시작으로 1921년 태화기독교사회관에서 여성계몽과 어린이 건강을 위한 봉사 활동이 전개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1980년대부터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본격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경제 수준이 향상되고, 국민 의식이 증대되었으며, 가족구조가 변화되는 등 사회·경제적 변화가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여성개발원에 따르면, 1984년 자원봉사 인력은행이 설치되고, 1985년에는 자원봉사단이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의해 구성됨으로써 보다 조직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이 전개 되었다. 특히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이 개최되며 거국적인 자원봉사자 활용은 전국적으로 자원봉사를 인식시키고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우태식·김창래, 2015: 103). 이와 같은 자원봉사에 대한 열린 생각은 연구참여자 C의 삶에서도 발견된다. 연구참여자 C는 자원봉사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주민들의 행정 안내를 하거나 주민센터에서 다문화가족이 한글을 배우는 동안 자녀를 돌보는 일 등을 하였다. 때로는 주민센터에서 성인문해교육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제가 이제 가장 관심을 갖게 된 거는요. 네 한 14년 전인가에 00에 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아이 플러스라고 해서요. 1대 1 한국어 과정, 1 대 1 학습 멘토가 있었어요. 멘토 과정이 있어서 예 예 자원봉사 개념으로 제가 이제 그때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만나게 되면서 가정 환경에 따라서 아이가 변화한다는 거 그것도 많이 느꼈구요. (중략) 저 봉사는 동사무소에서요. 지금은 행정복지센터잖아요. 거기에서 다문화 분들이 오시면 행정 (중략) 그분들한테 이제 제가 안내해 주고 그거 했었고요 예 그리고 또 주민센터에서 보면은 그 전에 제가 이제 자격증 따기 전예요. 예 거기 보면은 또 평생 교육 프로그램 안에 이주민 한글 가르치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 엄마들이 한국어 교육을 할 동안에 제가 자녀들을 봐줬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보면 어린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와요) (연구참여자 C, 2022.03.22.).”

그 동안 한국은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동화주의 관점에 따라 국가체제를 유지해왔다(한동균, 2011: 108). 이에 따라 인순이(가수), 하인스 하워드(미식축구 선수)로 대변되는 주한 미군과 한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이들은 ‘혼혈아’로 명명되었고,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냉대와 차별을 받아왔다. 그런데 1990년대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에 이어 2000년 국내로 입국하는 결혼이주여

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다문화가정 자녀도 증가하였다. 연구참여자 C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멘토를 하면서, 10대 시절에 만났던 이웃집 혼혈아를 떠올렸다. 연구참여자 C의 진술처럼 다문화가정 자녀는 ‘눈 뺏는데 그냥 한국에서 태어난’ 것일 뿐, 그들의 선택이 아니었음에도 한국 이주민의 역사에는 냉대와 차별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왜 우리나라에 주한미군이라든가 그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시선이 말도 못했어요. 아주 나쁜 말도 많았잖아. (중략) 옆집인가 뒷집에 네 제가 지금 기억이 나요. 아이 이름도 생각이 나고 그랬는데 할머니랑 사는데요. 그러니까 아빠가 흑인 병사였나 봐요 (중략) 할머니가 아이를 키웠는데, 할머니가 그때 동지인가 그랬는데 팔죽을 쑤어서 갖다 주었는데 제가 못 먹겠더라고요 (중략) 10살 때인가 그랬으니까. 그게 아직도 계속 기억이 남았고요 (중략) 그리고 다문화 한부모 가정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중략) 내가 그때 참 어렵다. 지금 적어도 아마 오십은 됐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그때 한동안 잊고 있다가 떠올랐어요. (중략) 다문화 아이들을 대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좀 위축된 그 당시만(해도) 위축이 돼 있고, 내가 다른 우리나라 아이하고 다른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인데, 그냥 똑같은 사람이고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눈 뺏는데, 그냥 한국에서 태어난 거죠’ (연구참여자 C, 2022.03.22.).”

연구참여자 C는 1986년 00대학 전산과에서 전문학사 과정을 밟으며 직장 생활을 했었다. 연구참여자 C는 자녀 양육을 마친 후, 2008년 방송대 일본학과에 편입하였다. 또한, 2010년 방과후 아동지도사 1급을 시작으로 다양한 자격을 취득하였다. 예컨대 2013년 이야기치료(이야기 패러다임과 외재화) 수료, 2014년 한국어교원 2급, 2014년 사회복지사 2급, 2014년 심리상담사 2급, 2014년 미술심리상담사 2급, 2014년 도형심리상담사 2급, 2016년 초등과정문제 교원연수, 2020년 요양보호사 등이다. 이와 같은 그녀의 학문 수행 과정에 대하여 연구참여자 C는 “그냥 저를 좀 개발시키고 싶었어요.” 라고 하였다. 이는 그녀의 남동생이 박사 학위를 받는 등 가정환경이 공부에 가치를 부여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연구자는 연구참여자 C가 조금 늦게 태어났다면 석사, 박사 학위 과정은 물론이고 교수까지도 하였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전했다. 이에 연구참여자 C는 “어떻게 제 마음을 너무 잘 아시네.” 라고 말하며, “우리 딸이 얘기해요. 엄마는 시



대를 잘못 태어나서” 라는 딸의 응원과 지지를 자랑하였다.

“공부라는 거는 정말 나를 키우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연구참여자 C는 공부하는 과정이 힘들었다기 보다는 자신을 발전시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정말 좋았다고 하였다.

“그냥 저를 뭐라 그러나 좀 개발시키고 싶었어요. 또 친정에 영향도 있어요. 왜냐하면 동생들은 어쨌든 대학원도 갔고 그리고 또 남동생 같은 경우는 박사도 받았고 그 공부를 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중략) 지금 우리 딸이 얘기해요. 엄마는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중략) 그러니까 친정 분위기가 좀 그랬어요. 공부를 막 하고 가르치고 막 그랬는데 제가 또 K-장녀라는 그게 너무 싫거든요. 저는 근데 또 공부는 놓기는 싫었어요. 그래서 좀 꾸준히 했어요. (중략) 어쨌든 결혼해서 살면서 아이 키우면서 정규 대학을 가기는 참 힘들어요. (중략) 출석 수업 때 야간에 가서 또 사복 같은 경우는 야간에도 해야 되고 그렇죠. 하여튼 저는 그래도 그거 하면서 힘들다는 것보다는 너무 좋았어요. (중략)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이거는 공부라는 거는 정말 나를 키우는 것 같아요. 힘들다는 것보다는 왜 세월은 가잖아요. 그냥 되잖아요. 나를 발전시키는 거는 참 좋았어요.(연구참여자 C, 2022.03.22.).”

한국의 전통적인 성역할 장벽이 사라지며 2000년대를 전후하여 여성에게 국가 노동력으로써 취업의 기회가 열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소득이나 직업 수준에서 남성과의 격차는 컸다. 예컨대 여성들은 낮은 지위, 낮은 임금의 교사, 간호사, 비서직 등 ‘특정 여성직업’ 을 선택하였다(조복현·도현심 외, 2013). 또한, 여성의 생애에서 성역할에 따른 결혼, 출산, 임신과 같은 사건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45-50세의 기혼여성은 육아 및 보육에서 벗어나는 시기에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최은영, 2016: 41). 이와 같은 학계의 연구결과는 연구참여자 C의 삶에서도 발견된다. 예컨대 연구참여자 C는 2010년 방과후 지도사 과정을 시작으로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이주민을 돕거나 주민센터에서 어르신에게 문해교육을 하며 취업의 가능성을 높여 나아갔다.

“저는 그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저기 컴퓨터 전산 쪽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 00대 쪽에서 전산과 공부를 했고 (중략) 제가 일단 기독교인이니까 그 안에 그래서 어르신들 한글을 모르시는 어르신들이예요. 거기는 이제 청년 대학 이렇

게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어르신들 한글을 가르쳤었고요. 그거 했었고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이제 그건 종교 단체는 아니고요. 이런 주민 센터나 이런데 오면은 프로그램 있어요. 장구반 그런거. 어르신들 한글반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일단 제가 강사로 일을 했어요(연구참여자 C, 2022.03.22.).”

### 3.2. 방문교육지도사 시기

연구참여자 C는 봉사활동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는 심리 공부를 통해 알게 된 가정환경이 청소년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고민하게 하였다. 결혼 후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50세를 맞이한 연구참여자 C는 방문교육지도사를 통해 그들을 잘 도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때쯤 다문화지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고등학교 친구를 알게 되었고, 그녀의 도움을 통해 연구참여자 C는 방문교육사업에 필요한 양성교육을 받는 등 자격을 갖춘 후 이듬해 방문교육지도사 모집 공고에 응시하였다. 그때가 2011년으로 연구참여자 C의 나이는 51세였다. 이후 연구참여자 C는 2021년 정년 은퇴할 때까지 방문교육지도사로서 이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지역 파수꾼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저는 다른 의미보다는 제가 자원봉사를 하면서 저는 그때 굉장히 많은 걸 느꼈어요. 이렇게 살면서 결혼해서 이제 제 아이들도 어느 정도 키우고 나서 이제 봉사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중략) 한부모 가정, 다문화 아이들을 대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좀 위축돼 있고 (중략) 이제 50이 돼 가고 하니까.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이도 그러고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니까 내가 케어가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전에 제가 봉사활동을 좀 했었어요 (중략) 저보다 이제 1년을 먼저 고등학교 친구가 이 다문화 지도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단기 양성 과정을 거치고 이제 공부를 하다가 제가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마침 00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방문 교육 지도자를 채용한다는 모집 공고를 봤어요.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고요(연구참여자 C, 2022.03.22.).”

방문교육지도사는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결혼이주여성과 자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의 가족 구성원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에서 멘토의 역할을 한다. 이에 연구참여자 C는 특별히 방문교육사업에 참여하며 속상한 경험을 하지 않았으나 초기면접에서 학습자의 가정환경 등을 접하며 학습자의 성실성 등을 가늠할 수 있다고 하였다. 10여 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결혼이주여성 등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버리고 그들이 방문교육지도사에게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 줘야 한다고 하였다.

“근데 저는 그렇게 막 속상하고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하는 거구요. (중략) 일단 저희가 초기면접이라고 해서 나가거든요. (중략)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보면 한 11년쯤 되니까 그날 딱 보면은 보여요. 근데 이제 환경이 보이고 이분은 열심히 하겠구나 그게 다 보이지요. 근데 이제 가게 되면, 이제 힘든 케이스도 너무 많아요. 이제 한 달 두 달은 정말 다 빼놓고 가야 돼. 내 걸 다 빼놓고 가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줘야 돼요 상처들이 많더라고요 (중략) 일단 기다려줘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기다려줬어요. 그 학습자가 나에게 마음을 열 때까지(연구참여자 C, 2022.03.22.).”

원숙연(2008)은 한국의 이주민 정책에서 우리와 타자를 구분짓는 차별과 배제를 지적하였다. ‘여성’ 결혼이민자는 한국 사회의 농촌총각과 결혼하여, 저출산 문제 등을 해결해 주며, 미래의 한국인을 생산하기 때문에 ‘준-한국인’의 위치에 있고, 외국인 집단은 ‘완전히 다른 피’를 가졌기 때문에 정책 대상 집단으로써의 외부적 정체성이 인정된다. 한국의 이주민 정책처럼 이주민 학습자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윤리적 태도는 다양하였다.

“일단 저희가 학습자 연계를 받거든요. 그럼 저도 아직도 긴장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분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중략) 상처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그 심통 부리는 사람들이 일단 기다려줘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기다려줬어요. 그 학습자가 나에게 마음을 열 때까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해줬어요. ‘왜 그래?’,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은 알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커피도 한잔 타 와요.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이러면서 휴대폰 보여주면서 ‘우리 언니예요.’, ‘우리 엄마예요.’, 이렇게 하면서 ‘엄마가 집을 나갔다. 왔어요.’ 이런 그러니까 가정사 같은 것도 다 말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도 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단 마음 열기까지 힘들었는데 (중략) 제가 볼 때는요. 나의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C, 2022.03.22.).”

연구참여자 C는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서비스에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다. 새로운 학습자를 만날 때면 선입견과 편견 등을 갖지 않으려 노력하였고, 그들이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였다. 즉 다양한 갈등상황을 경험하며 많은 상처를 갖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커피를 대접하며 핸드폰 속 가족 사진을 보여주고,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C는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그들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참여자 C는 그녀들이 마음을 열 때까지 ‘왜 그래?’,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Walzer는 타자와의 공존을 위하여 타자를 지배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않는 ‘관용’을 주장하였다. 낮은 이주민의 그대로를 수용하고 기다려주는 자세에서 연구참여자 C의 이주민 학습자에 대한 윤리적 태도는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용은 이질적인 낮은 타인들이 그들의 정체성과 생활 방식에 맞추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라 하였다.

“지금 어쨌든 한국에 시집을 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으로 시집 오기로 결심한 거는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 아니면 못해요. 저도 만약에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한국으로 왔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생각도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도전 정신이 없으면 못 올 것 같거든요(연구참여자 C, 2022.03.22.).”

개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통해 자아실현이 가능한데, 이는 타인의 긍정적 반응 또는 평가에 의존한다. Honneth는 타인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나 평가를 ‘인정’이라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C는 한국으로 결혼이주를 하려면 생각도 진취적이고 긍정적이며 도전 정신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은 진취적인 사람이라고 ‘인정’하였다. 연구참여자 C는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인생을 모두 책임질 수는 없을지라도 작은 계기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에 따라서 방문교육지도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였다. 특히 연구참여자 C는 결혼이주여성을 마치 자신의 딸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에 아무도 없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친정엄마처럼 의지처가 되어주려 노력하였다.

“인생을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한 조그만 계기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어떤 하나의 작은 도움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역할만 해준다면 그게 얼마나 보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했어요. (중략) 제가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내 딸이 그런 환경에서 살면 어떻게 하겠, 친정엄마 같은 마음이고 그리고 그분이 여기 한국에 와서 누구를 의지하고 있겠어요 (연구참여자 C, 2022.03.22.).”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한글 덕분에 한국인의 문맹율은 1% 수준에 있지만, 전체 성인의 22%는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문맹인이라고 보고되었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 특히 전 국민의 75% 이상이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정보나 기술을 배울 수 없을 정도로 일상문서 해독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제한국어 교육자협회, 2022).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삶 속에서도 발견된다. 연구참여자 C는 한글 미해독의 한국인 남편과 시어머니를 위해 공과금 등의 관리를 해주었고, 이들을 한글해독을 위한 학습의 길로 안내하였다.

“시어머니가 이제 한글을 모르세요. 남편도 몰라요 그래서 모르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학습자는 그래도 한 대학교 1학년은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오는 그니까 무슨, 저기 뭐야 뭐죠 그거 공지 저기 전기세 나오는 거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도 몰라요. (중략) 그러니까는 뭐 연체가 되는데 뭐가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들고 슈퍼도 가고, 저기 주민센터도 그렇게 했는데 그걸 이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다못해 저기 전기세부터 연체료 내는 것부터 해갖고 거의 제가 다 했고요. (중략) 그래도 지금은 전화해서 저하고는 좋아요. 그 집은 한 3년 동안 제가 공과금부터 모든. (중략) 남편도 한글이 저기 전혀 한글을 모르는 상태라 지금 직업도 없고 또 아프고 한데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연구참여자 C, 2022.03.22.).”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을 방문하는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들의 주거 환경은 열악한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참여자 C는 이를 지켜보기보다 오랜 삶의 연륜을 바탕으로 지혜를 발휘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의뢰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집수리를 돕고, 시어머니와의 갈등 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였다.

“한 사례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집이 한 30년이 넘는 집이에요. (중략) 그리고 이제 집이 너무 낙후가 됐는데, 아이도 있고 이제 친정, 자국에서 여동생까지와 있는데 (중략) 근데 거기서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중략) 이제 제가 센터에다가 부탁을 드렸죠. 그거 좀 정말 해줘야 된다. 그래갖고 어떻게 연계가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수리를 다 했어요. 그거 이제 집을 깨끗하게, 싱크대 갈고 도배하고 다 정리를 했어요(연구참여자 C, 2022.03.22.).”

연구참여자 C는 방문교육지도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 역량에 대하여 오랜 삶의 경험을 기반으로 다문화가족 구성원 모두를 두루 살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연구참여자 C는 신규 방문교육지도사들에게 어느 가정처럼 다문화가정에도 갈등이 많지만 그곳의 결혼이주여성을 ‘그냥 내 딸이다’라고 생각하라는 조언을 남겼다.

“제 생각은요. 이 일은 정말 필요한 거는 그래도 나이가 있고 좀 아이도 키워보고. 시집살이도 해봤고 그러면서 결혼 생활도 해서 좀 그래도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그분들한테는 훨씬 나올 것 같아요. (중략) 그 일을 한다는 거 이걸 꼭 학벌만으로 따지는 건 아니지만. 사용하는데 따라 그릇이 다 이게 받쳐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한국어를 수업하고 자녀를 수업하지만 가정으로 투입되는 거예요. (중략)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관여를 안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또 관여를 하다 보면 거기서 중간에서 놀 수도 없어요. (중략) 저는 일단은 다문화지도사가 이렇게 젊으신 분들은 요새는 없어요 (중략)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내 딸이다.’ 생각하면 다들 해 낼수 있어요. 다문화가정에는 갈등이 많아요. 우리는 안 볼 것같지만 다 싸워요. 근데 딸이라고 하면 저는 다를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C, 2022.03.22.).”

## 4. 연구참여자 D의 내러티브 : 방문교육은 활력이다

### 4.1. 방문교육지도사 이전 시기

연구참여자 D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시는 아버지와 살림을 하시는 어머니 사이에서 2남 4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연구참여자 D는 아버지를 오지랖이 넓은 분으로 기억하였다. 영민하셨던 아버지는 가족보다 특별히 남에게 나누어주기 좋아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 발병률이 높았던 폐결핵으로 아버지는 일 년에 한두 번씩은 늘 병원에 입원하곤 하였다. 이를 위하여 어머니께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아버지는 가족들보다는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재미로 사시는 분이였다. 특별히 연구참여자 D는 어머니보다 아버지를 더욱 좋아했는데, 아버지의 성격이 외향적이었다면, 어머니의 그것은 지독히 내향적이고, 자신에 맞추어 사시는 분이였다. 연구참여자 D는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문상을 온 손님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참 잘 사셨구나”라는 생각을 하였다. 또한, 본인은 이러한 아버지의 정치 성향을 닮았다고 하면서, 가끔 돌아가신 아버지가 어머니를 만나지 않으셨다면 좀 더 활개를 치며 사시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갖곤 한다고 하였다.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병원에 들어가시면 병문안을 가잖아요. 그럼 엄마가 이제 막 음식을 해가지고 우리가 가면, 엄마 먹어보라고 안 하고 거기 이제 혼자 다 나눠줘. 당신은 드시지도 않고 그 재미로 사셔 뭐 (중략) 아빠 성향을 제일 많이 닮은 것 같아. 저는 이제 엄마보다는 아빠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아빠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손님들이 오시는데 진짜 내가 ‘우리 아버지가 참 잘 사셨구나.’ (중략) 다 처리해 주시는 해결사 역할을 좀 하셨고 약간 정치 쪽에도 관심이 좀 많으셨거든요. (나도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제가 (아버지를 좀 닮았어요.) 그런데 엄마랑은 안 맞아요. (중략) 우리가 간다고 그러면 다른 엄마들은 다 준비를 하잖아요. 우리 엄마는 그런 게 없어요. (중략) 우리 아빠가 만약에 우리 엄마를 안 만났으면 더 날개를 좀 더 퍼시지 않았을까 그 당시보다 그런 생각들을 좀 했어요(연구참여자 D, 2022.03.31.).”

연구참여자 D는 특별히 어머니에 대한 서운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평범한 한국의 어머니들이 자식에 대한 무한 배움을 펼치는 반면 연구참여자 D의

어머니는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분이라고 하였다. 현재 80대이나 팽팽한 피부의 이쁜 어머니는 남자친구를 사귀며 종종 가정 내에서 그 동안 즐기지 않던 고스톱을 치는 등 남자친구와의 행복한 노년을 즐기고 있다. 이에 대하여 연구참여자 D는 오히려 자식들에게 의지하기 보다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어머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그녀의 언니는 이를 부끄럽게 여기어 남편에게 알리기를 꺼리고 있다. 이에 대하여 연구참여자 D는 형제마다 가치관이 다름에서 이를 해석하고 이해하려 노력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어머니의 관심 밖에 머물러 있는 연구참여자 D는 어머니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하며 고픈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었다.

“명절 때 가면 음식을 하잖아요.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거를 아들만 싸줘. 싸달라고 그러면, 그게 내가 뭐 일부러 그러는 것도 있어요. 내가 하면 되지만 아니 좀 더 해가지고 다 조금씩 싸주면 될 거예요. 굳이 저걸 아들만 싸줘야 되느냐. 그게 좀 섭섭했어요. 뭘 갖다 주면 그게 아들한테 다 가고 그런 것들이 아버지 살아계실 때 (중략) 거기 옛날에 했던 거는 이제 다 끝난 거야. 지금 하는 현재가 좋은 거야. 그렇죠 나중에는 이제 형부가 이렇게 하는 처제 없다. 엄마한테 막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 없다. 이제 엄마는 ‘알지’ 그러면서도 마음은 아들, 막내 아들한테 다 있고, 막내 아들이 잘해요. 잘하긴 잘하는데(연구참여자 D, 2022.03.31.).”

청소년기 연구참여자 D는 현모양처(賢母良妻)를 꿈꾸었다.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반항 기질이 있던 연구참여자 D는 보수적인 부모님의 훈육에 종종 저항하곤 하였다. 대학 선배들과의 회식이 있는 경우, 12시에 귀가하곤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종종 용돈이 깎이곤 하였다. 반면 여동생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딸이었으나 결혼 후 이를 깊이 후회하였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D가 대학에 머물던 시기(1984년~1988년)는 한국의 역동적인 경제 성장과 민주화 시기와 맞물린다. 연구참여자 D는 대학 생활을 하며 ‘현모양처’ 였던 청소년기 꿈이 전환되는 경험을 하였다.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였기 때문에 전국 대학생 연합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였고, 이는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전산팀 소속 자원봉사로 이어진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듯이 연구참여자 D도 세상을 바라보는 정신적 성장을 경험하였다.



“제가 그때 얘기 한 현모양처가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성향이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중략) 대학교 가고 맨날 술 먹고, 성향이 그때는 되게 안전한 학생 그러니까 별로 말이 없는 학생. 그랬는데 이게 대학교를 가면 서부터 이게 남자들하고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 성향이 이게 바뀌더라고요. (중략) 그때는 진짜 내가 특별하게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없었어. 대학교를 가도 그냥 남들이 가니까. 그 당시만 해도 여자들이 뭐 이렇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꿈이) 현모양처였고(연구참여자 D, 2022.04.06).”

연구참여자는 1984년, 서울 소재 대학에 입학하여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였다. 2년 뒤 한국은 ‘86 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 경기를 연이어 개최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참여자 D는 1988년 서울올림픽 경기가 개최되었을 때, 전산팀 소속으로 노란 재킷을 입고 잠실 경기장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였다. 이와 같은 자원봉사 경험은 현재 방문교육지도사로서의 삶에서도 발현된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은 직업이 아닌 봉사이였을지라도 방문교육지도를 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었다.

한국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한국 사회의 미풍양속이었던 상부상조의 사회체계는 약화 또는 붕괴하였다. 반면 개인주의 풍조가 확산하면서 소외현상의 만연, 자아상실의 심화, 격심한 생존경쟁과 이로 인한 이기적 사회로의 변화 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주거형태, 가치관의 변화 등에 따라 가족 기능은 물론 결혼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보고되고 있다. 예컨대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있으며, 배우자 선택 방법 또한 순수 중매혼에서 연애를 통한 당사자 결정이 중요해졌고, 비혼 등 결혼에 대한 필요성조차 퇴색하고 있다(이용수, 2017: 98-101). 이에 따라 1980년을 전후하여 한국의 전통적인 중매 결혼 방식은 당사자의 선택이 중요한 연애 결혼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연구참여자 D의 연애와 결혼에서도 발견된다. 대학에서 컴퓨터 동아리에 가입하였는데, 이는 전국 대학생 연합 동아리 활동으로 이어졌다. 이 동아리에 연구참여자 D에게 반한 한 남학생이 가입하였다. 이를 계기로 그 남학생과 연애를 시작하였는데, 그는 곧 부모님을 따라 해외로 이주하며 헤어져야 했다. 이를 지켜보던 대학 동아리 선배는 대학 4학년일 때, 아버지의 병문안을 왔는데, 아버지는 그에게 “언제 데려갈 거냐?” 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그 선배는 “취직하면 데려가겠습니다.” 하였고, 이를 계기로 연구참여자 D는 1989년 그와 결혼하였다.

당시 한국의 1차(1955-1963년), 2차(1968-1974년) 베이비붐으로 인한 폭발적인 인구증가는 인구억제 정책으로 이어졌다. 이에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와 같은 표어가 있었다. 이와 같은 한국의 인구정책에 맞추어 연구참여자 D는 딸만 2명을 낳았다. 또한, 연구참여자 D는 한동안 카톨릭 신자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부부가 함께 종교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종교 활동으로 인해 자녀양육에 소홀해졌고, 이에 부담을 느낀 연구참여자 D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였다.

“제가 원래 카톨릭인데요. 지금 실은 무교예요. 왜냐면 너무 처음에 이제 뒤에 공부 했는데 한 10년을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부부끼리 같이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애들이 어렸을 땐데 애들이 너무 소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사를 왔죠. 애들 교육도 있었고 그래서(연구참여자 D, 2022.04.06.)”

1980년대 여성의 직업에서 전문직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0년대 IBM사는 개인용 PC를 보급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한국 젊은이들을 열광시켰다. 연구참여자 D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였기 때문에 대학 졸업 후 컴퓨터 학원에서 강사로 활동하였다. 반면 결혼과 함께 남편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퇴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그 당시 여성에게 직업은 자녀양육과 가사돌봄 이후의 고려 대상이었다. 따라서 연구참여자 D는 결혼 이후 자녀 양육과 가사를 돌보는 일에 집중하였다.

연구참여자 D는 막연히 마흔 살이 되면 상담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정말 40세가 되었을 때, 상담이 눈에 들어오는 경이로운 경험을 하였다. 이에 2005년 학생상담 과정, 2006년 미술치료 과정을 이수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교육청 소속 집단 상담 등에 참여하였다. 특히 연구참여자 D는 자신의 성격을 MBTI 성격유형<sup>16)</sup> 중 성인군자(ISFP)형<sup>17)</sup>으로 소개하였다. 즉 연구참여자

16) MBTI(Myers Briggs Type Indicator: 심리 유형 검사)는 융의 심리 유형이론을 바탕으로 인간의 심리 유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일상 생활에서 유용하게 활동할 수 있게 개발된 검사이다(Isabel Briggs Myers, Mary H. McCaulley, 1962/ 김정택 · 심혜숙 외, 1994: 1).

17) ISFP(성인군자) 유형은 MBTI 16가지 성격 유형 중 하나이다. MBTI 성격 유형은 네 가지의 분리된 지표(index)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첫째, 에너지의 방향을 기준으로 E(외향)과 I(내향)이 있고, 둘째, 정보 인식의 방식을 기준으로 S(감각)과 N(직관)이 있다. 셋째, 사건 판단을 기준으로 T(사고)와 F(감정)이 있고, 넷째, 외부세계에 대처해 나가는 양식을 기준으로 J(판단)과 P(인식)이 있다. 이를 조합한 성격 유형 ISFP는 성인군자형이라고 명명되었다. ISFP(성인군자) 유형은 주로 말 없고 다정하고 친절하며, 민감하고 자기 능력을 뽐내지 않고 겸손하기 때문이다(김정택 · 심혜숙 외, 1994: 30).

D의 내면은 내향(I)일지라도 자신의 행동을 관찰해보면, 외향(E)이라고 하였다. 예컨대 대학생할 중 주로 남학생들과 종종 술을 마셨고, 현재는 추운 겨울에도 아이스 커피를 즐기는 것으로 열정이 많은 외향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제 꿈이 뭐였었냐면, 제가 이제 마흔 살이 되면 카운슬링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막연한 생각이었어요. 그게 정말 딱 40이 됐는데 그게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상담 시작을 했죠. (중략) 보면은 MBTI성향이 성인 군자(ISFP)요. 이게 어떨 때는 E예요. 근데 내면은 I예요. 그냥 제가 평소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은 E거든요.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여자들하고 별로 안 만났어요. 거의 남자하고 남자 선배, 남자 후배 들하고만 만나고 얘기했지 여자들하고도 말을 안 섞었어요. 그리고 여자들끼리 모여 있는 거 그 자체가 나는 너무 싫었거든. 그리고 커피라는 거를 먹고 얘기하는 거를 이해를 못했어. 무조건 술이야. 지금은 아이스 커피, 무조건 맛있어요(연구참여자 D, 2022.03.31.).”

연구참여자 D는 중년을 넘기며 상담공부에 집중하였다. 그녀는 상담에 대한 관심을 따라서 ‘여성의전화’에서 활동하였다. 한국 여성의전화는 한국의 한 NGO 단체인데, 1983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운영하는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수료한 여성운동가들이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여성들을 위해 상담 활동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해당 기관은 한국 최초의 가정폭력, 성폭력 전문상담기관이다. 2009년 ‘여성의전화’는 ‘한국여성의전화’로 개편하였고, 전국에 25개 지부를 두었다. 평등평화마을만들기, 여성폭력추방운동, 지역여성 미디어운동, 이혼여성운동, 결혼이주여성운동, 여성의 경제적 권리 확보운동, 교육사업, 국제연대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한동안 여성의전화에서 활동하였던 연구참여자 D는 이후 00시 교육청 소속 학생상담자원봉사자(이하, 학상자)로 활동하였다. 학상자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학부모를 중심으로 상담봉사자를 양성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학상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D는 상담봉사자와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행복상담원으로 자리를 옮겨 상담봉사 활동을 계속하였다. 이와 같은 상담봉사자로서의 활동 경험은 방문교육지도사로 이어졌다.

## 4.2. 방문교육지도사 시기

미술치료 등을 통해 10여 년 학교상담 현장에서 활동하였다. 연구참여자 D는 00지역 신학대학에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2009년 방문교육지도사에 지원하였다. 특히 연구참여자 D는 행복상담원으로 활동하며 다문화가정을 방문하였을 때,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이 어린 결혼이주여성을 보고 큰 충격에 빠졌다. 이에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상담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되었다.

“제가 충격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행복상담하면서 저희도 다문화가정을 방문해서 상담을 하잖아요. 그때 다문화 선생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중략) 다문화 어떤 집을 좀 방문을 좀 해달래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딱 들어갔는데, 그 지하에 방 하나에 애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 당시만 해도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났었어요. 부부가 20살 보통 남편은 나이가 많고 애는 어린데 들어와서 막상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애가 좀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있는 거지.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조금 충격을 좀 받았어요. (중략) 이제 2009년도에 이제 다문화가정센터가 이제 들어선 거죠. (중략) 그런데 이제 이게 갈수록 더 늘어나는 거고 규모가 더 커지다 보니까 (중략) 그러다가 이제 하반기에 뽑더라고 두 사람을 추가로 연락이 왔어요. 세 명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000 선생님, 나 그리고 00구에 계신 분 이렇게 세 명이 뽑혔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활동을 시작했죠(연구참여자 D, 2022.03.31.).”

최근 연구참여자 D는 오랫동안 마음을 나누던 한국어 교육 학습자(결혼이주여성)와 작은 오해가 있었다. 이로 인해 상심해 있던 중에 교통사고로 입원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D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심각하게 휴직을 고민하였다. 그러나 방문교육 현장에는 이렇게 상실감을 주는 학습자가 있기도 하지만, 연구참여자 D에게 감사를 전하는 학습자들에게 위로를 받으며 현장을 지키게 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연구참여자 D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안쓰러움을 이야기하였다. 연구참여자 D는 결혼이주여성과 같은 또래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자식 같은 마음이 든다고 하였다. 어린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말도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게 되었다. 특히 이들이 해당 과정을 마칠 때면 이들의 성장과 변화된 모습에서

연구참여자 D는 힘을 얻는다고 하였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왔잖아요. 그런데 좀 안쓰러움도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내 자식 같은 마음도 있고, 다 우리 자식 같은 나이고 더 어리고 이런 아이인데 와가지고 말도 못하고(연구참여자 D, 2022.03.31.).”

연구참여자 D는 방문교육 초기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측은지심이 많았다. 연구참여자 D는 이와 같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돌봄 실천은 아버지에게 받은 영향이라고 하였다. 평소 남을 돌보는 일에 적극적이었던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많은 조문객을 접대하며, ‘우리 아버지가 (인생을) 참 잘 사셨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초기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살이에서 정말 눈물날 정도의 열악한 환경을 목격하였다. 이에 연구참여자 D는 아버지의 삶을 흉내 내게 되었다. 그러나 요즘 국제결혼은 연애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에 젊은 한국인 남편은 대부분 직업을 가지고 있으므로, 초기 결혼이주여성의 그것과는 다르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참여자 D는 그들에 대한 안쓰러움을 차츰 내려 놓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주민 학습자에 대한 연구참여자 D의 윤리적 태도를 보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온 이들에 대한 안쓰러움’ 등에서 Levinas의 고통받는 타인에 대한 ‘책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초기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에 부모형제 등의 조력자와 함께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방문교육지도사들은 종종 결혼이주여성의 친정엄마가 되어 결혼식에서 혼주(婚主)의 역할을 하는 등 조력자의 역할을 하였다. 연구참여자 D도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식에서 혼주의 역할을 맡았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연구참여자 D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신부측 혼주 역할이었지만 축의금을 내었다. 이에 대하여 한국인 시어머니와 신랑, 학습자인 결혼이주여성은 오히려 고맙다며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하였다. 이러한 경험들은 연구참여자 D에게 방문교육지도사로서 더욱 힘을 내게 하였다.

“저는 결혼식도 해봤어요. 그 혼주 서봤어요. 그러니까 한복 입고 어 우리 딸 때도 안 해봤는데, 갑자기 애가 자기 이제 엄마는 못 오는데 결혼 준비하는 센터 중계소에서 그 이모가 해 주기로 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못하게 된 상황 이야. 그러니까 나보고 좀 서달라는 거야. 그때는 더 젊었잖아요. (중략) 결국은

내가 한복을 입고 했어요. (중략) 그때 제가 이제 축의금도 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축의금이 들어왔으니까 그 어머니가 왜 축의금을 내셨어요. ‘엄만데’ 그러면서 (중략) 마무리 끝났을 때 학습자들이 고맙다고 하고 신랑이 밥한 끼라도 사주고. 그런 걸로 우리가 힘을 내는 거지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연구참여자 D, 2022.04.06.).”

연구참여자 D는 초기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상담팀이 따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방문교육지도사는 결혼이주 여성의 한국어 교육을 지도하며 종종 상담을 병행하였다. 결혼이주 여성의 상담을 위해서 ‘대화’는 필수적이다. 대화 철학자 Buber에 따르면, 인간은 서로 짝으로 존재하고, 서로 떨어져 있는 두 존재를 엮어주는 주요한 토대는 대화라고 하였다. 이에 대화는 함께하는 존재로서 서로의 고유성을 침해하지 않으며 서로에게 관여하게 된다(윤석빈, 2006: 271).

그러나 요즘은 초창기보다 결혼이주여성의 가정 환경도 나아졌고, 가족센터에 상담팀이 상주해 있다. 따라서 요즘 방문교육에서는 상담보다 한국어 학습 등에 집중한다고 하였다.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어 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방문교육지도사를 의지하게 된다. 비록 한국어 교육을 위한 방문교육이지만 가정사 등을 나누게 된다고 하였다. 예컨대 한국어 교육 중 한국인 남편과의 소소한 갈등 등을 호소할 때면, 이에 공감하고 위로하는 등의 초기 상담자의 역할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다.

“좀 뭐라고 그래 무기력한 아이들이 좀 많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 차이가 많다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뭐라 그러지. 밥도 진짜 막 누룽지 같은 제대로 된 밥도 아니야. 누룽지 밥에다가 이제 김치 하나 이렇게 얹어서 그거를 먹어요. 애가. 신랑도 있고 다 있는데 돈도 안 갖다줘, 시어머니는 노인정 가서 밥 먹는데, 애는 혼자 이려고 먹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무슨 동부 쪽에 요양시설이 있어요. 거기에서 미술치료를 했는데 거기 점심 먹으면은 반찬이 남아요. 제가 그걸 좀 얻어가지고 갖다 주고 이렇게 (연구참여자 D, 2022.03.31.).”

2000년대 초기 국제결혼은 주로 결혼정보업체 등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어 능력이 낮거나 생활이 어려운 결혼이주여성들이 많았다. 방문교육사업 초기, 연구참여자 D는 누른밥을 먹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에게

본인이 활동하는 타기관에서 반찬 등을 얻어다 주었다. 이는 연구참여자 D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안쓰러움이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방문교육지도사들은 결혼이주여성의 상황에 맞추어 지혜를 발휘하며 돌봄을 실천하고 있었다.

“선생님 자격이요? 하여간의 봉사 정신이 있어야죠. 내가 이걸 돈을 벌겠다. 이러면 못 하는 거죠. 방문교육지도사는 돈과 직업의 그 경계선상에 있어서 용돈 조금 벌 수 있으니까(연구참여자 D, 2022.03.31.).”

본 사업 초기부터 현장에서 방문교육지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연구참여자 D는 방문교육지도사가 갖추어야 할 가장 큰 역량으로 ‘봉사정신’을 꼽았다. 방문교육지도사는 한국어 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지도 이외에도 다문화 가정이 직면하는 다양한 삶의 문제에서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 또한 수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5. 소결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의 타자성 경험과 실천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질적연구방법 중 하나인 생애사적 내러티브를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10년 이상의 현장 경력이 있고, 55세를 전·후한 방문교육지도사 4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들과 면대면 심층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문제 1에 해당하는 ‘방문교육지도사의 직업 생애에 나타난 삶의 내러티브는 어떠한가?’의 답을 찾기 위하여 생애사적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생애사는 시간성을 바탕으로 개인의 삶 경험을, 이야기성을 통해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이 교류하는 경험 안에서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김영순·김진희 외, 2018: 219). 이러한 경험에 관한 의미 탐색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생애사적 관점에서 개인의 삶을 이해하며 그들의 경험을 유추하고 반추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방문교육지도사에게 나타나는 타자성 경험을 유추하고, 경험과 실천의 의미를 도출하기 위하여 ‘방문교육지도사의 삶의 내러티브’라는 IV장의 구성을 통해 연구참여자 4명의 ‘방문교육지도사 이전 시기’와 ‘방문교육지도사 시기’라는 2가지 시간성 안에서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상호작용 측면에서 이들의 직업 생애 경험을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연구참여자 마다의 직업 생애 경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 A의 삶의 이야기는 ‘배움은 쓸모가 있더라’로 정리되었다. 1960년대 중반, 출생한 연구참여자 A는 열악한 가정 경제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특히 6.25전쟁 참전의 후유증으로 고통에 시달리는 아버지로 인하여 어머니는 남자 일 여자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6명의 자녀를 길러내었다. 이렇게 자녀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어머니를 돕기 위하여, 연구참여자 A는 고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뒤로 하고 취업하였다. 최첨단 반도체 사업장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딸과 아들을 낳아 양육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여성은 결혼 후, 퇴사(退社)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다. 또한 1990년대 말 한국에 불어닥친 외환위기로 인하여 수도권 외곽으로 이주한 그곳에서 교회를 다니며 배운 수지침을 기반으로 노인정 등에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왔다. 연구참여자 A가 고3일 때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노인정에서의 수지침 봉사로 이어졌다. 이를 계기로 의학적 전문지식의 필요성을 깨달은 연구참여자 A는 첫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며 방송대 보건환경학과에 입학하였다. 방송대를 시작으로 보건학, 유아교육학, 한국어문학 등을 전공하며 유아교사 자격, 사회복지사, 한국어 교원자격 등 각종 자격증을 취득함은 물론 금융 및 펀드 증권 관련 공부를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연구참여자 A는 결혼이주여성이 마주하는 다양한 삶의 문제에서 지식과 지혜를 나누어 줄 수 있었다. 특히 연구참여자 A는 금융지식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이 마주하는 삶의 문제에서 지혜롭게 그녀들이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라이프 사이클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참여자 A의 방문교육지도사로서의 타자성 실천에서 ‘배움은 쓸모가 있더라’ 라는 의미가 도출되었다. 특히 이주민은 인적자원 밖에 없는 한국에서 자녀를 많이 낳아주고, 세금을 내는 등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에 연구참여자 A에게 방문교육은 나라를 돕는 것이라는 ‘사명감’ 이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연구참여자 A는 너그럽게 이주민 학습자를 보듬는 ‘포용력’ 을 발휘하며 방문교육지도사로서의 역량을 펼치고 있었다.

또한, 연구참여자 B의 내러티브는 ‘나 정말 잘한 거 같아’ 로 의미가 도출되었다. 1남 8녀 중 여섯째로 태어난 연구참여자 B는 넉넉하지 않은 가정환경과 남아선호사상에 따른 인습적 사고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다. 그러나 딸을 귀하게 대우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성장하였다. 비록 언니네 사업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정 경제 환경은 더욱 열악해졌으나 서울에 취업해 있는 위 언니의 도움을 받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지원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에 연구참여자 B는 후기 청소년기에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기는 어려웠다. 자동차부품 회사, 관리실 경리 등으로 취업해 경제활동을 하던 중 이웃 사무실에서 만난 남성과 결혼한 후 퇴사하고, 자녀를 양육하였다. 자녀를 위해 참여했던 ‘동화읽는어른’ 동아리 모임에서 회원의 권유로 방송대 교육학과에 입학하였다. 연구참여자 B는 방송대에서 학사 과정을 마치고, 뭐든지 하면 할 수 있겠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다. 즉 연구참여자 B에게 방송대 학사 과정은 ‘나 정말 잘한 거 같아’ 라는 의미가 되었다. 이러한 삶의 경험은 방문교육지도사로서 결혼이주여성들을 돕는 역할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다. 예컨대, 그녀는 한국 사람으로서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는 일로써 방문교육사업에 참여하였고, 이러한 신념은 부부 갈등이나 다양한 삶의 문제에서 ‘부를

사람’ 이 연구참여자 B 밖에 없는 결혼이주여성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다. 또한, ‘동화읽는어른’ 동아리 회원 덕분에 방송대 학사과정을 밟을 수 있었던 경험을 기반으로 결혼이주여성에게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과정이나 운전면허 취득 방법 등을 알려주며, 그들의 진로를 응원하는 ‘사랑의 빛 깊은’ 을 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B가 방문교육사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열악한 환경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측은함과 한국인으로서의 책임감이었다면, 이들의 타자성 실천을 위한 방문교육지도사로서의 역량은 ‘그래 네 말이 맞아’ 라며 그들을 보듬어 주는 포용력이었다.

연구참여자 C는 1남 3녀 중 장녀로서 동생을 돌보는 역할을 맡아왔기 때문에 ‘저는 K-장녀입니다’ 라는 의미가 도출되었다. 특히 배움에 가치를 부여하는 가정환경에 따라 연구참여자 C는 남동생의 박사 학위 취득 과정을 돕는 등 동생들의 성장을 위하여 다분히 노력하였다. 또한, 꾸준히 본인의 성장을 위하여 자신을 개발하려 노력하였다. 비록 결혼하여 자녀를 양육하면서 정규 대학에 입학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48세라는 늦은 나이에 방송대 일본학과에 편입하였다. 지역 사회의 한부모가정 자녀를 돕는 1:1 멘토과정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는 청소년기 연구참여자 C의 이웃으로 이사왔던 혼혈아를 떠올리게 하였다. 50여 년이 지났지만 그때 이웃집 혼혈아에 대한 차별과 배제 경험에서 본인이 너무 어렸었다는 성찰을 하게 되었다. 다문화가정 자녀는 ‘그저 눈 떠보니 한국에서 태아났을 뿐인데’ 라는 성찰은 연구참여자 C를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에 지원하게 하였다. 연구참여자 C는 방문교육지도사에 지원하기 위해 단기 양성 과정을 밟았고, 이후에는 00사이버대학에서 한국어문화학을 전공하여 한국어 교원 자격을 취득하였다.

방문교육을 의뢰하는 다문화가정을 초기 방문할 때, 연구참여자 C는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을 모두 버리려 노력하였다. 즉 ‘왜 그래?’, ‘그러는 거 아니야’ 등의 말을 자제하고 결혼이주여성들이 스스로 마음을 열고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연구참여자 C는 작은 계기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국제 결혼을 통해 국내로 입국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진취성을 ‘인정’ 해주며, 마치 내 딸처럼 그녀들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결혼이주여성들을 마치 본인의 딸처럼 돌보게 하는 그것은 연구참여자 C가 K-장녀로서 삶을 경험하며 얻은 ‘내 딸에게는 그렇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는 다짐에서 비롯 되었다.

연구참여자 D의 내러티브는 ‘방문교육은 활력이다’로 정리되었다. 2남 4녀 중 셋째로 태어난 연구참여자 D는 호탕한 성격에 남을 돕는 일에서 의미를 찾는 아버지의 성격을 많이 닮았다고 하였다. 특히 아버지의 장례식에 찾아오는 문상객들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참 잘 사셨구나’라는 생각을 하였다. 이러한 아버지의 삶에 대한 흠모와 대학 과정에서의 경험은 현모양처를 꿈꾸던 소녀에게 ‘중년에는 카운슬링을 해보고 싶다’는 꿈을 꾸게 하였다. 연구참여자 D는 후기 청소년기에 서울소재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였다. 그녀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덕분에 ‘88 서울올림픽 경기에서 전산팀원으로 자원봉사하는 경험을 하였다. 대학 졸업 후, 잠시 컴퓨터학원 강사로 활동을 하던 중 결혼을 하며 수도권으로 이사하게 되었고 이는 퇴사로 이어졌다. 이후 첫째 아이, 둘째 아이를 낳아 기르며 자녀 양육과 가사를 돌보는 일에 집중하였다. 그런데 마흔이 되면서 생각만 했던 ‘상담’이 눈에 들어왔다고 하였다. 이에 2005년 학생상담, 2006년 미술치료 과정을 거치며 ‘여성의전화’에서 상담 활동을 시작 하였다. 이렇게 중년여성이 된 연구참여자 D는 상담봉사자로서의 삶을 이어가던 중, 지역 신학대학교에서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방문교육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방문교육지도사가 되기 바로 전, 행복상담원으로 일하며 만난 나이 어린 결혼이주여성의 상황은 연구참여자 D를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에 지원하게 하였다. 2000대 초반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로 입국한 결혼이주여성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다. 예컨대 한국인 남편 또는 시어머니 등이 결혼이주여성의 식사를 돌보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연구참여자 D는 본인이 일하는 기관에서 남는 반찬을 얻어 그녀에게 지원해 주곤 하였다. 연구참여자 D는 결혼이주여성 또래의 자녀를 키우고 있었고, 그녀들은 한국에 부모형제가 없었기 때문에 마치 친정엄마처럼 결혼식에 참석하거나 결혼이주여성이 마주하는 부부 갈등에 초기 상담자의 역할 등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영어를 사용하는 다문화 부부가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연구참여자 D에게 한국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할 때, 방문교육을 지속해야 하는지를 많이 고민하였다. 반면 한국어 교육을 마치며 자신의 변화와 성장에 감사하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서 이를 위로받았다. 연구참여자 D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인의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녀에게 ‘방문교육은 활력’이 되었다.

1960년대 초-중반에 출생한 연구참여자들은 시대적, 사회·문화적 영향을

벗어나기 어려웠던 공통된 부분이 있는가 하면, 가정마다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삶의 경험은 다르기도 하였다. 특히 1960년대 출생한 연구참여자들은 주로 후기 청소년기에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기 어려웠으나 마흔을 전후하여 방송대 또는 사이버 대학에 입학하여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라는 공적 업무를 맡게 되었다. 이는 인습에 사로잡히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개척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Sadler(2006)의 2차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연구참여자들은 방문교육지도사를 통해 마흔 이후, 자기 인생의 한복판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발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과정 속 경험과 배움, 깨달음 등은 결혼이주여성을 돌보는 방문교육에서 나타났다. 즉 방문교육지도사로서의 연구참여자들의 타자성 경험과 실천은 그녀들의 삶 속 내러티브에 반영되어 나타났다.

위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탐색하며 발견한 연구참여자들의 윤리적 태도는 다양하였다. Levinas는 험뎠고 굶주린 타자의 얼굴에 응답하는 타자성을 주문하였는데, 연구참여자 A의 윤리적 태도는 이주민 학습자를 인적 자원으로 본 것에서 자신의 거주지에 찾아온 손님에게 머물 곳을 제공하고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환대’로 해석할 수 있었다. 또한, 같이 살자고 찾아오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연구참여자 B에게서 Levinas가 말하는 윤리적 ‘책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연구참여자 C의 그것은 ‘눈 떠보니 한국에서 태어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차이에 대한 ‘관용’과 결혼이주를 하는 그녀들의 진취적인 면모에 대한 ‘인정’이었다. 또한, 연구참여자 D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측은함에 대하여 ‘내 자식같은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얼굴에 응답하는 ‘책임’과 결혼이주여성의 높은 생활력을 논하는 것에서 그들에 대한 ‘인정’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학습자에 대한 윤리적 태도를 바탕으로 연구참여자들은 다문화가정을 방문하여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을 ‘나-그것’이 아닌 ‘나-너’의 관계로 만나고 대화하며 관계를 맺고 있었다.

2000년을 전후하여 한국의 이주민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07년 국내 거주 이주민은 100만 명이 되었다.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며, 같은 해 여성가족부는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을 시작하였다. 2017년 국내 거주 이주민은 200만 명을 넘어서며 한국은 거스를 수 없는 다문화 사회의 도래를 인정하게 되었다. 반면 2021년 방문교육

지도사의 60세 정년 은퇴제도가 도입되며, 초기 방문교육사업에 참여했던 지도사들의 은퇴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방문교육사업 초기부터 현장을 지켜오며 한국 다문화 사회화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작은 씨앗이 되어준 방문교육지도사의 타자성 경험과 실천에 관한 생애사적 내러티브를 탐색하였다.



## V. 방문교육지도사의 타자성 경험과 실천의 의미

본 연구의 목적은 방문교육지도사의 타자성 경험과 실천의 의미 탐구이다. 이에 IV장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삶 속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상호작용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하여 방문교육지도사의 생애를 살펴보았다. 이들의 생애사에 나타나는 타자성은 방문교육지도사로서의 직업 경험에 투영되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V장에서 진행되는 연구 문제 2. ‘방문교육지도사의 직업 생애에 나타난 타자성 경험과 실천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해당하는 내러티브 탐구를 위한 방문교육지도사의 타자성 경험과 실천의 의미에 대한 해석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에 V장에서 연구참여자의 내러티브를 탐색하여 방문교육지도사의 타자성 경험과 실천의 의미 영역과 주제를 탐색하여 의미를 도출하였다.

생애사 연구는 내러티브를 매개로 이야기하는 화자(話者)와 이야기를 듣는 청자(聽者)가 함께 만들어 내는 공동작품이다. 따라서 생애사 연구에서 화자와 청자의 관계성은 매우 독특하다. 특히 인간에게는 이야기하려는 본능이 있고, 이야기를 통해 사회를 이해한다. 따라서 인간과 이야기는 긴밀한 관계에 있다. 이에 내러티브 탐구는 내러티브하게 사고하는 과정이며, 내러티브하게 살아가는 삶에 동참하는 과정이고, 3차원적 탐구 공간을 토대로 탐구하는 것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내러티브 탐구에서 3차원적 탐구 공간이란 과거·현재·미래에 걸친 시간의 연속성(continuity), 상황과 관련된 공간(장소, place)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interaction)을 의미한다. 즉 내러티브 탐구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내러티브 탐구가 진행된다. 따라서 내러티브 탐구는 경험에 대한 연구로써 삶과 이야기 사이의 순환적이며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김영순·김진희 외, 2018: 244-245). 따라서 본 연구는 방문교육지도사의 타자성 경험과 실천의 의미를 탐구함에 있어 내러티브 탐구의 3차원적 탐구 공간을 토대로 의미의 영역과 주제를 탐색하였다. 이에 따라 도출된 연구참여자들의 타자성 경험과 실천의 의미 영역을 시간성 차원, 공간성 차원, 관계성 차원으로 분류하여, 다음 <표 6>과 같이 의미를 도출하였다.

<표 6> 타자성 경험과 실천의 의미 영역과 주제 분류

차 원	주제	소주제
시간성	타자성 경험 및 실천의 순환	• 가족애를 통한 타자성 인식
		• 사랑의 빛 됴음
		• 타자성 경험과 실천의 흐름
공간성	타자성 경험 및 실천의 영역 확장	• 방문교육지도사의 등지
		• 한국인가정에서 다문화가정으로
		• 다문화가정에서 지역사회 공간으로
관계성	타자성 경험 및 실천의 관계 심화	• 방문교육지도사-결혼이주여성의 타자 관계 심화
		•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으로 타자성 관계 확대
		• 자기 안의 타자 관계 재정립

## 1. 시간성 차원 : 타자성 경험 및 실천의 순환

한 사람의 생애는 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거나 어떤 사람과 그의 삶 모두를 낚잡아 이르는 말 또는 사람이 살아 있는 기간을 일컫는다. 한 사람의 전체 인생을 이야기할 때에는 개인마다의 주어진 환경과 그에 따른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념, 가치관은 모두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현재의 인생은 과거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지금의 현재가 없다면 미래도 없을 것이다. 즉 우리의 인생에서 과거, 현재, 미래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한 개인의 과거 경험은 그의 머릿 속에 흔적이 되어 현재로 흘러온 그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현재의 모습 속에서 그의 미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생애사 연구는 한 개인의 삶의 과정을 연구하는 연구방법으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김영순·김진희 외, 2018: 216). 특히 한 사람에게 일관되게 나타나는 행동은 그의 생각과 신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살아온 전체의 과정을 살펴봄이 필요하다.

## 1.1. 가족애를 통한 타자성 인식

Levinas에게 시간은 주체가 홀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 그 자체를 말한다. Levinas의 타자는 수동적인 방식으로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짐을 지우는 비밀스러운 존재이다. 이를 통해 자아는 타자에게 응답하며 윤리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Levinas, 2001). 타자를 윤리적 차원에서 현실적이게 인정한다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갖는데, 이는 생애사의 영역에서 다양하게 탐구되어 왔다. 생애사 연구를 통한 개인의 직업 경험을 이해하는 것은 직업 경험에서의 시간 영역뿐만 아니라 그 경험에 영향을 미친 역사·사회·경제·지리 등의 영향력을 탐구함이 요구된다(배경임, 2018: 49).

과거·현재·미래를 엮어주는 것은 삶의 의미이다. 이러한 의미는 사건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을 경험할 때 생겨난다. 이때의 경험은 행동과 감정뿐만 아니라 행동과 감정에 대한 개인의 성찰을 포함하는 개념이다(Bruner, 1986). 특히 경험의 사전적인 의미는 ‘자신이 실제로 겪어 보거나 해 봄’ 또는 ‘거기서 얻은 기능이나 지식’이다. 그리고 실천의 그것은 ‘생각한 바를 실제로 행함’이 된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경험’은 연구참여자가 실제로 겪어본 것으로 정의하였고, ‘실천’은 연구참여자가 경험한 것을 삶 속의 주어진 상황 맥락에서 이를 실행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방문교육지도사의 타자성 실천은 이에 대한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타자성 실천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녀들이 경험한 타자성을 탐색하였다. Levinas는 타자를 윤리적 관계에서 이해하려 하였는데, 그에게 타자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젊은지 늙었는지, 가난한지 부자인지, 정주민인지 이주민인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즉 그가 지닌 사회·문화·민족·경제 등의 특수성을 뛰어넘어 ‘별거벗은 가운데 나타나는 얼굴’이었다(강영안, 1999: 253). 즉 Levinas는 타자가 내 안에 있는 타자의 관념을 넘어서 자신을 제시하는 방식을 얼굴이라 하였다(Levinas, 2018: 59). 이런 의미에서 보면, 연구참여자들이 최초로 경험한 타자성은 그녀들 자신이 별거벗은 얼굴로 태어난 상태에서의 경험이 될 것이다. 예컨대 타자로서 그녀들이 경험한 타자성은 갓난아기일 때, 부모에게 받은 무한 돌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에 등장하는 부모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 B는 특별히 아버지를 좋아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 당시 남아 있던 남아선호사상과 같은 인습적 사고를 뛰어 넘어 아들보다 딸을 높이 두셨기 때문이다. 비록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으로 인하여 자녀를 모두 대학에 진학시키기는 어려웠지만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공부시키려 노력하였다. 또한, 학교에서 운동회를 할 때면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참석하실 정도로 매우 자상하였다.

“저희 아버지는 많이 배우시지는 못하셨는데 (중략) 동네에서도 저 집은 딸도 많고 저런데 뭐가 좋아서 맨날 저렇게 딸한테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여자애도 무조건 배워야 된다.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대학교는 못 해주지만 고등학교까지는 어떻게든 내가 가르칠 테니까 너네가 해라 이런 거 있고 아빠가 되게 자상하셨어요. 학교 운동회 같은 거 하고 이러면 엄마는 안 오셔도 아빠는 오셨어요. 그 정도로 되게 자상하고 딸들한테도, 좀 이상이 좀 다르다고 해야하나 (연구참여자 B, 2022.03.03.).”

이처럼 아버지의 자상하신 면모는 연구참여자 B의 결혼과정에서도 드러난다. 예컨대 연구참여자 B는 결혼과정에서 오랜 동안 부모형제와 결혼 조건에 대한 의견 조율 과정이 있었다. 이때 아버지는 가장 먼저 연구참여자 B의 입장을 이해하고, 승낙해 주었다. 그 당시 그녀의 아버지는 특별히 연구참여자 B와 남편의 손을 잡아주며 행복하게 살 것을 당부해 주었다.

“우리 남편이랑 결혼을 할 때도 아빠가 제일 먼저 이해를 해 주셨어요. 그래 네가 한다 하면 어쩔 수 없지. 그런데 한 번만 마음을 바꿔보면 안 되겠니. (중략) 둘이 행복하게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연구자의 손을 잡으며, 본인 아버지가 연구참여자 B에게 했던 모습을 시연함.) 손을 잡아라 그래.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다 이러면서. 되게 자상하셨어요(연구참여자 B, 2022.03.18.).”

연구참여자 A의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특별히 권선징악 등의 귀한 말씀을 종종 전해주었다. 병마와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면서도 그녀의 아버지는 마치 친구처럼 연구참여자 A와 토론을 즐기는 등 굉장히 깨어 계셨던 분으로 기억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 A의 어머니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묵묵히 가정 경제를 책임지며 자녀 6명을 길러내었다. 연구참여자 A는 이러한 성장과정에서의 부모와의 경험이 그녀의 인성 함양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우리 아버지와 성장 과정인 것 같아요. (중략) 좀 가정적이었는데 (중략) 권선징악 동화책의 권선징악에 대한 얘기를 진짜 많이 해줬어요. 가족 모아놓고 (중략) 그런데 얼마나 따뜻한 분이셨냐 하면 (중략) 술 안 잡수시면 천사였어요. 술을 안 잡수시면은 같이 친구처럼 토론하고 자기 발표하고 애들 교육시키고. 굉장히 깨었던 분인데 (중략) 그거는 우리 엄마였던 것 같아요. (중략) 제가 유아교육과도 (공부)했잖아요. (중략) 그렇게 본다면은 나는 어렸을 때 인성은 이미 부모님으로 인해서 좋게 형성이 됐구나 가끔 그 생각을 해요(연구참여자 A, 2022.02.11.).”

인간이 최초로 경험하는 관계는 주로 부모인데, 양육자로서 부모의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양육양식 또는 양육태도는 부모-자녀의 관계의 질을 결정하고 자녀의 정서적, 성격적, 지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세대 간에 전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박영선·안자영 외, 2020: 729).

부모의 자녀에 대한 본능적인 무한 돌봄처럼 Levinas는 ‘타인에 의한’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이런 차원을 ‘내 안에 있는 타자’, ‘동일자 안의 타자’, ‘내재 속의 초월’이라 부른다. 이와 같은 Levinas의 타자 윤리는 자율적인 주체의 선택에 의하여 그 정당성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타자가 내 안에 ‘혼을 불어넣음’이란 타인의 고통을 위해 타자가 내 몸으로 육화(incarnation)되어 나를 내어 줄 수 있도록 노출시킨다는 의미이다. 즉 내 안에 들어온 타자는 내 안에서 타자를 위해 짐을 짊어질 수 있도록 나를 키워낸다. Levinas는 이것을 ‘모성성(maternite)’이라고 하였다(강영안, 1999: 74).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연구참여자들에게 체화된 모성성은 부모의 양육과정 속 경험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모성성을 바탕으로 연구참여자들은 본인의 자녀를 낳아서 양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연구참여자들은 1980년대 20대 중·후반에 결혼 적령기를 맞이하였고, 연구참여자 A는 27세에 결혼하여 1녀 1남(93년, 98년)을, 연구참여자 B(28세)는 1녀(94년)를, 연구참여자 C(29세)는 1남 1녀(88년, 92년)를, 연구참여자 D(24세)는 2녀(91년, 95년)를 낳아서 건강한 성인으로 길러 내었다. 이렇게 연구참여자들은 부모에게 양육되며 타자성을 경험하였고, 본인의 자녀를 무한 돌봄으로써 타자성을 실천하였다.

“저희 아버지는 약간 좀 오지랖이 넓은 분, 남 위주로 사시는 거. (중략) 아빠 성향을 제일 많이 닮은 것 같아. 저는 이제 엄마보다는 아빠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아빠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손님들이 오시는데 진

짜 내가 ‘우리 아버지가 참 잘 사셨구나.’ 그러니까 누가 무슨 일을 좀 해달라고 그러면 다 처리해 주시는 해결사 역할을 좀 하셨고 약간 정치 쪽에도 관심이 좀 많으셨거든요. (나도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제가 (아버지를 좀 닮았어요.) (연구참여자 D, 2022.03.31.)”

경험은 행동의 변화를 야기하는 학습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Chance, 2009: 41-43). 경험을 통한 행동의 변화는 학습이므로, 모델을 관찰하는 경험으로 인한 행동의 변화는 대리학습(vicarious learning)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Chance, 2009: 300).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연구참여자 D는 오지랖 넓은 아버지의 삶을 관찰하며 대리학습을 하였고, 아버지의 장례식에 찾아온 많은 문상객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참 잘 사셨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연구참여자 D의 삶의 태도는 그녀가 삶을 살아가며 만나는 다양한 인간 관계의 기초가 되었고, 이는 결혼이주여성과의 진솔한 관계 맺기로 이어진다.

## 1.2. 사랑의 빛 갇음

인간의 행동은 대부분 학습된다(신명희·강소연 외, 2011: 192). 학습의 의미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경험이나 연습의 결과로 나타나는 비교적 영속적인 행동의 변화 또는 행동 잠재력의 변화’를 말한다. 이러한 학습에서 반사적 행동 또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성숙에 의한 행동 변화는 관찰이나 경험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학습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인간은 학습한 모든 것을 행동으로 드러내지는 않는다. 따라서 행동의 변화는 물론이고 동기화되면 언제든지 수행될 수 있는 행동 잠재력의 변화는 학습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절실히 도움이 필요했던 시기에 타자성 경험으로 학습된 연구참여자 A와 결혼이주여성의 타자성은 그녀들의 몸 속에서 타자성 실천을 위한 행동 잠재력의 가능성을 갖게 하였을 것이다. 예컨대 생애 초기에 경험한 타자성은 연구참여자 A의 삶 속에서 ‘사랑의 빛 갇음’이 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연구참여자 B는 순위 언니의 도움을 통해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언니의 도움에 대한 사랑의 빛 갇음은 60대의 연구참여자 B에 의해 2022년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었다.

“중학교 때까지는 엄마 아빠랑 살고 그래요 (중략) 저 언니 돈으로 가르쳤거든요. 고등학교를 저희 언니가 가르쳐가지고 지금도 마음의 빛이 있어 가지고. (중략) 언니한테 신세를 졌다. 이게 그 강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언니가 저보다 조금 더 못 살아. 제가 늘 언니 뭐 있으면 그냥 언니 먼저 챙겨주고. (중략) 지금도 이제 언니가 나보다 조금 더 힘드니까 명절 때 고구마 나오면 고구마 사서보내고(연구참여자 B, 2022.03.03.)”

또한, 자녀 양육기의 연구참여자 B는 ‘동화읽는어른’ 동아리 회원의 권유 덕분에 방송대에 입학하여 학사과정을 밟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연구참여자 B는 뭐든지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그녀의 타자성 경험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타자성 실천으로 나타나는데, 연구참여자 B가 그녀들에게 점정고시는 물론 운전면허 취득 등의 다양한 능력 함양을 권유하는 것이 그것이다.

“방송대도 선생님 저 그러니까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정말 주위에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어린이도서연구회, 동화 읽는어른 모임. (중략) 그거 하고 있을 때 거기에 회원 중에 (중략) 방송대 공부를 같이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중략) 그 친구랑 지금 헤어져서 지금 알지는 못하는데 계속 뭔가 제가 시작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마다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중략) 저는 계속 막 그분들한테 이것도 배워봐, 막 저것도 운전면허증도 빨리 따 이렇게(연구참여자 B, 2022.03.03.)”

인간은 상처받을 가능성이 있는 취약한 존재로서 상호의존적이다. 상호의존성에 기반한 인간 사회의 돌봄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개인적 능력이다. 한 필리핀 여성의 이주 생애사(강영미, 2015)를 보면, 결혼이주여성은 빈곤 탈출을 위한 생존 전략으로 선택한 한국에서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 햇볕은 타자의 모습을 한 그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종교 공동체의 정보와 지지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경제적 보탬과 종교 공동체의 소속감, 심리적 안도감 그리고 지지 경험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타자성 경험을 통해서 그녀는 고통받는 타자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그녀는 경제적 풍요를 찾아서 온 한국에서 풍요를 대신하여 ‘사람’을 찾았다고 하였다. 그녀는 이와 같은 타자성 경험을 바탕으로 삶의 가치를 바꾸고, 같은 처지의

고국 동포를 돕게 되었다. 강영미(2015)는 한국 사회에서 한 결혼이주여성의 디아스포라적 삶 속에 나타나는 ‘사랑의 빛 갚음’ 이 전 지구적인 이주의 시대에서 ‘공동 선(善)’ 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였고, 이는 보편적 윤리의 사랑 이야기로써 ‘상생’ 의 의미를 생각하게 된다고 하였다.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은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근거로 시작되었다. 방문교육은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이거나 만 19세 미만 중도입국자녀에게 주 2회(회기당 2시간) 40주의 한국어 교육을 제공한다. 부모교육은 현재 임신 중이거나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 중인 결혼이민자에게 제공되는데, 결혼이민자의 생애주기(임신 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에 따라 각각 주 2회, 20주가 제공된다. 또한 자녀생활지도는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주 2회 40주가 제공된다. 1년은 약 48주에 해당하므로 방문교육에서의 40주는 대략 10개월에 해당한다. 또한, 부모교육의 경우 결혼이민자의 생애주기에 따라 각각 20회기인데, 이를 모두 진행하는 경우에는 약 60주이고, 이는 대략 15개월에 해당한다.

방문교육의 시간성을 대상자의 입장에서 고려해 보면, 국내로 입국한지 5년 이하의 결혼이주여성 또는 만 19세 미만 중도입국 자녀는 모국에서 사회화 과정에 따라 이들은 모국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언어와 문화 등에서는 갓난아기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Levinas가 말하는 험벗고 굶주린 타자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의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굶주림에 맞추어 방문교육지도사를 통해 제공되는 한국어 교육은 이들이 경험하는 타자성이 될 수 있다. 한국어 교육을 위한 방문교육은 다문화가정의 가족에게 한국어를 전달하는 통로이고, 방문교육지도사는 이들에게 타자성을 실천하는 한국인이 되는 것이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생애주기(임신 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에 맞추어 제공되는 부모교육에서 방문교육지도사들은 마치 친정엄마처럼 결혼이주여성을 돕기 위해 방문교육에서 규정한 매뉴얼을 넘어 돌봄을 실천하고 있었다. 여성의 생애에서 자녀 출산기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다. 이렇게 도움이 절실한 결혼이주여성의 부름에 응답하는 방문교육지도사의 타자성 실천은 결혼이주여성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갔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방문교육지도사의 역할에 대하여 연구참여자 C는 ‘그냥 내딸이다’ 생각하면 해낼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연구참여자 C는 장녀로서 부모의 돌봄보다는 동생들을 돌보는 역할에 충실하였기 때문에 ‘내 딸에게는 그

렇게 하고 싶지 않다’ 는 다짐이 있었고, 현재 자신의 딸과는 친구처럼 다정하게 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참여자 C의 딸과의 다정한 관계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을 마치 자신의 딸처럼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 B는 한국에 오면 아무도 없는 나이 어린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마치 친정엄마처럼 ‘그래 그래 네 말이 맞아’ 하면서 따뜻하게 포용해 주었다.

“그냥 내 딸이다.’ 생각하면 다들 해 낼 수 있어요. (딸처럼 생각해라!) 다문화 가정에는 갈등이 많아요. 우리는 안 볼 것 같지만 다 싸워요. 근데 딸이라고 하면 저는 다를 것 같아요. 믿지가 않잖아요(연구참여자 C, 2022.03.22.).”

“그냥 저는 사랑만 있고 이러면 (중략) 포용력. 따스한 이렇게 좀 (보듬어 주는 그런 것). 그분들은 나를 엄마라고 (부르고) 그래도 결혼(이주여성에게) 엄마(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그런데 다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기 오면 아무도 없으니까. 친정엄마같이 좀 따뜻하게 따뜻하게 해주시고. 좀 감싸주고 ‘그래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런 식으로 포용력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 그게 제일 저는 실력보다도 더 필요할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B, 2022.03.18.).”

연구참여자들은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에서 만나는 결혼이주여성을 마치 내 딸처럼 생각하였다. 이러한 돌봄은 상호 침투적이고 관계적으로 재구성되는 활동이자 과정이다(정신희, 2018: 203). 즉, 연구참여자들은 성서의 한 구절처럼 ‘내가 임신한 것도 아니고 태어나게 한 것도 아닌’ (김연숙, 2018: 78), 결혼이주여성들을 절대 타자로 받아들이며 타자성을 실천하였다.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마음에서 큰 울림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녀들은 연구참여자들을 ‘엄마’ 라고 명명하게 되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엄마’ 라는 부름은 연구참여자들이 결혼이주여성의 친정엄마가 되어 이들을 돌보는 돌봄 실천가로서 지속적인 타자성을 실천하게 하였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한 사회의 돌봄은 물과 공기처럼 그 사회 안에 존재하는 공공재라 할 수 있는데, 타자에 대한 책임을 모성에 빗대어 설명한 Levinas의 타자성은 다문화가정을 돌보는 방문교육지도사의 공적 역할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 1.3. 타자성 경험과 실천의 흐름

방문교육의 시간적 조건을 살펴보면, 연구참여자들은 방문교육을 위하여 매주 2회기씩 40주 이상을 지속해서 다문화가정을 방문하여 2시간을 그곳에 머물며 주어진 교육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문교육의 교육 및 지도를 위해 제공되는 시간성은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학습 및 행동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어떠한 행동이 유지되거나 없어지는 것은 그 행동의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천성문·박명숙 외, 2009: 134). 따라서 사람들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어떤 자극에 대하여 수동적으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조작할 수 있다. 이를 조작적 조건형성(instrumental conditioning)이라고 하는데, 매주 2회 이루어지는 방문교육의 규칙성과 반복성은 조작적 조건형성에서 고정 간격, 고정 비율의 정적 강화 조건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은 이주민 학습자들에게 타자성 경험의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는 미래를 쫓 수 있는 힘이 있고, ‘지속’은 곧 창조 행위라고 하였다(Levinas, 2001: 96). 이와 같이 한 인간의 홀로서기는 과거를 통해 설명될 수 없는데, 현재는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현재는 과거와 미래 사이의 한 순간이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새로운 시작으로 긍정하는 그 무엇인 자아(自我)와 관계한다고 하였다. 특히 Levinas에 따르면, ‘바로 여기에 내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가 의미하는 자아는 현재 이 순간이다. 즉 지금 이 순간은 자아 자체가 된다(Levinas, 2001: 128).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방문교육에서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는 연구참여자들을 통해 한국에서의 새로운 현재를 만들며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는 자기로부터 출발한다(Levinas, 2001: 47). 즉 Levinas는 자기로부터의 출발이 현재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타자성을 경험할 때, 과거의 목적어였던 주체는 타자성을 실천하며 주체로서 현재의 주어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누군가에게 타자성을 실천하며 주체는 미래를 살아가게 되므로 주어져서 현재 타자에게 베푸는 타자성 경험은 그의 미래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Levinas(2001: 86)의 ‘미래는 타자’라는 주장을 이해할 수 있다. 즉 미래와의 관계는 현재 타자와의 진정한 관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Levinas(2001: 93)는 미래와의 관계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래와의 관계, 즉 현재 속에서의 미래의 현존은 타자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 상황에서 비로소 실현되는 것처럼 보인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 상황은 진정한 시간의 실현이다. 미래로 향한 현재의 침식(浸蝕)은 홀로 있는 주체의 일이 아니라 상호주관적인 관계이다. 시간의 조건은 인간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 있다.”

또한, 시간은 존재와 존재자 사이의 다른 관계를 보여줄 수 있다(Levinas, 2001: 50). 시간은 타인과 관계하는 사건 자체이며 현재의 일원론적 홀로서기를 넘어서서 다원론적 존재를 가능하게 해준다. 이를 성찰해보면, 현재의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홀로서기는 다원론적 존재로 나아가는 작은 씨앗이 되므로 지금 이곳에서의 타자와의 관계는 다원론적 존재로서의 주체의 미래라고 할 수 있다. 시간이 자리한 바로 그곳은 시간과의 관계에서 발견할 수 있다(Levinas, 2001: 99). 이러한 관계, 그것은 타인과의 관계이다. 이를 근거로 Levinas는 미래를 통해 타자를 정의하지 않고, 오히려 타자를 통해 미래를 정의하였다. 왜냐하면 죽음의 미래 자체가 그것의 전적 타자성에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Levinas(2001: 97)가 의미하는 시간은 우리의 영혼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 속성의 혁신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시간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탄생이 되기 때문이다.

Levinas는 나와 무관해 보이는 타자의 불행에 대한 무한 책임을 시간의 통시성으로 설명하였다. 시간은 회복할 수 없고 비가역적인 통시성을 가지므로 나의 과거는 이와 같은 시간의 통시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김연숙, 2001: 17-18). 본 연구는 이러한 그의 주장을 내러티브 탐구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연구참여자들의 양육자에게 받았던 타자성 경험은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이주민 학습자를 돌보는 타자성 실천으로 이어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이 이주민 학습자에게 베풀었던 타자성 실천은 학습자의 타자성 경험이 되어 또 다른 누군가를 돕는 타자성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예컨대 연구참여자 A는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온 정성으로 자녀생활지도를 하였는데, 이를 통해 학습 능력이 향상되며 자신감을 갖게 된 다문화가정 자녀는 부족한 수학 능력으로 포기하려던 ‘의사 선생님’을 다시 꿈꾸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참여자 A를 돕겠다는 다짐을 전하였



다. 연구참여자 A는 이럴 때에 정말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번에 학생도 개가 수학을 정말 못해요. 더하기 빼기 안돼. 근데 이제 엄청나게 세뇌를 시켜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국어도 잘하고 이제 수학도 잘하게 됐어요. ‘꿈이 뭐야’ 그러면 의사선생님이 된대요. 처음에, 더하기 빼기 못 할 때, 의사 선생님 하려면 수학 잘 해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 저 꿈 바뀌었어요. 의사 선생님 안 할래요. 너 이제 수학 잘하게 되었는데, 왜 꿈을 버려? 가서 해서 선생님이 여기 아픈 거 네가 고쳐줘야 돼. 그랬더니 2학년이거든요. (교육이) 끝났어. 선생님, 저 꼭 의사 선생님이 되어서 선생님 아픈 곳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인형 편지를 써서 (중략) 그럴 때 정말 보람을 느끼죠(연구참여자 A, 2022.03.12.)”

연구참여자들은 양육자에게 받았던 무한 돌봄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를 낳고 기르는 양육자가 되어 자녀를 양육하였고, 이는 다시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에게 타자성 실천으로 전해지고 있었다. 즉 국제결혼으로 새롭게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익혀야 하는 결혼이주여성은 이주 초기 갖난아기와 같은데, 이러한 초기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하여 연구참여자들은 그녀들에게 체화된 무한 돌봄을 실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타자성 실천은 연구참여자들에게 돌아와 타자성 경험이 되었다.

이처럼 자신이 경험한 혈벗은 상태에서의 무한 돌봄을 타자성 경험이라고 할 때, 이는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다시 미래로 이어짐을 확인하였다. Levinas는 미래와의 관계에 대하여 타자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현재 속에서의 미래의 현존이 비로소 실현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였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 상황을 통해 진정한 시간의 실현이 되고, 미래로 향하는 현재의 침식(侵蝕)은 상호 주관적인 관계이지 홀로 있는 주체의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조건은 인간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 있다고 하였다(Levinas, 2001: 93).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출생시 별거벗은 나약한 존재였고, 부모 또는 누군가의 무한 돌봄 덕분에 현재 우리들은 성인이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의 몸 속 어디엔가는 생애 초기의 타자성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에 체화된 타자성 경험으로 인하여 혈벗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타인의 수동적인 부름에 응답하는 주체로서의 타자성을 실천할 가능성이 높는데, 이러한 타자성 경험과 실천의 통시성을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 2. 공간성 차원 : 타자성 경험 및 실천의 영역 확장

Connelly & Clandinin(2006: 480-481)은 장소를 “탐구와 사건이 발생하는 일련의 장소 또는 장소의 특정한 물리적, 구체적, 그리고 위상학적 경계들”로 정의하였다. 이 공통요인의 핵심은 “모든 사건은 어떤 장소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Connelly & Clandinin(1994)가 처음으로 내러티브 탐구의 차원을 설명할 때, 거기에는 단지 시간성과 사회성 두 가지뿐이었다. 그러나 Connelly & Clandinin(1994)의 내러티브 탐구에서 장소에 대한 고민은 연구참여자와 함께 연구하고, 연구참여자 혈통의 사람들과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고향에서 살기 위해 지리적 고향을 떠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처음에 이들은 탐구했던 장소에 대하여 성찰해 보는 등 일련의 노력이 있었다. 이를 통해 장소와 경험 사이의 상호관련성에 대하여 더 고민하면서 ‘장소’를 내러티브 탐구의 공통요인으로 보게 되었다(염지숙·강현석 외, 2015: 60-61).

Connelly & Clandinin(2006)가 내러티브 탐구에서 장소를 고려한 것에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특별히 다문화가정을 방문하고 있음을 되새기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에서 발견되는 다문화가정의 거주 공간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특별히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다문화가정의 주거환경을 살펴보고,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에서 언급되는 다문화가정의 주거환경과 연구참여자들의 이에 대한 소감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방문교육지도사로서 연구참여자들의 주요 활동 공간을 살펴보았다. 특히 방문교육지도사는 가정을 돌보며 병행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중년여성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즉 방문교육지도사는 비상근직이므로 그들이 소속된 지역 가족센터에 매일 출근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이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주요 활동 공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에 나타난 가족센터와 그녀들의 가정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의 가정 등의 활동 공간을 살펴보았다.

## 2.1. 방문교육지도사의 등지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고, ‘다문화가족’은 법률용어가 되었다(정신희, 2018: 208-209). 즉 2006년 4월부터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었다.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며, 이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까지 전국 211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었다. 한편 2014년부터 시범 사업을 거쳐 건강가정기본법령 제34조에 따라 설치·운영되어 오고 있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2016년부터 통합하여 78개소의 ‘가족센터’가 운영되고 있었다. 이는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제12조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2022년 1월 기준, 전국의 ‘가족센터’는 208개소이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2).

한편 2022년 1월 기준, 전국 229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기본프로그램과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기본 프로그램은 가족(다문화가족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 가족관계향상 프로그램 등), 성평등·인권(가족내성평등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등), 사회통합(취업지원, 자조모임 등), 상담(가족상담, 사례관리 등), 홍보 및 자원연계이다. 또한,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언어발달지원사업, 통번역 서비스사업,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특수목적 한국어 교육 등이 있다(여성가족부, 2022: 169-188). 이들 중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대표사업이고, 본 사업의 중심에는 방문교육지도사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의 ‘등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있는 방문교육지도사는 직업으로써 계약직에 속한다. 이에 따라 방문교육지도사의 계약기간은 임용시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다(여성가족부, 2021b: 155). 그 동안 고용 불안의 어려움이 있었던 방문교육지도사는 60세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한정된 날이나 한정된 시간에 출근하는 비상근직이다. 이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위치는 비상근직의 그것에 머물러있다. 예컨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특별히 연구참여자들을 위한 공간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를 위한 연구 설명

회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휴게 공간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방문교육을 수행하며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 A는 면대면 인터뷰 장소를 섭외하기 위하여 자택 근처의 유희 공간을 찾아야만 했다. 특히 본 연구의 예비 조사 기간과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기간이 겹치며, 인터뷰를 위한 공간 확보는 더욱 쉽지 않았다. 마침내 연구참여자 A가 찾아낸 공간은 그녀의 집 근처 산책로에 위치한 작은 쉼터이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참여자 A는 직업으로써 방문교육지도사의 열악한 처우를 호소하였다.

“완전 봉사지. 선생 처우 개선이 돼가지고 우리가 가서 자료도 출력하고 거기서 이렇게 미팅을, ‘나 다문화 센터 다녀’. (그러면) 너네 회사 한 번 갈게. 사무실 한 번 갈게 했을 때, ‘그래 와’ 해서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이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오셨을 때도 제가 어제 실사를 다니지 않아도 됐죠. 그쵸 센터로 오시면 되는데 그런데 제가 자신 있게 선생님한테 말을 못하잖아요.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그 센터로 ‘다문화 센터도 괜찮고요.’ 해놓고, 그것도 여의치 않을 수도 있고, ‘그냥 내가 주제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오세요.’ 라고 했는데 그걸 못 하니깐 그게 애로 사항이죠(연구참여자 A, 2022.02.11.).”

이처럼 직업으로써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는 비상근직인데, 비상근직으로써의 불편함은 연구참여자 D의 내러티브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2016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통합하여 ‘가족센터’가 되었다. 이는 지역의 정주민과 이주민을 통합하여 지원하기 위한 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10여 년 이어지고 있는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에서 방문교육지도사의 위치는 더욱 열악해지고 있었다. 예컨대 연구참여자 D는 방문교육을 위한 월례회의 참석을 위해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현, 가족센터 통합)를 찾을 때면, 그녀는 젊은 상근직 직원들의 인사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하였다.

“활동하는 거는 거의 똑같은데 이제 사무실을 가면 건강관리 지원센터 직원들이 많고 우리 담당자는 한 명이잖아요. 애들이 우리가 가면 (중략) 사람을 봐도 인사도 안 해. 젊은 애들이, 그리고 그냥 ‘어 왔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가 나이도 훨씬 많고. 애들은 앞아가지고 그것도 처음. 본 것도 아니고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보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우리 할 일 그냥 하고 회의하고 사무실에다 이게 통합 됐

지만 직원들끼리 통합은 안 된 거죠. (중략) 애네들 눈에는 우리는 단지 그냥 전문 교사 선생님일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있는 것 자체가 애네들은 싫은 거지. 예전에 따로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무실에 그때는 편했는데 (중략) 우리가 단합대회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여기를 오면서 그런 게 전혀 없고(연구참여자 D, 2022.04.06.).”

“신은 자신의 손길이 다 미치지 못하는 곳에 ‘어머니’를 보낸다.”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국정부는 이주민에게 신을 대신하여 방문교육지도사를 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95%에 달하는 중년여성 방문교육지도사들은 전국 곳곳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소속되어 다문화가정을 돌보는 지역 파수꾼의 역할을 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방문교육지도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일자리이나 비상근직이기 때문에 매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출근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연구참여자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서 매일 출근하여 주어진 업무를 담당하는 상근직과는 다른 위치에 있었다. 즉 그들이 소속된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그들의 ‘동지’이나 그곳에서의 그들의 위치는 ‘계약직’, ‘비상근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 사회는 지속되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예측되고, 이는 이주민 유입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고령화에 따른 노인 돌봄과 이주민 돌봄에서 중년여성의 돌봄 노동은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돌봄 노동에 있어 중년여성의 가치는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돌봄 노동이 중요해지는만큼 요양보호사, 방문교육지도사 등의 중년여성 집중 직업의 처우에 대한 깊은 고민이 요구된다.

## 2.2. 한국인가정에서 다문화가정으로

### 2.2.1. 방문교육지도사의 가정 영역

2008년 시작된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은 정년없이 55세 이상 고령자를 우대했었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는 중년여성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이들은 주로 1960년대 지방 또는 수도권에서 출생한 연구참여자들은 취업을 위하여 후기 청소년기에 상경하였다. 이후 이들은 20대 후반을 전후하여 가정을 이루었고, 자녀를 낳아 기르며 중년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연구참여자들에게 여성으로서 가정 내 역할은 남아있다. 그러므로 연구참여자들은 가사를 돌보는 등 다른 일들과 병행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예컨대 가정에 머무는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연구참여자 B의 경우, 교육 활동을 위하여 외출해야 하는 방문교육지도사의 업무는 본인의 상황에 잘 맞았었다고 하였다. 그녀는 매일 가정에서 오직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오전과 오후에 이주민 학습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수업을 하고, 점심에는 집에 돌아와 가족과 식사를 하였다. 이처럼 가정을 돌보며 할 수 있는 방문교육은 그녀의 삶에 딱 맞는 직업이었다.

“저희 남편 맨날 그만두라고. 남편이 자기랑 놀자고. 조그만하고, 제가 시작할 때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했는데 특별히 후회스러운 거 그런 건 없는데 남편한테 좀 많이 미안하죠. (중략) 이제 맨날 내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이 직업이 선생님이 더 좋았어요. 그 아침에 이제 차가 있으니까 아침에 가서. 한 사람 공부하고 집에 와서 밥 같이 먹고 또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 저는 수업하고 자기는 이제 운동 가고 이게 좀 잘 맞았어요(연구참여자 B, 2022.03.18.).”

연구참여자 A는 행정안전부, 도로교통공단 강사 자격을 바탕으로 주 2~3회 어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거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강의하고 있었다.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은 이와 병행하며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이 전하는 방문교육지도사의 활동 공간은 그녀들의 일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예를 들자면 학습자를 위한 방문교육이 하루 2명, 2시간씩 학습이 진행 될지라도, 방문교육지도사와 학습자 간의 이동거리 등을 고려한다면, 아침에 출발

해서 저녁 늦은 시간에 귀가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였다.

“다문화센터 진짜 봉사예요. 급여 100도 안 돼요. 그리고 수업은 하루 4시간이라 하지만 집에서 출발해갖고 이 집 저 집 다니다 보면은 밤 10시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완전 봉사지(연구참여자 A, 2022.02.11.).”

이처럼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는 중년여성들에게 가사를 돌보며 할 수 있는 일자리였으나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자택을 방문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방문교육지도사가 매일 이동해야 하는 동선은 점점 넓어지고 있다. 또한, 연구참여자 D의 경우,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자녀 교육을 위하여 주변 지역으로 이사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참여자 D는 매일 장거리를 차량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하였다.

### 2.2.2. 다문화가정의 공간성

사람은 ‘영원한 진리’ 로만 살 수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되돌아와 누워 설 수 있어야 한다(Levinas, 2001: 127). 이러한 의미에서 ‘잠’ 은 우리의 의식이 구체적인 ‘지금’ 과 ‘여기’ 에 관계할 수 있는 ‘장소’ 라고 하였다. 또한, Levinas(2001: 132-133)는 인간에게 즐거움은 내일을 위한 걱정으로 바뀌고, 이 걱정으로 인하여 인간은 노동을 통해 집을 지음으로써 자기의 삶을 안전하게 설정한다고 하였다. 즉 인간이 노동을 하고, 집을 짓고 거주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 자신의 독립성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였다. 삶의 환경(요소)은 인간 존재의 충족이며, 동시에 위협이기도 하다. 그래서 인간은 환경에 자기 자신을 무조건 내맡기기보다는 그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오려고 노력한다고 하였다.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오는 것, 즉 자기를 환경과 분리하여 자기성을 확립하는 것은 집을 짓는 가운데 구체화한다고 하였다. Levinas는 『존재에서 존재자로』 (2003)에서 휴식과 잠을 통해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과정을 그렸다. 그러나 『전체성과 무한』 (2018)에서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거주’ 를 통해 그렸다.

거주는 환경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단절함으로써 세계의 위협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다른 영역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거주를 통해 인간은 자기의 자립성, 자기의 독립성을 되찾으며,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자리를

얻게 된다. 그러나 돌아옴을 의미하는 거주는 자기 자신에의 단순한 은둔을 뜻하지 않는다. 거주는 친밀한 공간을 얻는 일이지, 텅 빈 공간 안에 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집은 따스함과 가까움을 맛보는 곳이다. 인간은 이곳에서 타인을 만나고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 즉 거주를 통해 인간은 주변 세계의 위협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정의 거주 형태와 소유 형태 등을 살펴보면, 다문화가구의 43.6%는 아파트에 거주한다(여성가족부, 2021a: 57-59). 그 다음이 단독주택(33.5%)이므로 아파트 거주와 단독주택 거주는 전체 다문화가구의 77%를 상회하였다. 나머지는 다세대주택이 9.9%, 연립주택이 7.2%, 기타가 5.8%이었다. 또한, 다문화가구의 주택 소유 형태는 자기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54.0%로 과반을 상회하였고, 보증금이 있는 월세가 23.8%, 전세가 18.3%, 무상이 2.5%, 보증금 없는 월세가 1.3% 순이었다. 자가 거주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보증금 있는 월세나 무상, 보증금이 없는 월세 비율은 점차 줄어드는 특징이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은 방문교육지도사가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결혼이주여성 또는 그 자녀에게 한국어 교육이나 가족생활지도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방문교육지도사의 다문화가정 방문은 필수적이다. 이에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 중에서 다문화가정의 거주환경에 대하여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집이 한 30년이 넘은 집이에요. (중략) 그리고 이제 집이 너무 낙후가 됐는데, 아이도 있고 이제 친정, 자국에서 여동생까지 와 있는데 (중략) 그 수업을 하면은 싱크대 문이 떨어져 갖고, 바퀴벌레가 소풍가듯이 줄지어서 나와요. 근데 거기서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중략) 그 어떤 때는 화장실 그개 변기가 막혀가지고 흘러요. 그럼 엄청 이거는 진짜 매일매일이 생방송이예요. (중략) 연계가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수리를 다 했어요. 그거 이제 집을 깨끗하게 이제 싱크대 갈고 도배하고 다 정리를 했어요(연구참여자 C, 2022.03.22.).”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에 나타나는 다문화가정의 거주환경은 지하 방이거나 건축 30년 이상인 경우가 많았다. 연구참여자 D는 지하 방에서 웅크린 채 정신적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결혼이주여성을 상담해야 했다고 하였다. 초



기 국제결혼 부부의 나이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그때 그 결혼이주여성은 자신이 꿈꾸어 왔던 결혼과는 너무나 다른 나이 많은 남편과의 지하 방에서의 신혼 생활로 정신적 충격에 빠진 것일 거라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C의 경우, 건축 30여 년이 되는 집에서 한국인 다문화가족과 결혼이주여성 그리고 본국에서 온 결혼이주여성의 동생이 거주하고 있었다. 싱크대 문이 떨어져 있거나 화장실 변기물이 넘치고, 바퀴벌레가 소풍 가듯이 줄지어 나오는 곳에서 매일매일 생방송을 하듯이 방문교육을 했었다. 이에 연구참여자 C는 직접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연계하여 싱크대를 고치고, 도배를 하며 그 집을 정리할 수 있었다.

“자녀 교육을 하려면 부모랑 나랑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맞벌이하거나 그러면 애들하고 나랑 하고 가잖아요(연구참여자 A, 2022.03.12.).”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에서 자녀생활지도를 할 때면, 다문화가정의 부모는 맞벌이로 인하여 낮에는 주로 직장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이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교육해야 하는 낮에는 보통 다문화가정 자녀들만이 가정에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환경도 열악한데 내가 그런 집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요. (중략) 더 저기한 거는 방에서 바퀴벌레가 기어다녀. 그러면 나는 바퀴벌레를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인데 거기서 이렇게. 애가 이렇게 잡아 그럼 나는 말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상황에서도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별로, 그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 (중략) 처음에는.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게 힘들죠 그렇죠 지하에 가야 되고 냄새 나고 그러니까(연구참여자 D, 2022.04.06.).”

방문교육 초기부터 본 사업에 참여해 온 연구참여자 D는 열악한 환경의 다문화가정을 방문해야 했었다. 그런 환경의 가정을 방문해야 할 때면, 그 집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들었다고 하였다. 자녀생활지도를 위하여 방문한 다문화가정에는 필리핀에서 온 중도입국 청소년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거실에 기어 다니는 바퀴벌레를 손으로 잡을 때면, 연구참여자 D는 “어떻게 하지?” 하면서도 방문교육사업에 참여하였다. 그 당시에 그녀는 더럽고 냄새나는 교육 공간의 열악한 조건은 중요하지 않았다. 이

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문화가정 자녀가 안쓰럽고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 2.3. 다문화가정에서 지역사회 공간으로

연구참여자들은 학습자들이 직면하는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다문화가정 이외의 곳에서 결혼이주여성을 돌보는 경우가 있었다. 연구참여자 B는 부부 갈등으로 집을 나온 한 결혼이주여성의 전화를 받았는데, ‘부를 사람’이 그녀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연구참여자 B는 그녀가 있는 모텔에 찾아가야 했었다며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결국 그 결혼이주여성은 남편과 헤어지기 위해 잠시 쉼터에 머물게 되었고, 이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지인에게 영어 통역을 부탁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들과 협력하며 분주하게 움직여야 했었다고 하였다.

“캄보디아 친구, 남편은 아마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은데 여자분은 거의 우리나라 나이로 한 열아홉 (중략) 자기가 너무 안 맞는다는 거야 결국 헤어졌어요. 근데 그 헤어질 때 (중략) 선생님, ‘이제 부를 사람 저밖에 없잖아요’ 제가 불러서 갔는데 (중략) 이제 자기는 절대 안 들어간다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센터에서 쉼터 같은데 이런 데 알려 주셨어요. (중략) 제가 차를 갖고.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또 센터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연구 참여자 B, 2022.03.03.)”

때때로 결혼이주여성들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가정밖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면, 연구참여자들은 그녀들과 동행하게 된다고 하였다. 어느 날, 연구참여자 A에게 한 결혼이주여성이 전화를 해서는 남편이 집을 팔아버렸다고 하소연하였다. 이에 집을 찾기 위해서는 아이 셋을 업고 결혼이주여성이 직접 한국인 부동산 중개업소에 찾아가 한국인의 정에 호소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를 통하여 팔린 집을 되찾을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집이 필요하다면 집 사는 데 돌아다니면서 봐주고 그렇죠. 안 그러면 못 해요. 그러니까 한 학생이 집을 신랑이 여기 교대 정문

쪽에 집을 팔아버렸어 (중략) 울면서 전화했어. 아기들 셋인데 선생님 아빠가 집을 팔아버리고 왔어요. (중략) 이제 다문화 학습자들은 집이 다야, 전부야. 그런데 팔았다니까 이제 불안한 거야. 그 아빠는 작아서 이제 팔아버렸는데 그러면은 아빠는 그거를 못 고친다. 아빠는 가서 그걸 못해 그러면 우리 한국은 정이 많아서 아기 셋 업고 가서 얘기하면 (중략)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기 셋을 보고 외국인이 말도 잘 못하면서 울고 그러면은 너무 따뜻해(연구참여자 A, 2022.02.11.).”

또한, 연구참여자 A는 금융관련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금융관련 문제가 생길 때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연구참여자 A에게 종종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였다. 이의 해결을 위하여 연구참여자 A는 결혼이주성과 함께 다문화가정을 넘어 법원은 물론 산업재해 사무실, 고용보험 센터 등을 오고가며 문제를 해결해야했다. 이와 같이 방문교육이 행해지는 공간은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공간을 포괄하므로 다문화가정을 넘어 지역사회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한 학생 신랑이 근재(근로자재해)로 세상을 떠어요. (중략) 360만 원인가 나오고 장례를 했는데 그 돈까지 다 가져갔어 작은아버지가. 그리고 애는 가라하는 거야 조카도 자기가 본다고. 너무너무 상처가 많이 있다. 보니까 마음의 문을 안 열어요. 근데 그 일을 법원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중략) 그 일을 2년 넘게 갔지 계속 법원 왔다 갔다 하고 산재 사무실에 왔다. 갔다 하고 고용보험 갔다 왔다 왔다가 일을 봤어요 (중략)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다문화센터까지 연락이 갔나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데 자꾸 나한테 온 거예요. (중략) 내가 밥 사 먹이면서 일을 다 봐줬어.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연구참여자 A, 2022.03.12.).”

한편 결혼이주여성에게 가족이란 마을 공동체의 유대관계 중 기본이 되는 가장 강력한 단위이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 중 많은 수를 차지하는 베트남을 예로 들어보면, 베트남은 벼농사를 근간으로 하기때문에 촌락 구성원 간의 협동은 필수적이고, 촌락은 사회적으로 매우 강력한 조직이다(김영순·응웬 반 히에우 외, 2013: 90). 또한, 베트남 사람들은 정(精)을 중시하기 때문에 집에 손님이 오면, 진심으로 환대하고 지극히 대접한다. 손님 중에는 친한 친구, 가까운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처음 방문하는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처음 오는 사람이든 친한 사람이든 구분없이 모든 손님을 항상 반갑게 맞이한다(김영순·옹웬 반 히에우 외, 2013: 164).

“손님이 찾아오지 않는 집에는 천사도 찾아오지 않는다.” 라는 아시아 지역의 속담이 있다. 이를 통해 아시아 지역 사람들은 손님을 내 집에 찾아온 천사에 비유함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은 연구참여자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육 등을 위하여 그녀의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므로 결혼이주여성의 입장에서는 한국 사회구성원이 그녀를 돕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이며, 이는 곧 천사가 된다. 또한, 방문교육은 결혼이주여성을 환대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에게 연구참여자는 그녀의 집을 방문하는 손님이 되므로, 결혼이주여성은 그녀의 본국 문화에서 익힌 바대로 연구참여자를 지극히 환대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환대’는 자신의 집이나 시민사회, 국가 등으로 대변되는 공간에 찾아 온 손님에게 문을 열어 짓히고 받아들이는 호의와 베푸는 행동을 의미한다(최샘·정채연, 2020: 58). 즉 방문교육을 위해 내 집에 찾아온 손님으로서의 연구참여자에 대한 환대는 결혼이주여성이 자기의 경계를 허무는 열린 자세이므로 다문화 사회의 폐쇄성을 극복하게 하는 필요 충분조건이 될 수 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라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구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연구참여자들은 갓난아기와 같은 결혼이주여성들의 부름에 응답하였고, 결혼이주여성들은 연구참여자들을 천사처럼 환대했을 것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연구참여자들을 천사처럼 환대했을 때, 그녀들은 결혼이주여성에게 천사가 되어 진실된 돌봄을 실천하였을 것으로 유추된다. 이렇게 천사와 같은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공간과 방문교육지도사로서의 활동 공간은 지역사회로 넓어지고 있었다.

### 3. 관계성 차원 : 타자성 경험 및 실천의 관계 심화

Clandinin & Connelly(2000)는 내러티브 탐구를 ‘관계적 탐구(relational research)’ 라고 하였다. 즉 내러티브 탐구는 그 중심에 관계 윤리를 품지 않고는 가능할 수 없는 연구방법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이 삶 안에서 행해지는 이러한 자기와의 대면 행위는 내러티브 탐구의 핵심이 ‘관계 윤리’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홍영숙, 2019: 101). 따라서 본 연구는 내러티브 탐구로써 연구참여자들이 어떻게 삶 속에서 관계적 윤리를 살아냈는지, 또 삶 속에서 관계적 윤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살펴보았다.

관계 철학의 대가 Buber는 인간 삶의 존재 원칙을 나-그것의 관계와 나-너의 관계로 형상화하였다(Buber, 2001). Buber는 인간의 존재 방식을 설명하며 인간은 반드시 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오직 너와 함께 할 때, 인간이 존재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Levinas가 주목하는 존재의 방식은 ‘향유’ 인데, 향유의 존재방식이란 자신의 안정과 생존, 만족을 도모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맹주만, 2019: 44). 그는 향유하는 존재자의 삶의 방식을 인간의 주체성을 통해 타인의 삶을 대신하는 것 또는 타인을 받아들임 등으로 설명하였다. 즉 존재자가 향유하는 인간의 삶은 관계성과 개별성이라는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서 관계성이란 향유하는 삶 속에서 주체자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의 고통에 대한 책임과 연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개별성이란 주체자로서 자신의 고유한 세계를 갖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를 중심으로 하는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의 관계성과 삶을 향유하는 주체로서의 개별성에 집중하여 살펴보았다.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탐색한 결과, 연구참여자와 결혼이주여성들의 관계는 나-그것의 관계를 넘어 나-너의 관계로 심화하고 있었고, 이주여성을 넘어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가족구성원과의 관계로 확대되고 있었다. 또한, 개별자로서 연구참여자는 타자와의 관계를 재정립함으로써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의 타자성 경험과 실천의 의미로서 첫째, 방문교육지도사-결혼이주여성의 타자 관계 심화를 도출하였고,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으로 타자성 관계 확대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기 안의 타자 관계 재정립을 도출하였다.

### 3.1. 방문교육지도사-결혼이주여성의 타자 관계 심화

Levinas는 험뻑하고 나약한 얼굴로 내게 다가오는 타자와의 소통은 그 자체로 의미있다고 하였다. 누군가에게 말을 걸거나 그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타자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타자와의 대화는 타자와 접촉하고 그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행위들이 전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타자와 대화하는 것은 타자에게 나의 존재를 알리고 타자의 존재를 확인하는 순간이라 할 수 있다(김연숙, 2018: 133). 따라서 인간 관계에서 말함이란 타자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으로 자신을 타자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말함’이란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이주민 학습자들과 나누는 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 A는 이주민 학습자를 환대하였다. 그들은 자원이라고는 사람밖에 없는 한국 사회에 찾아온 귀한 인적 자원이라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어 교육, 가족생활지도 등을 위하여 다문화가정을 주 2회 40회기~60회기 방문한다. 이에 따라 대략 1년간 이주민 학습자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이 이어진다. 특히 한국어 교육 등을 위하여 ‘대화’는 필수적이고, 대화는 서로를 엮어주는 중요한 토대이기 때문에 학습자를 향하는 연구참여자의 진정한 대화는 ‘나-그것’의 관계에서 ‘나-너’의 인격적 관계로 나아가게 하였다. 예컨대 연구참여자 A는 학습자와 눈높이를 맞추며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느낌으로 그들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려 노력하였다.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그 느낌으로 수업을 하다보면 (중략) 자기가 빨리 20문제를 풀었어. 그럼 남은 시간에 놀 때는 저는 내 나이를 잊어버려요. 같이 딱지치기를 해도 절대 안 봐줘요 (중략) 이번에 학생도 개가 수학을 정말 못해. 더하기 빼기 안돼. 근데 이제 엄청나게 세뇌를 시켜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국어도 잘하고 이제 수학도 잘하게 됐어요(연구참여자 A, 2022.03.12.)”

방문교육을 종결할 때면 이주민 학습자들은 모두 따뜻한 사람이 된다고 하였다. 특히 다문화가정 초등 저학년 학생들은 한국어 학습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습부진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 연구참여자 A는 눈높이에 맞추어 놀이를 하는 등 다문화가정 자녀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했다. 이처럼 연구참여자 A는 열정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 수학 등을 지

도하였고, 다문화가정 자녀는 학습 능력이 향상되며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학습자의 변화와 성장에서 연구참여자 A는 매우 큰 보람을 느꼈다.

“애기가 있으면 저희가 부모교육을 할 수 있어요. (중략) 선생님 만나서 이제 부모교육 듣고 하다 보면 한국어도 더 얘기하게 되고 이러니까 그거를 할게요 (중략) 남편이 공무원이니까 애는 공무원이 너무 되고 싶어. 근데 정말 힘들잖아요 (중략) 아기도 자야하고 남편이 3교대 공무원인데 어떤 기술직인가 봐. 삼교대는 그러면 이제 저녁에 주무시고 해야 되니까 자기가 방해되잖아요. 옷장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전기 끌어다가 해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했대요 (중략) 그래서 지금도 저랑 계속 (연락) 하고 있고 제가 그 캐시워크라고 선생님. 만보 걸으면 100원씩 주는 그걸 어떻게 알려줬더니 요즘에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거 하면서 퀴즈 풀면 저한테도 막 알려주고 저도 이제 보내주고 또 돈 모아지면 이거로 애 빵 사줬다고 좋아하고(연구참여자 B, 2022.03.03.).”

한국어 교육으로 시작된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은 자녀생활지도 등으로 이어지며 지도사와 결혼이주여성과의 관계는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예컨대 연구참여자 B는 한국어 교육으로 시작된 결혼이주여성과의 만남은 자녀생활지도를 통해 관계가 이어졌고, 이렇게 만남이 깊어지며 연구참여자 B는 결혼이주여성이 겪고 있는 한국인 시부모와의 소소한 갈등이나 남편과의 의견 조율 등에서 친정엄마처럼 결혼이주여성의 의지처가 되어 주었다. 또한, 연구참여자 B는 자녀에게 당당해지고 싶다는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정신적 유대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었다. 예컨대 연구참여자 B와 결혼이주여성은 SNS로 소통하며 함께 퀴즈의 정답을 공유하기도 하고, 시부모와의 불편함 등에 따른 호소를 들어 주는 등 친정엄마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Levinas는 타자의 햇빛은 얼굴을 ‘계시’ 라고 부른다. 종교적인 언어로 타자의 햇빛은 얼굴을 ‘계시’ 라고 하는 까닭은 얼굴과의 만남은 절대적 경험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얼굴은 나의 위치나 입장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자기를 표현하는 가능성이다. 그러므로 얼굴과의 만남에서 타인의 존재 자체는 내가 부여한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타인은 우리에게 얼굴로 나타난다. 타자의 얼굴은 우리를 바라보고 호소한다. 그리고 스스로 표현한다. 타자의 얼굴과의 만남은 전혀 다른 차원을 우리에게 열어준다. 이에 대하여 Levinas는 ‘윤리와 정신’ 이란 글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얼굴을 통해서 존재는 더 이상 그것의 형식에 갇혀 있지 않고 우리 자신 앞에 나타난다. 얼굴은 열려 있고, 깊이를 얻으며, 열려 있음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자신을 보여 준다. 얼굴은 존재가 그것의 동일성 속에서 스스로 나타내는 다른 어떤 것으로 환원할 수 없는 방식이다(Levinas, 2001: 135).”

이처럼 햇빛은 타자로 향하는 수동적 타자애로의 헌신, 진정성을 Levinas는 ‘말함’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수동성은 자신을 비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수동성이란 타자에게 노출된 존재로서의 타자를 위함, 즉 타자에 대한 헌신이며 성실성이라고 볼 수 있다(김연숙, 2018: 133). 이때 말함의 의미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면, 『Levinas와 사랑의 현상학』에서 우치다 타츠루(2013: 28-29)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알다(知)라는 것은 지식이나 정보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양적으로 계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알다(知)는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과 대화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일종의 ‘쌍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 수행법이라고 할 때, 그것은 ‘자신과는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풍경을 바라보기’ 위한 상상력의 운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말함’이야말로 ‘타자’와 교통하는 능력이 된다. 또한 사제관계에서 ‘타자’와의 만남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므로 방문교육지도사인 연구참여자가 이주민 학습자와 나누는 대화는 연구참여자가 타자와 만나는 타자로의 진정성이라고 할 수 있다.

대화는 인간의 관계를 맺어준다. 대화의 중심 토대는 글말이 아닌 입말인데, 이와 같은 입말 중심의 대화는 언어를 매개로 하여 나와 타자가 관계를 맺는 행위에서 필수적이기 때문이다(윤석빈, 2006: 273). 대화 철학의 대가 Buber는 대화가 단순히 의사전달의 수단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현실세계에서 인간은 혼자 주체가 되어 인식 세계를 구성하고 타자의 존재 방식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화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존재 방식을 규정해 준다고 하였다. 즉 나는 타자와 대화를 통해 나의 세계를 공유하고 타자와 함께 살아간다. 그러므로 나의 존재 방식은 너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존재 방식에 영향을 끼치며, 존재 방식을 규정한다. 따라서 서로의 존재 방식에 영향을 끼치며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은 나와 너의 대화라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 A는 이주민 학습자를 한국의 새로운 인적 자원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연구참여자 A는 우리나라를 돕는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들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참여자 A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갔고, 대화를 나누었다. 그렇게 시작된 결혼이주여성들과의 만남은 서로에게 신뢰가 쌓이며 깊은 인연이 되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A의 진솔처럼 학습자와의 관계에서 믿음과 신뢰가 쌓이지 않았다면 10여 년이 넘는 기간을 방문교육지도사로서 활동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에 연구참여자 A가 말하는 방문교육지도사로서 타자성 실천에서 ‘신뢰가 쌓이며 맺여진 인연’이라는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사명감으로 만났고, 만남도 인연 같아요. 인연이 믿음을 쌓고, 믿음이 신뢰하게 되어 꾸준히 좋은 정보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중간에 중단했습니다(연구참여자 A와의 SNS 대화 내용, 2022.04.03.).”

연구참여자 C는 청소년기에 어머니의 든든한 지원보다는 자식을 키우는 동반자로서, 장녀로서 동생들을 돌보는 역할을 주문받았다. 그 당시에는 당연히 장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결혼해서 딸을 낳은 후, 본인의 딸에게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 하였다. 이제 장성한 딸과는 친구처럼 지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연구참여자 C와 본인 딸과의 정신적 동반 관계는 딸 또래인 결혼이주여성과의 관계에서도 같은 마음이라고 하였다. 예컨대, 결혼이주여성들이 모국에 있었다면 본인이 딸과 친구처럼 지내는 것처럼 지냈을 것이라고 하였다. 한국인 남편도, 시어머니도 결혼이주여성을 돌보지 않는 경우, 연구참여자 C는 그녀들의 불행한 삶이 걱정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녀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입장을 배려하며 함께 하고 있었다. 따라서 연구참여자 C와 결혼이주여성들은 약 40주 정도의 방문교육이 종결되었지만 10여 년이 넘는 현재(2022년 3월)까지도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있었다. 이는 연구참여자 C의 마음이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전달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제가 결국 딸을 낳으니깐. 저는 딸한테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중략) 딸은 친구예요. 그리고 저보다 어떻게 보면 저를 이렇게 뼈 때리는 소리를 더 해요. 엄마에게 엄마 생각이 틀린 것 같아 (중략) 저한테 엄청 서운한 얘기를 해도 저는 서운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학습자들을 볼 때 만약에 저 사람들이 모국에 있었으면 엄마랑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중략) 그리고 이제 스무 살, 스물 한 살이면 애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다 담고 산다고 하면

그게 어느 쪽으로 폭발할지도 모르고, 자식한테 같지도 모르고 천천히 불행하면서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원하고 좀 도와달라고 그런 소스가 오면 이거를 제가 그냥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거죠 (중략) 근데 이제 그 학습자는 지금도 저한테 전화가 오거든요(연구참여자 C, 2022.03.22.).”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은 업무 특성상 지도사는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한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나 상호작용, 갈등 상황은 지도사들에게 노출되곤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방문교육지도사에게 결혼이주여성들은 의지하게 되므로 이들의 끈끈한 관계 맺기는 방문교육사업 이후에도 깊은 인간 관계로 이어진다. 예컨대 방문교육 현장에서 다문화 부부의 이혼을 종종 목격하는데, 연구참여자 B의 학습자는 무성의한 한국인 남편으로 인해 갈등을 겪던 중 이혼하였다. 비록 해당 학습자는 한국인 남편과 이혼했지만 한국인 시어머니, 연구참여자 B 등과는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남편들이 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한국 사람이라도 남편 편을 든 게 아니라 진짜 너무 믿고 내 동생 같거나 내 딸 같으면은 그냥 그만 살아 막 이려고 싶은 때가 너무 많아요. (중략) 결국은 선생님, 헤어졌어요. 근데 어머님 너무 좋으세요. 어머님도 좋고 이 친구도 너무 좋은 사람인데 남편하고 너무 안 맞아 그러니까. 이 친구는 쉬는 날 애 데리고 같이 놀러도 나가고 이런 그냥 평범한 그런 생활이 있잖아요. 그런 걸 원하는데 이 아빠는 그렇지 않으니까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중략) 센터에서 연락 와서 제가 연락을 했는데 00 식당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중략) 거기 어머님들이 이혼하고 나서도 어머님한테 잘 가고 아이도 자기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봐주고, 생활비도 좀 드리고 좀 하는 것 같아. 그 남편하고만(연구참여자 B, 2022.03.03.).”

연구참여자 C는 학습자로 만나는 결혼이주여성들과 소통하기까지 지난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예컨대 한국어 소통을 위해 기초 어휘과정을 마치고, 쉬운 어휘를 사용하여 한 문장 두 문장씩 문자를 주고 받으며 결혼이주여성들과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된다고 하였다. 그렇게 10개월 80회기 수업을 마칠 때면, 결혼이주여성들은 방문교육지도사에게 많은 이야기를 털어 놓으며 눈물을 쏟는데, 때때로 가정사는 물론 내밀한 부부 사이의 고민 등을 토

로하기도 한다. 또한, 다문화 부부의 갈등에서 크게 상처받은 이는 자녀이기에 연구참여자 C는 다문화가족 전체를 두루 보듬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속속들이 근데 놀라운 거는 이제 저랑 마음을 통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해요. 이거는 혼인 부부한테도 안 한 얘기도 저한테는 할 때가 많아요. (중략) ‘선생님, 내 남편있잖아요. 남편이 없어요.’ 그래서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더라고요 (중략) 저희가 10개월을 수업을 해요. 80회기 수업을 하거든요. 이제 끝날 때 되면요. 울어요. 막 울고. 그리고 처음에는 자음모음도 몰라가지고 12년 전만 해도요 이렇게 어플 같은 게 많이 없었어요. (중략) 왜냐면 저희는 한국어를 수업하고 자녀를 수업하지만 가정으로 투입되는 거예요. 가정에 가면 저희가 꼭 수업해야 할 것 말아야 (될 것) 너무 보이는 게 많아요. (중략) 이런 일이 이거는 매뉴얼로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연구참여자 C, 2022.03.22.).”

연구참여자들의 방문교육은 주 2회 40회기 또는 주 2회 80회기로 구조화되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낯선 타자에 대한 안타까움 또는 측은지심 그리고 나라를 구하려는 사명감, 차이에 대한 인정 등을 기반으로 진정한 대화를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규칙적인 만남과 지속되는 대화를 통해 연구참여자들과 이주민 학습자는 서로에게 침투하게 되었다. 예컨대 연구참여자들은 투입된 다문화가정이 직면한 해결과제를 외면하지 않았고, 이를 지켜본 이주민 학습자들과 신뢰를 쌓아 나갔다. 이처럼 시나브로 서로에게 스며드는 신뢰 관계는 인연으로 이어졌다.

“유일한 신에게 이르는 도정에는 신 없는 역참이 있다.” 라는 말에서 성숙한 인간을 유추해 보자. 이처럼 신 없는 역참을 지나는 자의 결단과 고독이 인간의 주체성을 기초지운다고 하였다. 이때 아브라함은 미지의 타자와의 대면을 통해 누구에 의해서도 대체 불가능한 유책성을 받아들이는 자로서 일어난다. 이와 같이 자립한 자를 Levinas는 성인 또는 주체라고 부른다.

“질서 없는 세계, 즉 선이 승리할 수 없는 세계에서의 희생자의 위치를 수난이라 부른다. 이 수난이 어떤 형태로든, 구주로서 현현하는 것을 거부하며, 지상적 부정의 책임을 일선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의 완전한 성숙을 요구하는 신을 계시하는 것이다(우치다 타츠루, 2013: 87).”

성숙한 인간이란 주체적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일컫는다. 즉 성숙한 인간

이란 스스로 약함을 헤아릴 줄 아는 자를 의미하므로, 신이 부재한 곳에서 여전히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인간을 성숙한 인간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참여자의 타자성 실천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는 연구참여자 C의 지적처럼 단순히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이들이 아니었다. 이들은 다문화가정에 투입되어 다문화가정의 가족 구성원 모두를 돌보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이러한 방문교육지도사의 역할은 방문교육사업에서 제시되는 매뉴얼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처럼 결단의 순간에 연구참여자들은 주체적으로 그녀들의 삶의 경험을 반영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을 돌보고 있었다. 이와 같이 낮은 타자를 위한 연구참여자들의 돌봄 실천에서 본 연구는 Levinas가 말하는 진정 성숙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 3.2.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으로 타자성 관계 확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러한 명제는 우리 인간은 우주의 한 존재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와 관계 맺음을 의미한다. 즉 인간은 완전히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와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되는 자신의 정체성은 이미 관계 안에서 생성되고 사회화된 자기의 개념일 뿐이다. 이러한 관계 맺기는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은 개인의 경제, 교통 등의 사정으로 집합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방문교육지도사들은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그들에게 한국어를 교육하거나 가족생활을 지도한다. 한국어 교육 등을 매개로 결혼이주여성과의 만남과 대화는 필수적이고, 방문교육지도사들의 진정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진실한 대화는 그들과 깊은 관계 맺기로 이어진다.

특히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을 위하여 연구참여자들은 다문화가정의 방문은 필수적이므로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인 가족과의 만남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에 따라 연구참여자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호소하는 삶의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예컨대 연구참여자 A는 수지침을 통해 노인정 등에서 봉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가족구성원 모두를 다

독여주려 노력하였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이 모국 부모형제에게 송금하는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인 남편의 호소를 외면하기 어려웠다고 하였다. 이에 일과를 마치고 24시간 커피 전문점에서 한국인 남편과 상담하며 해결방안을 찾아 제시하였다.

“그냥 그 대상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족 전체를. 어떤 사람들은 아빠 무섭다고 절대 아빠 안 만나고 학습자만 만나요. 근데 저는 다 만나야 된다는 생각들이데 그게 무섭대요 그렇죠 근데 저는 다 만나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은 밖에서도 만나요. (중략) 아니 슬픈 일이 있으면, 약속을 어떻게 만나고 싶어요. 상담 좀 하고 싶어요. 그렇게 연락이 와요, 그러면 제가 시간이 늦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 끝나는지 알잡아요. 11시에 괜찮습니까 요즘 24시간 전에는 24시간 커피 열잡아요. 그럼 집 앞에 얘기하면은 오셔. 그럼 거기서 상담을 하는 거죠(연구참여자 A, 2022.03.12.).”

연구참여자 C가 다문화가정을 방문했던 어느 날, 결혼이주여성과 그녀의 시어머니는 서로의 머리를 잡고 몸싸움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소동은 보통 한국인 시어머니와 결혼이주여성이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한국인 시어머니는 당연히 며느리가 남편인 본인 아들의 아침밥을 차려줄 것을 기대한다. 그런데 필리핀이나 베트남 등은 열대기후이고 보니, 가족구성원 각자는 이른 아침 일과를 시작하므로 아침 식사도 각자 해결하는 문화에 익숙하다. 이러한 문화차이로 인하여 한국인 시어머니와 결혼이주여성 간에 오해가 생기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연구참여자 C는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시어머니에게 서로의 문화에 대한 차이를 이해시키며 진정한 대화를 시도하였고, 이와 같은 연구참여자 C의 진정한 대화는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하였다.

“어느 날 갔더니 시어머니하고 물리적으로 충돌을 한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같이 막 머리를 막 잡고 막 이려고 있더라고요. (중략) 어머님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아들 밥을 차려야지 된다고 근데 이분은 필리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필리핀에서는 베트남도 똑같지만 새벽에 너무 더우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가 알아서 자기 밥을 먹고 그래서 일을 하고 11시 되면 들어와요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밥상을 차려서 아침을 다 해서 아들을 먹이고 시어머니 밥상을 따로 차리고,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어느 부류에도 그게 언

어가 통하고 문화가 좀 비슷하면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서로가 안 되는 거예요. (중략) 그래서 그런 시어머니의 관계에서 몇 번 그런 충돌을 중재를 하고 이제 서로 이해를 해주고 그러면은 마음을 금방 열어요.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완고하다가, 어쨌든 이제 제가 가서 문화 그 나라의 문화 정서 이런 거를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하세요.(연구참여자 C, 2022.03.22.)”

Levinas 철학에서 타자에 대한 주체의 책임은 주체로서 타자에 대한 윤리적 관계를 규정짓는다. 즉 타자를 떠받치고 그를 책임지는 것은 주체인 나이다. 여기에서 주체가 생성되고, 그런 주체 안에서 나는 주체로서 탄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Levinas(2000)는 타자와의 관계맺음에 대한 모든 책임은 주체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하였다(노상우·권희숙, 2010: 56). 이러한 Levinas의 관점은 연구참여자 C의 내러티브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연구참여자 C는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에 대하여 단지 한국어 교육이 아니라 다문화가정으로 투입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다문화가정에 투입된 연구참여자들은 다문화가정 가족 구성원들의 화목한 삶을 위하여 주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돌보아야 한다.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이해를 시키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이해를 해야하는데, 이러한 방문교육지도사의 역할은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의 매뉴얼을 초월하게 된다고 하였다.

“왜냐면 저희는 한국어를 수업하고 자녀를 수업하지만 가정으로 투입되는 거예요. (중략) 그래서 이제 같이 같이 공유를 하고 같이 아파하고 막 그쵸 며느리는 며느리를 해서, 그러면 여기서 또 이분을 맞춰서 또 해줘야 되고 시어머니를 이해시키면 또 며느리한테 이해를 해야 되요 그쵸 며느리가 이해를 하면 또 그 옆에 있는 아이들이 상처받으니까. 이런 일이 이거는 매뉴얼로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중략) 그렇죠 그래야지만 그 가정이 그리고 제가 느낄 때 가장 상처받는 거는 아이들에게요. 근데 그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거는 부모가 화목해야 되거든 부모하고 시어머니하고 그 관계한 아빠 엄마 이런 것만 잘 되면 그 아이들은 훨씬 편하고요(연구참여자 C, 2022.03.22.).“

“타자는 내가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무한성이다(Levinas, 2001: 140).” 여기서 무한성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 여기 존재하지 않는 제 3자 또는 다른 사람들과 맺게 되는 구체적인 결속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내 앞에

있는 타자는 단지 ‘너’가 아니라 제 3자인 ‘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낯선 과부나 고아로 현현하는 타자의 얼굴과의 직면은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과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방문교육의 대상자는 단지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가족은 물론이고 이들과 관계하는 모든 이들로 나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방문교육지도사의 타자성 실천은 다문화 가정 한국인 가족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3.3. 자기 안의 타자 관계 재정립

Buber와 Levinas는 모두 타자인 너에 대한 응답을 통해 주체인 나를 구현해가는 관계에서의 존재론적 성격과 윤리학적 성격을 새롭게 제시하였다(노상우·권희숙, 2010: 47). Buber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수단으로써의 나-그것의 세계는 결의와 전환에 의하여 나-너의 인격적인 세계에 들어설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주체인 나의 반복적인 ‘결의’를 강조하였다. 또한, Levinas는 타자의 부름에 응답하는 진정한 주체로서의 책임만이 윤리적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타자와의 관계를 통한 ‘주체성의 변형’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교육적 인간상을 살펴보면, Buber는 ‘나-너의 관계’에, Levinas는 ‘주체-타자의 관계’에 토대를 두고 있는데, 나의 전환을 위해서는 주체의 결의에 의해 성립이 가능하고, 주체의 책임을 통한 타자의 환대는 주체-타자의 관계를 성립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이번 절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주체로서 자기 안의 타자 관계 재정립을 살펴보려 한다.

Buber에게 존재한다는 것은 말한다는 것과 동일하다. 이에 Buber는 대화가 관계 철학의 핵심임을 강조하였다. 이때 대화는 서로 말을 주고 받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대화를 나누는 상대에게 단순히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 상대에게 초점을 맞추어 응답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화를 나누며 서로는 타자의 현존재를 인정하며 상호관계를 확립하는데, 이를 통해 타자의 삶과 실존에 대한 보다 차원 높은 관심을 갖게 된다. 즉 Buber의 대화는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참으로 관계하는 것이다(노상우·권희

숙, 2010: 53).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연구참여자들은 결혼이주여성들과의 대화에서 그녀들의 입장이 되거나 그녀들을 통해 배움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결혼이주여성들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그녀들의 내러티브는 다음과 같다.

### 3.3.1. 역지사지(易地思之) 그리고 타산지석(他山之石)

연구참여자 A는 청소년기 아버지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던 경험으로 인해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의 차별에 대해 호소할 때면, 그녀가 스스로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역할극을 제안하는 등 오해와 불신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우리 한국은 똑같아요. 오해와 불신이 불신은 오해하고 또 불신이 생기잖아요. 이걸 소통을 안해서 오는 거야. 외국인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국민들한테도 똑같아. 그리고 결혼한 새댁도 모든 게 여기에서 외국인하고 만나도 마찬가지로 똑같아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게 친구들 간에 오해가 오는 것도 저거고 내가 우리 부모님하고 오해하는 것도 이거고 말을 하지 않아서, 내가 내 자식과 오해하는 것도 이거고 우리 언니와 나랑 어느 날 갑자기 오해하는 것도 이거야 소통을 안해서야. 아무도 몰라요 내가 길을 갈 때 당연히 저 사람 나를 피해주겠지. 아냐 피해 내가 피해야 되는데 말을 해야 돼(연구참여자 A, 2022.02.11.).”

방문교육지도사는 직접 다문화가정을 방문한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은 다문화가정의 가족구성원들 삶 속 민낯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고 하였다.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이 늦잠을 자거나 청소를 하지 않는 등 일반 한국인 가정주부의 시선으로 그녀들을 이해하기에는 종종 불편하기도 하였다. 이때 연구참여자 B는 결혼이주여성의 입장이 되어서 ‘이 상황에서 재가 좀 살고 싶겠어’라며 그녀들을 이해하고 보듬어 주려 노력하였다. 즉 연구참여자 B는 결혼이주여성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들의 삶에 있어 용기와 희망의 끈이 되고 싶었다고 하였다.

“내가 조금만 더 잘해주면 이분이 한국에서 살 때 조금 용기도 갖고 또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게 있었어요. (중략) 이렇게 저렇게 살 수도 있지.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약간 굉장히 깔끔한 스타



일이거든요. (중략) 집에 이렇게 막 먼지 있는 걸 잘 못 봐요 근데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먼지 등이) 쌓여 있으면 ‘애는 왜 이렇게 살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막 이해가 돼요. 그런 그냥 ‘이 상황에서 재가 좀 살고 싶겠어’ 막 이런 생각 있잖아요. 좀 이해하게 되고(연구참여자 B, 2022.03.03.).”

연구참여자 B는 가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부당한 대우나 다문화가정 한국인 가족의 폄하, 학습자인 결혼이주여성의 학력 저조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 받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학습자를 만나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결혼이주여성에게 힘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10년 넘었죠. 그렇죠. (중략) 선생님 있어요.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지만 또 새로운 사람 만나 가지고 그 학습자가 또 굉장히 막 열심히 하고 이러면 또 그분한테도 저도 또 힘을 얻죠. 항상 나쁜 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친구 정말 너무 대단하다. 이런 친구들도 아까 그렇게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친구들도 보면 반성 엄청 하는 거죠. 재가 이렇게 힘든데도 이렇게 어려운 공부를 하면서 이겨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하다가 회의적이 되어 막 이렇게 좌절할 때 저한테 힘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연구참여자 B, 2022.03.03.).”

연구참여자 B는 비상근직의 방문교육지도사일지라도 결혼이주여성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를 통해 성장하는 그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녀들에게서 배움을 찾아내었다. 예컨대 연구참여자 B는 지나가듯 알려준 검정고시를 통해 낮은 학력의 결혼이주여성이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쳤을 때나, 자녀에게 당당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모습을 볼 때, 연구참여자 B는 결혼이주여성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반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런 분을 만나면 너무 좋죠. (중략) 진짜 재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분은 왜 또 공부를 열심히 하나면 자기가 이제 초등학교도 제대로 이제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를 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 아들이 컸을 때 다른 친구들이 지금도 니네 엄마는 중국 엄마야 이렇게(친구들이 차별하고 놀리는데)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직업도 없고 집에서 놀고만 있으면 다른 친구들을 무시하고 우리 아들이 기가 죽는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한테 좀 이렇게(당당한 엄마가 되고) 하고 싶어. 그것도 좋고 또 자기 일을 또 가져야 되니까 (중략) 그분

은 그런 것 때문이라도 이렇게 한다는 자기 어떤 목표가 있잖아요. 나는 이것 때문에 이걸 해서 아들한테 좀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다 같은). 이런 건 정말 배워야 될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B 2022.3.18.).”

최근 코로나 19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새로운 삶을 개척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참여자 D는 방문교육사업에 학습자로 참여하던 결혼이주여성들의 갑작스러운 학업 중단을 경험하게 되었다. 갑자기 방문교육의 학습을 멈추고 사업에 집중하려는 학습자와 연구참여자 D는 작은 오해와 소란이 있었으나 모국에서 한국 명품에 대한 수요와 가격차이를 발견하고, 이를 사업으로 확장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력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처럼 연구참여자 D는 결혼이주여성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통해 이들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발견하게 되었다.

“지금은 옛날하고 좀 달라요. 요즘 아이들은 생활력이 너무 강해. (초기에는) 좀 뭐라고 그래 무기력한 아이들이 좀 많이 왔어요. (중략) 아 요즘에 제가 가르치는 애 중에 태국 애가 있어요. 원래 태국이 약간 모계사회잖아요. 애가 이제 호주에 있어서 이제 요리사였어요. (중략)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동안 우리가 수업을 못 하고 있을 때야 그때 이제 뭔가를 애가 한 거야. 인터넷으로 올린 거지. 자기가 물건을 이제 만들어서도 팔고 망고 같은 걸 이제 떼어다가 팔고 제법 잘 된 거예요. (중략) 그런 아이들을 보면 솔직히 나도 저렇게까지는 못하거든 생활력을, 내가 저런 생활력이었으면 아마 떼돈 벌었을 거야(연구참여자 D, 2022.03.31.).”

연구참여자들은 위와 같이 결혼이주여성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인격적 존재로 존중하였다. 이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긍정의 면모를 발견하고 연구참여자는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살펴보면, 연구참여자들은 결혼이주여성을 단순히 방문교육의 대상인 이주민 학습자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인격을 지닌 인격체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혈벗은 타자로서 결혼이주여성의 부름에 응답하는 연구참여자들은 수단이 아닌 나-너의 관계로 그들과 진실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처럼 주체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결혼이주여성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 3.3.2. 타자 성장과 성취는 보람과 행복으로

Levinas는 타자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끈을 타자의 얼굴에서 찾았다. 타자의 얼굴은 피할 수 없는 타자에 대한 책임을 불러 일으키므로, 나와 너가 독특한 관계를 맺게 하는 원초적 관계의 표상이 된다고 하였다. 원초적 관계로 표현되는 타자의 얼굴을 마주하며 주체와 타자는 이미 공감적 타자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 공감적 타자는 이미 윤리적 주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Levinas는 타자의 얼굴에 응답하는 타자의 책임성에서 사람다움을 발견하였다(맹주만, 2019: 37-38). 예컨대 연구참여자들은 낯선 얼굴로 만나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에 깊이 공감하였다. 따라서 그녀들의 성장은 연구참여자들에게 큰 보람이 되었고, 이는 행복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사람다운 연구참여자들에게 행복이 되어준 타자의 성장과 성취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 A는 방문교육에서 학습부진에 놓여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눈높이에 맞추어 자녀생활지도를 위해 노력하였다. 자녀의 학습지도에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부모들은 연구참여자 A를 믿고 자녀를 맡기게 되었다. 이렇게 신뢰가 쌓이며 자녀생활지도를 받는 다문화가정 자녀는 학습 능력 향상을 보이는데, 학습자의 성장과 변화에서 연구참여자 A는 보람을 느끼게 된다. 특히 다양한 상업성 학습지 방문교육에서 성과를 얻지 못했던 다문화가정 자녀의 성적이 향상되고, 이후 연구참여자 A는 꾸준히 학습 능력 향상을 보이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부모에게서 감사 인사를 받았을 때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아빠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경우다 그래서. 아이가 기억나든도 어려운데 학습 능력이 학습 부진한 상태에서 학습을 나이에 맞게 따라가고 싶다면 제 방법대로 믿고 (중략) 그런데 고모가 바로 얘기를 하더라고 선생님 그 애가 구몬 학습, 빨간펜, 눈높이 다 실패했어요. 선생님이 마지막이에요. 어떡하든 도와주십시오 믿을게요 (중략) 근데 100점을 맞아 온 거야 자기 생전에 항상 빵만 그려오다가 70점 맞았지. 100점 맞았지. 큰 거예요 (중략) 그러니까 애가 그때부터 반짝반짝반짝하면서 하락한 것 다 해. (중략) 그 아이가 지금도 굉장히 공부 잘해요. (중략) 그렇게 2학년 때 그렇게 하고 나서 3학년 올라갔을 때까지 자가 뭐 했다는 거 저한테 보내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보람이에요. 고모가 ‘너무 고맙대요 애 사람 만들었다’고(연구참여자 A, 2022.03.12.).”

방문교육지도사는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 새롭게 탄생한 직업이다. 이는 가사를 돌보며 비교적 여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강점으로 인해 중년여성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그러나 방문교육지도사의 처우는 매우 열악하였다. 그럼에도 연구참여자 B는 방문교육지도사로서 타자성 실천에 대하여 헌신보다는 보람을 이야기하였다. 특히 연구참여자 B는 천성적으로 타인을 돌보는 일을 선호하였는데, 기억나온도 모르던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글을 깨우치고 말문이 트일 때면 보람을 넘어 행복했다.

“헌신보다는 되게 보람이 있어요. (중략) 헌신도 물론 있었고 자기 천성도 있고 하지만 그 되게 보람이 있어 (중략) 처음에 제일 생각나는 친구는 네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들 진짜 아야 어여 기억 나온도 모르고 하나도 모르고 오는 거야. 근데 이제 그분이 와가지고 (중략) 근데 정말 그분이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이렇게 말문이 트여서 말을 하게 되잖아요. 제가 너무 행복하지. 그런 보람이 아마 저를 계속 일을 하게 하지 않았을까(연구참여자 B, 2022.03.03.)”

또한, 연구참여자 D는 학습자들의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며 뿌듯함을 느꼈다. 방문교육사업 초기, 낯선 피부색의 결혼이주여성들을 만나야 하는 일로 인하여 연구참여자 D는 적응의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바퀴벌레가 기어 다니거나 냄새나는 학습자들의 지하 자택을 방문하여야 하는 상황은 더욱 힘들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D는 그들의 변화와 성장에 집중하였으므로 그러한 환경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하였다.

“제가 그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함 같은 게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게 없으면 못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그 일이 막 정말 싫었으면 말았겠죠. (중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진짜 엄마도 일을 다니고, 그런데 애는 혼자 집에 있어. 그래서 이제 애가 자녀 교육을 신청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가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공부를 시키는데 입을 안 떼요. 말을 안 해 (중략)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상황에서도 다녔어요. 그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 애가 안스럽고 애를 어떻게 하면 말을 좀 하게끔 해야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갔지. 그런 환경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D, 2022.04.06.)”

연구참여자 D는 10여 년 방문교육지도사로써 장기근속하게 된 이유를 말하였다. 그녀는 내 자식보다 어린아이가 와서 말을 배우며 변화되는 모습을

보며 느낀 뿌듯함이 그 동력이라고 하였다. 또한, 방문교육지도사는 매우 열악한 처우에 있지만 이직율은 높지 않다. 이에 대하여 연구참여자 D는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은 중년여성이 봉사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에서 그 이유를 찾았다.

“보수가 너무 작으니까. (중략) 처음에는 저희도 이걸 거의 봉사 수준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한 1-2년 하다가 그만 둘거라고 생각을 다 했었어요. 그때 이제 규모가 이제 워낙에 커지다 보니까 그래 지금은 (중략) 동력이라 그러면 뿌듯함이죠. 그거 없으면 못하죠. 왜냐하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왔잖아요. 그런데 좀 안쓰러움도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내 자식 같은 마음도 있고 다 우리 자식 같은 나이고 더 어리고 이런 아이인데 와가지고 말도 못하고 근데 이걸 가리키면서 애가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나중에 거의 끝날 때쯤 되면 글도 잘 쓰고 한국말도 좀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힘이 나죠.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연구참여자 D, 2022.03.31.).”

“(‘다문화가족센터 실무자의 이직률이 43% 이상이다.’라고 그래요.) 젊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령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이 나이에 뭐 집에서 노느니 봉사라 하자. 이런 마음들이 많죠. 선생님들이(연구참여자 D, 2022.04.06.).”

연구참여자 D는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교육과 동시에 그녀들의 고민을 상담하게 되는데, 이를 통한 결혼이주여성의 변화와 성장에서 보람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후회는 없어요. 후회는 그렇게 없는데 보람이 더 많죠. 상담하면서도 학교에서 상담할 때도 보면 아이들이 바뀌는 것도 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걸 하기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다문화 하면서도 상담도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같이. 그러면 내가 단순히 이거를 한국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네들이 뭔가 좀 저기하면은 이런 얘기도 해 주고. 앞으로 독립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무엇도 배워야 되고 이런 방향을 제시를 해 주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연구참여자 D, 2022.03.31.).”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학습자가 처음에는 진짜 말 기억 나은도 못하고 있는데 이제 10개월이 지나고 나면 이제 중급과정 2권 떼어요. 저희가 원, 투를 떼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책을 읽고 말을 하고 이런 것을 이제 보면 어떨 때는 진짜 제가 그랬잖아요. 작년에 힘들었다고 관두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도 그런 걸 보면 다시 힘을 얻죠. (중략) 그러니 내가 이거를 먹고 살아야 된다면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봉사를 겸한 그거로(연구참여자 D, 2022.04.06.).”

연구참여자들은 이주민 학습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면서 그들의 성취에서 보람과 행복을 느꼈다. 예컨대 기억나지도 모르던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어로 소통하게 되고, 기존 상업성 학습지에서 모두 실패한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높은 학업 성취를 보일 때면, ‘보람’ 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정말 너무 열심히 공부하던 결혼이주여성이 유치원 영어 선생님이 되어 연구참여자가 있는 곳으로 인사를 왔을 때, 그저 지나가는 말로 검정고시를 알려주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중·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이와 같은 보람은 연구참여자들에게 ‘행복’ 이 되었다고 하였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엄마로서 자녀에게 당당해지고자 노력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은 연구참여자들에게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되었다.

Levinas는 타자에 대한 책임성에서 윤리적 존재를 정초하였다(맹주만, 2019: 38).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 탐구에서 자아는 타자를 통해 존재할 수 있다는 Levinas의 주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컨대 연구참여자들은 이주민 학습자의 학습 능력 향상과 성취에서 보람과 행복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고통받는 얼굴로 호소하는 타자의 부름에 응답하며 얻은 연구참여자들의 타자성 실천의 의미이기에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이와 같은 자아와 타자 간의 동반의 윤리는 중년여성 방문교육지도사들의 돌봄 실천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즉 고통받는 얼굴을 한 타자에 대한 책임성에서 Levinas는 사람의 사람다움을 찾았다. 그런데 연구참여자들은 어리고 험벗은 결혼이주여성을 타자로 돌보는 것을 넘어서고 있었다. 즉 이들의 자녀에게 당당해지려는 삶의 태도에서 배움을 찾아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후자는 타자를 스승이라고 하였다(우치다 타츠루, 2013: 33). 그는 Levinas가 말하는 타자를 단지 나와 다른 사람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타자인 스승으로서 우리에게 타자성의 한 모델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스승의 타자성은 나와 관계에서만 단지 이타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연구자는 다음을 음미해 보았다.

“스승은 최초의 타자이므로 랍비들은 신을 만나기 전에 우선 스승을 만나고, 이를 통해 만남의 정통적인 방식을 배운다. 따라서 신을 섬기는 일과 스승을 섬기는 일은 거의 같은 몸짓이 된다(우치다 타츠루, 2013: 34).”

결과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은 험벗고 낯선 결혼이주여성을 타자로 수용하고, 돌보며 이들에게서 배움을 발견하였으니 그녀들에게 결혼이주여성은 단순한 타자가 아닌 스승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Buber는 “내 앞에서 있는 ‘너’가 자기 이해의 단초가 된다(윤석빈, 2019: 314).”고 하였다. 즉 나의 모든 것은 너로부터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나는 너와의 대화를 통해 세상으로 이끌리고, 스스로를 자각하고, 너와의 진실한 대화는 너를 넘어 타자와 함께 사는 것을 가르쳐 준다.

인간만이 실존적 존재로서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는 존재만이 타자와의 관계 맺기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타자는 자기 관계의 전제조건이다(윤석빈, 2019: 314). 자기 관계는 자아에 대한 의식과 자아 반성을 의미하는데, 반성을 통해 나는 성장한다. 따라서 낯선 타자인 결혼이주여성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자아 이해와 반성을 돕는 스승이고, 연구참여자들은 결혼이주여성들을 통해 자신들의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타자를 통한 연구참여자들의 자기 인식과 자기 성찰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 3.3.3. 타자를 통한 자기 인식과 자기 성찰

Levinas는 향유하는 존재자의 삶을 향유의 대상들과의 관계성과 향유의 주체가 갖는 개별성이라는 두 축으로 진행된다고 하였다(맹주만, 2019: 44). 이에 이번 항에서는 삶을 향유하는 주체로서의 자기 인식과 자기 성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자기 인식(self-awareness)이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에 주의를 집중하여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자기 인식이 높을수록 자기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고, 자신이 보다 잘 기능하는데 기여한다(김민경·이정미, 2018: 2). 이에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집중하여 자기를 인식하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들여다 보는 자기 성찰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방문교육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성격에 잘 맞는 일임과 동시에 일이 주는 즐거움으로 인해 자신의 삶에 활력이 되었음을 확인하였

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에 나타난 연구참여자들의 자기 인식과 자기 성찰은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 A는 가정 경제 환경과 인습적 사고에 따라 후기 청소년기에 고등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특히 고3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머니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이에 상경하여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다. 이러한 사정으로 연구참여자 A의 삶은 청소년기 꿈과는 멀리 있었다. 그러나 방문교육지도사를 통해 연구참여자 A는 ‘뭔가를 가르치고 싶고’ 했던 청소년기 꿈을 이룰 수 있었다. 이에 연구참여자 A는 방문교육지도사로서 장기 근속하는 자신의 선택에 대하여 그래서 지금도 남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다고 자신의 삶을 해석했다.

“어렸을 때도 뭔가를 가르치고 싶고, (중략) 저는 옷도 만들고 그러고 싶었어요. 내 마음대로 옷을 만들어서 입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도) 남들한테도 가르쳐 주고.(연구참여자 A, 2022.03.12.).”

연구참여자 B는 청소년기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이에 따라 중년이 되어 방송대에 입학할 때에도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교육학과에 입학하였다. 반면 영어 과목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청소년기 꿈과는 멀어지게 되었다. 이후 방문교육지도사가 되어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교육을 하게 되었는데, 그녀들은 연구참여자 B를 ‘선생님’ 이라고 불러 주었다. 이에 연구참여자 B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문교육지도사로서 10여 년 활동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였다.

“저는 진짜 선생님 되고 싶었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때 초창기에는 방송대에 다녀도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어요. 아 근데 저 영어 울렁증이 영어가 너무 나도 무서워서 못 했어요. 정말 선생님도 못하고 근데 선생님, 제가 이것(방문교육지도사)을 오래 했을 수도 있어. 내 꿈이 선생님이었는데 이렇게 뭔가를 가르치고 내가 보람을 있고 이랬는데 너무 나한테는 좋았으니까 (연구참여자 B, 2022.03.18.).”

연구참여자 C는 장녀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가정 환경과 인습적 사고 등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기까지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야 했다. 고



난의 과정 속에서 스스로 당당하게 무너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자신을 지켜주는 기둥이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굉장히 공부하고 싶었던 연구참여자 C는 언젠가는 찾아올 기회를 준비하며 살아왔다.

“제가 생각할 때 저를 지켜주는 거는 저인 것 같아요. 스스로 무너지고 싶지 않고 당당하게 (중략) 내가 어느 순간에라도 내가 이 일이 필요할 때 내가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그걸 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중략) 제 꿈은 저는 외교관이라서, 저는 일단은 여행을 좋아했고요 첫 번째는 제가 가장 좋아한 거는 세계사였어요. (중략) 한 조그만 계기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어떤 하나의 작은 도움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역할만 해준다면 그게 얼마나 보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했어요. (다문화가정을 돌본 건 외교관의 역할을 하신 게 아닐까요?) ‘오늘 깨달았어요.’ 정말로 그 사람 맞아요. 그리고 또 꿈이 선생님도 있었거든요 (중략) ‘오늘 알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제가 그런 거기까지는 저를 접근을 못했어요. 가슴이요. 제 얘기를 솔직하게 정말 오랜만에 정말 진짜(연구참여자 C 2022.3.22.).”

1980년대 여학생의 대학 입학은 쉽지 않았다. 연구참여자 C는 고교 졸업 후 상경하여 직장에 다니며 00대 전자계산학과에서 전문 학사 과정을 밟으며 00 병원 전산실에 근무하는 등 부단히 노력하였다. 세계사를 좋아하고 외교관이 되고 싶었던 연구참여자 C는 그 동안 자신의 꿈과는 조금 먼곳에서 살아왔다고 생각했다. 반면 연구자와의 심층면담을 마치며 연구참여자는 자신이 그 동안 방문교육지도사를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있었음을 발견하였다. 예컨대 외교관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외국에 파견되어 일하는 공무원으로, 외교관은 파견된 나라와 한국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나라의 정보를 모으고 교류하는 일을 한다. 또 그 나라에 살거나 여행하는 한국 국민을 보호하고, 해당 나라에 한국을 알리는 역할도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방문교육지도사의 업무를 살펴보면, 국내로 입국한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를 보호하고 돌보며 이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업무를 하므로 외교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를 인정한 연구참여자 C는 “오늘 알게 됐어요.” 라며 감격해 하였다.

연구참여자 D는 청소년기 현모양처를 꿈꾸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며 중년이 되면 카운슬링을 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심리·상담 관련 각종 과정을 수료하며 미술치료 또는 집단 상담 현장

에서 활동하였다. 이후 2011년 방문교육사업에 참여하며 연구참여자 D는 상담사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게 되었다. 즉 연구참여자 D는 방문교육지도사로서 중년여성으로서의 꿈이었던 카운슬링의 현장에 있게 된 것이다.

“제가 이제 마흔 살이 되면 카운슬링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중략) 그거는 모르겠어요. 막연한 생각이었어요. 그게 정말 딱 40이 됐는데 그제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상담을 시작 했죠. (그럼 상담 공부를 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공부를 한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공부를 그때부터 이때도 그러면 치료도 하고 그냥 미술 치료 그런 것만 (연구참여자 D, 2022.03.31.)”

중년여성의 심리적 행복에서 일에 대한 만족은 중요하다(남순현, 2009).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서 일에 대한 가치를 발견함은 개인의 행복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박정혜·강세원, 2022). 연구참여자 A, B의 청소년기 꿈은 선생님이었고, 연구참여자 C의 청소년기 꿈은 외교관과 선생님, 연구참여자 D의 그것은 상담가였다. 본 연구를 위한 심층면담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방문교육지도사를 통해 청소년기 꿈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Jung(1875~1961)은 인간이 타고난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며, ‘지금-여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의 평범한 행복을 구현하는 과정을 자기실현이라고 하였다(이부영, 2008).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의 청소년기 꿈의 실현을 통해 Jung이 말하는 자기실현을 발견하였다. 특히 연구참여자 C는 본 연구에 참여하며 열심히 살아온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었다는 사연을 SNS를 통해 보내주었다.

“네(웃음). 열심히 산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연구참여자 C 2022.4.1.)”

한편 인간은 노동을 통해 주변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한다(Levinas, 2001: 133). 이러한 이유로 Levinas는 노동을 즐김과 대비시켰는데, 인간은 자신의 목표와 욕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땀을 흘리며, 지금의 즐거움을 유보한다고 하였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현실은 소유되고 일정한 무엇을 획득하고, 이는 우리에게 종속된다. 따라서 인간의 삶에서 노동은 지배와 소유의 차원을 열어 주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생의 한계 세계가 지닌 익명성과 무

규정성은 노동을 통해 해제되고 사물은 이제 분명한 기능과 의미를 갖게 된다. 인간에게 사물은 노동을 통해 인간의 도구이거나 생존 수단으로서 취급되며 사회적 관계에서 교환 가능한 대상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년여성의 직업으로써 방문교육지도사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참여자 B는 방문교육지도사로서 10여 년 활동할 수 있었던 원인을 본인의 성격에서 찾았다. 성격유형 검사에서 종종 ‘사회봉사자’의 결과를 받았던 연구참여자 B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청소를 소홀히 하는 등 주부로서 아직 서툰 모습을 보일 때면, 비난하기보다 도와주고 싶었던 경험을 나누어 주었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측은지심으로 인하여 선긋기 힘든 상황도 경험하였으나 연구참여자 B는 그럼에도 자신의 성격에 딱 맞는 직업이었음을 이야기 하였다. 즉 연구참여자 B는 방문교육지도사로서의 삶에 대하여 만족스러웠음을 확인하였다.

“전 실은 사실 제 성격하고 되게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 제가 이렇게 성격 검사 같은 거 뭐 하면은 항상 사회봉사자로 나와요. 제가 그거를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더러운 거나 이런 거를 보면은 애는 왜 이렇게 살지 하는 것보다 내가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좀 그러면 제 천성으로. (중략) 그런 마음도 있고 되게 저는 좀 측은지심이 더 많았어요. 저 안 됐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연구참여자 B, 2022.03.03.)”

연구참여자 D는 1988년 모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였다. 이후 컴퓨터 학원 강사 등의 경제활동을 경험한 후 결혼하여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직업여성으로서의 즐거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연구참여자 D는 2011년 방문교육사업에 참여하며 직업이 주는 즐거움을 만끽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연구참여자 D는 한 다문화 부부의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였는데, 한국어 학습 이외 시간에는 부부가 영어로 소통하면서 한국어 능력 향상이 저조함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고, 학업 중단을 선언하는 학습자로 인하여 불편한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연구참여자 D로 하여금 방문교육지도사로서의 현업 유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 D는 일이 주는 즐거움을 발견하였다.

“너무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가족한테는 얘기를 못 했어요. 딸들한테

도 못하고 신랑한테도 지금까지도 얘기를 못한 게, 엄마 그거 왜 해? 이럴까 봐. 그만둬도 되는데 그만둘까도 생각했어요. (중략) 집에서 내가 뭘 할까? 내가 뭘 많이 있어야 되나 그런 것도 있었고, 그때 이제 병원에서 한 얼마 또 이번에 입원해 있었고 그때 생각을 좀 많이 했죠. 이걸 해야 하나 마나 고민도 하고 치료하면서도 근데 이제 다른 선생님들한테 다 물어봤는데도 결론은 뭐냐? ‘다녀’ 그래서 집에서 놀면 뭐 해 그렇지. (중략) 이게 일하는 그 즐거움이라는 게 있잖아요(연구참여자 D, 2022.04.06.).”

연구참여자 D는 방문교육사업에 참여하는 본인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최근 학습자와의 갈등으로 방문교육에 대하여 깊이 성찰하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본인에게 방문교육지도사로서 타자성 실천의 의미를 ‘활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예컨대 연구참여자 D는 방문교육사업에 참여하며, 본인이 세상에 도움을 주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살아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그 동안 연구참여자 D는 방문교육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늘 자신을 가꾸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재의 본인의 모습이 그녀는 과거의 자신보다 좋고 사랑스럽다고 하였다.

“활력이죠. 만약에 이걸 안 했으면 뭘 했을까 안 했을 것 같아. (중략) 집에서 놀고 있었겠죠. (중략) 일단 나를 가꾸니까. 난 그게 더 그래서 난 항상 그래. 지금이 나는 제일 멋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과거의 모습보다 지금의 모습이. 과거에는 젊고 더 예뻐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나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 나는 더 좋고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죠(연구참여자 D, 2022.04.06.).”

방문교육지도사는 2008년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80개소, 총 2,313명이 활동했다(손제령·김경화, 2009: 29). 연구참여자들은 방문교육지도사로서 돌봄 실천 경험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주었다. 특히 연구참여자 B는 2009년부터 10여 년 방문교육지도사로서 현장을 지키게 한 그것을 ‘보람’, ‘사회적 인정’, ‘삶의 활력’에서 찾았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던 결혼이주여성 이 한국어를 잘하게 될 때, 보람되고 재미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방문교육지도사는 집안일을 돌보며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선생님으로서 이주민 학습자들의 인정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일이라는 것에서 삶을 살아가는 활력이 되었다고 하였다.

“한 14년 햇수로 그렇게 (중략)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보람되고 재밌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막 한국어 하나도 몰랐다가 (한국어를 잘) 하게 되면 그리고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선생님’이라고 되게 인정받는 거. 그런 것도 있고 경제적으로는 좀 그랬는데 아마 보람된 게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중략) 그리고 일할 때 되게 ‘사회적인 인정’도 조금 있긴 있죠. 선생님 그렇죠 집에 있는 저런 사람보다는 (중략) 집안일 사이에 일하고 있어서 너무 인정받는 그런 것도 한 몫을 하고 있죠. (중략) 또 그 학습자들도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대우해 주고. (중략) 그렇죠 나를 필요로 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게 또 살아가는 ‘활력’도 되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연구참여자 B, 2022.03.18.).”

고대 그리스 윤리학을 보면, 그 당시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방식의 가치를 폴리스가 인정한 사람뿐이었다(Honneth, 2011: 7). 이에 따라 개인은 노동을 수행함으로써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를 갖게 되었다. 인정(認定)의 사전적 의미는 ‘확실히 그렇다고 여김’이다. 이러한 인정의 개념은 학자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인정은 실천 철학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Honneth(2011)는 인정이론의 관점에서 노동 개념을 제시하였다. 삶의 조건에 대한 Honneth 이론의 핵심 윤곽은 『인정투쟁』(2011)에서 발견된다. Honneth 인정투쟁의 핵심은 사회적 투쟁이 상호인정이라는 상호주관적 상태를 목표로 한다. 이때 ‘인정’은 인간이 자기 삶을 성공적으로 실현할 사회적 조건과 각 개인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관계인 긍정적인 자기의식을 가지게 하는 심리 조건을 말한다(Honneth, 2011: 14-15).

연구참여자들은 본 연구에 참여하며 자신의 삶을 뒤돌아 볼 기회를 갖게 되었다. 특히 방문교육지도사로서의 직업 생애를 뒤돌아보며 연구참여자들은 청소년기의 꿈을 떠올리게 되었다. 예컨대 연구참여자 A와 B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고, 연구참여자 C는 외교관, 연구참여자 D는 중년이 되면 상담을 해 보면 좋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본 연구를 통해서 연구참여자의 꿈들이 방문교육지도사를 통해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Levinas(2001)는 현실을 파악하고, 소유하기 위한 것으로 지식을 들었다. 그러므로 지식은 현실에 대한 힘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인식과 노동은 인간이 자기와 타자가 아닌 다른 사물을 자기에게로 환원시키는 방식이다. 인간은 인식과 노동을 통해 자기 자신을 주체로서 확립하고 주변 세계를 노동과

타자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 이렇게 Levinas는 인간의 지적 노력도 노동과 같은 차원에서 이해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중년여성 방문교육지도사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직업으로서 지니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즉 연구참여자들은 인습적 사고에 함몰된 일반인과 다르게 결혼과 출산, 자녀 양육기를 지나서 고등교육 과정에 입문하였다. 이러한 연구참여자들이 중년여성이 되어 도전한 학사 과정은 그녀들의 인생에서 2차 성장(Sadler, 2006)의 발판이 되었다. 예컨대 2008년 시작된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에 참여하며, 연구참여자들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적 업무를 맡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그녀들 인생의 한복판에서 기존과 다른 엄청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 4. 소결

본 연구는 생애사적 내러티브를 통해 중년여성 방문교육지도사의 타자성 경험과 실천의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IV장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직업 생애에 나타난 내러티브를 탐색하였다. V장에서는 내러티브 탐색의 3차원적 탐구 공간(시간성, 공간성, 관계성)에 맞추어 연구참여자들의 타자성 경험과 실천의 의미를 도출하였다. 우선 1. 시간성 차원은 ‘타자성 경험 및 실천의 순환’으로 1.1. ‘가족애를 통한 타자성 인식’, 1.2. ‘사랑의 빛 갇음’, 1.3. ‘타자성 경험과 실천의 흐름’이라는 의미가 도출되었다. 2. 공간성 차원은 ‘타자성 경험 및 실천의 영역 확장’으로 2.1. ‘방문교육지도사의 등지’, 2.2. ‘한국인가정에서 다문화가정으로’, 2.3. ‘다문화가정에서 지역사회 공간으로’가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3. 관계성 차원은 ‘타자성 경험 및 실천의 관계 심화’인데, 3.1. ‘방문교육지도사-결혼이주여성의 타자 관계 심화’, 3.2.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으로 타자성 관계 확대’, 3.3. ‘자기 안의 타자 관계 재정립’으로 의미가 도출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3차원적 탐구 공간에서 탐색해보니,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의 시간성 차원에서는 Levinas가 말하는 시간의 통시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시간의 통시성에 따라 과거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비가역적인 시간의 통시성으로 인하여 나는 타자를 책임져야 하는 빛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는 ‘가족애를 통한 타자성 인식’이라는 의미가 되었다. 예컨대 Levinas의 주장처럼 연구참여자들은 갓난아기로 양육되며 경험했던 체화된 타자성 인식은 그녀들의 삶 속에서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즉 연구참여자들은 본능적으로 본인의 자녀를 양육하며 양육자로서의 무한 돌봄을 실천하고 있었고, 삶 속에서 경험한 타자성은 누군가를 돌보는 사랑의 빛 갇음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의 이주민 학습자를 향한 무한 돌봄은 다시 연구참여자들이 타자성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순환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는 ‘사랑의 빛 갇음’, ‘타자성 경험과 실천의 흐름’이라는 의미가 되었다.

방문교육지도사는 가정을 돌보며 병행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중년여성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의 대표 사업이지만, 이를 담당하는 방문교육지도사들은 열악한 비상근 근로자의 위치에 있었다. 예컨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이들을 위한 특별 공간을 찾을 수 없고, 책상도 존재하지 않았다. 매월 1~2회 진행되는 월례회에 참석하는 연구참여자들에게 그곳의 상근직원들은 인사조차 하지 않는 그런 소원한 관계가 연출되고 있었다. 또한, 하루 2명의 학습자에게 2시간의 수업을 하기 위해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가정에서 학습자의 가정으로 이동해야 하고,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거주 공간은 가깝지 않다. 그렇다 보니 밤 10시가 넘어 귀가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방문교육지도사는 다문화가정의 돌봄 실천가이지만 동시에 돌봄 대상자인데, 이들은 낮은 곳에서 묵묵히 희생을 강요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의 공간성 차원에서 방문교육이 갖는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 예컨대 방문교육은 다문화가정을 방문하므로 연구참여자들은 결혼이주여성들이 문을 열고 그녀들을 환대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결혼이주여성들이 모국에서의 사회화 경험을 통해 가족과 손님을 극진히 환대하는 그곳에서 연구참여자와 결혼이주여성들은 내밀한 친밀감을 형성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거주 공간이 비록 냄새가 나고,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등 열악한 환경이지만 이주민 학습자를 도우려는 열정은 이러한 공간이 주는 환경적 조건을 뛰어 넘게 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방문교육 공간은 다문화가정을 벗어나 지역사회 등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예컨대, 결혼이주여성이 집을 구매해야 할 때, 함께 집을 보러 다니고,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함께 법원에 동행하는 등 연구참여자들의 방문교육 공간은 연구참여자와 이주민 학습자간의 관계의 깊이 만큼 넓어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의 내러티브에서 관계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는 Buber와 Levinas의 관계 철학에 맞추어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의 관계성과 주체로서의 자기 인식과 자기 성찰이라는 개별성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방문교육지도사로서의 타자성 경험과 실천의 의미로써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의 관계성 차원에서는 방문교육지도사와 결혼이주여성의 타자 관계의 심화가 도출되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마주하는 삶의 다양한 역경에서 연구참여자들은 그녀들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며, 결혼이주여성들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를 통해 이들의 관계는 지도자-학습자의 관계를 넘어 정신적 동반의 관계로 깊어지게 되었다. 또한, 방문교육에서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인 가족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연



구참여자들의 타자성 관계는 결혼이주여성을 넘어 한국인 가족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Buber는 내 앞에 서있는 ‘너’는 자기 이해의 단초가 된다(윤석빈, 2019: 314)고 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이 결혼이주여성의 입장이 되는 역지사지, 이를 통해 자신을 반성하고 성장하는 타산지식을 살펴보면, ‘타자의 성장과 성취’에 따른 보람과 행복이 되어 진정한 대화와 관계 맺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낯선 타자의 부름에 응답하는 주체로서의 자기 인식과 자기 성찰에서는 타자를 통해 얻은 ‘꿈의 실현’, ‘일의 즐거움’이라는 의미가 도출되었다. 예컨대 연구참여자 A는 학습 부진아에 머물러 있던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우수 학습자로 키워내었다. 이에 ‘애 사람만들어 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해들으며 보람을 느꼈고, 청소년기부터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어했기에 방문교육지도사를 10여 년 이어올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참여자 A에게 방문교육사업은 인적자원밖에 없는 우리나라를 돕는 일이라는 사명감이었는데, 학습자들과 신뢰가 쌓이고 관계가 깊어지며, 이는 인연이 되었다. 연구참여자 B는 방문교육지도사를 ‘사회봉사자’ 유형인 본인에게 딱 맞는 일이었으며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청소년기 꿈의 실현이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억나지도 모르던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 향상에서 얻은 보람은 행복이 되었고 이제는 서로의 안부를 묻는 정신적 동반의 관계가 되었음을 전해주었다. 연구참여자 C는 학습자의 성장에서 굉장이 큰 보람을 느꼈고, 묵묵히 자신의 개발을 위해 노력했던 날들은 청소년기 외교관의 꿈을 방문교육지도사로 실현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내 딸처럼 보살핀 결혼이주여성과 이제는 엄마와 딸처럼 정신적 동반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전해주었다. 연구참여자 D는 결혼이주여성의 성장에서 보람을 얻으며 방문교육지도사로서의 삶은 본인에게 활력이었음을 고백하였다. 또한, 중년에 이루고자 했던 상담자의 삶을 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에서 관계성을 탐색하며, 연구자는 “타자는 내가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무한성이다(Levinas, 2001: 140).”라는 문구를 떠올렸다. 여기서 무한성은 익명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어떤 낯선 힘이 타자의 얼굴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무한성은 내가 지금 여기 부재하는 다른 모든 사람 또는 제 3자와 맺는 구체적인 결속을 뜻한다. 지금 내 가까이 있는 타자는 다른 모든 사람과 결속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 나와 마주한 타자는 그저 너가 아니라 제 3자인 ‘그’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낯선 고아 또는 과부로 현현(顯現)하는 타자의 얼굴과 직면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이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인간의 보편적인 결속과 평등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

본 연구가 살펴본 연구참여자들은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게 된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를 타자로서 받아들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그들을 위하여 멘토, 안내자, 조력자, 상담가의 역할을 하였다(방현희·이미정, 2014). 이들은 결혼이주여성에게 정해진 교육 이외의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학습자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며, 안정감을 찾게 하여 이들의 한국 사회 적응에 도움과 희망을 주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나와 타자가 언어를 매개로 관계를 맺는 대화이었다(윤석빈, 2006). 연구참여자들은 대화를 통해 결혼이주여성들과 인격적 소통관계를 형성하였다. 타자와 내가 인격적 소통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나의 온 존재를 함께 투영하면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연구참여자들은 ‘너’인 결혼이주여성과의 관계에서 서로를 인격적 파트너로 인정하고 주체와 주체의 만남을 이루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교육은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과정인데, 이를 위해서는 교육자와 학생 간에 인격적으로 관계 맺는 구체적인 인간관계에서 교육의 본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노상우·권희숙, 2010). Buber는 인간다운 인간을 너를 통해 나를 실현하는 사람으로서 ‘나-너’의 관계를 들어 설명하였고, Levinas는 타자에게 응답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인간다운 삶이란 ‘관계를 통해 타자에게 눈 뜨고 거둬 깨어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 A, B, C, D의 내러티브를 탐색해보면, 이들은 이주민 학습자의 부름에 대하여 시혜가 아닌 인격체로서 응답하였기 때문에 교수자와 학습자의 관계를 넘어 인격적인 정신적 동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해석된다.

“신 없는 세계에서 여전히 선하게 행동할 수 있다고 믿는 자,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주체이다.” 즉 연구참여자들은 매뉴얼에 없는 절대적 무근거를 견뎌냄으로서 신과 함께 했다는 사실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의 삶은 진정 타자를 스승으로 섬기는 성숙한 인간의 삶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인간은 인식과 노동을 통해 사물들과 관계할 때,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Levinas, 2001: 134). 언제나 인간은 타인의 존재를 경험하는데, 타인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나와 함께 일하기도 한다. 인간이 세계를 소유하고 나의 목적에 종속시키려고 할 때 나의 욕구와 타인의 욕구 사이에서 갈등이 있다

는 것을 체험한다. 이때 이러한 타인은 나에게 무엇으로 존재하는지? 나의 삶에 출현한 타인은 무엇을 뜻하는지? 타인의 출현은 나의 독립성의 한계인지? 이는 나의 존재에 새로운 의미 또는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는 사건인지? 등을 Levinas는 질문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탐색하여, 이들의 이주민 학습자에 대한 타자성 경험과 실천의 의미를 탐색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전한다.



## Ⅵ. 결론

### 1. 요약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의 생애사적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타자성 경험과 실천의 의미를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다문화 사회에서 이주민을 대하는 정주민의 윤리적 태도와 이주민과의 관계 맺기를 제안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에 정주민을 대신하여 연구참여자와 유사성이 높은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그 대상을 확대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은 다문화 관련 업무 종사자는 물론 이들을 넘어서 다문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우리가 모두 해당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주민의 사회통합과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의 출현 배경과 하는 일, 중년여성의 직업으로써 방문교육지도사와 돌봄 실천을 고찰하였다. 또한 타자에 대한 윤리적 태도를 고찰함으로써, 연구참여자들의 이주민 학습자에 대한 윤리적 태도를 이해하는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Buber와 Levinas의 관계 윤리를 살펴봄으로써 연구참여자들의 이주민 학습자들과의 대화 및 관계 맺기의 의미를 찾고, 이를 해석하는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생애사적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활용하여 방문교육지도사들의 목소리로 직업을 중심으로 하는 삶의 이야기를 이끌어 내었다. 이를 바탕으로 그들의 직업 생애에 나타난 타자성 경험과 실천의 의미를 탐색하였다. 생애사적 내러티브 탐구 방법은 인간의 생애 과정적 경험을 맥락에 맞추어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써 중년여성 방문교육지도사들의 직업 선택과 태도의 속성을 들여다볼 수 있었으며, 그들의 경험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하여 선정된 연구참여자는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에 참여한 지 10년 이상 된 55세 전후 중년여성 방문교육지도사 4명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2022년 1월 6일 I대학 다문화융합연구소에서는 생애사적

이 구성되었고, 방문교육지도사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과 질적연구, 생애사적 내러티브에 관한 선행 연구 등을 분석하고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설명문, 연구동의서, 반구조화 질문지 등을 준비하고, 2022년 1월 27일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전 연구설명회를 통해 자발적 연구참여자를 모집할 수 있었다. 자료 수집은 2022년 2월 4일부터 같은 해 9월 1일까지 심층면담과 점검 과정을 통해 수집되었다. 이외에도 전화 또는 SNS를 통해 수시로 소통하며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생애사적 내러티브 탐구의 특징인, 연구참여자들의 전 생애에서 이야기의 맥락과 상황 안에서 직업 생애를 중심으로 방문교육지도사 이전 시기와 방문교육지도사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연구 문제 1: 방문교육지도사의 직업 생애에 나타난 삶의 내러티브는 어떠한가?의 답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그 연구결과를 IV장에 적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출생 지역, 가정 환경, 학력과 삶 속 배움의 경험 등은 서로 달랐지만, 연구참여자들의 삶에는 유사한 점이 있었다. 예컨대 연구참여자들은 1960년대 출생하였고,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가정 내 자원 배분에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시대적, 사회적, 가정 경제 사정에 따른 상황과 맥락에 맞추어 이러한 것들에 묵묵히 순응하며 자신의 삶을 개척하였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의 방문교육사업에 대한 지원 동기와 사연이 다르듯이 이주민 학습자에 대한 윤리적 태도는 달랐다. 예컨대 연구참여자 A는 인적 자원밖에 없는 우리나라를 위해 이주민 학습자를 환대하였고, 연구참여자 B는 한국에 함께 살자고 온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으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C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하여 ‘눈 떴는데 한국이었을 뿐’이라는 표현으로 이주민 학습자를 위한 관용을 말하였다. 연구참여자 D는 이주민 학습자에 대하여 측은하고 안쓰럽다는 마음을 이야기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사에 나타나는 공통점은 다음의 여섯가지로 정리되었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의 삶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는 삶의 태도는 1차 사회화 기관인 가정에서 부모의 영향을 받았다. 둘째, 주로 1960년대 출생한 연구참여자들은 가정내 자원의 배분에서 남아선호사상 등의 인습적 사고로 인해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였다. 셋째, 연구참여자 A, B, C는 고교 졸업 후 취업하였고, 결혼하면 퇴사해야 하는 암묵적 사회 분위기에 영향을 받았다. 넷째, 연구참여자 A, B, C는 20대에 결혼하여 자녀 출산과 양육을 마치고 다시 배움을 선택하였는데, 이는 방문교육지도사로 채용될 수 있는 근간이

되었다. 다섯째,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방문교육지도사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한국어 교육 지도사로서의 자격은 물론 심리상담 관련 수련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들은 방문교육에서 만나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을 비난하거나 지적하지 않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며 그들이 스스로 변화하도록 기다려 주었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삶의 주체이듯이 그들 또한 삶의 주체이므로 그들의 삶을 존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Levinas의 낯선 타자에 대한 윤리적 태도인 책임과 닮아 있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결혼이주여성과의 대화에는 Buber가 제안하는 나-너의 관계가 있었다. 즉 이들의 만남과 대화에서 단순히 방문교육지도사와 학습자의 관계를 넘어 서로가 나와 너를 인정하며 대화하고 관계를 맺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이들이 결혼이주여성들과 정신적 동반의 관계를 맺는 근간이었음을 확인하였다.

Ⅳ장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방문교육지도사 이전 시기, 방문교육지도사 시기로 살펴보면, 직업을 중심으로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흐름과 맥락을 이해하려 노력하였다. Ⅴ장에서는 연구 문제 2: 방문교육지도사의 직업 생애에 나타난 타자성 경험과 실천의 의미는 무엇인가?의 답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한 자료 분석은 내러티브 분석의 3차원적 탐구 공간(시간성, 공간성, 관계성)에 맞추어 의미를 도출하였다.

특히 시간성 차원은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에서 발견되는 타자성 경험 및 실천에 집중하여 의미를 도출하고 주제를 분류하였다. 우선 연구참여자들이 양육자인 부모 또는 형제의 돌봄을 통해 타자성을 인식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타자성 경험은 사랑의 빛 깊음이 되어 자녀나 형제를 돌보는 타자성 실천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방문교육은 한국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주여성이나 만 19세 미만 중도입국자녀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의 생애주기 또는 12세 미만 자녀에 맞추어 주2회 20주~60주의 한국어 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지도가 제공된다. 이처럼 이주민 학습자의 결정적 시기에 제공되는 약 10개월~15개월간의 방문교육지도사를 통한 돌봄 실천은 ‘사랑의 빛 깊음’이 되어 순환하고 있었다. 예컨대, 양육자에게 받은 무한 돌봄의 경험은 연구참여자의 자녀 양육으로 이어졌고, 삶 속 누군가에게 받았던 돌봄의 경험은 누군가를 위한 돌봄 실천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주민 학습자가 경험한 돌봄 경험은 연구참여자의 미래 돌봄 경험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처럼 인간의 행동은 학습되므로 누군가에게 받은 돌봄 경험은 누군가에게 전해줄 돌

봄 실천으로 체화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Levians가 주장하는 타자에 대한 무한 책임은 과거·현재·미래를 통해 순환되는 시간의 통시성으로 설명되었다. 이러한 발견은 연구자에게 ‘현재는 자기로부터 출발한다(Levinas, 2001: 47).’ 는 Levinas의 주장을 되새기게 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현재’ 연구자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공간성 차원은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에서 타자성 경험 및 실천의 영역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영역과 동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의미를 도출하였다. 우선 방문교육사업의 주관 기관은 가족센터이므로 이곳은 방문교육지도사의 등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곳에서 연구참여자들을 위한 공간을 찾을 수 없었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의 가족센터 내 위치는 비상근직의 그것을 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컨대 가족센터에는 연구참여자를 위한 개별 공간이나 개별 책상 등을 찾을 수 없었고, 매일 개최되는 월례회의에 참석할 때면, 가족센터 내 상근직들의 따듯하고 친밀한 환대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학습자 간의 이동거리로 인하여 하루 2명을 2시간씩 방문교육을 하려면, 밤 10시를 넘어 귀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에는 연구참여자들의 암묵적 희생이 있었다. 이를 통해 이주민을 돌보는 연구참여자들의 가족센터 내 위치에서 이율배반적인 한국 이주민 정책의 민낯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미래 한국의 이주민 정책에는 정주민-이주민 모두를 돌보는 통합적 관점의 정책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인간은 거주 공간을 통해 외부 환경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단절하고, 외부의 위협을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이 거주하는 ‘집’은 따스함과 가까움을 맛보는 친밀한 공간이다. 또한, 방문교육사업은 가정을 돌보며 할 수 있는 일이었기에 중년여성에게 인기가 있었다. 이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의 가정 영역을 우선 살펴보고, 다문화가정으로 나아갔다. 연구참여자는 가족을 돌보며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은 본인에게 잘 맞는 직업이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그러나 이주민 학습자의 거주 형태는 주로 아파트이거나 단독주택이 많았는데 주로 30년이 넘어 낙후하였다. 이에 따라 낡새가 나거나 싱크대가 떨어져 있고,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러한 이주민 학습자의 주거지를 방문해야 하는 연구참여자들은 이렇게 열악한 거주 조건이 중요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는 어떻게 하든지 안쓰러운 다문화가정 자녀 등을 돕고 싶다는 연구참여자들의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

이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방문교육은 이주민 학습자의 삶의 영역을 포괄하여 다문화가정을 넘어서고 있었다. 예컨대, 다문화 부부 갈등으로 가출한 결혼이주여성에게는 부를 사람이 연구참여자밖에 없었으므로, 그녀가 있는 모텔로 달려가야 했고, 그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물론 여성 쉼터 등을 오고 가야만 했다. 덧붙여 결혼이주여성들이 집을 구매하거나 법원 등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때면, 연구참여자들은 그녀들과 동행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은 자신의 집을 방문하는 손님으로 연구참여자들에게 마음을 열고, 이들을 천사처럼 지극히 환대하였다. 천사가 된 연구참여자들은 결혼이주여성들과 함께하며 방문교육을 위한 활동 동선을 넓혀나갔다. 즉 결혼이주여성과의 친밀감에 비례하여 연구참여자들의 방문교육 공간은 넓어졌다.

마지막으로 관계성 차원에서는 타자성 경험 및 실천의 관계 심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예컨대 방문교육지도사-결혼이주여성의 타자 관계 심화에서의 의미를 도출하였고,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으로 확대되는 타자성 실천의 확장을 발견하고 그 의미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들이 험벗은 타자로서 결혼이주여성에게 타자성을 실천하며 얻게되는 타자 관계 재정립을 확인하였다. 예컨대 연구참여자들은 내 앞에서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통해 자기이해를 할 수 있었다. 즉 결혼이주여성의 입장이 되어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연구참여자들은 본인의 삶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타자로서 결혼이주여성의 성장과 성취에서 보람과 행복을 경험하였고, 이주민 학습자와의 진실한 대화와 관계 맺기는 인연이라는 의미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들은 타자를 통한 진정한 주체로서의 자기 인식과 자기 성찰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청소년기 꿈의 실현과 일이 주는 즐거움이 도출되었다. 특히 자기 실현이란 타자의 인정을 바탕으로 하고, 너와 나의 대화를 통한 서로의 만남은 현실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윤석빈, 2006: 276). 즉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서로의 삶에 대한 현실 참여는 자기 존재의 의미를 실현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타자의 성장과 성취는 연구참여자들의 보람과 행복이 되었고, 삶의 주체로서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의미는 꿈의 실현과 일이 주는 즐거움을 확인하였다.

Ⅶ. 결론 및 논의에서는 방문교육지도사의 생애에 나타난 타자성 경험 및 실천의 의미라는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추후 한국 이주민 정책을 위한 제언 및 나아갈 방향을 적었다.



## 2. 논의 및 제언

20세기 지구화는 ‘이주의 시대’를 열었다. 지구화 시대에 따른 이주의 문제는 보편적일 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면도 있다. 예컨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는 선진국의 고민을 넘어서고 있다. 한국 근대화의 특징은 ‘압축성’이라 할 수 있는데(오경석, 2007: 29), 이주의 문제에서 또한 한국은 서구나 동아시아 국가들과 전혀 다르게 압축적이며 비약적인 경험을 하고 있다.

1965년 설립된 ‘한국해외개발공사’는 노동력 수출을 전담하는 국가기관이었다. 즉 한국은 1980년대 초까지 적극적으로 노동력을 수출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1988년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아시아의 주요한 노동력 유입국가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이후 2007년 이주민 100만 시대를 넘어 2017년 이주민 200만 시대를 맞이하였고, 2021년 11월 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은 총인구의 4.1%이다(행정안전부, 2022a). 그 동안 한국의 이주민 정책은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한국적인 다문화 환경의 특수성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다. 현재 한국의 이주민 정책은 다문화주의 담론을 넘어 실제로 시도되고 실험될 수 있어야 한다. 즉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공론장을 넘어 실제의 시공간으로 확장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2011년 다문화교육센터에서 잉태된 다문화융합연구소는 이주민 정책에 집중하여 한국의 건강한 다문화 사회화를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다. 다양성이 존중받는 다문화 사회화에서는 누구나 소수자가 될 수 있으므로 다문화융합연구소는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세상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질적연구방법에 집중하고 있다. 논문에서 연구방법이란 연구자가 연구주체를 가장 효율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방법은 논문에 있어 핵심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생애사 연구는 1918년부터 1921년까지 시카고학파의 Thomas와 Znaniecki가 “The polish Peasant in Europe and America”이라는 폴란드 이주농업 노동자에 관한 총 5권의 생애사를 출판한 이후 미국, 유럽 등지에서 주요한 사회연구방법으로 자리잡고 있다(양영자, 2013: 271). 이에 따라 생애사에 관한 연구방법을 살펴보면, Clandinin & Connelly(2000), Mandelbaum(1973), Merriam(2009), Rosenthal(2008), Schütze(1987) 등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생애사 연구는 1990년대 초반, 역사학, 인류학, 사회학 등 인접 사회과학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이희영, 2005: 122), 사회복지학 분야에서는 이보다 더욱 늦은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의 생애사 연구는 학문 분야 간 연구 시점에는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태동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양영자, 2013: 272). 이를 증명하듯 주로 질적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다문화융합연구소의 생애사에 관한 연구는 2016년 시작되어, 2022년 12월 현재 총 8편(정경희, 2016; 배경임, 2018; 황해영, 2018; 남혜경, 2020; 허숙, 2020; 어경준, 2021; 이춘양, 2021; 채은희, 2021)에 머물러 있다. 이를 연구참여자 중심으로 살펴보면, 미인가 대안 학교장(정경희, 2016), 이주민 기관 종사 개신교 성직자(배경임, 2018), 북한이탈주민(최희, 2018),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황해영, 2018; 이춘양, 2021; 채은희, 2021), 독일 이주 한인 간호사(남혜경, 2020), 이주민 사업가(허숙, 2020), 줌머족 난민(어경준, 2021)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즉 다문화융합연구소의 생애사 연구는 ‘이주’를 중심으로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때로는 한국의 이주민을 돕는 기관 종사자, 대안학교로 이주한 교사도 포함되었다. 이처럼 다문화융합연구소는 누구나 이주를 경험할 수 있는 현시대의 맥락을 이해하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창조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었다. 이에 지속적인 다문화융합연구소의 무궁한 발전과 생애사 연구의 성장을 위한 제안과 함께 본 연구가 지니는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주제 및 참여자의 점검 및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다문화융합연구소의 연구주제와 연구참여자는 주로 이주 및 이주민에 머물러 있으므로, 추후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연구주제와 연구참여자의 선정이 요구된다. 이는 다문화 사회란 한 사회나 한 국가 속에 다른 민족·인종·계급 등 여러 집단이 지닌 문화가 함께 존재하는 사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문화융합연구소의 나아갈 방향으로는 연구주제 및 연구참여자의 다각화를 통하여 사회 구성원간의 소통과 공감을 불러 일으키기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주민-이주민 뿐만 아니라 새롭게 등장하는 소수자 등과 함께 한국 사회 구성원들 간 연대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본 연구의 참여자는 한국인 방문교육지도사인데, 이들을 통해 이주민 학습자(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어 교육 등을 매개로 이주민 학습자를 만나고, 진정한 대화를 나누며 정신적 동반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이는 다문화 사회화하는 한

국의 이주민 정책의 나아갈 방향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되는 정주민-이주민 간의 통합 관점은 큰 의의를 지닌다.

둘째, 연구방법에 있어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 2022년 12월 기준, 다문화융합연구소의 생애사 연구는 주로 Clandinin & Connelly(2000), Merriam(2009) 등에 머물러 있는데, Mandelbaum(1973), Rosenthal(2008), Schütze(1987) 등으로의 확장 및 적용이 필요하다. 특히 연구방법의 적용에서는 연구주제 또는 연구현장의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 연구방법을 적용함으로써 해당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인간의 삶은 시대적 환경과 맥락을 벗어나기 어려움으로 신봉자(2019)가 제시한 연구참여자의 lifelines처럼 시대적 데이터가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본 연구는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과 맞물리는 직업으로써 방문교육지도사의 생애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생애사적 내러티브 탐구를 연구방법으로 선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과 이에 따른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더욱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었다. 예컨대 본 연구의 생애사적 내러티브 탐구는 1960년대 생, 연구참여자들의 삶에서의 선택과 경험 등을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이 이들의 삶의 경험과 의미를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게 하도록 하였다는 데에서 본 연구의 차별성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의 타자성 경험과 실천을 내러티브 탐구의 3차원적 탐구 공간인 시간성, 공간성, 관계성 차원에서 살펴보고, 그 의미를 찾아 제시함으로써 방문교육지도사의 역할과 경험 등에 대하여 입체적으로 전달하였고, 이들의 돌봄 실천이 갖는 의미를 다각적 관점에서 제시하였다는 데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셋째, 연구를 시작하기 전, 연구자의 자기 생애사 쓰기 과정이 필요하다. 생애사는 그저 한 개인이 살아온 것을 나열하는 것이라고 간단히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생애사의 내면에는 개인이 지나온 시대를 다양한 시각으로 탐색할 수 있고, 또 지나온 사회의 드러나지 않은 이면을 알 수 있게 하는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강규희, 2016: 7). 따라서 생애사에서 연구참여자들은 그들이 살아온 시대적 맥락과 사회적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 줄 수 있는 증인들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생애사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는 주요한 정보원이므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간의 진실된 관계 형성이 요구된다. 즉 생애사 연구에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의 친밀하고 진솔한 관계는 연구의 질을 보장하는 기제가 되기 때문이다(안현아, 2020; Cole & Knowles, 2001; Measor &

Sikes, 1992). 따라서 ① 생애사를 연구하기 전, 연구자는 자신의 생애사를 적어볼 것을 권한다. 예컨대 상·하반기 진행되는 다문화융합연구소의 질적연구 캠프(3~5일)기간 중 자기 생애사 쓰기 과정의 접목을 제안한다. 이는 논문 작성시, 연구자의 자전적 내러티브로써 필요한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 ② 또한, 이를 통해 생애사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게 자신의 생애사를 제시하는 생애사 연구의 기본 예의를 지킬 수 있다. 이는 공중 목욕탕의 세신사(때밀이)가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어 맞춤 복장을 착용하듯이 생애사 연구에 있어 연구자의 기본 예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생애사 연구를 시작하며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자의 자기 생애사를 제공하였는데, 이는 연구참여자들이 연구자와 깊은 라포를 형성하고,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기폭제가 되었음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③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자는 단순 자료약탈자로서 연구참여자와 관계를 맺기보다 연구를 기회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간 서로에게 침투하여 깊은 신뢰와 동반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또한, 이는 연구참여자에게 방문교육지도사로서의 직업 생애 경험을 진솔하게 토로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연구참여자들의 풍성한 내러티브는 질적연구로써 본 연구의 질적 수준을 한층 높여 주었다. 이는 본 연구가 지니는 가장 큰 질적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다문화주의를 논하는 담론의 주인공에서 실질적인 다문화적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을 통해 실제적 삶의 변화를 꾀하려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하고, 이들의 직업으로써 방문교육지도사의 타자성 경험과 실천의 의미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생애사적 내러티브 탐구의 중요성이다. 특히 중년여성 연구참여자들은 본 연구를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즉 내러티브 탐구의 과정에서 ‘살아내기-이야기하기-다시 이야기하기-다시 살아가기’를 경험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1960년대 남아선호사상에 따른 가정 경제의 자원 배분에서 차별과 배제가 있었지만 이에 묵묵히 순응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결혼과 출산, 자녀 양육 등 가정 내 성역할을 마치고 고등교육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2000년대 방문교육사업에서 공적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렇게 이들은 한국 다문화 사회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할 수 있었다. 특히 중년여성의 삶의 경험에 기반한 포용력은 다문화 현장에서 지혜로 나타났고, 이는 이들에게 보람과 행복, 꿈의 실현, 정신적 동반자를 얻는 등 큰

의미가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에 속하는 연구참여자들은 본 연구를 통해 지난했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기회가 되었고, 다시 살아낼 동력을 얻게 되었다. 이처럼 베이비붐 세대가 자신의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다시 살아갈 동기를 찾을 수 있도록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자기 생애사 쓰기 중년 과정’ 을 제안한다.

둘째, 생애사 연구를 통한 해당 세대에 대한 이해이다. X세대, MZ세대 등의 명명은 세대 간 구분짓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동물이다. 생애사에는 연구참여자가 살아온 시대의 사회·경제·정치 등이 이들의 삶에 녹아 있다. 이에 생애사는 해당 세대의 삶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생애사 연구는 세대 간 서로를 이해하는 사회통합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생애사 연구를 통해 현재 신세대가 혐오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태극기 부대의 삶 여정을 알게 된다면, 신세대가 그들의 현재 행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세대 간 소통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통합을 위한 정주민-이주민간의 통합 관점이 필요하다. 원숙연(2008)은 한국의 이주민 정책에서 정주민-이주민 간 통합의 관점을 찾기가 쉽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정주민을 대표하는 방문교육지도사의 타자성 경험과 실천을 탐색하여 이주민을 대표하는 결혼이주여성과의 만남과 관계 맺음을 통한 정신적 동반 관계를 발견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의 다문화 사회화를 준비하는 이주민 정책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상호문화 역량은 실천이다. 여러 학자들은 이주의 시대를 맞이하여 이주민과 정주민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서 사회구성원이 길러야 하는 역량으로 상호문화 역량을 꼽았다. 상호문화 역량(intercultural competency)이란 문화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식별하는 능력, 다른 문화의 관점에서 자신의 사고와 행위를 성찰하는 능력, 문화 다양성을 반영하여 의사소통하는 능력, 타문화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인정하는 능력, 다른 문화 출신의 구성원과 협력하여 사회공동체를 이루는 능력 등이라 하였다(조상식·이종하, 2006: 54).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임을 확인하였다. 예컨대 공자는 논어에서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물음인데, 이에서 ‘익히다’ 는 ‘새가 날기 위해서는 백 번 익혀야 함’ 을 의미한다. 즉 배운 것을 내 삶에서 실천

하는 자세를 의미한다(김영순, 2021). 따라서 상호문화 역량의 실천은 시대를 초월하여 다문화시대를 살아가는 현재의 사회구성원에게 삶의 방향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정주민-이주민 간 관계 맺기를 위한 장(場) 마련이다. 방문교육은 연구참여자와 결혼이주여성인 한국어 교육을 매개로 만나고 대화하며 긍정적인 관계 맺기의 장이었다. 따라서 정주민-이주민 간의 만남과 소통의 장을 마련함은 다문화시대를 위한 준비가 될 것이다. 특히 미래를 살아가야 하는 한국 청소년들이 이주배경 청소년을 돕는 과정에서 성장이 일어나도록 교학상장(敎學相長)의 장을 마련함은 미래를 위한 현 세대의 과제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정주민-이주민 간에 영혼의 만남과 속삭임을 경험하게 된다면, 한국의 다문화 사회화는 피부색을 넘어서 사회구성원의 성장을 돕는 큰 디딤돌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규희(2016). 자녀양육 직장여성들의 생애사 연구, -공공기관 20년 이상 근무 여성들을 중심으로 -. 대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강선보(1999). 마르틴 부버의 만남의 교육. 서울: 양서원.
- 강영미(2015). 필리핀결혼이주여성의 ‘자기 복원’ 생애사-로젠탈의 내러티브 분석 접근, 한국 사회복지질적연구, 9(1), 115-136.
- 강영안(1999). 레비나스: 타자성(他者性)의 철학, 엄정식 외, ‘현대철학특강’, 철학과 현실사, 147-166.
- 강영안(2005). 타인의 얼굴, 서울: 문학과 지성사.
- 강희경·이용진(2010). 직업과 진로설계 단원의 교수학습 지도안, 직업교육연구, 29(1), 169-190.
- 고인아(2003). 여성의 생애단계별 평생직업교육의 실태분석, 평생교육연구원, 9(3), 247-273.
- 교육부(2022). 2022년 교육기본통계 교육안정정보국 교육통계과, 2022. 8. 30.
- 구차순(2007).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족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0, 319-360.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7). 2017 평생교육백서.
- 권경숙·봉진영(2012). 다문화가정 부모교육지도사의 실제적인 역할과 다문화 가정방문지도 경험의 의미, 2012학년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 권경숙·봉진영(2013).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지도사의 실제적인 역할과 어려움에 관한 탐구, 유아교육연구, 33(3), 59-81.
- 김가울(2007).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노동시장행위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3(2), 1-27.
- 김대군(2008). 다문화 사회에서 소수자 배려윤리, 윤리교육연구, 24, 185-198.
- 김민경·이정미(2018).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성찰적 글쓰기 프로그램이 자기인식, 자기성찰 및 자존감에 미치는 효과: 상담심리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1), 1-22.

- 김병극(2012). 내러티브 탐구의 존재론적, 방법론적, 인식론적 입장과 탐구 과정에 대한 이해. *교육인류학연구*, 15(3), 1-28.
- 김소연·정희숙(2015). 한 중년여성의 진로구성 과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5), 265-282.
- 김연숙(1997). Levinas의 타자성의 윤리에 관한 연구. *국민윤리연구*, 37(1), 393-410.
- 김연숙(2001). 레비나스 타자 윤리학, 서울: 인간사랑.
- 김연숙(2018). 레비나스의 『존재와 다르게-본질의 저편』 읽기, 서울: 세창미디어.
- 김영선(2019) 이주민 환대의 당위성: 우리도 이방인이었다!, *神學展望*, 205, 광주 카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157-199.
- 김영순(2021). 시민을 위한 사회·문화 리터러시, 서울: 박이정.
- 김영순·김진희·강진숙·정경희·정소민·조진경·조현영·최승은·정지현·오세경·김창아·김민규·김기화·임한나(2018). *질적연구의 즐거움*, 서울: 창지사.
- 김영순·박병기·진달용·임재해·박인기·오정미(2022). *다문화 사회의 인문학적 시선*, 서울 : 연두.
- 김영순·응웬 반 히에우 외(2013). *베트남 문화의 오디세이*, 서울: 북 코리아.
- 김영순·최승은·김정희·황해영·박봉수(2019). *동남아시아계 이주민의 생활 세계 생애담 연구*, 서울: 북코리아.
- 김영천(2013). *질적연구방법론 II: Methods*. 경기: 아카데미프레스.
- 김영천·이현철(2017). *질적연구: 열다섯 가지 접근*,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김용신(2011). 다문화소수자로서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 정체성: 글로벌 정의는 가능한가? *사회과교육*, 50(3), 한국 사회과학교육연구학회, 17-27.
- 김용환·조영제(2000). 관용을 위한 가치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30, 51-80.
- 김정희(2017). 요양보호사의 인정투쟁과 사회적 인정: Axel Honneth의 인정이론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43(3), 323-351.
- 김중로(2014). 취업진로지도의 인문학 상담, *인문과학연구*, 43, 305-323.
- 김지혜(2020).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청년의 삶에 대한 생애사 연구, *다문*



화 사회연구, 13(2), 65-105.

- 김필성(2019). 내러티브 탐구과정에서의 의미에 대한 고찰, 내러티브와 교육 연구, 7(2), 54-71.
- 김희근(2018). 부버와 레비나스의 타자론 시각에서 바라본 야콥 바서만의 세계 구원 이념, 독일언어문학, 82, 227-247.
- 남미순(2015). 왓슨과 인간 돌봄 이론, 범한철학, 78, 405-429.
- 남순현(2009). 중년기 기혼여성의 성과 일에 대한 태도가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비교, 인간발달연구 16(1), 197-222.
- 남정연·김영순(2022).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의 돌봄 서비스: 실천에 관한 의미 탐색,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1(2), 179-205.
- 노대원·이소영·황임경(2022). 위태로운 시대의 취약성 연구 - 취약성 개념의 초학제적 탐색, 비교한국학, 30(1), 15-41.
- 노상우·권희숙(2009). 타자의 타자성의 교육학적 메시지: E. Levinas의 철학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47(4), 한국교육학회, 1-25.
- 노상우·권희숙(2010). Buber와 Levinas의 ‘관계의 철학’에 내포된 교육적 함의. 교육의 이론과 실천, 15(2), 47-67.
- 노상우·안오순(2008). ‘타자성 철학’의 현대교육학적 함의 - Derrida를 중심으로, 교육철학, 42, 135-156.
- 노영혜·김원중(2019).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역할적용 과정: 근거이론적 접근, 복지상담교육연구, 8(2), 175-203.
- 도미향·주정·최순옥·이무영·송혜자·장미나(2019). 건강가정론, 서울: 신정.
- 맹주만(2019). 레비나스의 윤리적 주체와 공감적 타자, 칸트연구, 44, 35-60.
- 박병섭·정용미(2021). 결혼이주 필리핀여성의 한국에서 반평생 살아가기 생애사, 디아스포라연구, 15(1), 43-82.
- 박영선·안자영·남인순·김영경·박세호·이문영·신미자·김정실·한미순·이창주·조은형(2020). 양육태도의 세대 간 차이: 원가족 부모가 성인자녀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26(3), 729-756.
- 박옥현(2017).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기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과 관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옥현(2021). 중도입국 청소년의 교육복지에 관한 국내학술지 연구통향의 탐색적 고찰,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3), 203-228.
- 박옥현(2022a). 모국 언어문화를 병용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문해력 지도, 문화와 융합, 44(5), 99-118.
- 박옥현(2022b). 생활 소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에 관한 연구, 언어와문화, 18(3), 93-116.
- 박옥현·김영순(2022a). 전래동화를 활용한 다문화가정 부모 자녀 탄뎀학습 모델에 관한 연구, 언어와문화, 18(1), 77-102.
- 박옥현·김영순(2022b). 중년여성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의 직업 생애사 연구, 문화예술교육연구, 17(3), 149-173.
- 박옥현·오영섭(2022). 중도입국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국내학술지 연구동향 탐색, 청소년시설환경, 20(1), 17-28.
- 박완서(2002). 두부, 서울: 창작과비평사.
- 박용순·배극수·강창교·권영길·길옥연·박준섭·서인균·이광석·이영주·이영희·장우심·전대성·정현대·조영순(2012). 사회복지조사론, 서울: Pacific Books.
- 박재규(2011).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가족해체 원인 및 특성 분석: 경기지역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1(3), 104-139.
- 박정혜·강세원(2022). 직장 여성의 연령대별 주관적 행복감과 관련된 요인: 청년층과 중년층을 중심으로,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4(1), 165-178.
- 박진옥·이광동(2014). 다문화가족 부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정내역할유형 및 젠더의식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6(1), 205-236.
- 방현희·이미정(2014).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역할과 교육경험에 관한 연구, 열린교육연구, 22(1), 217-238.
- 배나래(2018). 생애주기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9(8). 268-275.
- 배경임(2018). 이주민 봉사 기관 재직 개신교 성직자의 타자성 실천에 관한

- 생애사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배경임·김영순(2019). 이주민지원센터 재직 개신교 성직자의 타자성 형성에 관한 생애사 연구, *교육문화연구*, 25(5), 1053-1073.
- 봉진영·권경숙(2013). 부모교육지도사의 다문화가정 방문지도 경험의 의미 탐색, *교육연구*, 56, 69-105.
- 석영미·이병준(2017). 이주민활동가들의 학습생애사연구, *문화예술교육연구*, 12(6), 한국문화교육학회, 45-67.
- 설동훈(2004). 한국의 외국인 노동운동 1993-2004: 이주노동자의 저항의 기록, 최협 외,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 469-487.
- 설동훈·이혜경·조성남(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006.
- 성정숙(2010). 레즈비언 생애사 연구, 사회복지 이론과 실천의 비판적 확장,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손재현(2021). 소외당하는 이주민에 대한 타자윤리학적 접근, *도덕윤리과교육*, 73,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449-473.
- 손제령·김경화(2009).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의 역할갈등과 역할보호성, *사회과학논총*, 8, 13-31.
- 신봉자(2019). 베이비부머세대 임상간호사의 생애사적 내러티브 탐구, 가천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안현아(2020). 양육미혼모의 생애사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안형숙(2016). 통합학습 유아교사의 통합교육 전문성 내러티브 탐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양영자(2013). 내러티브 생애사 인터뷰 분석의 실제: 재독한인노동이주자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복지학*, 65(1), 271-298.
- 양천수·최샘(2020). 타자에 대한 책임의 근거: 레비나스의 철학을 예로하여, *법철학연구*, 23(1), 169-208.
- 어경준(2021). 줌머난민의 이주 생애와 인정투쟁에 관한 질적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여성가족부(2021a).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22.3.

- 여성가족부(2021b). 2021년 가족지원 사업안내 2권,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22). 2022년 가족지원 사업안내 1권, 서울: 여성가족부.
- 염지숙(2011). 다문화 교실에서 돌봄 공동체 구축을 위한 유아교사의 교수실천, 열린유아교육연구, 16(5), 87-108.
- 오경석(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 현실과 쟁점, 한울, 21-56
- 우태식·김창래(2015). 자원봉사활동의 유래를 통한 행정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한 고찰, 한국행정사학지, 37, 103-137.
- 우치다 타츠루(2013). 레비나스와 사랑의 현상학, 이수정 옮김, 서울: 갈라파고스.
- 유기웅·정종원·김영석·김한별(2018). 질적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스토리.
- 유명기(2004). 소수자, 그 무적의 논리. 최협 외.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 9-20.
- 윤석빈(2006). 마틴 부버의 대화원리-인간 실존의 토대로서의 대화, 동서철학연구, 42, 271-294.
- 윤석빈(2019). 언어공동체 존재의 토대로서 실존적 대화, 철학연구, 149, 297-341.
- 윤인진(2016). 다문화 소수자에 대한 국민인식의 지형과 변화, 디아스포라연구, 1(1), 125-154.
- 윤인진·김춘석·김석향·김선화·김화순·윤여상·이원용·임순희(201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국민인식 및 차별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과제 최종보고서.
- 윤희진(2012). ‘마을의 변화와 여성의 삶’ 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나는 연수구의 자원봉사자 김창희입니다, 인문과학연구, 32, 231-260.
- 원숙연(2008). 다문화주의시대 소수자 정책의 차별적 포섭과 배제, 외국인 대상 정책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접근, 한국행정학보, 42(3), 한국행정학회, 29-49.
- 이병준·석영미(201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의 직업 생애사 연구: 문화적 학습을 통한 전문성형성과정을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18,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329-362.
- 이병준·이유리(2014). 예술강사의 직업 생애사 연구, -학교문화예술교육 무

- 용강사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연구 9(5), 1-20.
- 이부영(2008). 자기와 자기실현, 서울: 한길사
- 이상춘(2003). 다시 태어나는 중년, 서울: 한문화.
- 이선옥(2007).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운동과 다문화주의,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식과 쟁점」, 한울, 81-107.
- 이선정(2019).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 교육활동경험 의미 탐색,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성희(2021). 다문화공동체의 타자 윤리,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12(1), 인문사회21, 2925-2940.
- 이수안(2008). 이주 여성의 타자성과 관용의 상호 발현에 대한 이론적 모색: 재독 한인 여성의 이주 정착 과정을 중심으로, 사회와 이론, 12, 73-108.
- 이오복(2014).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의 직업경험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15(10), 6092-6101.
- 이용수(2017). 서구적 근대화와 한국 가족공동체의 변화 - 건강하고 조화로운 가족공동체 문화의 출발점, 평화학논총, 7(1), 80-111.
- 이은정(2018). 결혼이주여성의 노동 경험과 의미 - 대구·경북 이주민과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 13, 183-214.
- 이정빈(2018). 질적연구방법과 상담심리학, 서울: 학지사.
- 이종범(2008). 다문화시대의 소수자 행정과 정책, 한국행정학보, 42(3), 한국행정학회, 1-7.
- 이종구·조은상·김홍유(2009). 한국 직업변천사의 시대별 특성 비교분석에 관한 탐색적 연구 - 해방이후(1945) ~ 현재(2009)까지 -, 경영사 연구, 24(4), 79-109.
- 이춘양(2021). 한부모 이주여성 삶의 성장경험에 관한 생애사적 내러티브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춘양·김영순(2020) 가정해체를 경험한 이주여성의 자녀 언어학습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열린교육연구, 28(1), 19-46.
- 이한샘(2020). 중도입국자녀 대상 방문교육지도사의 상호문화적 실천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효성·고그림(2014). 장애인의 돌봄충족과 돌봄서비스 이용실태 및 결정변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8), 207-219.
- 이희영(2005). 사회학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행위이론의 관점에서 본 이론적 의의와 방법론적 원칙, 한국 사회학, 39(3), 120-148.
- 장사형(2013). 내러티브에 기초한 인간학의 방향. 교육철학, 51, 65-91.
- 장임숙(2011). 이주민소수자 정책의 정향과 정체성, 이주노동자의 결혼이주 여성에 관한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3(1), 145-166.
- 전보람(2017). 레비나스의 타자윤리학을 통해 살펴본 다문화복지실천가의 경험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신희(2018). 방문교육지도사들의 경험을 통해 본 다문화가족정책의 돌봄관리체계,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여성학논집, 35(2), 201-232.
- 정경희(2016). 대안학교장의 실천적지식 형성과정과 표출양식에 관한 생애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정신희(2020).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돌봄시민성 형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영기(2018). 다문화 사회의 공감적 이해를 위한 철학적 연구, 한국동서철학회, 89, 519-540.
- 정용미·박병섭(2021).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생애사연구, 스스로 서서 삶을 구성하다,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6(2), 1-25.
- 정정호·박선경(2020) 제인 에어와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유형—사르트르, 부버, 레비나스의 타자이론을 중심으로, 영어영문학21, 24(4), 1-29.
- 정혜실(2007). 파키스탄 이주노동자와 결혼한 여성들의 이야기. 오경석.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 167-196.
- 조민술(2021). 중년기 여성의 박사과정 학습체험 연구, 평생교육연구 27(4), 185-214.
- 조복현·도현심·유가현(2013). 개정2판 인간발달, 서울: 교문사.
- 조상식·이종하(2006). ‘문화간 이해 교육’의 교육 이론적 개념과 그 실천적 함의-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7(2), 45-64.
- 조성남·이현주·주영주·김나영(2011). 질적연구방법과 실제, 서울: 그린.

- 조영아(2013).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의 활동 경험과 직무역량 개발, *다문화콘텐츠연구*, 14, 115-162.
- 주영옥·김미원(2013).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직무환경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직무스트레스이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채은희(2021). 중년기 중국동포 이주여성의 노후준비에 관한 생애사적 내러티브,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천성문·박명숙·박순득·박원모·이영순·전은주·정봉희(2009). *상담심리학의 이론과 실제(제2판)*, 서울: 학지사.
- 최샘·정채연(2020). 데리다의 환대의 윤리에 대한 법철학적 성찰, *중앙법학*, 22(1), 41-91.
- 최은영(2016). 여성의 연령별 취업형태, 직업 및 소득 수준, *아시아여성연구* 55(2), 29-56.
- 통계청(2022a).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2020~2040년, *사회통계국, 인구통계과 보도자료*, 2022.4.14.
- 통계청(2022b). *다문화 인구동태 동계,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보도자료*, 2022.11.3.
- 한동균(2011). 다문화 사회에서 소수자교육의 의미와 접근법, *글로벌교육연구*, 3(2), 107-132.
- 행정안전부(2022a). 202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2021년 11월 1일 기준, *사회통합지원과*, 2022년 10월 31일.
- 홍영숙(2019). ‘관계적 탐구’로서의 내러티브 탐구, *질적탐구*, 5(1), 81-107.
- 황수경(2012). 베이비붐 세대 이행기의 노동시장 변화 정책연구시리즈, 2012-5.
- 황해영(2018). 재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의 생애경험 탐구- 인정투쟁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 *인하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황해영·김영순(2017a). 재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의 일상생활에 나타난 인정투쟁 경험과 의미, *교육문화연구*, 23(4), 459-479.
- 황해영·김영순(2017b). 재한 중국동포 여성단체장의 생애사에 나타난 소수자의 인정투쟁,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9), 508-518.

- 허숙(2020). 제한 이주민 사업가의 사회통합 경험에 관한 생애사적 사례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허숙 · 김영순(2021). 제한 이주민사업가의 생애사를 통해 본 사회통합 경험에 관한 연구, 문화교류와다문화교육, 10(1), 103-132.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 5-61.
- Bruner, E. (1986). Experience and Its Expression. In V. Turner and E. Bruner(eds.), *The Anthropology of Experience*. (pp.3-30).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Buber, M. (1954). *나와 너 [Ich und Du]*. (표재명 역, 1993; 1995; 2001). 서울: 문예출판사.
- Castles & Miller (2003). *The Age of Migration :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 Chance, P. (2009). *학습과 행동 [Learning & Behavior]*. (김문수 · 박소현 옮김).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은 2003에 출판).
- Clandinin, D. J. & Connelly, F. M.(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 Clandinin, D. J. & Connelly, F. M.(2007). *내러티브 탐구: 교육에서의 질적연구의 경험과 사례* (소경희 · 강현석 · 조덕주 · 박민정 역). 서울: 교육과학사
- Clandinin, D. J. (2012). *내러티브 탐구를 위한 연구방법론 [Handbook of narrative inquiry Mapping a Method]*. (강현석 · 소경희 · 박민정 · 박세원 · 박창언 · 염지숙 · 이근호 · 장사형 · 조덕주 역). 서울: 교육과학사.
- Clandinin, D. J. (2015). *내러티브 탐구의 이해와 실천 [Engaging in Narrative Inquiry]*. (염지숙 · 강현석 · 박세원 · 조덕주 · 조인숙 역), 서울: 교육과학사.
- Clandinin, D. J. & Murphy, M. S. (2009). Relational ontological commitments in narrativeresearch. *Educational Researcher*, 38(8), 598-603.
- Connelly, F. M. and Clandinin, D. J. (2006) *Narrative Inquiry: A Methodology for Studying Lived Experience*. *Research Studies in Music Education*, 27, 44-54.



- Creswell, J. W. (1997). *질적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조홍식·정선욱·김진욱·권지성 역 (2010). 서울: 학지사.
- Creswell, J. W. (2011). *연구방법: 질적, 양적 및 혼합적 연구의 설계(3판)* (김영숙·류성림·박관우·성용구·성장환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원저 2009년 출판).
- Derriad, J. (2005). *The Principle of Hospitality*, Parallax, 11(1).
- Dewey, J. (1938). *Experience and education*. The Later Works, 13, 1-62
- Dewey, J. (2019). *존 듀이의 경험과 교육* (엄태동 역저). 서울: 박영사.
- Fisher, Berenice, and Joan C. Tronto (1990), *Toward a Feminist Theory for Caring*, In E. K. Abel and M. K. Nelson(eds.), *Circles of Care: Work and Identity in Women's Lives*, Albany: SUNY Press, 35-62.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Ginzberg, E., Ginzberg, S. W., Axelord S., & Herma, J. (1951). *Occupational Choice An Approach to a General The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Heidegger, M. (1972). *Sein und Zeit*, Tübingen: Max Niemeyer Verlag.
- Honneth, A. (2011). *인정투쟁*, 문성훈·이현재 옮김, 서울: 사월의 책. (원전은 1992년에 출판).
- Husserl, E. (1962). *Die Krisis der Europäischen Wissenschaften und die Transzendente Phänomenologie. Eine Einleitung in die phänomenologische Philosophie*, hrsg. v. W. Biemel, Den Haag: Martinus Nijhoff.
- Kittay, E. F. (2016). *돌봄: 사랑의 노동-여성, 평등, 그리고 의존에 관한 에세이* [Love's Labor: essays on woman, Equality and Dependency]. (김희강·나상원 역). (원전은 1999년 출간). 서울: 박영사.
- Levinas, E. (1961). *Totality and Infinity* (Alphonso Lingis Trans., 1991). Netherlands: Kluwer Academic Publishers.
- Levinas, E. (2000). *윤리와 무한, 필립 네모와의 대화*. 양명수 번역, 서울:

다산글방.

- Levinas, E. (2001). 시간과 타자, 강연안 옮김, 서울: 문예출판사.
- Levinas, E. (2003). 존재에서 존재자로, 서동욱 옮김, 서울: 민음사.
- Levinas, E. (2018). 전체성과 무한: 외재성에 대한 에세이. 김도형 · 문성원 · 손영창 옮김, 서울: 그린비. (원저 2000년 출판).
- Lincoln, Y & Cuba, E. (1985). *Naturalistic Inquiry*. Sage.
- Levinson, D. J. (2012). 여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 [The seasons of a woman's life]. (김애순 역).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 MacIntyre, A. (1984). 덕의 상실 [After Virtue]. Notre Dame, Indiana: University of Notre Dame. 2nded. 이진우 역(1977). 서울: 문예출판사.
- Mead, G. H. (1963).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erriam, S. B. (2009),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to design and implementa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Noddings, N. (1984). *Caring: A feminine approach to ethics & moral educ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Noddings, N. (1992). *The challenge to care in schools: An alternative approach to education*.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Pinnergar, S. & Dayes, J. G. (2007). *Handbook of narrative inquiry: Mapping a methodology*. CA: Sage.
- Roberts, B. (2002). *Biographical research*, Buckingham & Philadelphia: Open University Press.
- Rosenthal, G. (2008). *Interpretative Sozialforschung. Eine Einfhrung(2)*. Weinheim und Munchen: Juventa.
- Rosenthal, G. (2014). *Interpretative sozialforschung* Beltz Juventa.
- Sadler, W. (2006). 서드 에이지, 마흔 이후 30년 [The third Age]. (김경숙 역). 서울: 사이. (원전은 2001에 출판).
- Schütze, F. (1983). *Biographieforschung und narrative Interview*. In: *Neue Praxis*, H.3, S. 282-293.

- Super, D. E. (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8, 185-190.
- The Care Collective (2020). 돌봄 선언: 상호의존의 정치학 [The Care Manifesto]. (정소영 역). 서울: 니케북스. (원전은 2020에 출판)
- Tronto, J. C. (2013). 돌봄 민주주의 [Caring Democracy: Markets, Equality, and Justice], (김희강 · 나상원 옮김). 서울: 아포리아.
- Walzer, M. (1997). *On Toleration*, Yale Univ, Press.
- Watson, J. (2003). Love and Caring: Ethics of face and Hand—An Invitation to Return to the Heart and Soul of Nursing and our Deep Humanity. *Nurs Admin Quarterly*. 27(3).
- Zunker, V. G. (1981). *Career Counseling: Applied Concepts of Life Planning*, California: Books/Cole Publishing.
- 공공데이터 포털 (2022). 데이터 상세 | 공공데이터포털 (data.go.kr)/ 검색일: 2022.2.18.
- 교육부(2020). 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검색일: 2022.11.7.
- 국제한국어 교육자협회(2022). 국제한국어 교육자협회 (iakll.or.kr)/ 검색일: 2022.11.25.
- 동화읽는어른(2022). 광명 동화읽는어른모임 (naver.com)/ 검색일: 2022.09.30.
- 좋은날(2022). <https://rjcats.tistory.com/311/> 검색일: 2022.4.3.
- 통일부(2020). 북한이탈주민통계 최근현황< 현황< 북한이탈주민정책< 주요사업 < 통일부 (unikorea.go.kr)/ 검색일: 2022.12.16.
-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22).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 \(kihf.or.kr\)](http://kihf.or.kr)/검색일: 2022.2.17.
- 행정안전부(2022b). 국가기록원>검색결과 (archives.go.kr)/검색일: 2022.11.25.
- 호운(2022). howun (daum.net)/ 검색일: 2022.4.15. .
- e-나라지표(2022). e-나라지표 지표조회상세 (index.go.kr)/검색일: 2022.09.30.

## Abstract

# A Narrative Study on the Experience and Practice of Otherness in the Life History of Visiting Educators for Multicultural Families

Ok-hyun Park

Ph. D. Dissertation

Directed by Prof. Sungmin Chang

Directed by Prof. Youngsoon Kim

Dept.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ha University

December, 2022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meaning on the experience and practice of their otherness by exploring the life-historical narratives of visiting educators in multicultural families. Visiting educator for multicultural families is a new job that has appeared in Korean society since the end of the 2000s for the purpos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meantime, visiting educators have been practicing otherness by meeting and talking with marriage migrant women and their families through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ir care for multicultural families can be seen as contributing to the stabilization of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When recognizing the unfamiliar other is called otherness, the discussion on the other is newly emerging in the current situation in Korea where the number of immigrants is increasing. In the meantime, Korea's immigration

policy has separated marriage migrant women, foreign workers, refugees, and North Korean defectors from residents and divided them into us and others. Accordingly, it was not easy to find a perspective of integration between residents and migrants in Korea's immigration policy.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meaning of experience and practice of otherness by exploring the life-historical narratives of visiting educators who play a role of helpers for the stable settlement of multicultural socialization in Korea.

To this end, among middle-aged women born in the 1960s, four visiting educators with more than 10 years of field experience were selected as research participants, and face-to-face in-depth interviews (100-120 minutes per session) were conducted twice and data reviewed twice (per session, 40 to 60 minutes) and so on. The data collected in this way explored the narrative of the visiting educator according to the three-dimensional narrative exploration space. Through this data analysis, the meaning on the experience and practice of otherness for the visiting educators was derived.

The life narratives of visiting educators were classified into the pre-visiting educator period and the visiting educator period. The life stories of the visiting educators selected for this study we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difference in family environment. Nonetheless, visiting educators born in the 1960s had something in common, such as experiencing conventional thinking based on male preference. In other words, they experienced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because they were daughters, not sons, in a poor family economic environment. However, they did not miss the dream they wanted to achieve and their passion for learning, and provided opportunities for higher education when they reached middle age. As a result of their constant development, they were able to join the multicultural home visiting education project that started in the 2000s. Their

life experiences like this became the basis for the practice of otherness by rightly acknowledging and embracing the strange other, marriage migrant women. In response, the research participants took care of the meals of married immigrant women who were shunned by Korean multicultural families, soothed their loneliness like their own mothers, and guided them on their home economy as well as their career paths. have been working diligently.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explored the three-dimensional exploratory space (temporal dimension, spatial dimension, relational dimension) of narrative inquiry in exploring the narrative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Accordingly, in the cycle of experience and practice of otherness in the dimension of time, meanings were derived as 'recognition of otherness through family love', 'repayment of debt of love', and 'flow on the experience and practice of otherness'. In the expansion of the experience and practice of otherness in the dimension of space, the meanings of 'visiting educator's nest', 'from Korean families to multicultural families', and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o community spaces' were derived. Lastly, in the deepening of experiences of otherness and practical relationships in the relational dimension, 'Deepe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visiting educators and marriage immigrant women', 'expanding the relationship of otherness to the marriage immigrant woman's family', and 'reestablishing the relationship of the other within herself' has been derived. In particular, the visiting educators went beyond the educator-learner relationship in their occupation, and had a relationship of mental companionship, asking each other's well-being and wishing for a peaceful life for about 10 years. In addition, through the life of caring for multicultural families, visiting educators realized their dreams (teacher, diplomat, counselor, etc.), confirmed the pleasure of work.

Accordingl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rough the exploration of the life-historical narratives of visiting educators, their specific life stories and vivid experiences in the field of visiting education were explored. The process of exploring the specific experiences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sought the development of the visiting education project in the future by identifying the difficulties and obstacles they felt in the field.

Second, through research on the life history of middle-aged women born in the 1960s, the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s in Korea from the 1960s to the 2020s were indirectly grasped.

Third, basic data for migrant policies were prepared by examining how middle-aged women's life experiences are expressed in the multicultural home visiting education field and how migrant learners solve life problems.

Fourth, the visiting educators discovered the meaning of living again by talking about the life they lived through exploring the narrative of their lives and providing opportunities to talk about it again through this study.

Fifth, visiting educators and marriage migrant women continued to meet and talk through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formed a spiritual partnership to pray for each other's well-being. As such, it was discovered that establishing a relationship between immigrants and residents in Korea is a possible solution for social integration.

Sixth, this study was able to convey the life story of the researcher and our values pursued by the researcher and research participants through the exploration of the life-historical narrative of visiting educators born in the 1960s.

Key words: multicultural family, visiting educator, middle-aged woman, occupational life history, narrative exploration

## <부록 1> 심의결과 통지서

[서식 22]

# 심의결과통지서

## 인하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우) 222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전화: 032) 860-9158 email: irbedu@inha.ac.kr

연구과제명	(국문) 방문교육지도사의 타자성에 관한 생애사적 내러티브 탐색					
	(영문) An Exploring life-historical narratives on the otherness of visiting education instructors					
심의유형	<input type="checkbox"/> 정규심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속심의 <input type="checkbox"/> 초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초기보완 <input type="checkbox"/> 재심의 <input type="checkbox"/> 재심의보완 <input type="checkbox"/> 변경 <input type="checkbox"/> 지속 <input type="checkbox"/> 위반 및 기타보고					
심의일자	2022년 3월 16일					
승인번호	220221-6A					
연구자	연구 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전화번호	email
	연구자	박유현	다문화교육학과	대학원생	01095348428	ok8428@naver.com
		김영순	다문화교육학과	교수	01028077471	kimysoon@inha.ac.kr
총 연구기간	IRB 승인 후 ~ 2023년 2월 28일					
연구승인기간	2022년 3월 16일 ~ 2023년 2월 28일					
연구대상자 (취약한 연구대상자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해당함: 아래 사항에 모두 표시하고 다음 항목으로 가시오. <input type="checkbox"/> 영/소아/청소년 (미성년자) <input type="checkbox"/> 임산부 <input type="checkbox"/> 말기 환자 <input type="checkbox"/> 동의능력이 손상된 사람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시설수용자 <input type="checkbox"/> 군인 또는 유사 조직의 구성원 <input type="checkbox"/> 추감자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input type="checkbox"/> 연구기관/연구책임자/의뢰자의 피고용인(학생, 연구원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					
연구형태	해당 사항에 모두 표시하시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조사연구: 비중재적 관찰, 설문, 면담 연구 <input type="checkbox"/> 실험연구: 중재 개입 연구 (운동, 체험, X-ray 투시, 교육 등) <input type="checkbox"/> 연구대상자의 개인식별정보 이용					
<b>연구협약기관(해당하는 경우)</b>						
심의의견	※연구 수행 시 자료수집기관 혹은 부서의 자료수집 관련 절차 및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지속심의 수행해야 하며, 연구종료 후 6개월 내에 최종결과 보고 심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b>연구수행 시 IRB 직인이 있는 동의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b> (동의서면제 제외) 먼저 860-9158로 연락주시고 IRB 사무실(5남관 346호)로 제출하시어 직인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서 수량이 많은 경우, 미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된 서류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완답변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구계획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구 설명문 및 동의서					
심의결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승인 <input type="checkbox"/> 조건부 승인(시정승인) <input type="checkbox"/> 보완(재심의) <input type="checkbox"/> 반려 <input type="checkbox"/> 연구 중지 및 보류					



## <부록 2> 연구설명문 및 참여 동의서

<b>연구 설명문 및 참여 동의서</b>	
연구제목	방문교육지도사의 직업 생애사에 나타난 타자성 실천에 관한 생애사적 내러티브 탐색
연구 기관/부서 및 주소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인천광역시 미추홀로 인하로 100 서호관/ 032-860-9390)
연구자 성명, 소속 및 연락처	연구책임자: 박옥현(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박사과정)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공동연구자: 김영순(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교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연구참여권유

본 연구자는 귀하에게 [방문교육지도사의 직업 생애사에 나타난 타자성 실천에 관한 생애사적 내러티브 탐색]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시길 요청합니다. 본 설명문은 연구 참여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연구의 내용, 목적, 위험(불편감), 이익, 귀하의 정보를 포함한 자료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읽으신 후 분명치 않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 세계적인 다문화 사회화는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202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은 모두 214만 6,748명이고, 초, 중등 다문화 학생 수는 160,05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교육부, 2021). 한편 『유엔미래보고서 2050』에 따르면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경우 2050년 한국 사회의 다문화가족은 전체인구의 약 21.3%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이한샘, 2020:1).

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2007)에 따라 지역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들 중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은 가장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서 방문교육지도사는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서 초기 다문화가정이 처한 상황을 공적으로 직접 지켜보고 경험한 분들입니다. 즉 이들은 한국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소수 그룹이지만 초기 한국 다문화 사회화를 기억하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분들입니다. 이에 중요한 가치를 발견한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살아있는 교과서’로서 이들의 활동과 경험에 집중하려 합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다문화 사

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방문교육지도사의 ‘경험’ 들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 자원’ 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질적연구방법의 한 종류인 생애사를 통해 방문교육지도사의 타자성에 관한 생애사적 내러티브를 탐색하려 합니다.

## 2.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생애사적 내러티브 연구(Life History Narrative study)를 진행할 것입니다. 연구기간은 IRB 승인 이후 1년 안(2022년 3월 중순-2023년 2월 28일)이며, 이를 위해 방문교육지도사(약 5명)를 모집하고 심층면담 횟수는 2-4회 예정입니다. 연구 진행 설명과 함께 구술면담까지 소요 예상 시간은 회기별, 약 1시간입니다.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생생하고 정확하게 탐색하기 위해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인터뷰 내용을 녹음할 예정이며, 녹음된 내용은 텍스트로 전환하여 연구참여자들에게 내용상의 왜곡이나 오류 등에 대한 검토 및 수정 절차를 가질 예정입니다.

## 3. 불편감, 위험 및 이익 가능성:

본 연구에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위험과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연구참여에 소요되는 시간적 불편감을 고려하여 최대한 연구참여자의 편의에 따라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구참여가 종료된 후 소정의 사은품(1쌍 당 3만원권 문화상품권, 회기당 간식 포함)을 전해드리려고 하며,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 및 정보 등은 연구 이외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음을 밝힙니다.

## 4. 연구참여와 중지:

본 연구의 참여는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비록 연구의 진행 단계에 있다 하더라도 연구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연구참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연구참여를 중단하여도 연구참여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피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참여시까지 수집된 자료나 정보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5조(인간대상연구 기록 및 보관 등)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연구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간 보관하며, 그 이후에는 폐기됩니다. 한편 연구자의 건강 악화, 친족 부고 등 일신상의 이유로 연구정지 및 중지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유를 작성하여 각 연구참여자에게 개별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의 수집된 자료나 정보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5조(인간대상연구의 기록 및 보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연구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간 보관하며, 그 이후에는 폐기됩니다.

5. 개인 정보 및 비밀 보장:

본 연구를 위해서 연구참여자의 수업 내용 및 개인정보 등이 수집됩니다. 수집된 정보는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할 것이며, 연구자료를 타인 또는 다른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구참여자의 신원이 드러나는 기록은 절대 비밀로 보장하고, 연구결과가 출판된 경우에도 연구참여자의 신상정보는 비밀로 유지될 것입니다. 연구참여자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연구자료(개인정보, 유전정보, 인체유래물 포함)는 암호화, 익명화하여 비밀보장을 할 것입니다. 구술면담시 녹음된 파일이나 전사기록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5조(인간대상연구 기록 및 보관 등)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연구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간 보관하며, 그 이후에는 폐기할 것입니다. 연구자료는 연구자 이외는 열람할 수 없도록 암호문서로 만들어 컴퓨터에 보관할 것이며 활동자료나 소감문은 캐비닛에 넣어 보관할 것입니다. 연구의 결과가 출판되는 경우 출판물을 연구참여자 전원에게 전달할 계획이고, 연구참여자가 직접 열람을 원할 경우 학술연구 정보서비스([www.riss.kr](http://www.riss.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6. 연구 관련 문의: 연구 관련 문의는 연구자에게(24시간 연락 가능한 연락처 포함), 대상자의 권익 및 안녕에 대한 문의는 인하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032-860-9158)로 하도록 안내합니다.

귀하께서 연구참여에 동의한다면 아래 부분에 서명을 하십시오.

연구참여자 성명		서명		서명일	
연구자 성명		서명		서명일	

### <부록 3> 반구조화 질문지

방문교육지도사의 경험은 어떠한가?
방문교육지도사의 지원동기
<p>기억에 남는 방문교육지도사 경험(3개 정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교육지도사로서 특히 기억에 남는 가족 또는 학습자는 어떠한가?</li> <li>- 다문화가정 한국인 가족, 특히 남편, 시부모는 어떠한가?</li> <li>- 방문교육지도사로 활동하며 불편했던 기억은 어떠한가?</li> <li>- 그들에게 배운 점은 무엇인가?</li> </ul>
방문교육지도사에게 필요한 역량
방문교육지도사를 지속하게 하는 것
<p>방문교육지도사 이전의 삶</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시절(부모, 형제, 이웃 등과의 관계)</li> <li>- 학창시절(교사,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li> <li>- 사회생활시절(가족, 동료, 지인 등과의 관계)</li> <li>- 방문교육지도사를 하며(학습자, 기관 담당자, 동료 등과의 관계)</li> <li>- 직업 경험, 봉사 경험은 어떠한가?</li> </ul>
<p>방문교육지도사의 제도 및 생애사 관련 바라는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자</li> <li>- 학습자(다문화가족 구성원: 결혼이주여성, 한국인 남편, 시부모, 자녀 등)</li> <li>- 기관 담당자</li> <li>- 나의 가족 등</li> </ul>
방문교육지도사의 노조 결성 이전과 이후
앞으로 방문교육사업의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